

제 1 장

뉴잉글랜드에 세워진 순례자들의 첫 제단

1953. 11 - 1961. 12

The First Altar Established by the Pilgrims in New England

우리는 한반도의 배달 민족으로 미국 땅 보스톤에 옮겨 심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순례자들의 교회입니다.
아울러 잠시 스쳐가는 이들의
영혼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읽는 첫 회년 신앙고백서 중에서



간추린 시대 개관 1953. 11 – 1961. 12

뉴잉글랜드에 세워진 순례자들의 첫제단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에 위치한 보스톤(Boston)은 영국 청교도(Pilgrims)들에 의해 미국역사의 서막을 연 역사 깊은 도시이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Mayflower) 호를 탔던 그들은 보스톤 남쪽 해안가 플리머스(Plymouth, MA)에 도착하여 정착 생활의 어려웠던 첫 일 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그로부터 300여 년이 흐른 1953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따라 이곳 보스톤에 또 하나의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 바로 박대선 목사와 소수의 한인들에 의해 창립된 보스톤한인교회의 첫 예배가 그것이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보스톤한인교회 교인들은 60년 전 한반도에서 이곳 보스톤 땅에 옮겨 심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순례자이자 신앙의 선구자였다.

초기 신앙공동체는 신학자와 교수, 유학생, 정착 이민자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뉴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한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안식처였으며, 이민사회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구심점이었다. 지역사회의 모든 한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초교파 교회를 선택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으며, 초창기 목회자들의 사역과 교인들의 믿음에 의해 한인사회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타국생활의 설움과 아픔,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했던 이들 순례자들의 헌신적인 첫 제단이 있었기에 보스톤한인교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어머니교회로서 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2013년 보스톤한인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세월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초기 보스톤한인교회 순례자들의 첫 8년 신앙 여정을 간추려 본다.

A Brief Chronicle 1953. 11 – 1961. 12

The First Altar Established by the Pilgrims in New England

Boston, located in Massachusetts in the United States, is the cradle city of American history started by the Pilgrims from England. In 1620, the Pilgrims, traveling many days on the Mayflower on a trans-Atlantic voyage in search of their religious freedom, finally arrived at Plymouth, MA, a coastal settlement south of Boston. To commemorate their first year of survival and settling under extreme hardship and to celebrate God's provisions, the Pilgrims put together the first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to God. About 300 years later, in 1953, by the grace of God, another historical event took place in Boston on a Thanksgiving Sunday. A small group of Korean "pilgrims," led by the Rev. Dae Sun Park, held their first Korean Christian worship service.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KCB"). Founded 60 years ago, the KCB became the first Korean Christian church established in New England. Its founding members were the Christian "pilgrims" uproo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re-rooted in Boston, the faith forefathers of the KCB.

The early church members of the KCB consisted of Korean graduate students, professors, and theologians as well as some Korean immigrants in the New England area. The KCB started as a non-denominational Christian church to accommodate all Korean Christians of various denominational backgrounds. It was also an oasis for all Koreans living in the New England area, providing social, emotional and spiritual support, becoming the cradle for producing many leaders of Korean immigrant society in New England. It was God's great plan for KCB to have an all-embracing, non-denominational Christian church beginning, enabling the early KCB ministers and faithful members of the church to spread the Gospel to all Koreans in the area. The early Korean pilgrims' faithfulness and devotion to God, despite their hard life in a strange world full of challenges, sorrows and pains set the firm foundation for the KCB to become the "Mother Church" in the New England area.

In November 2013, the KCB celebrated the 6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With a deep sense of thanksgiving to God for all His blessings and grace in these years, the following is a brief summary of the KCB pilgrims' faith journey during the first eight years.

■ 초기 한인 이민역사와 보스턴 한인사회

보스턴¹은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미국 국가 형성의 시발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스턴을 처음 방문한 한인은 1883년 4월 황제 고종이 파견한 8명의 보빙사절단으로서, 민영익을 전권대신으로 하여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뉴욕을 거쳐 그 해 9월 보스턴에 도착하였다. 이들 8명 사절단원의 한 명이었던 유길준(당시 26세)은 보스턴에 따로 남아 첫 한국인 유학생이 되지만(The Governor Dummer Academy, Byfield, MA: 보스턴 북부에 위치한 Governor's Academy의 전신), 갑신정변으로 인해 그는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유럽을 거쳐 1885년 귀국하였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1903년 시작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이민으로 1905년까지 총 7,200여 명이 도착하였다. 이 첫 이민단에는 안창호, 이승만 등 다수의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시까지 약 900여 명의 유학생이 추가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1907년 이승만(초대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기록을 비롯하여 1910년대에는 하와이 초기 이민의 자손들(양유찬, 김계봉)의 보스턴 유학이 이어졌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본과 미국에 의해 막혔던 미국으로의 유학 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중국을 통해 망명 혹은 출국하여 여권도 없이 도미한 신도(新渡) 학생들도 있었다.² 그후, 1924년 김활란이 보스턴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록이 있고, 1930년대에 들어서는 다수의 유학생들이 주로 기독교 단체의 후원으로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등에서 수학했으며, 이 중 몇 명은 보스턴한인교회를 창립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1940년대에 미국 내에 거주하던 한국인 총수는 약 8,500여 명으로, 본토 1,711명과 하와이 6,851명으로 집계되었다.

해방 후 195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인이 미국에 이주해 오는 경우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³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부터 1964년까지 한국인의 미국 이민자 수는 약 15,0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주한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오게 된 6,000여 명의 전쟁신부(War Bride, 戰爭新婦)와 5,000여 명의 전쟁 입양아들, 그리고 3,000여 명의 유학생들이었다.⁴ 이 중 어느 정도의 한국인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통계가 없다. 보스턴에도 적은 수의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경로로 정착하게 되는데, 주로 직업훈련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나 시찰을 목적으로 한 대학처장, 교육차 체류하는 목사, 그리고 유학생 등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1953년 7월 한국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인의 미국 이주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52년의 맥카렌-월터 이민법안(McCarran-Walter Immigration Act)의 발효와 함께 한국은 최초로 연간 100명의 이민쿼터를 부여받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미국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구입이나 노후연금 혜택도 없었고, 인종 차별로 인해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었으며, 백인과의 결혼 금지 등의 많은 백인우월주의를 감내해야 하였다.⁵ 1965년 새로운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한 가지 길

은 유학을 위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1967년까지 총 6,368명이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의 어려웠던 한국 사정으로 인해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도 돌아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약 94%) 귀국하지 못한 채 미국에 남게 되었다. 이들 유학생 출신의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고급인력을 구성하게 되면서, 초기 한인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미국 이주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 말부터는 전쟁부인들과 더불어 가족 초청의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다.⁶

■ 2차 세계대전 후 두 번째로 세워진 보스턴한인교회

미국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 역사는 1903년 하와이 노동 이민과 함께 시작되었다. 처음 도착한 이국 땅에서의 힘든 삶 속에서 이들은 뉴잉글랜드의 필그림처럼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공동체 속에서 고된 일상을 버텨나갔다. 도착 6개월 만인 1903년 7월 하와이 오아후 섬 모쿨리아 플랜테이션(The Mokuleia Plantation, O'ahu, HI)에서 첫 예배를 드린 한인들은 그 후 10년간 한인교회 수를 39개로 늘렸고, 교인수도 2,800명 가량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와이에서의 첫 교회 창립 이후 한인교회는 미국 본토에서도 계속 세워졌고, 라성감리교회(1904년), 상항한인감리교회와 라성한인연합장로교회(1905년), 오클랜드감리교회(1914년), 리들리(Reedley)장로교회(1938년)와 시카고한인감리교회(1919년), 뉴욕한인교회(1921년), 라성한인감리교회(1924년) 등이 세워졌다. 이외에 다수의 작은 한인교회들이 이민자들의 이동과 함께 세워졌다가 없어지기를 거듭하여,⁷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집계된 기록에 의하면 미국 내의 한인교회는 총 50개에 이르렀다. 한인 미국 이민사의 첫장을 함께한 초기 한인교회는 한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제단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모임의 장소이자 이민자들의 진정한 안식처였다. 한인교회는 또한 초기 이민사회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중대한 역할을 했으며, 조국의 광복, 2세 교육, 한인사회 유지 발전을 위한 구심점 등을 제공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가 창립된 1953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함께 3년을 끝낸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이 분단되는 민족적 고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에 세워진 와싱턴한인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보스턴한인교회는 창립부터 1974년까지 약 20년간 뉴잉글랜드의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한인들을 위한 신앙공동체를 이끌어 왔고,⁸ 본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회자와 석학들을 통해 여러 지역교회를 세우게 한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1953년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쌓은 순례자들의 첫 제단: 박대선 초대목사

보스턴한인교회는 박대선 초대목사와 발기위원 안승화 장로, 김성하, 김술근, 김정옥, 박관두, 박돈욱, 이동일, 추애경에 의해 창립되어, 1953년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2시에 보스턴대학교의 Marsh Chapel 아래층에 있는 Robinson Chapel에 약 40여 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다.⁹ 박대선 목사는 보스턴한인교회가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창립일로 정한 이유를 “11월 셋째 주일은 감사주일로서 한

1. Boston은 외래어 표기법상 '보스턴'으로 표기하나, 본 교회의 교유 명칭은 창립 당시부터 '보스턴'으로 되어 있어, 본서에서는 '보스턴'으로 통일하였다(예외, 고유명사 '보스턴대학교' '보스턴한인회' 등).

2. 1924년 발효된 동양인 배척법, The Oriental Exclusion Law, The National Origins Quota Act, 으로 인해 하와이 이주는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3. 기록에 의하면 1950년 - 10명, 1951년 - 32명, 1952년 - 127명, 1953년 - 115명, 1954년 - 254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4.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Annual Reports, 1950 - 1964.

5. 1954년 미국대법원은 Brown v. Board of Education 케이스를 계기로 공립학교에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segregation)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10년 후인 1964년에 이르러서는 The Civil Rights of 1964에 의해 모든 주에서 Segregation을 불법화하게 되었다.

6. 기독교일보, 한인이민사 1924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인이민, www.atkdaily.com, 2012.

7. 김원용, 재미 한인 50년사, 혜안, 2004.

8. 백린, 뉴잉글랜드의 한인교와 보스턴한인교회 - 보스턴한인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필그림, 보스턴한인교회, 1993.

9. 김성하, 50년대 보스턴 한인 사회, 한빛 - 신앙과 문화, 제2호, 한빛교회문화부, 1986년 11월.



Marsh Chapel, Boston University
735 Commonwealth Ave., Boston, MA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시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날을 택한 것입니다”라고 회고담에 적고 있다. 뉴잉글랜드가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보스턴에 세우는 첫 한인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기해 창립예배를 드린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다. 또한 미국의 문화 및 사회적 중심도시이자 하버드대학교, MIT, 보스턴대학교 등 유명대학들이 집결한 교육도시인 보스턴에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인들에게 또 다른 큰 의미였다. 창립 당시 박대선 목사는 젊은 한국인들, 특히 장래성 있고 우수한 한국 유학생들이 보스턴을 많이 찾을 것은 미리 내다보고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 모로 큰 뜻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교회 명칭을 정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당시의 여건으로는 감리교단에 가입하면 초창기의 다른 한인감리교회와 마찬가지로 미국감리교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감리교 소속인 박대선 목사가 솔선하여 제안한 초교파 교회, 즉 교파와 상관없이 모든 한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한인교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교파를 명시하지 않은 명칭 ‘보스턴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로 명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¹⁰ 교회 집회 장소는 보스턴대학교 신과대학에 연결되어 있던 Marsh Chapel 아래층 Robinson Chapel이었는데, 주일 오후 2시에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예배 후 모임을 위한 지하 라운지와 식당 사용도 허가받았다. 예배 장소가 정해지기까지 박대선 목사의 노력과 보스턴대학교 신과대학장이었던 Walter G. Muelder 박사의 도움이 컸다.



Marsh Chapel 아래층에 위치한 Robinson Chapel

창립예배를 위해 보스턴 및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초청장은 보스턴 근처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도시에 설립된 6개 한인교회¹¹에도 발송되었으나 미국 내에서도 먼 거리 여행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비교적 보스턴 가까이에 위치했던 뉴욕한인감리교회의 윤응팔 목사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창립예배에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인을 비롯하여 천주교 및 불교 신자와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초청받은 한인들 대부분(약 40여 명)이 참석했고,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던 만큼 한인들 모두가 참석한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다. 초청장과 예배 순서지를 만드는 일은 김성하가 맡아서 진행하였고, 예배순서는 박대선 목사가 인도했고, 뉴욕한인감리교회의 윤응팔 목사가 축사를 해주었다.

박대선 목사는 창립예배시 “보스턴 성좌”(마 2:7-1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서에 나오는 별 이야기를 시작으로 북극성, 금성, 북두칠성, 유성 등 갖가지 별의 특성에서 얻는 교훈을 한국인으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는 북두칠성과 같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가 서로 단합하고 단결해서 힘을 합할 때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가 사는 세계는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캄캄한 밤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어두운 밤을 비치는 하나의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 보스턴한인교회가 위치한 Marsh Chapel이 비교적 찾기 쉬웠고, 한인사회의 유일한 정기 모임이었기에 예배 후 친교시간은 자연스럽게 한인들의 일반 모임 장소가 되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한국 음식을 먹고 고국 소식 등을 전하며 계속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당시 보스턴에 거주하던 한인의 수는 많지 않아 모두가 족처럼 지냈고, 보스턴한인교회는 그들 모두에게 종교를 떠나서도 친교장소였다. 당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예배의 참석인원 수는 계절에 따른 변동으로 매번 30-40명이 모였고, 3.1절 기념예배와 같은 특별행사 때는 100여 명이 넘어 예배장소가 좁을 때도 있었다. 초창기부터 보스턴한인교회의 사무와 한인회 총무직을 맡았던 김성하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의 통지 및 특별한 한인 모임 광고까지 혼자 작업하였고, 그 문서들을 보관해왔으나, 1956년 그가 잠시 보스턴을 떠났을 때 맡겨둔 기록이 분실되면서 아쉽게도 보스턴한인교회 초창기 3년의 기록 문서가 없어졌다. 1962년까지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모여 드렸던 주일예배가 1963년 4월부터 한 달에 두 번 드리게 되었고(둘째, 넷째 주일 오후 2시), 창립 후 11년이 지난 1964년부터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 교회 창립 준비과정과 초창기 교인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학 오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또한 국무성 초청으로 연구차 오는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보스턴에 모이게 되었다. 특히 1954-1965년 사이에는 하버드대학 엔칭연구소의 교환교수로 초빙된 석학들이 매년 2-3명씩 일 년간 다녀가면서 한인사회와 보스턴한인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1952년 하버드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던 서두수(초대 한인회장)가 중심이 되어 첫 보스턴 한인회가 발족된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인 1953년에는 하버드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던 조자룡(前 서울 에밀레 박물관장)이 한인학생들을 규합하여 ‘보스턴 한인학생회’가 시작되었으며, 그해 10월에는 43명의 명단이 실린 ‘보스턴시 급 부근거주 한인명부(보스턴市 及 附近居住 韓人名簿)’가 발간되었다. 서두수가 한인회 일을 보는 3년 동안 한인회 명부가 매년 작성되었는데, 한인명부에 등록된 한인 수는 1954년에 120여 명, 1955년에 155명에 이르렀다.¹²

같은 시기인 1952년 보스턴대학교로 유학을 오게 된 감리교 계통의 박대선 목사는 당시 보스턴에 이



안승화 장로/김정욱 맥 (2012년 모습)
67 Symphony Rd. Apt.1, Boston, MA

당시 유일한 개인 주택 소유자였던 김태술/추애경 내외는 오랜 기간 보스턴 지역 한인들에게 여러 형태로 도움을 주는 쉼터/자모 역할을 하였다.

- 김성하 회고문 중에서
(50년대 보스턴 한인사회, 1986. 11)

10. 박대선, 보스턴한인교회의 창설, 필그림 2003, 보스턴한인교회, 제25권 통권 28호, 2004년 3월.

11. 하와이한인감리교회, 라성한인감리교회, 라성한인연합장로교회, 시카고한인감리교회, 상향한인감리교회, 뉴욕한인감리교회.

12. 뉴잉글랜드 미주한인 이민 백주년기념사업회, 뉴잉글랜드한인사, 선학사, 2004.



추애경/김태술 부부 집 뒤뜰에서의 창립멤버 앞줄 모자 쓴 이가 김태술, 그 왼쪽이 서두수, 뒷줄 왼쪽 세 번째부터 추국희, 박돈욱, 추애경, 안승화 장로와 부인 김정옥 (사진 제공: 추국희)



추애경/김태술 댁 (현재 모습) 26 Bailey Rd, Watertown, MA

미 정착한 이민자들(네 가정)과 교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 창립을 준비하는 모임을 1953년 여름부터 시작하면서, 서두수의 자택과 안승화 자택에서 여러 번의 준비모임을 가졌다. 1953년 10월 안승화 자택에서의 마지막 모임 명단을 보면 추애경, 이동일, 조자룡, 박돈욱, 박관두, 박대선, 서두수, 안승화, 김성하로 1920년대에 보스톤에 제일 먼저 정착한 네 가정인 추애경/김태술, 박돈욱, 김술근, 안승화 장로/김정옥 모두가 교회 창립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준비에 참여했던 창립멤버들의 구성으로 당시의 보스톤에 정착한 한인들의 면모와 초기교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추애경/김태술: 추애경은 대구 출신으로 이화학당 재학시 3.1운동에도 참여하였다. 1924년 선교사의 추천으로 보스톤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1933년 졸업하였다. 오랫동안 보스톤을 지나가는 한인들과 학생들을 대접하는 어머니 역할을 했고, Ruth Kim이라는 필명으로 1968년 “The Family of Chung Song”이란 실화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¹³ 초창기 예배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다른 독창자들과 함께 예배를 도왔다. 1973년 1월 소천했을 때 보스톤한인교회는 조화를 보냈다.

- 남편 김태술(Homer Kim) 역시 3.1운동의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로서 연합장로교회의 후원으로 1923년에 도미하여 1926년 시애틀 워싱턴대학을 졸업하고, 1929년 MIT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1926년 추애경과 결혼한 후 1930년대까지 한동안 부인 추애경과 함께 뉴욕한인교회에 출석하였다.

미국 경제대공황 때 동양인 차별로 인해 GE에서 퇴직 당한 후, Nanking Food Product Co.라는 중국 요리재료 생산공장을 차려 크게 성공하였다. 당시 유일하게 개인주택을 소유했던 관계로 보스톤 한인들의 모임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오는 정부인사들을 대접하는 장소로도 쓰여졌다. 한인들에게 많이 베풀었던 이들 부부는 1947년 뉴욕한인교회 재건 모금에 \$200을 헌금했고, 같은 해 4월 보스톤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손기정, 남승용, 서윤복)에게도 \$1,000을 희사한 바 있다. 아들 Dr. Samuel Kim은 보스톤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소아외과 과장이었다.

- 박돈욱(Donald Park): 하와이를 거쳐 1920년 보스톤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한국인으로 평양대성학교 출신이다. 1953년 당시 60세가 넘었던 그는 김태술과 함께 중국 요리재료 생산공장을 경영하였다.

- 김술근(Young S. Kim, 별명 Sergeant Kim): 1893년생으로 평양송실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1921년 도미하여, 1932년 하버드대학에서 천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음악부원과 건축위원으로 봉사하였다. 1942년 미군에 자원입대할 당시 교회에 \$200 상당의 피아노를 기증하였다. 1946년 제대 후 다시 보스톤으로 돌아온 그는 뉴잉글랜드 전기회사에 근무하며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다 1978년 작고하여 보스톤 브루클라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상당액인 \$5,000(1986. 4. 13)이 본 교회에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 안승화 장로/김정옥: 안승화는 1925년 일제시대 당시 유일한 도미 경로였던 중국을 통해 중국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였다. 숭실전문(崇實專門)과 Columbia University를 졸업한 그는 1930년대 뉴욕에서 Ahn Seung Hwa Co.라는 동양식품회사를 경영하면서 뉴욕한인교회 교인으로 이사회 재정위원이기도 하였다. 1940년대 말에는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끌던 한인 기독교계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1952년 보스톤에 정착하면서 보험회사 외판원 일을 시작하였다. 창립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보스톤 시내 아파트를 모임장소로 제공한 그는 창립 당시 유일한 장로였는데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 김성하: 1952년 9월 보스톤에 도착한 그는 서울 문리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보스톤대학교 문과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이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던 서두수 교수의 사위이자 안승화의 처남이기도 한 그는 초기 한인교회 사무와 한인회의 총무일을 맡아 많은 일을 하였다. 1953년부터 하버드 엔칭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1958년 엔칭도서관 한국관 초대관장을 역임했으며, 1958-1960년까지 보스톤 지역 한인회장으로 활약하였다.

- 서두수: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졸업한 한국어 학자로 Columbia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던 중 초대 보스톤 한인회장 직을 역임하였다. MIT 교수를 거쳐, 한국 KAIST 총장을 역임한 서남표 박사의 부친이다.

- 박관두: 하와이 이민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그는 당시 52세로 MIT 토목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 이동일: 박대선 목사와 같은 Crusade Scholarship으로 1953년 보스톤에 도착하여, 보스톤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유학 전 동대문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했다는 기록이 있다.

- 조자룡: 하버드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기 위해 1952년 도착했고, 1953년 한인학생들을 규합하여 한인학생회를 시작하였다. 민속신앙 및 민족문화 연구에 심취했던 그는 귀국 후 1967년 사립 민속 박물관인 에밀레 박물관을 세우며 많은 활동업적을 남겼다. 도깨비박사로 불리던 그가 2000년 타계하면서 에밀레 박물관도 문을 닫았다.

창립멤버 중 3명이 3.1운동에 가담하여 고난을 겪었고, 3명은 사업으로 성공하여 재정적인 여유를 한 인사회와 초기 이민교회에 기여하였다. 모두가 당시의 한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으며, 이들 중 4명(김태술, 추애경, 김술근, 안승화)은 보스톤에 오기 전 뉴욕한인교

13. 안창수, 보스톤지역 한인사회의 발전 (1), 지평선 창간호, 뉴잉글랜드 지평선 동우회, 1994년 7월.

회의 교인이며 지도자였다.¹⁴ 안승화 장로는 워싱턴 지역 한인 초기이민교회 및 한인사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신학자 겸 교육자이기도 했던 초대 박대선 목사는 부친과 조부가 3.1운동에 참여한 관계로 일본에서는 제약적인 삶을, 공산치하에서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였다. 이러한 창립멤버들의 개인적인 신앙여정은 초기 보스톤한인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53년은 한국전쟁이 휴전되면서 남북한의 대립, 민족적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해로 미국에 체재하고 있던 모든 한국인들은 불안한 가운데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창립멤버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첫 순례자의 길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 다른 경로로 보스톤에 보내심을 받은 선택된 이들이었다.

박대선 초대목사의 생애

박대선 목사는 1916년 경북 의성에서 출생하여 일본 선교사로 파송된 부친을 따라 일본에서 초중등과정을 마치고, 관서학원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조부인 박영화 목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경북지방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고, 부친인 박상동 목사 또한 대구 계성고보 2학년 재학중 3.1운동에 참가하여 옥살이를 하였다. 청년 박대선은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중, 고등교원 면허증을 딴 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하려는 꿈이 있었으나, 일본정부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아 관서학원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여 1942년 졸업하였다.



박대선 초대목사
(1916-2010)

8.15해방 후 평양성화신학교의 전신인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의 교감으로 취임했으나, 3일 후 부친이 선교사였다는 이유로 강제 퇴직을 당한 후, 감리교 평양교구장으로부터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게 된다. 4대째 장로교 교회를 섬기던 집안이었기에 선뜻 내키지 않은 행보였다. 그러나 감리교의 행정체제 및 신학적 해석에 수궁이 가는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락하게 된다. 1945년부터 그는 감리교 재단 성화신학교에서¹⁵ 교편을 잡아 주로 구약과목을 강의하였다. 1950년에 접어들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 문교당국이 강요하는 평양신학교와 성화신학교 합병을 거부하다가 당국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제자의 도움으로 구속 직전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피신한다. 공산치하에서 세 번의 혹독한 감옥살이를 했고, 1951년 1.4후퇴시 월남하여 이승만 정부의 최초 군목으로 또 감리교 대표로 육군에서 2년간 복무하였다.¹⁶

1952년 가을 미국 감리교 본부 Crusade Scholarship 시험에 합격한 그는 그 해 9월부터 보스턴대학교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했고, 이듬해인 1953년 11월 여러 현지 한국인들과 함께 보스

톤한인교회를 창립하게 된다. 1955년 6월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기까지 보스톤한인교회를 이끌어 나갔다.

귀국 후 1964년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피선되어 4, 5, 6대 총장을 지냄으로 연세대 역사상 가장 오래 역임한 총장이기도 한 그는 반독재 시위에 가담했던 교수나 학생들을 한 번도 중징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교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상당수의 그들을 복직, 복학시켰다는 이유로 결국 1975년 정권 압력에 의해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후에 서울 광화문 감리교회에서 목회했고, 감리교 동부연회 초대감독을 지냈으며, 그 외 한국기독교학교 연합회장, 한국기독교학생회 이사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대한 YMCA연맹 및 서울 YMCA 이사장, 한국선명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박 목사는 수차례에 걸쳐 본 교회 창립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창립목사로서 설교한 바 있고, 창립 50주년 되던 2003년에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본교회 필그림에 기고한 바 있다. 2010년 4월 94세로 소천한 박대선 목사의 장례는 연세대학교 학교장으로 치러졌고, 유족으로 3남 1녀, 영기(연세대 명예교수), 태기(모퉁이돌교회 목사), 애나, 성기가 있다.

교회 창립 당시의 한인사회

본 교회 창립 멤버의 일원인 김성하의 회고 기록¹⁷을 보면, 당시 보스톤에 도착한 이들은 대부분 미군 소속의 군함을 타고 도착지도 모른 채 그저 미국을 향해 부산항을 떠나 빠르면 2주, 늦으면 1달이 걸려 시애틀에 도착한 후 다시 동쪽으로 오는 기차를 1주일 정도 더 타고 나서야 겨우 보스톤에 도착하였다. 약 1달여 간의 긴 여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오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1960년대 보스톤한인교회 1년 예산이 \$90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950년대 초 \$450의 뱃삿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더욱이 항공편으로 미국에 오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이렇게 보스톤에 도착한 한인들은 대부분 재정적인 이유로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추애경/김태술 자택, 좌측부터 미국 작가(이름 미상), 한사숙, 추애경, 황세손 이구, 추국희(사진 제공)

1952년부터는 많은 석학들이 연청연구소의 교환/초빙교수로 보스톤에 도착하게 되는데, 박대선 목사의 기록¹⁸과 백린 장로가 보스톤한인교회 40주년에 기술한 뉴잉글랜드 한인사¹⁹에 의하면 그 가운데는 고려대 총장을 지낸 유진오, 김준엽 박사,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유기천, 윤천주 박사, 연세대 의과대학교 수 민광식과 박종무 박사,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낸 임의선 박사, 연세대 치과 대학장을 지낸 김귀선 박사, 민영규 교수, 고려대 김정학 교수, 이화여대 박용구 교수, 서울대 김재근 교수, 하버드에서 박사와

14. 뉴욕한인교회 역사편찬위원회,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 뉴욕한인교회 70년사, 뉴욕한인교회, 김은샘, 1992.

15. 평양 성화신학교는 우수한 젊은 신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곳으로 원래 감리교계의 학교이나 많은 장로교인들 역시 수학했던 곳이다. 박대선 목사의 뒤를 이어 본교회 시무를 맡았던 함성국 목사(보스턴대학교 신학박사), 이계준 목사(에모리대 신학박사), 한승호 목사(보스턴대학교 신학박사) 역시 이 학교 출신이며, 미국 장로교 세계 선교 부총무를 지낸 유니온신학교 교수인 이승만 목사(시카고 종교사회학 박사) 또한 이 학교 출신이다.

16. 박대선, "나의 나 된 것은", 보스톤강단 제2집, 홍근수 엮음, 보스톤한인교회, 1986.

17. 김성하, "50년대 보스톤 한인 사회", 한빛 - 신앙과 문화, 제2호, 한빛교회문화부, 1986년 11월.

18. 박대선, "보스톤한인교회의 창설", 필그림 2003, 보스톤한인교회, 제25권 통권 28호, 2004년 3월.

19. 백린, "뉴잉글랜드의 한인교와 보스톤한인교회 -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필그림, 보스톤한인교회, 1993.



한인학생회 모임. 뒷줄 우측 두 번째 김성하; 중간줄 좌측 두 번째부터 서두수, 서상범, 맨 우측 서봉균, 앞줄 좌측부터 Miss Park, 이정선, 추국희, Mrs.최시환, 하나 건너 한사숙.



보스턴한인교회 공식 창립 이전부터 예배와 친교모임을 가졌던 한인들

정을 밟던 전해종 교수, 서울대 피천득 교수 등이 있었다. 수학 중에 있었던 이들은 하버드 법대의 고광림 박사, 보스턴대학교의 전해성 박사(고광림의 부인), 하버드 대학원생 최기일 박사 외 2-3명, Crusade Scholarship으로 온 이동일 선생, 그리고 MIT 건축학과의 이구(영친왕의 아들) 등이 있었다. 보스턴에 정착해 살던 한인들은 하버드에서 강의하던 서두수 교수, 보스턴대학교 신과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던 김광원 박사(후에 보스턴한인교회 목회), 하버드 부설 Forsyth Dental Center에서 연구하던 김영호 박사(후에 본 교회 이사장 역임) 등이 있었다.

한편 초대 한인회장으로 많은 한인사회 일을 도맡아 하던 서두수가 1955년 시애틀 워싱턴대학으로 떠나게 된다. 그의 뒤를 이어 고광림(1955-1957), 김성하(1958-1960) 등이 한인회장 직을 이어갔고, 김성하 회장이 보스턴을 떠난 이후 한동안 한인학생회가 한인회 일도 함께 맡았다. 그러던 중 1965년 뉴욕 총영사관의 건의로 최영화(Tufts University)를 한인회장에 추천, 재출범하게 되었는데,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절실한 필요성 때문이었다.²⁰

■ 보스턴한인교회 창립 이전의 활동 기록

교회 창립 예배가 있었던 1953년 11월 이전의 상황들이 적혀 있는 노트 기록에 의하면, 1953년 2월부터 몇몇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며 여러 형태의 헌금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명칭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창립 멤버와 당시 초창기 출석 교인들의 이름은 물론 그들의 경조사 등도 날짜와 함께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초교파 보스턴한인교회의 의미

초교파 독립교회로 창립된 보스턴한인교회의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창립위원들은 감리교 쪽을 선호하였다. 창립 당시 미국 내에 6개의 한인교회 중 로스앤젤레스 한인장로교회를 제외한 5개의 한인교회(하와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가 모두 감리교회였고, 이들 5개 교회는 미국 내에 제일 큰 교단이었던 감리교단으로부터 많은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박대선 목사도 감리교단 소속이었던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대선 목사는 교파에 상관없이 모두가 협력하는 사회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만장일치로 초교파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년	월	일	내용
53	2	2	최기일 목사 총주요 명원 위문 유 297
	2	5	고광림 씨 자선 헌금
	5	7	박관수 씨 감사 헌금
	5	10	조자용 씨 특별헌금
	5	19	홍수환 씨 사례금 (유 25.00) (?)
	6	19	고영희 씨 명원 위문
	9	15	홍수환 씨 명원 위문
	12	28	김화진 씨 무권 헌금, 오영금 헌금
	11	23	윤수환 씨 위문
	12	24	안승희 씨 위문
54	2	7	고광림 씨 유년
	6	4	박봉남 씨 감사 헌금
	4	27	노영희 씨 오영금 헌금
	11	25	최한자 씨 오영금 헌금
	12	4	원정헌금 유 13.00 바림 <부친명단> 오영금 박봉남 한승근 고광림 김승근 박시영 최관익 원정헌금 유 유년
55			

초기 교회 연혁

교단에 관계된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미연합장로교(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는 1959년 전까지는 “외국인으로 미국에 와서 자기들의 말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할 수 없고, 누구를 막론하고 장로교회당에서는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선교정책을 고수하여 대부분 장로교회 배경을 가진 한인교회들이 미국 장로교회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초교파나 감리교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였다. 그러나 1959년에 이르러 미연합장로교 총회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장로교인들은 교회당을 빌려서 자기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다”는 정책을 택한 후 미 전역에 장로교 계통의 한인교회들이 늘어났다.²¹ 4대째 장로교 집안이었던 박대선 목사를 비롯하여 1953년 당시 보스턴 지역의 많은 한인들이 장로교 소속이었지만, 미국 장로교단의 이러한 선교정책 또한 초교파 교회를 지향함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보스턴한인교회보다 2년 앞서 세워진 와싱턴한인교회의 경우 1951년 창립 과정에서 김태묵 목사가 National Presbyterian Church의 엘슨(Ellson) 목사를 만나 교회 창립의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엘슨 목사는 현지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권고했고, 오히려 소수민족 교회의 장래성 자체를 의문시하였다.²²

교단과 교회 명칭은 향후 보스턴한인교회의 나아갈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미국 감리교단의 든든한 지원을 포기한 채 모든 한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초교파 독립교회로서 출범한 것은 당시의 교인 숫자나 재정적으로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학업에 바쁜 학생들과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교수들, 다양한 배경의 신학자들로 구성된 보스턴한인교회는 1985년 미국 장로교 Presbyterian Church(USA)에 가입하여 교파를 정하기까지 오랜 기간의 연단을 거쳐야 하였다. 비록 교회 유지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창립 초기 모든 교인들은 정성껏 교회를 섬겼고, 교파를 초월한 교회는 보스턴을 거쳐가거나 정착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하나의 큰 열린 신앙공동체 및 한인사회의 구심점을 제공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60주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많은 보스턴한인교회의 옛 교우들은 어려운 가운데 함께 드린 예배와 찬양, 교육, 봉사, 한인사회와의 관계 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또한 보스턴한인교회를 자신들의 영원한 어머니교회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고 교회의 유지, 경영 등을 고려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개의 감리교회에 또 하나의 감리교회의 간판을 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 지역만 타향에 와서 사는데 여기 와서까지 감리교다 장로교다 하고 경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와서는 교파 냄새를 내지 말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와 조직을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 박대선 목사 회고 중에서

■ 1954년 11월 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

1954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가 있었다. Watertown 소재 추애경/김태술 자택 뒤 정원에서 옥외예배로 가졌는데, 이날 첫 예배장소를 제공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호의를 보여 주었던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장 Walter G. Muelder 박사도 함께 참석하였다.



창립 1주년 기념예배 추애경/김태술 자택 뒤 정원

20. 편집자註: 1950년 당시의 사진을 제공해 준 추국희 교수(당시 유학생, 現 뉴욕 거주)는 창립멤버의 일원인 추애경의 조카인 동시에 본 교회 박기춘 권사의 스승이다.

21.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와싱턴중앙장로교회 30년사, 2003.
22. 와싱턴한인교회, 생명의 샘터: 와싱턴한인교회 60년사 1951-2011, 2012.

■ 보스턴대학교 Marsh Chapel과 신학대학장 Walter G. Muelder



Walter G. Muelder (1907-2004)

감리교 계통의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에 속해 있는 Marsh Chapel은 캠퍼스 교회로서 에큐메니컬(ecumenical)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창립 당시 보스턴대학교의 신학생이었던 박대선 목사는 교회 예배장소 물색중 Muelder 학장을 만나 한인교회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때 “좋은 착상”이라고 격려하며 Muelder 학장은 흔쾌히 Marsh Chapel 아래층 기도실인 Robinson Chapel과 신학대학 라운지 및 식당을 주일 오후 2시부터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1965년 9월 서한에서도 교내의 Oxnam Lounge를 매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예배 후의 fellowship을 위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허락하고 있다. 박대선 목사는 그의 회고기록에서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실과 모든 것을 갖춘 시설을 쓸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보스턴한인교회는 1955년부터 1957년 사이에 두 번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었으나, 1958년 다시 Marsh Chapel로 돌아가 1967년 9월에 브루클라인의 현재 위치로 옮기기까지 10년 이상을 Marsh Chapel에서 예배드렸다. 대부분 아래층에 있는 기도실(Robinson Chapel)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때에 따라 위층 본당(Marsh Chapel)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Walter George Muelder 박사는 1945년부터 1972년까지 27년간 신학대학장을 역임한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평화주의자이며, 교회일치운동 및 World Council of Churches(WCC)에 많은 업적을 남긴 석학이다.²³ 독일인 감리교회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중언어를 써야 하는 이민교회의 특수한 도전을 잘 이해했던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스승으로 비폭력 사회정의 구현에 영향을 준 교수로도 잘 알려져 있다. 78세 되던 1985년, 본교회 32주년 기념예배의 설교자로 초청되기도 했던 그는 “순례자들이 받는 유혹”이란 설교 말씀을 통해 보스턴한인교회는 그 처음 뿌리가 보스턴대학교와 함께 시작되었고, 한 감리교 대학원생이 한국학생과 그 가족, 또 다른 예배자들을 목회할 소명감에서 교회가 창립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또한 순례자의 교회로서 새로운 미국사회에서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구주 예수에게 재헌신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억압받는 자들의 문제를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중요한 사역으로 맡아주기를 권유하였다. 이날의 설교 전문은 번역되어 1986년 보스턴 강단 2집에 실렸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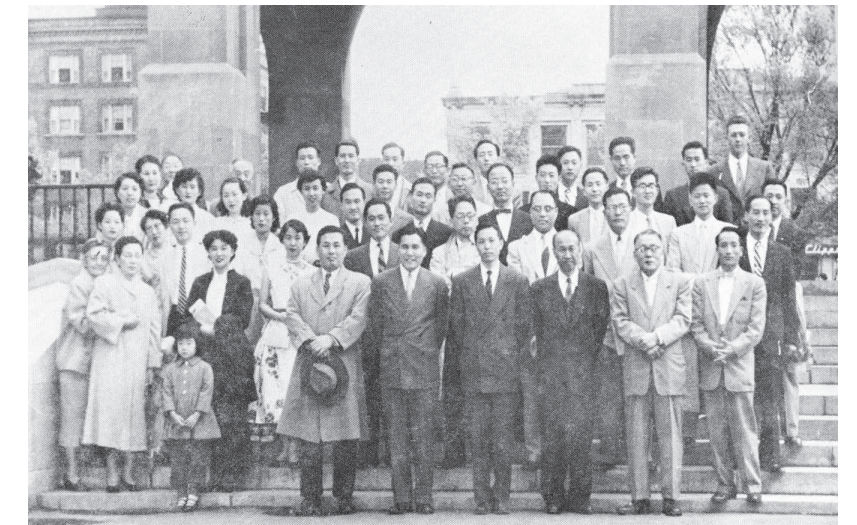
■ 1955년 3.1절 기념예배와 광복절 기념예배

교회 창립 2년 후인 1955년 보스턴대학교의 Marsh Chapel에서 박대선 목사의 집례로 1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함께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는 보스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최초로 가진 국가적인 기념 예배이기도 하였다. 예배 후 찍은 전체 기념사진을 보면, 앞줄 왼쪽에 모자를 든 이가 고향립, 그 오른쪽이 박대선 목사, 박대선 목사의 바로 오른쪽 뒤가 서두수, 앞줄 오른쪽 끝이 김영호, 그 왼쪽이 김술근, 왼쪽 두 번째 안경 쓴 이가 추애경, 맨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박돈욱 등 여러 창립멤버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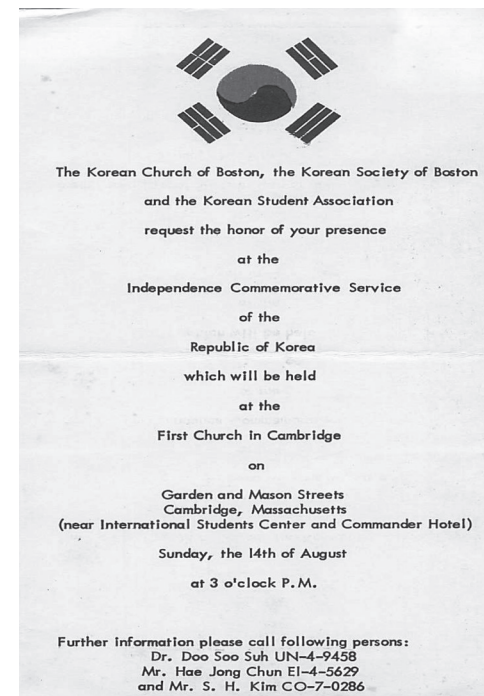
23. 사진출처: 보스턴대학교 도서관

24. Walter G. Muelder, “순례자들이 받는 유혹,” 보스턴강단 제2집, 홍근수 엮음, 보스턴한인교회,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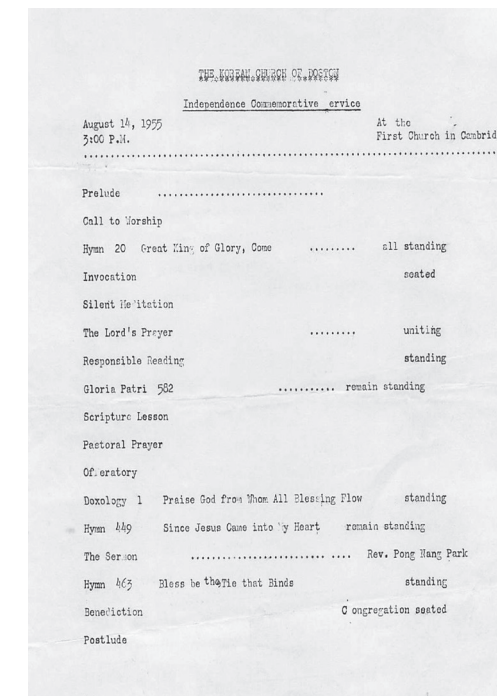
같은해 1955년 8월 14일에는 광복절 기념예배를 케임브리지제일교회(First Church in Cambridge)에서 박봉량 목사의 설교와 함께 드렸는데, 보스턴한인교회, 보스턴한인회, 한인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큰 행사였다. 초청장 전문은 영어로 되어 있고, 태극기는 color로 5x9인치 사이즈로 인쇄되어 있다. 초청장은 반으로 접어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당일 사용된 예배 순서지 역시 영문타자로 프린트되어 있다. 당시 보스턴한인교회 창립멤버이자 한인회장이었던 서두수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고, 보스턴한인교회 연락처는 역시 창립 멤버인 김성하로 되어 있으며, 한인학생회의 연락처는 하버드에서 수학 중이던 전해중으로 되어 있다. 등사기가 보편화되기 이전 모든 예배 순서지가 100% 손으로 쓰는 수작업에 의존했던 당시에 이렇게 타자기로 준비하고 컬러 프린트까지 한 초청장 준비에는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다. 초청장의 특이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태극기의 건곤감리(乾坤坎離) 사괘(四卦)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당시의 전화번호 표기방식이 두 글자와 다섯 숫자의 조합인 점도 특이하다. 또한 초기에는 많은 기록들이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초청장에는 Korea Church of Boston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박대선 목사와 교우들
3.1절 기념예배 후 Marsh Chapel 앞 (1955)



광복절 기념예배 초청장 (1955)



광복절 기념예배 순서지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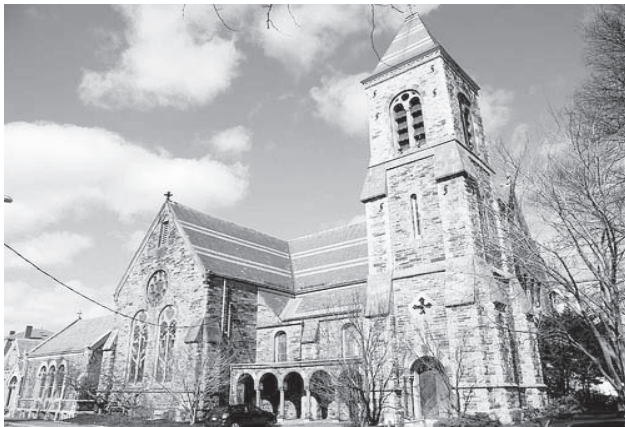
▣ 박봉량 목사 시무 1955-1956 : 예배장소를 케임브리지로 이전



박봉량 목사 (1918-2001)

보스톤한인교회의 박대선 창립목사가 1955년 6월 보스톤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함에 따라, 8월부터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박봉량 목사(Rev. Pong Nang Park)가 1956년 12월까지 시무하였다. 예배 장소도 목회자를 따라 하버드대학교 정문 북쪽에 위치한 케임브리지제일교회로 옮겼다. 그후 1955년 8월 광복절 기념예배도 이곳에서 드렸다. 그동안 예배드리던 Marsh Chapel에서는 북쪽 Charles River를 건너 약 3마일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MIT에서는 약 2 마일 정도의 거리여서 학생들의 예배 참여가 더 용이해졌다.

박봉량 목사의 회고편지를 보면 당시 예배장소를 옮긴 정황이나 예배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그가 기억하는 당시의 교회 모습에서 생소한 이국 땅에서 힘들게 공부하던 중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던 유학생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The First Church in Cambridge(Garden and Mason St.)

이 시기에도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 3시에 30-40명의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박봉량 목사에 의하면 모이는 한인들 중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무종교인과 불교신자, 또 천주교 신자들도 있었다. 또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유일한 한인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로드아일랜드 주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와 웨슬리대학(Wellesley College, Wellesley, MA) 등의 먼 곳에서도 이어졌다. 하버드 엔칭의 초빙교수들 역시 창립 초기 교회를 위하여 크게 봉사한 이들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보스톤한인교회가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의 믿음의 공동체였을 뿐 아니라, 한인회 및 학생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한인 사회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박봉량 목사는 1918년 평안남도 추자도에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3년 도쿄신학대학교 1948년 조선신학대학(現 한국신학대학교)을 졸업하고 1952년 도미, 1957년 하버드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8년부터는 모교인 한국신학대학 교수 및 대학원장을 역임하며 칼 바르트 신학의 정수인 교의학(기독교 교리 연구)을 가르쳤다. 2001년 소천한 후 현재까지도 그는 조직신학계의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한신대 개교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다룬 박봉량 교수 재조명 자료들을 살펴보면, 1950년 초 성서무오설(聖書無誤說)과 축자영감설(逐字靈感說)로 인해 갈라진

한국 장로교의 상황을 보면서 그는 이에 대한 대답을 칼 바르트의 성서영감론(聖書靈感論)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박사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한 12권에 달하는 칼 바르트 교회교의학을 번역했고, 말년에는 '칼바르트학회'를 창립하여 '오직 성서, 오직 은총, 오직 신앙'을 모토로 한 '신

“케임브리지로 교회를 옮기게 된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한인회를 이끌어 오시던 고광림 박사님이 하버드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또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커다란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한국학생이 많이 다니던 MIT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리와 편의에 의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략> 설교 때마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열심히 설교를 듣던 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주일에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워 헤어질 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 박봉량 목사의 회고편지 중에서

학의 자유'를 찾는 데 기여하였다. 한신대를 주축으로 태동한 '민중신학'도 박봉량의 신학에 빚지고 있다고 논하였다.

▣ 한승호, 조찬선, 김용식 세 목사의 시무 1957-1959 : Marsh Chapel로 돌아옴

1956년 12월 박봉량 목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기 위해 사임한 후, 신학공부 중이던 한승호, 조찬선, 김용식 세 목사가 함께 보스톤한인교회를 1957년 1월부터 1959년 12월까지 3년간 이끌어 나갔다. 1957년 예배장소를 잠시 Copley Methodist Church로²⁵ 옮겼다가 이듬해인 1958년 1월 보스톤대학교의 Marsh Chapel로 되돌아갔다. 예배에 참석하는 목사를 포함한 교인들 대부분이 하버드, MIT, 보스톤대학교 학생이었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초창기 교회의 상황으로서는 아직 예배 이외의 특별한 사역은 물론 전임 유급 목사조차 모실 수 없었다.

당시 교회 서기 기록을 살펴보면, 1957년 초에 신영일을 서기로 선출한 일과 이유선, 이희정, 고광림, 고영희, 구두회, 김애경, 이영순, 강만수, 유동식, 박준영, 허장춘 등의 이름이 교인명부에 올라 있다. 1958년 5월 25일에 한승호 목사가 설교했고, 1959년 11월에 이성봉 목사가 내방하였다. 1959년 말 이동춘이 임시회계직을 맡았고 다음해 초에 정회계직을 박준영이 맡았고, 김민수가 반주자로 임명되었다. 1960년 10월에는 보스톤음악대학에서 성악 전공자로 예배 때 늘 독창을 해주던 소프라노 이영순이 귀국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승호 목사는 보스톤대학교에서 종교심리학을 전공하고 귀국 후 안상현 전도사와 피난민 학생들과 함께 부산시온감리교회를 창립했는데, 본 교회의 목회를 맡았던 이계준 목사가 신학생 시절 봉사하며 섬기던 교회이기도 하다. 한승호 목사는 국제대학 교수 겸 교목으로서 신학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상담이론을 가르쳤으며, 저서로는 번역서 칼 로저스의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가 있다.

조찬선 목사는 2003년 남가주 주님의교회에서 “1950년대의 미국의 한인교회상”이란 글을 교회 회지에 기고했는데,²⁶ 1950년대 당시의 7개



Hollis/South Congregational Church, Newbury at Exeter Street

Copley Methodist Church (a.k.a. South Congregational Church; 담임목사 Edward Everett Hale)

追記:

1. 지난 1월22일 任員會에서 金龍植 牧師任 奉獻會 總任 牧師로 모셨음이다.
 2. 지난 1월22일 任員會 任員은 (1959~1960年度)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음이다. (順. 7. 2. c. ...)
- 1. 總任 牧師. 金龍植
 - 2. 施樂委員. Mr. Homer Kim, 金光源, 金道振, 金龍植, 崔基一, 潘正林, 尹敬都, Mrs. 尹
 - 3. 總務. 金性河
 - 4. 書記. 李東春, 咸成國
 - 5. 會計. 許鐘淑
 - 6. 查帳委員. 朴壽培, 崔德實, 金仁宇
 - 7. 禮堂委員會. 康榮文, Mrs. 李, 李順雨, 鄭載植, 趙海衛, 趙堯翰, 洪恩恩

쓰오로 韓人教會 白

손으로 쓴 주보 광고

25. Charles River를 건너 남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보스톤 시내 보스톤 공립도서관 부근에 당시 유명했던 Edward Everett Hale 목사가 목회하던 Copley Methodist Church(Newbury at Exeter Street)는 1882년에 Hollis Street Church로 세워졌는데, 1887년에 South Congregational Society, Unitarian Church와 통합되었다. 1925년 두 지역의 감리교가 통합되면서 Copley Methodist Church로 명명되었다. Hale 목사는 당시에 존경받던 저술가이자 역사학자로서 Copley Methodist Church를 목회했는데, 흔히 Edward Everett Hale Church라고도 불렸다. 아쉽게도 지금은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상가로 바뀌었다. Boston Public Garden에는 Hale 목사의 동상이 있다.

26. 조찬선, “1950년대의 미국의 한인교회상”, 장막터를 닦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교회, 2003.

의 한인교회들을²⁷ 각각 짝막하게 기술하면서 보스턴한인교회에 대한 기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스턴 한인감리교회²⁸

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이는 교회였다. 매달 첫째주일로 기억한다. copy 기계가 없던 그때는 모일 때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 교회 목사는 하버드나 보스턴대학에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던 목사들이 일 년씩 돌아가며 시무하는 형식이었다. 박대선, 박봉량 목사가 시무하였고, 나도 보스턴에서 공부하던 때 일 년간 시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 모이던 교인들은 교포는 극히 드물었고 거의 다 하버드, MIT, 보스턴대학에 유학하던 학생들이었다. 내가 시무할 때 출석하던 학생들 중에서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하버드의 함병춘 부부, 고순덕 부부, 박xx 부부(이승만 대통령 비서), 정재식, 박봉량 등이었고, 보스턴대학의 김재관, 한세홍, 강래문, 구두회 등이 생각한다. MIT에서도 왔는데 하나도 기억에 없는 그리고 중앙대학으로 간 유교수, 현 덕성여대 이사장 등도 생각한다.

여학생들도 좀 나왔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다. 여학생들이 숙소를 옮길 때는 남학생들이 물러가서 도왔다. 이삿짐을 차에 실어 가지고 옮기는 일은 간단한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4, 5층 건물에서 이사할 때는 계단으로 짐을 지고 내려와야 했고 또 올라가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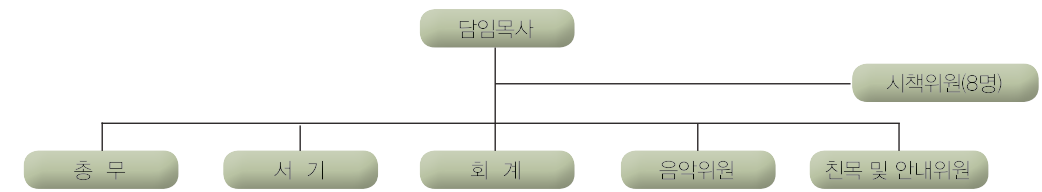
예배 후엔 성대한 만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함병춘 대사와 박비서 댁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듣고 있다.

김용식 목사 시무 1960-1961 : 첫 임원회 구성

1960년 1월 2일에는 김용식 목사를 담임목사로 결정하면서 첫 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책(施策)위원으로 Mrs. Homer Kim(추애경), 김광원, 김술근, 김용식, 최기일, 고광립, 박돈욱, Mrs. Park이 선출되었고, 총무에 김성하, 서기에 이동춘과 함성국, 회계에 박준영, 음악위원에 박봉배, 최덕실, 김민수, 친목 및 안내위원에 강대훈, Mrs. Park, 이순우, 정재식, 조해형, 조요한, 홍사은을 임명하였다. 교회 창립 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창립 멤버들(추애경, 김술근, 박돈욱, 김성하)이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고, 여성 신도들의 경우 대부분 본인 이름이 아닌 Mrs. 누구라고만 기록에 남아 있다.

김용식 목사는 1961년 12월에 사임한 후, 1976년 10월 하와이 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1988년 6월 은퇴하기까지 그곳에서 사역하였다.



1960년 임원회 구성표

사역자 및 봉사자 명단 1953. 11-1961. 12

창립위원	1953 김성하, 박대선, 박관두, 박돈욱, 서두수, 안승화, 이동일, 조자룡, 추애경
목회자	1953-1955 박대선 1955-1957 박봉량 1957-1959 조찬선, 한승호 1957-1961 김용식
시책위원	1960 고광립, 김광원, 김술근, 김용식, 박돈욱, Mrs.박, 추애경, 최기일, 김성하(총무)
서기	1957 신영일 1960 이동춘, 함성국
회계	1960 박준영
친목 및 안내	1960 강대훈, Mrs.박, 이순우, 정재식, 조요한, 조해형, 홍사은
음악부	1960 김민수, 박봉배, 최덕실
오르간연주자	1960 김민수

27. 조찬선 목사가 간단히 기술한 다른 6개의 교회는 샌프란시스코한인감리교회, LA한인(연합)장로교회, LA한인감리교회,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뉴욕한인감리교회 및 워싱턴 DC 한인감리교회이다.

28. 편집자註: 필자가 보스턴한인교회를 감리교회로 잘못 기억하고 있다.

제 2 장

초창기 순례자들의 교회

1962. 01 - 1971. 10

The Early Period of Pilgrim's Church

지난 6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소수 민족의 서러움과 순례자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읽는 첫 회년 신앙고백서 중에서

간추린 시대 개관 1962. 01 - 1971. 10

초창기 순례자들의 교회

1960년대 아직 전혼이 완전히 가지지 않은 한국은 4.19의거(1960)와 5.16 군사정변(1961), 월남전 파병(1965),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및 유신독재 체제 구축(3선개헌안 통과, 1969) 등으로 정치 및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정부 주도하에 1962년에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 눈부신 산업화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으나, 독재에 항거하는 많은 학생들과 정치인들의 투쟁 또한 연일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기 속에서 1965년 개정된 미국 이민법은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쉽지 않았던 유학길이었음에도 보스톤 지역 한인 유학생들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64년부터 보스톤한인교회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창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로 유학 온 목사들이 공동으로 목회하며, 대다수의 학생으로 구성된 교인들과 함께 초교파 교회의 취지를 이어 나가는 신앙공동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11명의 목사가 보스톤한인교회의 강단을 헌신적으로 지켰고, 많은 한국의 선구자적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동참했으며, 어려운 여건하의 유학생들 속에서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유학생들로 인해 초창기 순례자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최초의 교회현장 제정과 함께 교회 조직이 확장되는 한편, 늘어난 이민자들의 2세교육에 대한 사업이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켰으며, 학구적인 성경공부 및 신앙토론회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학에 대한 학구적인 열의가 높았던 초대교회로서의 열정이 돋보이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1966년에는 김광원 목사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자주적인 교회 발전과 자체건물 건립을 위한 헌금 운동을 전개하였고, 1967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현 교회 건물로 옮겨왔다.

교우들간의 친목활동은 여전히 활발했고, '한국의 밤' 등을 통해 미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다. 예배 순서와 형식이 안정되어갔고, 성가대가 발족되어 적은 인원이었지만 실력있는 전문 음악인들에 의해 튼튼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교회 음악 행사

가 이루어지고 지역 한인들도 초대되곤 하였다. 포용성과 신앙공동체로의 원만성을 가진 교회 모습은 1974년까지 20년 넘게 뉴잉글랜드 지역의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초창기 순례자의 교회를 지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현 교회가 위치한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 이전한 후 전교인이 함께 (1967)



A Brief Chronicle 1962. 01 – 1971. 10

The Early Period of Pilgrim's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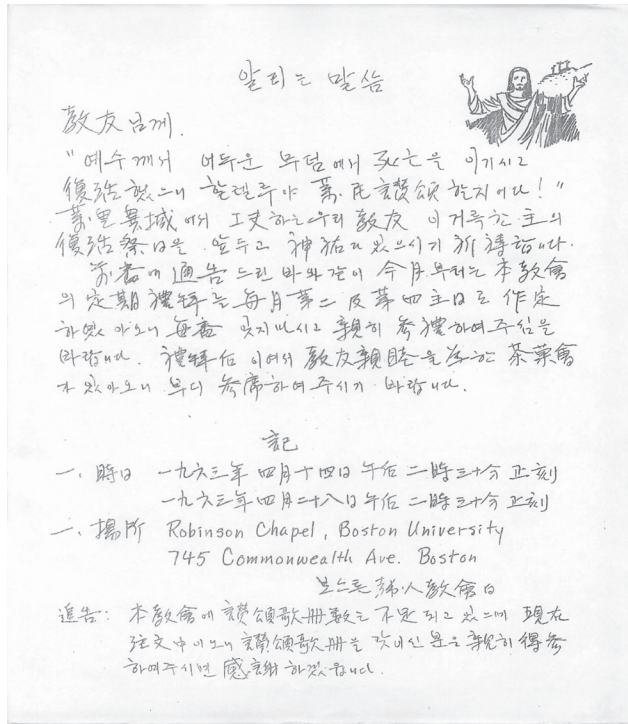
The 1960s, the post Korean War period, was a tumultuous time for Korea. A series of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s took place in Korea: the 4.19 Student Uprising in 1960, the 5.16 Military Coup in 1961, the Korean military armed forces being dispatched to the Vietnam War in 1965 and the long-term seizure of dictatorial power by President Chung Hee Park through the passage of the Yushin Constitutional Amendment(3-term Presidency) in 1969. While the Korean government's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produced accelerated economic growth for the country since 1962, socio-politically many students and opposing politicians were unhappy with the government and fought almost daily against the dictatorship. During this period of confusion and upheaval in Korea, a change in the US Immigration Law in 1965 provided opportunities for many Koreans to come to the US to live, work or study. As a result, there were many Korean students living in the greater Boston area, despite the fact that studying abroad in those days was not easy for anyone.

In 1964, the KCB started weekly worship services, led by a group of ministers ordained in Korea, as it was in the early years of its founding. These ministers were also studying for their advanced degrees in theology in the Boston area. The congregation of the KCB consisted mainly of the Korean graduate students with various denominational backgrounds. Thus, the KCB continued to maintain the characteristics of a non-denominational Christian community of faith. During the period of 1962 to 1971, there were 11 ordained ministers who served and preached at the KCB pulpit faithfully with a sense of dedication. Many prophetic and famous Korea theologians also came to the KCB as guest preachers of distinction. Despite the hard life of studying abroad in Boston, many Korean student members faithfully lived their spiritual life as true believers in Jesus Christ and helped build the KCB as the Church of the early Korean pilgrims.

It was an important period in the life of the KCB. The church adopted its first by-laws and expanded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There were various church-sponsore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2nd gener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area. That, in turn, ignited the need and desire for a Sunday school and a Korean school. It was also a period for the KCB to provide scholastic, in-depth bible studies and theological discussions - typical characteristics of an early church with zeal and passion for theological learning. In 1966, as part of the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KCB, the first fundraising for its own church building took plac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Rev. Kwang Won Kim. He was a Professor of Theology at Boston University, and served the KCB as a part-time pastor. In 1967, by the grace of God, the KCB was invited to move into the present church building in Brookline, MA, free of any rental or usage fees.

The KCB had active fellowship programs for its members, and also started to reach out to the American neighbors in Brookline by organizing a "Korean Night" cultural festival. The worship services took on more formality and stability, and a small choir was organized. Despite the small number, the choir included a few Korean professional singers and musicians who helped establish a good reputation for the KCB choir with its excellent musical quality. Many KCB church music concerts took place, and neighboring Koreans were invited to attend some of these concerts. Thus, during the early period, the all-embracing and all-inclusive outreach ministry and the good fellowship as a community of faith internally were the driving forces for the KCB to stay as the only Korean church of the Korean Christian pilgrims in the New England area for over 20 years until 1974.

■ 이계준, 함성국, 이상현 목사의 공동목회 1962-1963



부활절 예배를 알리는 공고문 (1963)

박봉량 목사가 떠난 1961년 초 잠시 목회자 공백기를 겪은 보스톤한인교회는 1962년 3월부터 이계준 목사가 함성국, 이상현 목사와 함께 공동목회를 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이계준 목사는 마지막 설교(1963. 6. 9) 후에도 귀국하기까지 교회 사역에 동참하였다. 이계준 목사에 이어 함성국 목사가 목회를 맡게 되었고(당시 설교 사례금: \$10), 그를 도와 이계준 목사, 김성하, 이종진, 박효영이 임원으로 사역에 협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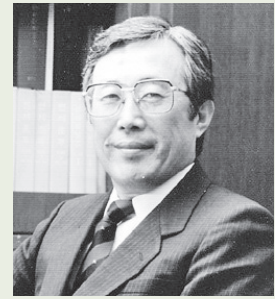
창립 10주년이 되던 해부터(1963. 4) 매월 2회, 둘째 및 넷째 주일에 Robinson Chapel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임원회에서는 전교인에게 공고문을 우송하였다. 이 공고문은 손으로 써서 Mimeograph Mimeo 기계를 통해 제작되었다. 특별히 “부활제일(復活祭日)”을 앞두고 “공부하는 우리 교우”들을 예배에 초대하면서 주문한 찬송가의 부수가 부족함도 함께 알리고 있다.

교인의 대부분이 학생이었던 이유로 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기간 교회 집회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1963. 5), 이날 회의에서 방학기간 동안에도 계속 집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 임시 부서 책임자를 결정하기도 하였다(설교: 함성국 목사, 사교: 강익주, 회계: 한사숙, 서기: 박준영, 그 외 임원진: 조정현, 이종진, 안상엽, 박원기).

적은 수였지만 세례 받는 교인도 계속 끊이지 않았고(옥인걸 세례식, 1963. 4. 16), 6월부터는 성경공부 모임도 꾸준히 가졌으며(1963. 6. 시작된 신앙토론 그룹 모임, 첫 모임은 이상현 자택에서 가짐, 매월 두 번 금요일에 모임), 1963년 방학중인 6월 1일 토요일에 Brockton Field Park로 뉴잉글랜드 한인 학생회와 보스톤한인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피크닉을 갔다.

이계준 목사 약력

이계준 목사는 1932년 평양에서 출생했고,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한 후,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S.T.M.)하고,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하여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명예교수, 연세대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신반포교회에서 담임목사 및 원로목사로 사역하였다. 한국기독교대학교 교목회 회장, 한국기독교 윤리학회 회장, 한국기독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 웨슬리신학회 회장, 한국문화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하나님의 침묵》, 《축제와 고난》, 《현대선교신학》(편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폴 틸리히의 《궁극적 관심》, C. 윌리엄스의 《존 웨슬리의 신학》 외에 다수가 있다.



이계준 목사

이계준 목사는 1984년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사경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하나님의 마음”, “현대인과 신앙”, “책임적 존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2011년 팔순 기념문집 “신학의 길 목회의 삶”이란 책을 출판, 여전히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 기독교타임즈에 그의 젊은 시절 목회의 길을 들어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¹⁾이란 제목으로 간증하면서, 미국 보스톤 유학 전에 한승호 목사 및 박대선 목사를 만나게 된 경위도 설명하고 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시의 어려웠던 상황과 그 속에서도 신학공부를 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모습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

나와 우리 가족은 1950년 12월 3일 소위 1.4후퇴에 의해 폭정으로 얼룩진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자유의 남한으로 피난의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 친척, 친지 등 약 20명은 선친이 잘 아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권세영 목사의 픽업으로 대동강 군사용 가교를 쉽게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평남 역포역에서 화차로 서울로, 교역자 피난대책에 따라 화차로 다시 부산으로, 그리고 미군 수송선으로 제주도로 이송되었다. 제주도에서 피난민의 환경은 마치 포로수용소 수준에 머물렀고 구호품에 의존한 생활은 극빈상태였다. 야밤에 기습하는 소위 공비들의 총소리는 전선을 방불케 하는 공포와 전율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중략>

마침 하사관 모집이 있어서 입영하려던 때 제주읍에서 감리교신학교 보결생 모집이 있었다. 나는 고향에서부터 염원하던 공부의 길이 열렸으므로 선친의 허락을 받고 예과 1년에 입학하였다. 나는 성화신학교에 입학할 때와 마찬가지로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면서도 목사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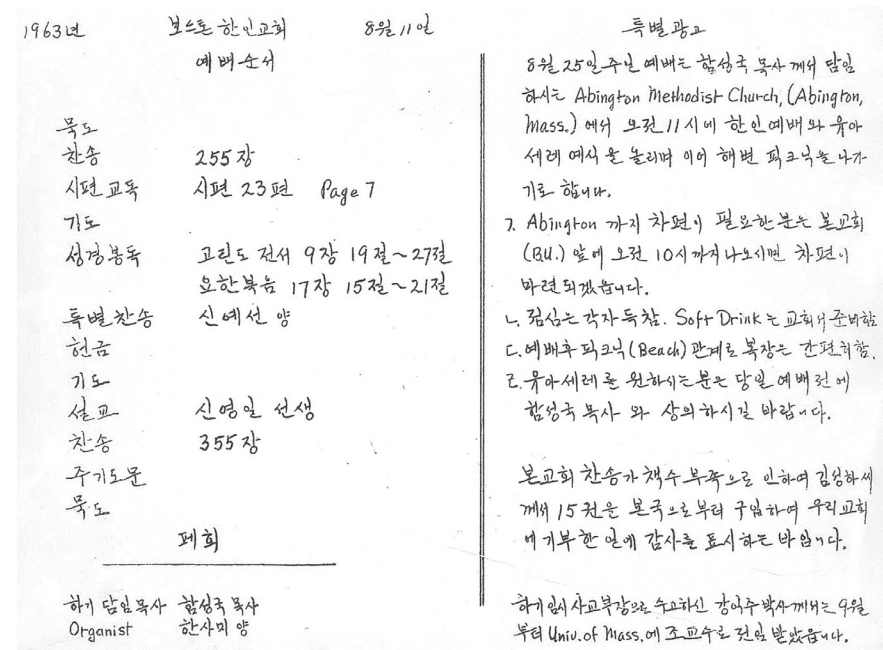
1. 이계준,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기독교타임즈, 2009년 8월, www.kmctimes.com에서 발췌.

그러나 신학교 생활이 그리 수월한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다행히 부산에서는 영수학원을 경영하는 동급생과 함께 지내면서 일을 돕고 가르치기도 하며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53년 학교가 서울로 복귀한 다음에는 영어 가정교사와 기독교방송국 국장 비서일을 보며 학창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으니 실로 은총의 힘은 놀랍기만 하다. <중략>

나는 부산에서 공부할 때부터 시온감리교회에 출석하였다. 그 교회는 평양성화신학교 교수였던 한승호 목사와 안상현 전도사가 주축이 되어 피난민 학생들과 함께 설립한 곳이었다. 1957년 3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중장교로 입대할 때까지 시온교회에서 계속 봉사하였다.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일과 수요일을 포함해서 교회학교 교사, 예배 반주, 청년회 회장 등의 활동에 전적으로 투신하였다. 그 당시 교회 재정은 극히 열악하여 교회 유지만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10여 명의 피난민 신학생들 누구에게도 장학금이나 거머비를 보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적 신앙으로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나는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우들의 사랑과 신임을 받게 되었고, 소속 목사인 감신대 교수 김용옥 박사와 박대선 박사의 각별한 사랑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헌신은 하나님 신앙의 확고한 근거가 되었다.

■ 합성국 목사의 사역 1963-1964

합성국 목사는 1961년 미국감리교단으로부터 Abington Methodist Church(Abington, MA)로 파송받아 미국교회 담임목사직을 맡고 있었다. 이제준 목사의 귀국에 따라 보스턴한인교회 담임목사직을 겸임하게 되어 1963년 6월부터 1964년 5월까지 1년간 시무하였다. 후에 1978년 보스턴한인교회에 교역자 공백이 생겼을 때에도 임시 공동목회로 도움을 주며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간 교역자 중 한 명이다.



1963년 8월 11일자 주일예배 순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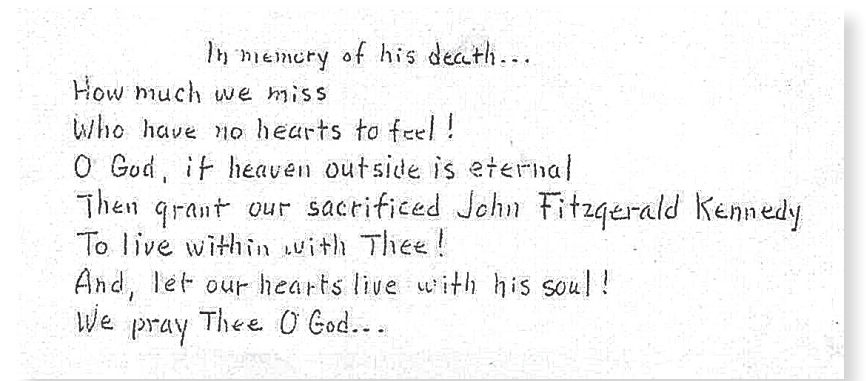
1960년대 초, 주일예배와 관련된 모든 공문이나 예배순서지는 여전히 손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예배순서나 형식 또한 일정치 않았고, 비교적 간단하여 사도신경, 신앙고백, 찬양대의 찬양, 광고 순서가 없고, 축도 대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는 형식이었다. 1963년 7월부터는 손으로 쓰고 Mimeograph(Blue)로 프린트된 주보 형태의 예배 순서지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은 예배 순서 오른쪽은 특별 광고를 실어 보다 정리된 주보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

가끔 합성국 목사가 담임하고 있던 Abington Methodist Church에서 모이기도 했는데, 1963년 8월 25일에는 그곳 예배당에서 한인예배와 더불어 유아세례 예식을 거행했고, 예배 후에는 부근의 해변으로 나가 함께 야유회를 가졌다. 조정현, 이종진, 안상엽, 박원기 등이 여름 동안 임원으로 교회 전반을 책임졌고, 그 해 9월에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신학기 임원회를 구성하였다(담임목사: 합성국, 총무: 김성하, 회계: 한사숙, 서기: 박준영, 사교: 장시봉, 반주자: 한사미). 많은 교인들이 학교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원회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회계연도가 학사일정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 시기 임원회에서는 교회의 한 해 예산과 재정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월정 헌금을 작성하기로 하고 임원들부터 솔선 시행하였다. 한 해 총예산 \$900중 반 정도가 설교 사례비로 지출되었고(\$480), 반주자(\$120), 청소부(\$100)도 사례했으며, 통지서 (\$60)는 한 달에 두 번 모이는 우편물에 드는 비용, 예비비 \$140로 세목이 정해져 있었다. 임원 약정헌금이 \$400이었고, 주일예배 헌금 예상액은 \$260로, 전체 예산 집행을 위해 \$240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재정 대책뿐만 아니라 교단 가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감리교단에 가입하는 문제를 논의한 일도 있다.

■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합성국 목사 사역 시절 보스턴한인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게 된다. 1963년 11월 24일 창립 10주년 기념예배에는 Robinson Chapel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였다.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장 Dr. Walter Muelder가 "Tomorrow's Mission Today"(엡 2:11-22)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고, 옥인걸 교우의 특별찬송이 있었으며, 예배 후에는 특별히 한국음식 ("우리나라 음식"으로 표기함)을 신학대학원 Lounge에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보스턴대학교 Dean of Chapel에게 Robinson Chapel 사용 허락을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로 한국에서 특별히 제작한 감사장을 드렸다.



1963년 11월 22일 주보에 실린 John F. Kennedy를 기리는 짧은 기도문

1964년 1월에는 유시욱 목사의 초청 설교가 있었고, 2월 23일부터는 월 2회 예배 광고를 위해 통지서를 매달 내보냈고, 교인주소록도 발행하였다. 주일예배 모임 이외에 따로 신앙토론 그룹 모임을 매 첫 주와 셋째주 금요일에 가지기로 하고, 그 첫 모임을 이상현 자택에서 가졌다.

함성국 목사 약력

함성국 목사(Rev. Michael Hahm)는 1929년 평양 근교 산정리에서 태어나 1949년 평양 성화신학교 본과 1년을 수료하고 1956년 도미하여 웨스트 버지니아 웨슬리안대학(West Virginia Wesleyan College, Buckhannon, WV), 보스턴대학교 신학석사와 박사학위(1971)를 받았다. 1961년 미국감리교단에서 Abington Methodist Church(Abington, MA)로 파송받아 미국 교회 담임목사직을 맡았고, 같은 해 보스턴에서 결혼하였다(부인 임병대 사모). 귀국 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구약학 교수 및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1971-1975), 그후 미국으로 다시 와서 보스턴 지역 렉싱턴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였다(1975-1981). 1978년 12월 보스턴한인교회의 홍근수 목사 취임예배 사회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함성국 목사

함성국 목사는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아세아 태평양지역 총무로 일하면서 미국 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 회장 겸 미국 평화정의통일교회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1990-1994), 1997년 창립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초대회장을 맡아 7년간 일하였다. 함성국 목사는 1980년대 중반 미국교회협의회 대표 12명과 함께 평양을 공식 방문했고, 1993년에는 미국 교회협의회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2013년 팔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러 집회나 교우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²

대표적인 그의 저서로는 《세계의 종교들》(함성국 공저, 연세대출판부, 1973), 버나드 도로구드의 《아모스 연구》(함성국 역, 대한기독교서회, 1973), 《오늘의 시편연구》(대한기독교사상 월간지, 1974), 《What Should United Methodism Conserve, Jubilee Proclamation: Biblical Mandate for Mission》(Donald Messer, ed., Unity and Charity Building Bridges Over Icy Waters, Abingdon Press, 1996) 등이 있다. 76세 나이에 출판한 장문의 신학서적 《시편 해석》(731페이지, 대한기독교서회, 2005) 또한 그의 신학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³

1남 2녀를 둔 함성국 목사 부부는 현재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고 있다.⁴

이상현 목사 약력

이상현 목사는 1938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955년 17세 되던 해 대구 계성고를 졸업한 후 미국 뉴저지(New Jersey)주로 유학을 온 그는 1960년 우스터대학교(Wooster College, Ohio)를 졸업하면서 같은 해 Danford 장학생으로 하버드 신학대학원(Harvard Divinity School, Cambridge, MA)에 입학하여 M.Div. 학위를 받았다. 1962년 보스턴한인교회 협동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으며, 후에는 시카고 미드웨스터교회 협동목사로도 사역하였다(1972).



이상현 목사 부부 (1991)

1972년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교(Ohio Wesleyan University, Delaware, Ohio) 교수, 미시간 주 호프대학(Hope College, Holland, MI) 종교학 교수를 거쳐 1980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부임하였는데, 학교 창립 이래 최초의 아시안 교수였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Asian-American Program의 Director로서 한국과도 많은 교류를 하였으며, 한경직 석좌교수로도 재직하여 총 31년간 후학 양성과 신학 연구에 힘쓴 그는 2010년 은퇴 당시 아세아인 최초의 명예교수에 추대되었다.

이상현 목사의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향 개념에 대한 연구(1972)가 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The Philosoph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1988)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면서 그는 이 저서로 에드워즈 연구의 최선두에 서게 되었다. 페리 밀러 교수의 1949년 연구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에드워즈 연구로 거론되는 그의 연구는 밀러도 미처 보지 못했던 에드워즈의 비전의 역동적 성격을 잘 다루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외에도 에드워즈에 대한 몇 편의 논문과 “프린스턴 에드워즈 연구 입문서”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직신학 저서를 출판하였다.

연구 업적 이외에도 재북미 종교학 교수회 회장으로 오랜 기간 봉사한 그는 은퇴식에서 “\$150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다”라고 회고하며 자신의 일생을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리알을 제공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였다. 1961년 결혼한 부인 이인숙 교수 역시 뉴욕신학대학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NY)과 뉴브런즈윅 신학대학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New Brunswick, NJ)에서 12년간 정교수로 재직했고,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J) 실천신학과에서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로 22년간을 후학 양성에 힘썼다. 또한 한미교회 여성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상현 목사는 이인숙 교수와의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은퇴 후 현재 뉴저지 주에 거주하고 있다.

2. 사진 발췌 <http://www.usaamen.net/news/board.php?board=news&command=body&no=6034>.

3. Source: 민족통신 http://www.minjok.com/news/article_view.php?code=1422 2013년2월 발췌.

4.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http://www.kancc.org/bbs/board.php?bo_table=talent&wr_i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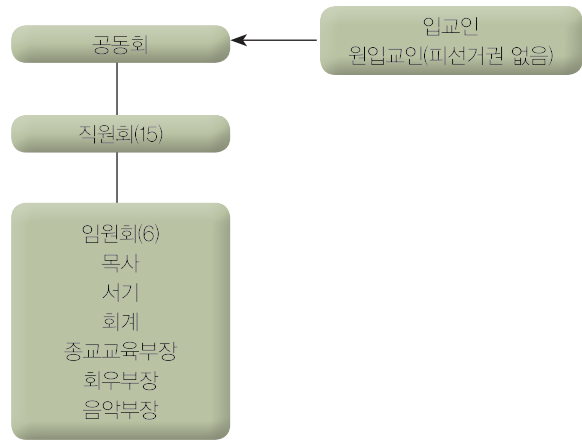
■ **안상엽 목사 시무 1964-1966: 매주일 예배드리기 시작**

안상엽 목사 시무기간이었던 1964년 6월부터 1966년 5월까지의 담임목사가 주로 설교를 하는 한편, 유시욱, 이상현, 신성국, 함성국, 김광원, 최창욱 목사도 설교에 참여하였다. 또한 외부에서 초청설교자로 초대되어 말씀을 전한 목사들도 여럿 있었는데, Rev. Robert C. Holtzapple과 Rev. David Burgess 등이 이에 속한다.

안상엽 목사가 시무를 시작하면서 직원회에서는 새로운 부서 조정이 있었다(1964. 6, 종교교육부장 이상현, 회계 한사숙, 서기 박준영(후에 김장환), 음악부장 옥인걸, 회우부장 이종진(후에 오원환)). 1964년 9월 17일에 있었던 정기총회는 안상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이날의 주요 사안 중 하나는 한사숙

회계의 재정 보고 후에 있었던 신년도 예산(\$1,620) 심의였다.⁵ 전년도 예산액이 \$90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회 예산액이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964년 10월부터 매주일 예배를 드림에 따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2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를 위해 교인들에게 약정헌금을 권장하였다. 1년 후 1965년의 예산액은 40%가 더 올라간 \$2,295로 책정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Blue Hills Reservation(1964. 5. 30, Milton, MA)이나 Brockton Field Park(1964. 6. 28, Brockton, MA) 등지에서 야외예배도 간간히 드렸다. 야외예배 회비는 \$1이었고, 식사는 주로 교회에서 준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시작된 성탄절 이브 촛불 예배는 여전히 보스톤한인교회가 이어가고 있는 전통 중의 하나이다.



최초의 보스톤한인교회 조직 (1964)

■ **최초의 교회 헌장과 교회 명칭**

1964년 11월 임원회에서 교회 헌장 기초위원(안상엽, 이상현, 이종진, 한사숙, 함성국)들이 만든 보스톤한인교회 헌장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11월 8일 공동회에서 통과시켰다. 최초의 헌장은 총 9조로 되어 있었는데, 재적교인, 부서조직, 임원회, 직원회, 공동회, 교회재정 등에 관한 조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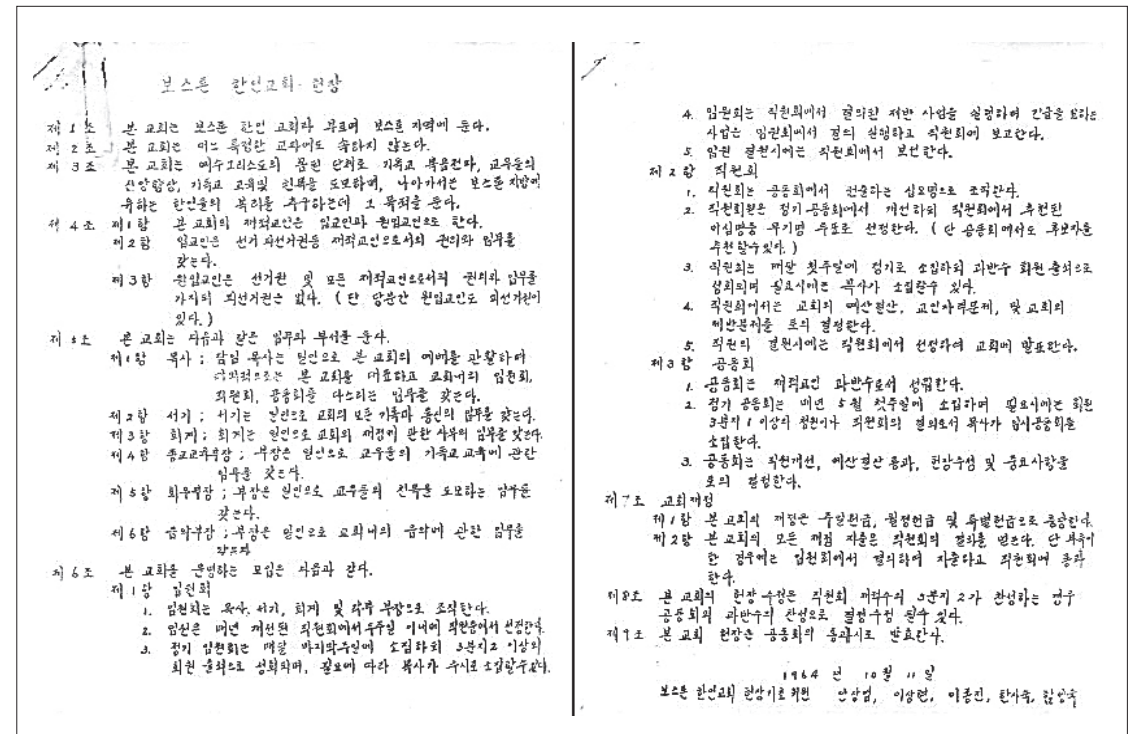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보스톤한인교회는 초교파 교회로서 교회 조직은 회중교회의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 즉 공동회를 통해 모든 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개신교 교회였다. 이에 따라 전교인을 재적교인으로 명시 하되 선거권의 유무에 따라 입교인(정식회원)과 원입교인(피선거권이 없는 교인)으로 나누었다. 공동회가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직원 개선, 예/결산 통과, 헌장 수정 등을 다루게 하였다. 공동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15명의 직원회가 목사를 비롯한 각부 부서장을 임명하여 목사와 함께 임원회를 구성토록 했고, 임원회는 목사, 서기, 회계, 종교교육부장, 회우부장, 음악부장 6명으로 월례회의를 통해 각 부서의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정하였다. 임원회는 월례직원회에서 결의된 제반사항을 수행하였다. 직

5. 담임목사 연간 사례비(\$400) 외에 초빙 설교목사 사례비(\$400)와 반주자/지휘자에게 \$260씩 예산을 책정하였다.

원회와 임원회 모두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다.

1964년에 처음 제정된 교회 헌장은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매년 조금씩 개정되어갔다. 그 한 예로 직원회원 선출에 관한 회칙 개정이 있었는데(1965. 5), 이전까지 공동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던 15명의 직원회원을 공동회와 직원회에서 미리 추천된 자들 중에서 선출하기로 개정하였다.⁶

이때까지의 헌장은 한글로만 기록되었고, 한글교회 명칭은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스톤한인교회”로 명기되어 변경된 적이 없다. 한편 초기의 영어명칭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표기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세 가지가 쓰여졌다. The Korean Community Church, Greater Boston, 또는 The Korean Church of Boston, 그리고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 등으로 쓰여졌는데, 1966년 9월 11일을 기점으로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KCCB)이라는 명칭이 교회 주보에 공식적으로 표기되었다. 그 후, 1969년 11월 김광원 목사가 보스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회 건축기금을 모으기 위해 Massachusetts 주정부에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이라는 명칭으로 Non-Profit organization 등록을 했고, 이 교회 명칭은 후에 1986년 4월 10일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Inc.로 주정부에 명의 변경을 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 최초의 헌장 (1964)

보스톤한인교회의 영어 명칭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은 1985년 미국장로교 가입 전까지 사용되었다. 가입 전의 노회 서류에 그저 Korean Church라고만 표기되어 있던 영어 명칭은 가입 후 정식으로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라고 명시하게 되었다.

6. 바뀐 회칙에 따라 1965년 선출된 15명의 직원들: 안상엽, 함성국, 유시욱, 이상현, 옥인걸, 오원환, 한사숙, 조정현, 이인숙, 이종진, 박준영, 이규원, 이태선, 윤석구, 김장환.

■ 주일학교와 성가대 태동

이 시기 어린이 주일학교의 개교에 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주일학교 반사(지금의 교사) 선정 등의 결정을 이상현 부부에게 위촉하여 종교교육부 주관으로 개교하였다(1965. 3. 반사 김승희 이규원 이인숙, 반주 조광희, Nursery 한사숙).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음악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봉사할 성가대를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1965년 1월 음악부장 옥인걸로부터 성가대 운영은 당분간 힘들다는 보고를 받은 후 옥인걸을 비롯한 몇몇 독창자 위주로 예배순서를 돕기로 결정하였다. 예배 주악(오늘날의 반주자)은 음악부장 옥인걸이 담당하다가(1965. 1-1966. 5) 조광희로 이어졌다(1966. 6-1967. 12). 본 교회의 성가대가 아직 없던 이 시절 특별예배시에 다른 교회 성가대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일례로 1965년 부활절 특별예배 때는 음악부장 옥인걸의 수고로 Newton에 있는 Auburndale Congregational Church의 성가대가 예배에 참여하여 The First Easter(C. Frederickson)를 포함, 성가 3곡을 불렀다(1965. 4. 18). 이 당시 음악부장으로 봉사하던 테너 옥인걸은 Arthur Fiedler가 지휘하는 Boston Pops Orchestra와 함께 공연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한국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하였다(기사 제목의 보스턴교향악단은 Boston Pops를 잘못 번역한 것임). 그 후에도 그는 Brookline Public Library Music Association의 초청으로 독창회를 가지는 등(1966. 3) 활발한 음악활동을 가졌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후학 양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보스톤 북쪽의 로웰대학교 (Lowell University, Lowell,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의 전신)에서 30여 년 간 음악대학교수로 봉직하였다.

■ 종교교육부 주관의 성경공부 모임과 정기적인 신앙토론회

1965년 2월부터 시작된 기독교사상 토론회(종교교육부 주관, 이상현 부장)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Is God Dead?”, “神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다가 후에 “신앙과 체험”이란 제목의 시리즈 토론회 형태로 그 명맥을 이어 나갔다(1965. 11). 예배 후 교제 시간에 가진 Richard Kim의 “The Martyred(순교자)’에 관한 평론회(1965. 4)도 종교교육부가 주관한 토론회의 일환이었다.

종교교육부의 사업은 장년 성경공부 모임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주일예배 후 30분간의 짧은 모임이었던 장년 성경공부반은 시작 첫달인 1966년 1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세운 계명”, “십계명의 내용”, “선지자들의 성경” 등의 구약성서 위주의 모임을 가지다가 2월부터 유시욱의 인도로 신약성서인 마가복음을 공부하였다.

■ 교회발전 장기계획위원회와 교회 건물 기금 모금 시작

1965년 10월 임원회에서는 앞으로 본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를 위해 독립된 교회 건물을 구입하자는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이상현, 조정현, 이종진, 김장환 등으로 교회발전 장기계획위원회를 발족시켜,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교회발전 장기계획위원회가 발족된 후 1965-1966년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예치된 교회 건물 기금은 \$239이었다. 다음 회계연도인 1966-1967년 예산안 중 건축기금(\$1,000)은 총예산(\$3,115)의 1/3을 차지했는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일 헌금을 교회건축기금으로 드리기에 모두 합의하였다.

■ 임원/직원 활동과 사업

1965-1966년 임원에는 목사 안상엽, 서기 김장환, 부서기 이인숙, 회계 한사숙, 종교교육부장 이상현, 음악부장 옥인걸, 회우부장 이태환이 선정되었다. 1965년 여름, 안상엽 목사가 직장 관계로 여름 동안 Maine에 머무르게 되는데, 유시욱, 최창욱, 이상현 세 목사가 공동으로 교회 운영을 맡다가 후에 이상현 목사가 전담하게 되었다.

그 이외에 예배 중 유아들의 babysitting 문제 해결 방안이나, 교회 월보 발행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1966. 3),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했는데, 일례로 거문고 연주와 더불어 한국 고전음악 해설 프로그램을 주최한 적도 있다(1966. 3. 6. 김동필 연주). 1966년 4월에는 여전도회 창립 총회가 있었는데, 그후 활동이나 사업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1971년 다시 여전도회 창립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66년 발족된 여전도회 활동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 같다.

안상엽 목사가 사회를 보고, 박대선 목사의 기도로 진행된 1966년 정기 공동회(1966. 5. 2)는 참석인원이 43명으로 전체 재적교인 79명(45가구)의 과반수를 넘는 숫자였다. 회계보고(총수입 \$1,513, 총지출 \$1,203)가 있었고, 1966-1967년도 직원 15명을 선출하였다(직원: 고인호, 김광원, 김달중, 김장환, 김중기, 김창신, 박원기, 박준영, 유시욱, 윤석구, 이상현, 이종진, 조정현, 한사숙, 함성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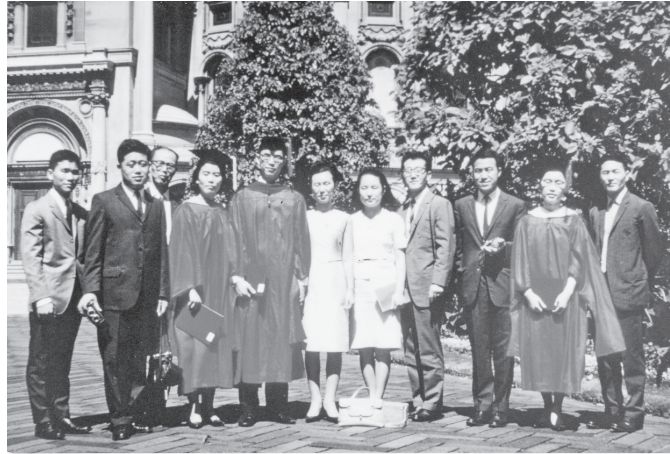
그 해 6월 5일 직원회에서는 안상엽 목사 후임으로 김광원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천거하는 동시에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한 3명의 교역자로 김중기, 박원기, 이상현을 선정하였다. 또한 1966-1967년 새 임원도 함께 선출했는데(서기 김장환, 부서기 고인호, 회계 한사숙, 교육부장 이상현, 회우부장 김달중, 음악부장 박원기, 전도부장 김중기, 직원회 의장 조정현, 직원회 부의장 김창신), 이때부터 전도부가 새로 출발하였다.



1965년 7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 중 Boston Pops Orchestra에 출연, 테너 옥인걸

■ 고국을 돕는 마음과 헌금

1965년 6월 직원회 때부터 한국의 영세 교회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종교교육부장 이상현이 한국 장로교 총회에 의뢰하여 가능하면 신년부터 지원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구제사업, 자선 사업 등 교회 밖의 일을 돕는 사업이 줄곧 거론되어, 한국 수재민 돕기를 시작으로(1965. 8. 8, 헌금 전액인 \$68.75를 동아일보사에 기탁) 성탄절 특별 헌금 전액(\$51.50, 61명 예배 참석, 1966. 1)을 한국의 70,000 명인을 위한 사업을 위해 한국맹인복지사업회(서울 마포구 녹산동)로 보내기도 하였다. 다음 달인 1966년 2월에 복지사업회의 노영석 총무로부터 영수증과 함께 감사편지를 받았는데, 보스톤한인교회의 특별헌금은 주로 맹인용 점자 성경과 찬송가, 점자 교육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당시 목사 한 달 사례비가 \$50이었음을 감안할 때 교회 규모는 작았지만 어려운 고국을 돕는 사역에 적극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상엽 목사 보스턴대학교 졸업식 (1966. 8)
좌측 2번째 황미숙 남편, 그 옆이 황미숙, 그 옆으로 안상엽 목사와 부인 장춘실 사모, 구경희, 김중기, 고인호, 이양자, 이영화 (김장환 촬영)

■ 초창기 주보와 출석 통계

1964년 10월부터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 주보도 매주 준비하게 되었다. 손으로 쓴 주보 원본을 청색 잉크를 사용하는 등사기 (Blue Mimeograph)로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던 주보는 1965년 9월 한글 타자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주보를 만드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1966년 후반기에는 검정색 잉크로 주보가 만들어졌다. 처음 한 쪽 면만 사용하던 주보는 1966년 1월부터 2면 인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잠시 주보는 다시 손으로 쓰고 등사했으나(1966. 12~1967. 6), 곧 다시 타자기로 주보가 만들어졌다.⁷ 1967년 2월에는 교회 등사기를 구입하였다(\$171.80).

주보에 의하면 출석 교인은 20명에서 57명 사이로 매주 많은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 40여 명이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였다. 특히 여름철이면 야외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후 함께 근처 공원이나 해변가로 나갔는데, 1965년 7월 Plum Island, MA, 9월 Kingston Park, NH, 1966년 7월 Good Harbor Beach, Gloucester, MA, 1967년 5월 Houghton's Pond, Blue Hills Reservation, Milton, MA에서 각각 야외예배를 가졌고, 매 예배당 70명에서 110명 사이의 교인들이 참가하였다. 1967년 와싱턴한인장로교회(안상엽 목사 시무)에서 발간된 “빛과 소금”이라는 월간회보는 보스톤한인교회의 부활절 예배에 관한 짧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참석 인원이 130여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안상엽 목사 약력

안상엽 목사는 1964년 6월부터 1966년 5월까지 2년간 보스톤한인교회의 7대 목사 (Part-Time)로서 시무하였다. 1966년 8월 보스톤 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친 뒤, 34세 되던 해 ‘화부한인장로교회’(現 와싱턴한인장로교회)⁸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안상엽 목사 부부 (2010)

안 목사는 1932년 9월 26일 경남과 전남을 경계 짓는 섬진강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안 목사의 부친인 안덕운 목사 역시 1939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교역자로서 일제시대에는 손양원 목사와 함께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렀고, 1950년 6.25한국전쟁 시 피흘려 순교하기까지 목회에 충성한 목사였다.

안 목사의 소학교 시절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로 일본 제국주의 하에 한국인과 한국교회에 가해진 혹독한 핍박에 대한 기억들, 또 가난의 멍에를 짚어온 가족에 대한 아픈 기억들로 점철되어 있다. 두 남동생이 가난으로 인해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열병으로 죽어갔던 기억과 그들의 시신을 손수 묻어야만 했던 어머니의 모습 등에서도 그의 혹독했던 어린 시절을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의 순교 현장을 보지 못했던 청년 안상엽은 19세 되던 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6.25전쟁이 나자 부산에서 군에 입대하게 된다. 3주간 훈련을 받고 전쟁터로 배치되어 UN군으로 미 제1기갑사단(77포대)에 소속되어 피의 전투지인 낙동강을 건너는 왜관전투, 38선을 넘는 백천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거치게 되면서 그가 속해 있던 부대의 한국군 대부분이 죽고 살아남은 3명 중 한 사람이 안상엽 청년이었다. 하나님은 전쟁중 그를 건져 주셨고, 당신의 사역을 위해 남겨 주셨다.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청년 안상엽은 전투지에서 무장한 그대로 휴가를 받아 집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처음 아버지의 순교 소식을 접하게 되고, 20세 전투병인 안상엽은 그 길로 그 빨갱이의 가정을 찾아가 복수를 하기 위해 그들을 총부리 앞에 세웠으나, 어머니의 만류로 많은 사람을 사살할 뻔한 무서운 순간을 면하였다. 쓰러진 아버지의 목에 창을 찌른 빨갱이의 부모와 죄인들에게 “죄 없는 목사, 그리고 나의 어머니 때문에 너희들을 총으로 복수하지 못하나, 내가 일선으로 가기 전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고 소리쳤고, 그들은 모두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그는 그때 “믿다가 세상 떠나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⁹

그후 1960년 장로회총회신학(現 장로회신학대학)을 53기로 졸업하고 경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목사가 된 후 약3년 간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회와 승동교회에서 목회하다가 1963년7월 장춘실 사모와 결혼하였다. 그해 8월 미국 보스톤신학대학원으로 유학하여 1966

7. 당시 서기로 수고했던 김장환(現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교수가 1964년 11월부터 1967년 12월까지의 주보 원본을 따로 모아 책자로 만들어 본교회 50주년 자료 수집 때 기증하여, 당시의 예배 및 교회, 교우 동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였다.

8. 1965년 7월에 세워졌으며 워싱턴에서는 세 번째로 창립된 한인교회이다.

9. The Christian Times, “아버지 순교의 피를 이어받은 목사,” source: http://www.christiantimes.ca/bbs/board.php?bo_table=column_testimony&wr_id=2, 2010년 11월.

년 8월 학위를 받았다. 안상엽 목사는 1963년 미국에 온 후 북미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1964-66)를 시작으로 '화부한인장로교회'(現 와싱턴 한인장로교회)(1966-70), 토론토한인장로교회(초대 담임목사), 런던한인장로교회(캐나다 온타리오 소재), 키치너한인장로교회, 토론토동부한인장로교회, 선교교회, 밴쿠버형제교회 등 10여 개 교회를 개척하여 섬겼고, 은퇴하기까지 약 47년을 목회하였다. 목회를 하면서도 쉬 없이 연구를 계속했던 그는 성서신학과 비교종교학으로 보스턴신학대학원, Wesley신학교, Toronto School of Theology를 수료했고, Concordia 신학대학원(Fort Wayne)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Faith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 김광원 목사의 첫 건축기금 모금운동

안상엽 목사가 보스톤을 떠남에 따라 1966년 5월부터 보스턴대학교 종교학 교수였던 김광원 목사가 시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역이 늘어남에 따라 3명의 교역자(김중기, 박원기, 이상현)를 추가 선정하여 설교를 같이 돕도록 하였다.

1965년 10월 안상엽 목사 시무 때 시작한 교회건물 기금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1966년 6월에는 교회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건축기금 모금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김광원 목사가 맡고, 서기에 조정현, 회계에 Mrs. Homer Kim(추애경), 그리고 위원으로 김창신, 김동길, 박현수, 김한주, 김영호를 선임하였다. 그 해 7월 방문중이었던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도 건축현금 \$25을 전달하며 건축기금 모금 사업에 동참하였다. 같은해 10월 건축위원회에서는 교우들에게 건축예약금 통지서를 보내 약정현금을 하도록 장려하였다.

1966년 10월 대외적으로 건축기금 모금을 위해 영문으로 된 "A Building for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이란 4페이지짜리 brochure를 교인 전체 사진과 함께 지역사회에 내보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지난 10여 년 역사를 간략히 기술하고 한인들을 위한 교회 건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 대상의 호칭이 "Our American Friends"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1966년 11월에는 교회건축위원회 조직과 함께 Massachusetts 주정부에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 등록을 마쳤다. 기금모금 brochure에 의하면 당시 500여 명의 한인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했고, 그중의 반이 보스톤에 거주했으며, 그 구성원의 대다수가 학생, 교수, 의사, 기술자들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쓰고 있다. 또한 보스톤한인교회는 약 80여 명의 교인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 50여 명이 적극적으로 교회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며, 특별행사 때는 100여 명도 참석하나 많은 수가 미국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⁰

보스턴대학교의 배려로 Robinson Chapel을 쓰고 있긴 하지만, 증가하는 교인 및 여러 사역 확장을 위해 fundrasing 취지를 밝히면서 보스톤 시내에 알맞은 사이즈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80,000을 목



"A Building for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 Brochure Cover Photo(The Korean Congregation of Boston, 1966. 10)

1. 이상현 2. 고광일 부부
3. 김원경(최할머니) 4. 고광동 부부
5. 이영화 6. 이상호 목사 7. 박원기 목사
8. 김중기 목사 9. 김광원 목사
10. 유시욱 목사 11. 고인호
12. 이종진 13. 안창수 14. 김달중
15. 김창신 16. 오진희 17. 오미희



표로 한다고 첫 두 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두 페이지에는 보스턴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 감리교 목사, 침례교 목사, 유대교 랍비(Rabbi)까지 범종교적 지역사회의 10명의 인사들로부터의 추천글을 실었다. Chinese Christian Church of New England의 Shih 목사는¹¹ 당시 건축현금을 동봉해서 기금모금에 협조하는 추천의 글을 보내왔다. 이 건축기금 brochure는 김광

10. 1966년 당시 8살이었던 오진희(사진 속 #16. 동생 오미희 #17)는 오랫동안 보스톤을 떠나 있다 2012년 다시 보스톤으로 돌아와 남편 이 동훈 집사와 함께 현재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보스톤한인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 되고 있다.

11. Chinese Christian Church of New England는 1896년에 세워진 역사 깊은 교회로서, 현재 Brookline에서 가까운 Beacon Street에 위치하고 있으며, Shih 목사는 1946년부터 목회를 했으며, 1975년부터는 그의 아들 David Shih 목사가 현재까지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

“Enclosed please find a check for the building fund of your Korean Church. We send this check with prayers and our deep interest in your great endeavor of starting a building fund for your Church for the Koreans.”

Rev. Dr. Peter Y. F. Shih
Chinese Christian Church of New England

원 목사의 친필 사인과 함께 교회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이 같이 나와 있다(서기-조정현, 회계-Mrs. Homer Kim(추애경), 감사-김창신, 함성국, 위원-김동길, 박현수, 김한주, 김영호, 이상호). 사진은 brochure에 함께 실린 교인 전체사진으로 전교인이 Marsh Chapel 앞에서 1966년 10월에 촬영하였다. 앞줄 가운데 두 손을 잡고 있는 이가 김광원 목사이고, 그 오른쪽이 유시욱 목사, 맨 왼쪽에는 이상현 목사, 맨 오른쪽 끝에는 김창신 감사 등이 보인다. 1967년 4월에 교회 건축기금 \$2,021.72 이 모여 예금되었고, 약정 현금이 \$2,037.00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

- Dr. Walter G. Muelder, Dean, School of Theology, Boston University
- Dr. Robert H. Hamil, Dean, Marsh Chapel, Boston University
- Rev. Charles P. Price, Preacher to the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 Rev. Edwin George Saphar, Stated Clerk of Boston Presbytery
- Rev. Lemuel Lord, First Methodist Church, Melrose, Mass.
- Rev. W. Eugene Motter, First Baptist Church, Melrose, Mass.
- Rev. Richard T. Shankweiler, West Parish Congregational Church, West Barnstable, MA
- Rabbi Alvin I. Lieberman, Temple Beth Zion, Brookline, MA.
- Father John I. Geary, C. S. P, Catholic Center, Boston University
- Rev. Dr. Peter Y. F. Shih, Chinese Christian Church of New England

- 추천문을 보내온 10명의 뉴잉글랜드 지역 신학자, 목사와 유대교 랍비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is happy that it could participate in the early day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ngregation in Boston. It has been a source of joy throughout the years to share in providing facilities for the needs of the Korean Church. As that Church now plans to find a proper place of its own for worship and social activities, I would like to express the sincere hope on the part of the School of Theology that this effort be fully successful and that all those who are associated with it feel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the School.”

Dr. Walter G. Muelder,
Dean, School of Theology, Boston University

김광원 목사 약력

김광원(David K. W. Kim) 목사는 창립위원 안승화 장로의 경우처럼 1923년에 중국을 통해 중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였다.¹² 1928년부터 시작된 유학생 생활은 시카고대학, 앤더슨신학대학원을 거쳐 다시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보스턴한인교회 시무 당시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기도 했던 김광원 목사는 총 4년 반을 목회함으로써 Part-time이기는 했지만 초기 보스턴한인교회의 최장기간 사역자가 되었다(1966. 5-1968. 7, 1969. 6-1971. 10). 이 기간 동안 교회는 Non-profit 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fundraising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를 떠난 1971년 이후, 1977년 북부보스턴교회 한국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했고, 1980년 6월 로드아일랜드한인교회 창립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등 뉴잉글랜드 지역사회에 계속 봉사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



김광원 목사 (1970)

교회 친목활동과 ‘한국의 밤’ 공연

1966년 여름과 가을은 유난히 한국에서 방문중인 학자, 의사, 기술자 및 새로 보스턴 지역 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았다. 김광원 목사 후임으로 9대 담임목사를 지낸 이상호 목사(연세대 교수)도 이 시기 보스턴에 도착하였다. 예배 후 친목 저녁만찬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던 당시 여러 가지 다양한 친목행사도 있었다. 1966년 9월 11일에 있던 전교인 친목 탁구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 옥인걸 교우가 우승했고 부부팀 대항에서는 김중기 부부가 우승하였다. 한편 종교교육부 주최로 기독교 사상과 신앙생활에 관한 토론회 모임도 활성화되었고(“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1966. 11. 4. 김광원 목사택),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1966. 11. 6, Marsh Chapel Dean인 Hamill 목사 설교).

1966년 11월 13일에는 함성국 목사가 부목사로 시무하고 있던 East Greenwich Methodist Church (East Greenwich, RI)에서 보스턴한인교회가 마련한 ‘한국의 밤’ 행사에 30여 명의 교인이 참여하여 춤 공연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현 목사 안수 예배 후 교회 임원들과 함께 (1967)
뒷줄 좌측부터 이상호 목사, 함성국 목사, 박원기 목사, 이대실, 앞줄 좌측 두 번째부터 유의경, 한사숙, 조정현, 김동길, 이상현 목사, 이인숙 사모, 조광희 사모, 임병대 사모

12. 뉴잉글랜드 미주한인이민 백주년기념사업회, 뉴잉글랜드 한인사, 2004.

1966년 12월 김광원 목사를 돕던 두 사역자(이상현, 박원기)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교역자가 아닌 교인으로 교회에 봉사하게 되었다. 1967년 5월 열린 정기공동회에서 사표가 수리된 이상현(교육부장)과 박원기(음악부장)가 신입직원 15명 안에 포함된 기록이 있다. 이날 현장수정안이 논의되었고, 회계보고를 통해 총수입(\$3,507.57)과 총지출(\$3,137.37)이 전년도 대비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1967-1968년 신입 직원 및 임원

- 신입직원: 김광원, 김달중, 김창신, 박원기, 이상현, 이상호, 조정현, 김장환, 김동길, 김동현, 노영희, 박수자, 박준영, 박현수, 이영화
- 신입원: 담임 목사 김광원, 직원회의장 조정현, 부의장 김창신, 서기 김장환, 회계 김동길, 교육부장 이상현, 음악부장 박원기, 회우부장 김달중, 전도부장 이상호, 감사위원 박현수, 이영화

당시 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직원과 임원들은 주로 목사와 신학생, 의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지식층의 그룹이 모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교역자 및 임원들이 그 후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계 및 학계를 이끌어 나간 지도자였던 점은 보스턴한인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 초교파 보스턴한인교회의 열린 강단

이 시기에는 4명의 교역자(김광원 목사, 김중기 목사, 박원기 목사, 이상현 목사) 외에 수많은 방문 목사, 보스턴한인교회의 신학생들, 외국인들이 설교에 참여하였다. 그 예로 1967년 어머니주일(1967. 5. 14)에는 백낙준 박사의 “어머니날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방문설교가 있었고, 그해 6월에는 회계로 봉사하던 김동길 교우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외부 강사도 종종 초청하곤 했는데, 1969년 7월 6일에는 선교/교육선교사 허일재(Dr. Howard) 박사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같은 달 20일에는 Rev. P.F. Shih의 설교(“Adam, the first man on the Earth; Armstrong, the first man on the Moon”)가 있었다. Rev. Shih가 방문하던 이 날은 교회 문이 잠겨 틀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활란 박사도 1969년 6월 명예총장 시절 보스턴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1969. 6). 1926년 보스턴대학교에서 종교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김활란 박사는 보스턴 초기 유학생 중 한 사람으로서 보스턴과 인연이 깊다. 1970년 2월 소천받았을 때 보스턴한인교회는 2월 11일 추모예배를 가졌다.

그외에도 1967년부터 1971년 권진태 목사 취임 전까지 많은 교역자들과 명사들이 보스턴한인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다(고인호 목사, 권진태 목사, 김갑동 목사, 김달중, 김영일 목사, 김우현 목사, 김활란 박사, 라영복 목사, 박대선 목사, 박재영 목사, 박창현 목사, 성윤경 목사, 유시욱 목사, 유철옥 목사, 이은택 목사, 이상호 목사, 이장식 목사, 이정용 박사, 이진태 목사, 전경연 목사, 함성국 목사 외 다수).

■ 학구적인 목사와 신학생들이 지킨 초기 보스턴한인교회 강단

박대선 창립목사를 시작으로 많은 목사 또는 신학생들이 초창기에 보스턴한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 탐구 및 연구에 대한 열정을 나누었다. 박대선 목사의 인맥으로 연결된 젊은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보스턴의 우수한 대학 및 신학대학원에 모이게 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후에 한국과 미국의 교계, 학계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보스턴신학대학원, 하버드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및 감리교단이 보스턴한인교회에 준 영향이 컸다. 1950-1960년대만 해도 미국 유학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였는데, 보스턴에 와서 수학하는 신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에서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들 중 교단의 지원을 받아 유학을 온 경우, 대부분이 이미 미래의 지도자로 선택된 교역자들이었다.

초창기 1953년부터 25년간 보스턴 강단을 지키던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학자의 모습으로 공부하며 말씀을 전한 것이 두드러진 큰 특징이다. 1971년 권진태 목사 이전은 모두 part-time 목회자로서 학위 취득 관계로 교회사역을 전담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보스턴한인교회 자체도 아직 50여 명의 출석교인으로 전일목회자를 청빙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출석교인, 또 교회 내의 지도자들도 역시 유학생이거나 대학교수, 의사, 학자, 목사들이었기에 교회 전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학구적이고 지성적으로 흘러갔고,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논리적인 면에 치중해 있었다.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도 부흥회나 단순 성경공부 모임보다는 학구적인 면과 지성적인 면이 강조된 기독교 사상 토론회나 평론회 등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다음의 도표는 창립부터 1978년 13대 홍근수 목사 때까지 보스턴 강단을 맡았던 20명의 담임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및 임시목사들의 간략한 학력과 경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보스턴에서 마지막으로 학위를 받고, 그 후 한국과 미국의 교계 및 학계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도착했으나 후에는 미국 유학 후 이곳에서 안수를 받는 젊은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67년 11월 5일에는 유철옥이 클린톤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11월 12일에는 이상현이 사우스 크라프트교회에서¹³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동 교회에서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1971년 2월에는 박재영이 Fitchburg Congregational Church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3. 편집자註: 지역명은 South Grafton이나 한글로 표기된 교회명칭 이외에 정확한 영어 교회 명칭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보스톤한인교회 목회자들의 간추린 약력: 창립부터 33년간

목회자	학력	활동사항
박대선 목사 (1대 1953-1955)	보스턴대학교 신학박사	연세대 총장, 서울 광화문감리교회 목회, 감리교 동부연회 초대감독, 한국기독교학교 연합회장, 한국기독교학생회 이사장, 대한 성서공회 이사장, 대한 YMCA연맹 및 서울 YMCA 이사장, 한국선명회회장
박봉량 목사 (2대 1955-1957)	하버드대학교 신학박사	한국신학대학교 교수
한승호 목사 (3대 공동 1957-1959)	보스턴대학교 신학박사	부산시온감리교회, 서울시온교회, 국제대학 교수/교목
조찬선 목사 (3대 공동 1957-1959)	동경신학대학, Asbury Theological Seminary, 보스턴대학교 신학박사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동 대학 교목실장 및 동 대학교회 담임목사, 목원대학 교수, 전국 기독교학교 교목회장, Yuin University(Compton, U.S.A.) 부총장, 미국연합감리교 남가주 주님의 교회 목회
김용식 목사 (3대 공동/ 4대 1957-1961)		하와이 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초대목사
이계준 목사 (5대 공동 1962-1963)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 S.T.M., 에모리대학교 신학박사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명예교수, 연세대학교회 담임목사, 신반포교회 담임목사/원로목사, 한국기독교대학교 교목회 회장, 한국기독교 윤리학회 회장, 한국기독교 교수협의회 회장
함성국 목사 (5대 공동 1962-1963, 6대 1963-1964, 임시 1978)	보스턴대학교 신학박사	Abington Methodist Church 목회, 연세대학교 교수, 연합신학대학원장, 보스톤지역 렉싱턴연합감리교회 목회,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미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회장, 미국평화정의통일교회연합회 회장,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초대회장
이상현 목사 (5대 공동 1962-1963, 1964, 임시 1965 여름, 협동 1966)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박사 (Ph.D)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교 교수, 미시간호프대학교 교수, 시카고 미드웨스트교회, 프린스턴신학대학원 교수, 재북미 종교학교수회 회장,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은퇴 후 동양인 최초 명예교수
유철욱 목사 (임시 1969, 1978)	보스턴대학교 신학박사	1967년 본 교회 출석중인 11월 클린톤교회에서 목사 안수,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창립,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뉴저지버겐장로교회, 한국신학대학 교수
안상엽 목사 (7대 1964-1966)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 Concordia 신학대학원 신학박사	화부한인장로교회(現 와싱턴 한인장로교회),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런던한인장로교회, 키치너한인장로교회, 토론토 동부한인장로교회, 선교교회, 밴쿠버형제교회 등 10여 개 교회 개척, Faith신학대학원에서 강의
유시욱 목사 (협동 1964-1966)		프린스턴한인장로교회 목회

목회자	학력	활동사항
신성국 목사 (협동 1964-1966)		(라파엘한인) 뉴욕장로교회, 한미목회회장,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장,
김광원 목사 (8대 1966-1968, 10대 1969-1971)	시카고대학교 박사, 앤더슨 신학대학원	보스턴신학대학 교수, 북부보스톤교회 한국학교 초대교장
김중기 목사 (협동 1966-67)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사회윤리학 박사	시카고 미드웨스트장로교회, 하와이기독교회, 예능교회, 새사람교회, 연세대학 교수, 학생처장, 신과대학장, 연합신학대학원장, 연세대학교 학부 총장 및 총장 대행
박원기 목사 (협동 1966)	텍사스 주립대학, 매사추세츠대학,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박사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 이화여자대학교회 담임목사,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 객원교수, 미국 제일감리교회 목회 ¹⁴
이상호 목사 (9대 1968-1969)	연희대학교(연세대학교 전신) 신과대학, 동대학원 신학석사, 미국 Drew University 문학석사,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박사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원대학교 신학과 교수, 케임브리지한인교회 2대 담임목사
권진태 목사 (11대 1971-1974)	Gordon Conwell 신학대학교	성요한연합감리교회 목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갑동 목사 (12대 1974-1977)	Asbury Theological Seminary, 브랜다이즈대학교 신학박사	Haverhill Methodist Church 미국교회 목회, 서울신학대학원장/구약학 교수, 신학교 강의 (The Church of the United Brethren in Christ, USA)
노정선 목사 (임시 1978)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 유니온신학대학원 신학박사	프로비던스장로교회, 뉴헤이븐한인장로교회, 뉴욕영광교회, 연세대 명예교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
홍근수 목사 (13대 1978-86)	시카고 루터신학대학교 신학박사, 이든신학교 명예신학박사	서울향린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맞이 실천만겨레모임, 자주평화 통일민족회의, 제3세계 에큐메니칼 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노동자총연맹, 한신대신학원 강의 등

14. 양현혜, "빛과 소망의 숨결을 찾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70년사(1935-2005년), 2005.



Marsh Chapel에서의 마지막 결혼예식 (최시원/정소영 부부, 이상호 목사 주례, 1967. 9)

■ 많은 젊은이들이 새 가정을 이루다

1966년부터 1967년까지 보스톤한인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Marsh Chapel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대부분 주일예배 후 계속해서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결혼 축하 피로연이 있었다. 1966년에 4쌍(김형태/황미숙, 한수용/이혜원, 김인수/Catherine Giunta, 오원환/박수자), 1967년에는 무려 8쌍(주병동/남윤자, 김동필/김영숙, 박을용/조형, 오태요/김명자, 김동현/신옥남, 안충성/강현아, 강희정/신영자, 최시원/정소영)이 김광원 목사나 이상호 목사의 주례로 예배와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 1967년 9월 Brookline 현 교회 건물로 이사 오기 전 최시원/정소영이 Marsh Chapel에서 본 교회 교인으로서 마지막 결혼예식을 올렸다.

■ 새 성전을 찾아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건물로 이전

1967년 7월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 직원회의에서 네 명의 임원(김광원 목사, 김동길, 박원기 목사, 조정현)을 선정, 가능성 있는 교회를 알아보기로 하던 중, 김광원 목사가 현 교회가 위치한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를 소개하여 같은해 9월 직원회의에서 교회 예배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1967년 9월 10일 Marsh Chapel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9월 17일 예배 장소를 현 장소인 브루클라인으로 옮겨 약 65명의 교인이 함께 첫 예배를 드렸다(설교 김광원 목사, 특별음악 김동필, 주악 조광희).

당시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는 Edwin G. Saphar가 담임목사로 시무중이었고, John F. Rouvel이 당회 서기였으며, 14명의 당회원이 있는 큰 규모의 교회였다. 제일장로교회 당회록에 의하면 1967년 9월 12일 당회장과 10명의 당회원(4명 excused)이 보스톤한인교회의 교회 건물 사용을 허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교회 건물은 1961년 화재 후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이었다.¹⁵ 제일장로교회의 호의로 건물 사용비를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정기 직원회에서는 일 년에 두 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 첫번째 헌금으로 1967년 추수감사주일에 들어온 감사헌금(\$58.00) 전액을 제일장로교회에 헌금하였다(1968.1). 주일만 건물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였기에 월례 직원회나 임원회 등의 교회 모임은 임원들의 집에서 돌아가며 가졌다. 이 즈음 건축위원회는 저축된 \$3,133.47와 약정헌금 \$1,125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15.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은 1893년에 창립되어 1894년 10월 보스톤 노회에 가입하였다. 1910년에 건물을 당시 Baptist Church on Harvard St. in Brookline으로부터 구입하여 1944년에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1961년 1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본당 예배 장소와 종탑 등이 모두 전소되어 교회 및 보스톤 노회의 문서, 역사자료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1967년 7월에는 이상호 목사를 부목사로 모시기로 직원회에서 결정했고, 8월에는 “보람찬 조국”이라는 한국영화 상영과 당시 유명했던 Little Angels 어린이합창단의 보스톤 공연이 있었고, 9월에는 김중기 협동목사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Korean Community Church, Greater Boston (1967)
현 교회가 위치한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 이전 후 찍은 전교인 단체사진.
4명의 임원(좌측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정현, 김동길, 김광원 목사, 박원기 목사) 얼굴이 보인다.

■ 성가대 발족

1965년부터 음악부장 옥인걸에 의해 성가대를 발족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소수의 독창자 및 반주자(옥인걸, 박애숙, 이인숙, 조광희, 옥수산, 김정자, 김동필 등)들에 의한 특별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당시 보스턴대학교에서 종교음악을 전공하던 최시원이 주축이 되어 1967년 9월 드디어 첫 성가대의 공식적인 발족을 보게 되었다. 최시원 지휘자를 중심으로 김동필, 김달중, 박원기, 김경자, 이해자, 정소영, 유의경 등이 첫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였다.

1968년 4월 14일 부활절 예배에는 성가대가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했는데, 이날 찬양은 옥인걸이 지휘자로, 최시원이 독창자로 연주에 참여하였다(반주 조광희, 독창자 이해자, 김동필, 박봉기, 최시원). 같은 날 세례식도 거행하고 인근 지역의 모든 한인들을 초대하여 한국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1968년 9월 이상호 목사 취임 후부터 지휘자가 배덕운으로 바뀌었으며(반주자 조광희), 1969년 8월에는 새로운 반주자를 맞게 된다(organist 김연자). 1970년 이영화/김연자 가정이 시카고로 떠난 후 1971년 3월 변화경이 반주자로 임명되기 전까지 약 일 년간 이양자가 임시 반주자로 수고하였다. 이 무렵 성가대원도 대대적인 교체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가대 상황은 안정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찬양 차진선, 김석두, 노정선, 박용철, 한승희 등). 1971년 3월 잠시 최시원이 다시 지휘를 맡았다가

“Voted (McNeilly-Rouvel) that the Korean Christian Church have the use of our Sanctuary and facilities to hold services each Sunday from 2-5 P.M. beginning September 17.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Clerk of the Session and the Pastor will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당회록 중에서 (1967. 9. 12)

그 다음달인 4월부터 김석두가 지휘를 맡아 1973년 초까지 계속하였다(반주자 변화경). 그 해 여름 다시 최시원이 지휘를 맡게 되면서 반주자 변화경과 함께 보스턴한인교회 성가대의 초석을 이루게 된다. 최시원이 다시 지휘를 맡자마자 준비하였던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는 아주 적은 수의 인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훌륭한 연주를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무렵 교회에 비치된 찬송가 부족으로 김성하가 한국에서 15권을 구입하여 기부했고, 1968년 5월에는 한국에서 주문한 개혁신찬송가 100권을 교인들로 하여금 한 권씩 구입하여 기증할 것을 권장하였다(권당 \$5).

■ 한인교회 출석교인과 연례 교회 활동

1967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에는 보스턴 지역 전체 한인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하고 예배 후 만찬으로 비빔밥을 제공하였다(1967. 11. 26. 오후 2시). 한인 전체를 초대할 때 썼던 Mailing List에는 18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Boston 시내와 근교지역(Cambridge, Somerville, Brighton, Brookline, Wattertown, Allston)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멀리 떨어진 도시나 다른 주(Worcester, New Hampshire, Rhode Island, Connecticut)에 거주하고 있었다. 보스턴 전체 주소록에 의하면, 38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7명이 교수직에 있었으며, 4명이 목사로 나타나 있다.

1968년 5월 집계한 교인은 입교인이 59명, 원입교인이 18명으로 총 53세대/77명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1969년 5월부터 1970년 8월 사이에 성찬식이 1번, 1명의 성인세례자와 8명의 유아세례자가 있었다. 또한 가정예배(1회), 공동회(2회), 교육부 주최 토론회(1회) 및 강좌토론회(3회), 음악부 주관 특별찬양(2회), 탁구대회(1회) 등이 보고되었다. 그 다음해인 1970년 9월부터 1971년 8월 사이에는 54회의 정기예배 집회를 가졌는데, 이중 2회의 야외예배와 성탄 전야 촛불예배, 부활주일 새벽예배 및 이상호 목사의 송별예배가 포함되어 있다. 성찬예식과 세례식도 두 번씩 진행되었으며, 공동회(2회), 임원회(5회), 이사회(6회), 이사회 연석회의(1회) 등의 회의 모임도 여러 번에 걸쳐 집행되었다.



유아세례 후 김광원 목사와 함께 (1968)
좌측부터 김장환/이양자 부부, 김광원 목사,
이상현/이인숙 부부와 세례받은 미형, 서형

■ 이상호 목사 시무: 1968-1969

1968년 5월 공동회에는 약 50여 명의 교인이 참가하여 새현장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현장의 주요 핵심은 교회 구조를 이사회, 교역자우대 위원회, 천거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회(서기, 회계, 재정부, 교육부, 교우부, 음악부, 전도부, 교인적격 심사부)로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교회 조직의 확대는 필요한 것이었으나, 이 과정에 있어서 이사회는 명분뿐이고 실제 교회 운영권이 젊은층의 임원회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장년층이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동회 후 김광원 목사를 비롯하여 40대 이상의 장년층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이상호 부목사가 9월부터 담임목사직을 맡

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청년층과 장년층의 교회운영 방법에 대한 마찰이 표면화된 것이었는데, 7월에 현장개정위원회 위원으로 김달중, 박원기, 김장환이 선출되고, 1년 후인 1969년 5월 공동회에서 장년층이 제출한 새 헌장이 통과됨으로써 다시 운영권이 이사회에 주어졌고, 임원회는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이로 인해 공동회 후 이상호 목사는 즉시 사표를 제출했고, 다시 김광원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맡게 되었다. 이날 공동회는 4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대다수가 1년간 교회를 떠나 있던 다수의 장년들이었다.

어수선한 교회 상황 속에서도 각 부서의 활동들은 계속 진행되었다. 새 헌장에 의하여 정식 교인에게 주어지는 교적증은 이상호 목사가 발급하였다(1969. 1). 3월에는 교육부 주최로 “신학자 칼 발트”라는 제목으로 좌담회가 있었고(이상호 목사, 유시욱 목사 진행), 춘계 탁구대회와 연세대 합창단 방문 공연이 있었다. 4월 20일에는 교육부와 교역자 우대위 공동주최로 좌담회를 가졌는데(박원기 목사 사회), 교회에 관한 세 가지 제목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회란?(유시욱 목사), 교역자의 사명(유철옥 목사), 신자의 임무(이상현 목사). 4월 27일에도 교육부 주최 좌담회는 계속되었는데 고헌중, 김동현, 김장환, 박원기, 황재영 등이 인도자였다.

이상호 목사 약력

이상호 목사는 1929년 5월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서 출생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재무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이명제 목사의 차남으로 출생한 이상호 목사는 1948년 연희대학교(現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수료를 시작으로 동 대학원 신학석사, 미국 Drew University에서 문학석사(1959)와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1971)를 받았다. 김광원 목사 담임시절 부목사를 거쳐(1967~1968) 보스턴한인교회 9대 담임목사로 1년여 간 시무하였다(1968~1969).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1959~1964, 1974~1979)와 목원대학교 신학과 교수 및 신학대학장(1985~1994)으로 오랫동안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은 그는 1994년 정년 퇴직하여 은퇴목사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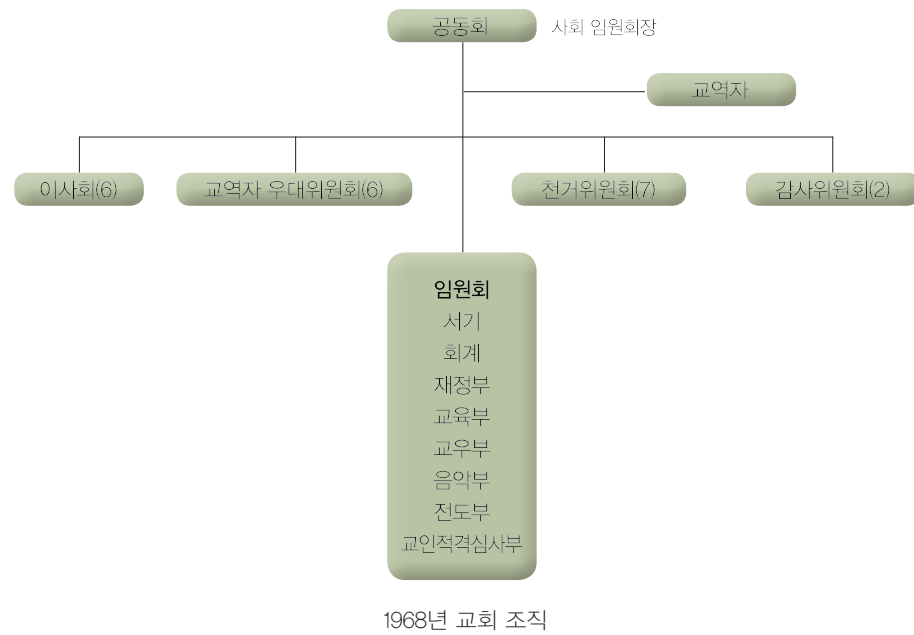
이상호 목사 (1929-2010)

대한기독교감리교에서 목사 안수(1962)를 받은 이상호 목사는 연세대학교와 목원대학교 재직기간 외에는 보스턴에 머물렀으며, 케임브리지 제일한인교회(1979),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Williamstown(1980-1982), United Methodist Church of Chartly and N. Rehoboth(1982-1985) 등의 담임목사를 거쳐, 보스턴한빛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사역하였다(1986-1989). 그 외에도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뉴잉글랜드지역 한인 및 미국인 감리교회 사역을 계속하였다.

이상호 목사는 신약성서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 사회학’과 ‘신약’을 접목시킨 대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성서해석상 요한신학인 진리/실천신학의 전문 주석가로 활동하였다. 또한, 폭넓은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학문적인 지식은 물론 음악, 미술 등 예술을 사랑하여

개인유화전시회(2007)도 열었고, 제자들과 함께 연주무대에 직접 나서는 열성을 보였으며, 일상의 모든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영위했던 신학자였다.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아 목사로 한평생을 보내는 동안 나라와 정의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8월 소천받았으며, 같은해 12월 1억 원의 장학금을 후배 양성을 위해 목원대학교에 기부하였다.¹⁶



1968년 교회 조직

교회 발전을 위한 의견 대립: 교회 현장의 변화

1964년 처음 만들어진 2페이지 9조의 교회 헌장은 초교파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매년마다 수정되었고, 1968년에는 5페이지에 달하는 15조의 헌장으로 확대 개정되었다. 초기에는 최고의결기관인 공동회 아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의 직원회와 이행기관으로서의 임원회가 서로 협조하며 교회 운영을 해왔으나, 교회가 커지면서 교역자와 부서 외에 직원선정위원회, 감사위원회, 교인자격심사위원회를 추가하였다(1967).

1968년에 와서는 더욱 세분화된 교회구조로서 공동회, 이사회, 선거위원회, 감사위원회, 교역자우대위원회, 임원회(서기, 회계, 재정부, 교육부, 교우부, 음악부, 전도부, 교인적격심사부)로 확대되었다. 목사는 교역자우대위원회에서 천거하고 임원회가 동의하면 공동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되도록 되어 있었고, 교역자가 사회를 보는 선거위원회에서는 이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공동회에 천거, 인준받게 되어 있었다.

1968년 5월 공동회 헌장 수정안에 의해 선출된 교회 조직

- 이사: 김창신, 조정현, 안창수, 오원환, 박준영, 황재영
- 교역자우대위원: 고평중, 조정현, 노영희, 김동길, 이영화, 김창신
- 감사위원: 강구진, 고평중
- 임원회: 서기 김동현, 회계 이혜자, 재정부장 김장환, 교육부장 박원기, 교우부장 김달중, 음악부장 배덕운, 전도부장 이상호, 교인자격심사부장 이상현

1968년 이전에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었다. 의견 대립의 초점이 된 5월 현장에는 이사회 권한이 재정적인 면, 즉 건물 자산관리, 교회기금관리, 교회 건물 유지, 용역 인건비, 보험 부채 등에만 의사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한정되어 있었다. 1969년 5월 떠나 있던 장년층에 의해 개정된 교회헌장에는 이사회 권한이 “본 교회를 대표하는 법적 기관으로 교역자의 천거, 임원의 임명, 교회 건물 및 기타 교회자산의 관리”로 개정되면서 모든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반면 전년도에 조직되었던 교역자우대위원회, 선거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백지화시켰다.

일부 교인의 이탈과 복귀

1969년 5월 공동회의 후유증 여파로 한 달 후 본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을 중심으로 격주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박원기, 유철옥, 함성국 세 명의 목사가 협동목회를 함으로써 가칭 뉴잉글랜드 한인감리교회가 시작되었다. 1970년 2월부터 따로 예배를 보고 있는 한인감리교회와의 대화를 시도하던 중, 1971년 1월에는 본 교회에 출석하던 라영복 목사가 한인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1971년 2월에는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으로 김동길, 김장환, 이영화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했고, 통합을 위한 대화의 열매로 3월 부활절 새벽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합의한다. 그 후, 6월 20일에는 합동으로 야외예배를 드림으로써 한발 더 화해의 합의점에 다가가게 되었다(Blue Hills Reservation, Milton, MA). 8월 1일에 있던 제2차 합동 예배에서는 예배 후 두 교회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Kingston Park, Fresh Pond, Cambridge, MA). 결국 보스톤한인교회의 통합준비위원 김영호, 김경세와 뉴잉글랜드 한인감리교회의 라영복 목사, 김달중의 합의로 두 교회는 9월 5일부터 통합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그 합의 내역을 살펴보면, 두 교회 통합을 보스톤한인교회 헌장 1, 2, 3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예배는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드리며, 교역자 문제는 교회현장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외의 교회현장은 차차 개정하기로 하였다.

1971년 9월 12일 보스톤한인교회와 뉴잉글랜드 한인감리교회의 통합 특별 감사예배가 김광원 목사의 사회로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있었다. 통합 교회명칭은 계속 보스톤한인교회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보스톤한인교회는 1974년 3월 이 지역 두 번째 한인교회인 성요한 감리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21년간을 뉴잉글랜드 지역의 유일한 한인교회로 존재했었다.

16. 목원대학교 발전협력실, <http://fund.mokwon.ac.kr/sub0402/articles/view/tableid/development-fund-news/page/5/id/69>.



박대선 목사 방문 (1970)
좌측부터 최시원, 이상호 목사, 박대선 목사,
김동길 교수, 이석진



김광원 목사 부부와 교회 임원진 (1970)
좌측부터 조정현/한사숙 부부, 김광원 목사 부부,
김동길 교수, 뒷줄에 노원찬

■ 김광원 목사 재시무 1969-1971

1969년 6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무를 시작하게 된 김광원牧사는 1966년 5월에 시무를 시작하여 1년은 떠나 있었으나, 1971년 10월 권진태 목사가 보스톤한인교회 역사상 첫 전임목사로 부임할 때까지 총 4년 7개월을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part-time 목사로 가장 오랜 기간 보스톤한인교회를 목회한 교역자다.

1969년 5월에 열린 1차 이사회에서는 김광원 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했고, 6월 이사진(노원찬, 고광중, 옥인걸, 김창신, 조정현, 안창수)을 선출하고, 임원진을 구성하였다(서기 노영희, 김연자, 회계 한사숙, 음악부 옥인걸(지휘), 교육 이해자, 교우부 고광중). 이 시기 이사회(의장 노원찬)에서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위원회 규약도 제정하였다.

최할머니로도 유명한 김원경 여사가¹⁷ 전교인을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였다(1969. 5. 2). 6월 21일에는 야외 예배를 Houghton's Pond, Blue Hills Reservation, Milton에 나가 드렸다. 그 해 8월 16일에는 한인회 주최로 광복절 기념식과 야유회가 있었는데, 이에 참석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Nahant Beach, Lynn에서 드렸다.

9월 26일에 열린 정기 공동회에서는 늘어난 교회 재정에 대한 연례 보고가 있었는데(총예산 \$3,660, 수입 \$3,543, 지출 \$3,418), 이 공동회에서 건축위원회는 교회건축헌금으로 모아진 금액 및 약속금 총액이 \$7,899에 달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1971년 10월 본 교회 최초의 평신도 수양회는 교육부장 노정선이 주관하고, 본 교회 교인인 최시원, 길희성, 유철옥 등이 강사로 수고하며, 약 20명의 교인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Framingham Congregational Church, Conference Center, MA). 또한 교육부 주관으로(교육부장 노정선) 손으로 쓴 legal 사이즈 한 페이지 남짓한 교회 Newsletter가 "Boston Korean Christian Church"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는데, 사본은 1972년 1월부터 남아 있다. 1971년 선출된 새 임원들 명단에서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보인다(서기 김삼영, 회계 김장환, 교육부장 노정선, 교우부장 한승희, 음악부장 김석두).

17. 김원경(Florence WonKyoung Kim Choi): 1960년부터 1981년 소천받을 때까지 보스톤한인교회의 교인이었으며,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재단이사를 역임하였다. 최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주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지도자로서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보스톤한인사회와 본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남편 최창식(崔昌植)옹과 함께 독립투사로서 3.1운동 후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으며, 1959년 상해로부터 미국으로 이민했을 때에 남편의 유해를 가지고 와서 보스톤지역에 있는 McDonald Funeral Home에 모셨다. 김원경 여사는 평소 소원이 본인은 부군의 유해와 함께 그들이 일생을 바쳐 사랑했던 조국강산에 묻히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고 최창식옹의 유언이기도 하였다. 그녀가 소원한 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진정하여 1983년 고 최창식 옹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모시게 되었다.

■ 사역자 및 봉사자 명단 1962. 01-1971. 10

목회자	1962-1963 이상현, 이계준, 함성국 공동 1963-1964 함성국 1964-1966 안상엽 1964-1965 신성국, 유시욱, 이상현 1966-1968 김광원, 김중기, 박원기, 이상현 1968-1969 이상호 1969-1971 김광원
임원회	1962 김성하, 이계준, 이종진, 박효영 1963 총무 김성하, 회계 한사숙, 서기 박준영, 사교 장시봉 1964 함성국 담임목사, 김성하, 옥인걸, 이상현, 이종진, 조정현, 서기 박준영, 회계 한사숙 1965 안상엽 담임목사, 서기 김장환, 부서기 이인숙, 종교교육부 이상현, 회우부 이태섭, 회계 한사숙, 음악부 옥인걸 1966-1967 김광원 담임목사, 서기 김장환, 부서기 고인호, 회계 한사숙, 교육부 이상현, 회우부 김달중, 음악부 박원기, 전도부 김중기, 직원회의장 조정현, 직원회부의장 김창신 1967-1968 김광원 담임목사, 서기 김장환, 회계 김동길, 교육부 이상현, 음악부 박원기, 회우부 김달중, 전도부 이상호, 감사위원 박현수, 이영화 1968-1969 서기 김동현, 회계 이해자, 재정부 김장환, 교육부 박원기, 교우부 김달중, 음악부 배덕윤, 전도부 이상호, 교인자격심사부장 이상현 1969-1970 서기 노영희 김연자, 회계 한사숙, 음악부 옥인걸(지휘), 교육부 이해자, 교우부 고광중 1971-1972 서기 김삼영, 회계 김장환, 교육부 노정선, 교우부 한승희, 음악부 김석두, 출판부 현철우
직원회	1964 안상엽, 옥인걸, 유시욱, 이상현, 이종진, 장시봉, 한사숙 1966-1967 고인호, 김광원, 김달중, 김장환, 김중기, 김창신, 박원기, 박준영, 유시욱, 윤석구, 이상현, 이종진, 조정현, 한사숙, 함성국 1967-1968 의장 조정현, 부의장 김창신, 위원 김광원, 김달중, 김동길, 김동현, 김장환, 노영희, 박수자, 박원기, 박준영, 박현수, 이상현, 이상호, 이영화
이사회	1968 이사회장 조정현, 부회장 황재영, 위원 김창신, 박준영, 안창수, 오원한 1969 고광중, 김창신, 노원찬, 박준영, 안창수, 옥인걸, 조정현 1971 김경세, 김영호, 김장환, 노원찬, 박준영, 배덕윤, 옥인걸, 조정현
교역자 우대위원	1968 고광중, 김동길, 김창신, 노영희, 이영화, 조정현
감사위원	1968 강구진, 고광숙
성가대	1964 음악담당 옥인걸 1967 성가대 지휘 최시원, 대원 김경자, 김달중, 김동필, 박원기, 유의경, 이해자, 정소영 1968 성가대 지휘 배덕윤 1969 성가대 지휘 옥인걸 1971-1973 성가대 지휘 김석두, 대원 김석두, 노정선, 박용철, 손옥희, 이양자, 임나경, 차진선, 한승희

주악/반주	1963 한사미 1966-1968 조광희 1969 김연자 1970-1971 이양자 1971-1979 변화경
교회건축위원회	1966 위원장 김광원, 서기 조정현, 회계 추애경, 위원 김동길, 김영호, 김창신, 김한주, 박현수, 함성국
교회발전위원회	1965 김장환, 이상현, 이종진, 조정현
헌장위원	1964 기초위원 안상엽, 이상현, 이종진, 한사숙 1968 개정위원 김달중, 김장환, 박원기



제 3 장

발전하는 초기 교회

1971. 11 - 1977. 12

KCB in Early Church Development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보여 주셨건만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눈이 가리워
그 길을 외면하기 일쑤였으며
가정 안에서 화합하지 못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했으며
소외되고 아픈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보지 못했고

- 보스턴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읽는 첫 회년 신앙고백서 중에서

간추린 시대 개관 1971. 11-1977. 12

발전하는 초기 교회

창립한 지 2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초, 보스톤한인교회는 처음으로 권진태 전임목사(full-time)를 맞게 되었다. 11대 권진태 전임목사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보다 체계적인 교회 조직과 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교회 활동이 친교, 출판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등록교인 수도 120여 명까지 늘어났고 교회 예산도 증가하였다.

새로 시작된 교회 활동으로는 주말 수양회, 여름 수양회, 전교인 수양회, 신앙강좌, 어머니주일 찬송가 경연대회(1976), 뉴스레터 발간, 보스톤한인교회 회보(연례보고서) 발간 등이 있었다. 현장수정을 통한 교회의 구조적 개선을 꾀하는 한편, 여신도회, 청년부, 주일학교, 성인 성경공부반, 구역모임 등의 새로운 교회조직이 시작되었다. 특히 성가대의 탄탄한 기틀이 마련되었고, 여신도회의 헌신적인 많은 봉사가 시작되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3년에는 성대한 창립 20주년 행사를 가졌다.

늘어나는 교인과 교회 활동으로 공간의 제약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건물 사용에 많은 제약이 생겨서 새 교회 건물을 찾는 노력도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초교파 교회의 성격상 미국 내 다른 Christian community와의 소통이 결여되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나타났다.

1974년 3월 권진태 목사가 사임하고 김갑동 목사가 취임하여 12대 목사로 사역을 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는 첫 전임목사와 교인의 일부가 떠나가는 아픔과 충격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목회자 김갑동 담임목사와 함께 묵묵히 교회의 초석을 다듬어 나갔다. 전임목사라고는 하지만 신학공부를 계속하던 권진태 목사와 김갑동 목사는 전적으로 교회 목회만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고, 여전히 초교파 교회로서 하나의 법인체와 같이 운영되고 있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목회자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김갑동 목사는 1977년 12월에 사임했고, 이에 따라 보스톤한인교회는 새로운 목회자를 찾는 과정을 일년 이상 계속해야 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민자와 유학생이 급증하고 한인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여러 교파의 다양한 한인교회들이 속속 세워졌다.



졸업축하예배 후 권진태 목사, Rev. Saphar와 교인 일동 (1973 여름)



A Brief Chronicle 1971. 11–1977. 12

KCB in Early Church Development

In the early part of the 1970s, almost 20 years after its founding, the KCB finally had its first full-time Pastor. As the Rev. Jin Tae Kwon, the 11th pastor of the KCB, started his full-time ministry, the church became more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structured. The KCB's ministry activities expanded especially in the areas of the fellowship and church publications. The registered church membership increased to about 120, and the KCB's annual budget also increased.

The newly-started church programs included: weekend spiritual retreats, an annual summer retreat for the entire congregation, theological forums, an annual Hymn-singing contest on Mother's Day Sunday among the Bible study groups (starting in 1976) and publication of church newsletters and the KCB annual report. The KCB's by-laws were amended to allow the creation and activities of new church group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omen's group, the Young Adults group, the Children's Sunday School, the Adult Bible Study group and a number of small Bible study groups organized according to geographical locations (GuYuck). During this period of early church development, the KCB's choir established a firm foundation with many activities within and outside the KCB. The Women's group's dedicated services were instrumental in developing various KCB's ministry activities. In November 1973, the KCB celebrated its 20th anniversary with a grand worship service and a number of memorable events. Because of its growing membership and expanded church programs and activities, the KCB's ministry was often stymied by the limited usage of the church building and its facilities, owned by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This led to some efforts by the KCB's leadership to look for a new place of worship and ministry. Being a non-denominational church, however, the KCB lacked proper relationships with or access to various resources of other churches and Christian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Thus, the KCB had to resolve and overcome the various issues arising from its own church identity.

In March 1974, the Rev. Jin Tae Kwon stepped down, and the Rev. Kap Dong Kim was elected and installed as the 12th Pastor and continued with the KCB's ministry. The KCB had to bear the pain and shock from the departure of few members who followed the Rev. Jin Tae Kwon who left and established a new Church in the Greater Boston area. The remaining members endured and pursued together with the new Pastor, the Rev. Kap Dong Kim, the difficult task of rebuilding a firmer foundation for the future of the KCB. While both the Rev. Kwon and the Rev. Kim were full-time Pastors, they were also pursuing their graduate studies in Theology at the same time. It was very challenging for them to fully devote to the KCB's ministry, thus the KCB remained as a non-denominational church and was run more like a corporation. In December 1977, the Rev. Kap Dong Kim also stepped down, citing a dire need for the KCB to have a new pastor who could totally immerse in its ministry, for a brighter future of the KCB. As a result, the KCB was searching for a new pastor for over a year.

During this period, a rapid increase in new Korean immigrants and students resulted in a large Korean population in New England. So, it was natural that other Korean churches of various denominations sprouted and became established in the greater Boston area.

■ 당시의 국제정세와 한국사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 간의 긴장이 다소 누그러지게(데탕트, Détente) 된다. 양쪽 진영의 대립 관계를 풀기 위해 협정과 조약 등을 체결하면서 전세계가 이념과 사상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평화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을 통해 미중 핑퐁외교의 문을 여는 동시에 소련과의 전략 무기제한 잠정협정 등으로 선두에서 데탕트를 실현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조건부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Roe v. Wade case, 1973), 연이어 1차 중동 오일파동(1973-1974)과 Watergate scandal로 인한 닉슨 대통령의 사임(1974)이 미국은 물론 세계 많은 나라들을 실의와 충격에 빠지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은 데탕트를 실현코자 하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고, 많은 갈등과 혼돈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는 데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통해 7대 대통령이 된 후(1971),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그 기간 동안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을 모두 권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절대적 대통령제를 가능케 하는 유신헌법 안을 통과시켰다(1972). 같은 해 7.4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독재 권력 기반에 힘을 신는 한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새마을 운동과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1977년에는 1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의 경제 부흥을 가져왔으나, 절대 권력에 따른 여러 가지 모순과 부정부패 및 탄압 등에 맞서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끊임 없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학생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다.

■ 당시의 보스톤 한인사회

1965년 동양인들의 이민 쿼터제가 없어진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입국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위를 받은 후에도 미국에 남아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여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면서 미군과 결혼한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초청의 주역을 담당하게 된다. 196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난 미국 내 한국인 이민자의 수는 1968년에 10,000명선을 넘어 1976년에 이르러 30,000명 이상을 넘게 되었다. 미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1966년부터 1976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아 입국한 한국인은 약 175,000명으로 그 중 863명이 매사추세츠에, 그리고 1,673명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미국 상무성 통계, 1970).

1970년대의 보스톤 지역 한인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여전히 유학생이었다. 보스톤한인교회 역시 초교과 교회를 유지하며 유학생인 여러 다른 교파의 목사들과 함께 유학생이 주류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 여전히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이 지역의 모든 한인들에게 문이 열려 있었고, 특별한 절기나 기념식에는 한인들 모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초대했으며, 예배와 만찬을 통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곤 하였다.

뉴잉글랜드학생회가 1967년 한인사회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뉴잉글랜드 한인회(The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1968) 소속이 되면서 한인사회는 점점 더 조직적인 체계와 효율적 운영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회장 강홍렬, 1972-1973) 한인회에서는 한인회 정관을 만드는 한편 간사와 이사제도를 택하여 150여 명이 모인 총회를 통해 처음으로 6명의 초대 이사(안창수, 김창신, 김영호, 홍순성, 황재영, 조해영)를 선출하였다.¹

■ 최초의 전임교역자 권진태 목사 1971-1974

1970년까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이사 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사역자도 매년 신학기 9월이 되면 신입 직원들과 함께 새로 임명되는 구조였다. 1966년 5월부터 part-time으로 시무해왔던 김광원 목사(보스턴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1971년 8월 직원 선출 시 구두로 사의를 표하였다. 이사임원 연석회의에서는 계속 시무해주시기를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명예목사 또는 건축위원회 고문으로 모시려던 시도도 끝내 본인의 사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스톤한인교회 교인들은 후에 성금을 모아 그 동안 수고한 김광원 목사에게 은그릇을 선물하였다.



권진태 목사

1971년 8월 26일 김광원 목사 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김광원 목사의 천거로 부목사로서 사역을 돕고 있던 권진태 목사를 전임목사로 선출하게 되었는데(참석자 김광원 목사, 권진태 목사, 김영호, 박준영, 김경세, 노원찬, 김장환 등), 당시 권진태 목사는 1971년 2월부터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 1971년 11월 12일 김영호 이사장 부부는 당시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세이퍼(Saphar) 담임목사 부부를 만찬에 초대하여 권진태 목사를 소개했고, 11월 14일 임시공동회를 통해 권진태 목사를 담임목사로 확정 지은 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권진태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박원기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156명이 참석하였고 총 헌금액은 \$655.60이었다.

권진태 목사의 사례비는 연간 목회비를 포함하여 \$3,360로 교회 총예산(\$6,660)의 절반이 넘는 액수였으나 충분한 사례는 아니었다. 한편 권진태 담임목사의 이민 수속을 추진하였는데, 변호사비 등의 경비는 특별헌금에서 감당하기로 하고, 일의 진행은 김영호 이사장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회 재정의 축복

1963년 \$900로 시작한 보스톤한인교회 예산은 브루클라인으로 이전해 온 이후 1971년 \$6,660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임목사를 모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1971년 10월 이사 임원 연석회의에서는 전임교역자 연간 사례비 및 목회비 \$3,660을 포함한 \$6,660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외부 설교자, 반주자, 지휘자, 악보 등 예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1,320, 교우부 \$200, 서기부 \$200, 교육부 \$200, 봉사비 \$400, 예비비 \$200 등의 기록이 당시의 사역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수입 면에서는 주 평균 \$40 헌금으로 이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재정이었다. 1971년 말부터 월정헌금을 권고하게 되고, 그 결과 1972년 1월에는 회계 김장환이 36가정 \$4,375의 약정헌금이 들어온 것을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아직도 교회는 학교 캘린더에 맞춰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이 회계연도였는데,

1. 뉴잉글랜드 미주한인이민 백주년기념사업회, 뉴잉글랜드한인사, 2004.

1972년 8월 31일 보고에 의하면 실제 수입 \$8275.81에 지출이 \$7645.75로서 예산액보다 넉넉한 수입에 지출도 이에 따라 늘어났음을 알 수 있고, 각 부서 예산도 고르게 증가하였다. 첫 전임목사를 모시고 꾸려온 첫 해의 재정은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넉넉한 축복이었다. 교회 예산은 계속 증가를 보여 1974-1975년에는 \$14,420, 1976-1977년에는 \$21,352로 늘어나게 되었다. 건축위원회는 1972년 8월 총 \$8,414(약속헌금 \$1,660포함)의 건축기금이 적립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권진태 목사의 목회관

1972년 9월, 1년의 목회를 끝내면서 권진태 목사는 그의 목회관을 보스톤한인교회에 제시하였다. 그는 목회관 서언에서 목회계획의 실제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으려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생애를 따르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가 여하(如何)히 그리스도와 같이 흠이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여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로 불완전한 우리들은 피차 신앙의 공동체로서 도우며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한 목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목회와 목회 계획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면서 한편 다른 의미와 내용 그리고 역할을 지니고 있다. 목회는 추상적인 의미가 강하고 목회 계획은 실제성이 강조되고 있다. 목회 계획은 “이러해야”한다는 당위의 귀정(歸正)이 있을 수 없다. 목회 계획은 지역, 인종, 지식수준, 생활환경, 연령, 기타에 따라서 목회 계획이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스톤 하면 여기에 합당한 특수한 목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대로 목회를 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부족한 것은 수정을 가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회 계획의 수립이라고 볼 수 있겠다. (권진태 목사의 목회관, 1972. 9.)

그는 또한 4장에 걸쳐 자세하게 그의 목회방향과 교회의 나아갈길, 교인들의 신앙 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인들 중 상당수가 신학공부를 하는 목사들과 신학생들인 교회의 특성상 교회 조직 개편이나 목회 방

- 주일성수의 강화
- 설교는 성서 본위로 예수의 일생과 교회력에 따라 준비
- 교회력에 따른 성례식 집행
- 교회력에 따른 다양한 예배의식의 시도(실험 예배, 음악 예배)
- 평신도의 예배순서 참여관장(기도, 사회, 평신도 설교 등)
- 한인 교회 특수성 부각(헌신 예배의 부활, 새 교인 입교식 순서 창설)
- 교인 유치운동과 새 교인 증가 방안
- 한인교회 병폐 제거(개인주의/그룹 형성 경계, 낙심한 교인들에 대한 관용성)
- 교회와 목사의 신앙생활(심방, 개인 면담/전화, 새 교인 접촉 등)
- 교회와 한인 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특별 행사의 필요
- 협동목회 실현을 위한 노력
- 자립 교회로의 성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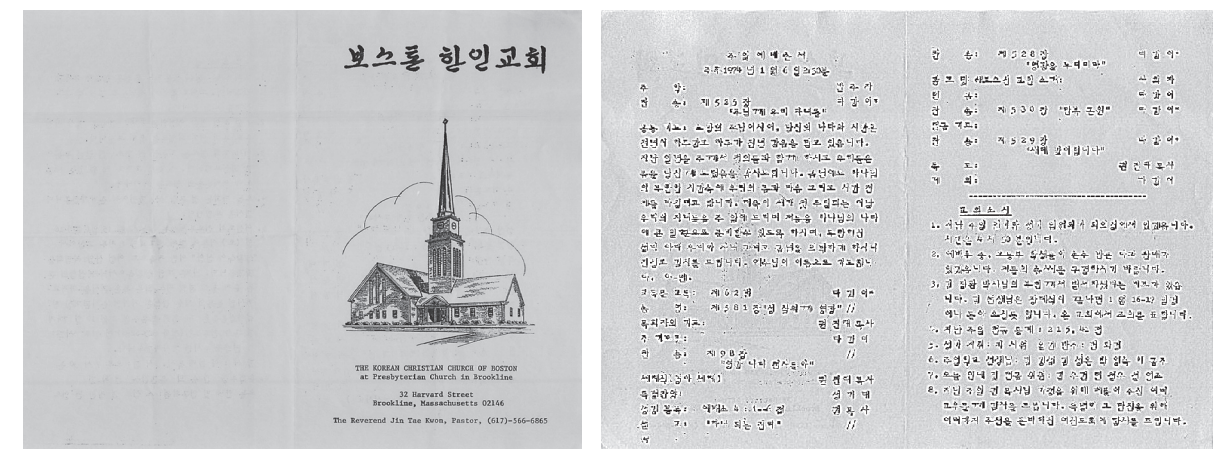
향 설정이나 구체적인 목회지침에 교인들의 참여의지는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2년 4월부터 교육부와 몇몇 임원들이 교회발전을 위한 교회조직 개편 등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1972년 9월 권진태 목사의 목회관 발표가 있는 후, 그 해 10월에 목회방향설정 특별위원회에서는 권진태 목사의 ‘목회관’을 검토하기로 하고 특별위원으로 노정선, 한승희, 최시원, 김영일, 김희성, 김장환, 정경조 등을 선출하였다. 한 달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한인교회의 특수성에 중점을 둘 것과 장기적 방향 설정의 필요성 및 제직회 참여 등을 권고하며 권진태 목사의 목회관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담임목사의 목회관에 대한 교인들의 참여는 보스톤한인교회의 독특한 교회 운영 모습이었다.

1973년 9월 예배위원회 위원장 정경조의 보고를 듣고 제직회에서는 설교와 찬양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의 예배에 대한 기대가 달라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김영호 이사가 장이 “교우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맡은 사람들의 노고를 이해해 줌으로써 시끄럽지 않은 교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제언이 있었다. 당시 성가대 지휘자는 최시원이었고, 오르간 연주자는 변화경이었다. 1972-1973년 임원으로 서기 정경조, 회계 맹주선, 재정 최시원, 교우 김희성, 봉사 노정선, 교육 김영일, 음악 한승희가 선출되었고, 1973년 9월에는 제직회장으로 김감동 목사가 선출되었다.

■ 조국을 향한 마음

보스톤한인교회는 아직 선교나 모국을 도울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와 조국을 향한 모두의 마음은 헌금과 기도로 나타나 있다.

날짜	활동내용
1972년 6월	뱅글라데시 피난민에게 \$44.10을 보냄
1972년 9월	한국기독교연합회 구호사업부를 통해 한국 수재민에게 \$110.05 전달
1973년 1월	조국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달로 지킴
1974년 3월	3.1절 특별헌금을 '투옥된 한국의 교역자 가족 돕는 곳'으로 보냄



보스톤한인교회 주보 (1974)

■ 교육사역의 확장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교육사역은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하게 펼쳐져 평신도 수양회, 하계캠프, 성경공부반, 구역별 모임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이같이 활발한 사역은 노정선(1971), 김정섭(1972), 김영일(1972-1973), 길희성(1974)으로 이어진 교육부장들의 노력과 봉사가 큰 몫을 하였다. 중고등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취소되었다.

■ 성경공부반과 구역모임 시작

평신도에 의하여 시작된 성경공부반도 이 시기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역이다. 1972년 2월부터 시작된 평신도 성경공부반은 최시원 주관 하에 길희성이 주로 인도하였다. 처음으로 구역제도를 도입하여 교인 전체를 4구역으로 편성하고 각 구역마다 구역장과 지도목사를 임명하는 등 구조적으로 조직화하는 활동들이 두드러졌다(1974년 1월).

Boston	구역장 김우진, 지도 김갑동 목사
Cambridge	구역장 권순호, 지도 라영복 목사
Lexington	구역장 이종원, 지도 송길섭 목사
Lowell	구역장 현철우, 지도 이형기 목사, 길희성

보스톤한인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뉴잉글랜드 지역 내의 유일한 한인교회였고, 게다가 보스톤 지역에 많은 신학교가 있었던 이유로 학위나 연구를 목적으로, 혹은 방문차 온 목사가 많이 출석하고 있었다. 또한 적지 않은 수의 교인들이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기도 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교회 출석 당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 신학생들이었고, 몇몇은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교인들이었다. 교회사역에 적극 참여했던 목사로는 김갑동, 라영복, 박원기, 송길섭, 이형기, 고인호(필라델피아 한인교회 목사로 후에 부임), 이진태, 유철욱, 이상호, 최양선 등이 있었고,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정경조 목사가 있다.

1974년 3월 권진태 목사와 함께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남으로써 구역의 수가 일시적으로 3구역으로 조정되었다가 1974년 말 Cambridge, Boston, Newton, Lexington, Lowell 다섯 구역으로 다시 확대 조정되었다.

■ 주말수양회와 여름수양회

1971년 10월 최초의 평신도 주말수양회를 가진 후 이듬해 4월 두 번째 주말 수양회를 가졌다. 교육부와 교우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두 번째 수양회는 “기독교인의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Framingham Congregational Church의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다. 내부 강사 최시원의 예배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주제에 대한 발제자는 김경세, 김장환, 길희성이었다.

1972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가진 본 교회 제1회 전교인 여름수양회는(Ossipee Lake, NH) “한인 교회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최시원이 캠프 준비 위원장으로, 노정선과 김영일이 강사로서 많은 수고를 하였다. 전교인이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는 캠핑을 하면서 수양회에 임했는데, 예배 이외의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좌담회, 단체 경기, 물놀이, 환등기 및 영화 상영, Folk Dance, Camp Fire, White Mountain 관광 등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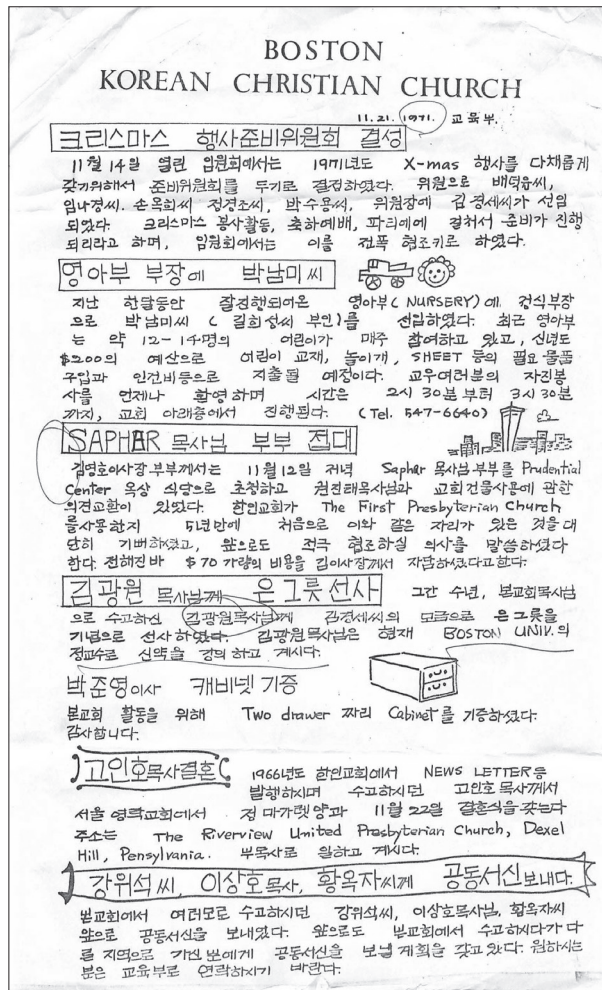
전교인 여름수양회. Camp Calumet Lutheran, NH (1973)

교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2박 3일의 첫번 수양회가 너무 짧았다는 의견에 따라 제2회 여름수양회를 같은 장소에서 3박 4일로(1973. 7. 13-7. 16) 가졌는데, “현대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인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송길섭 목사, 이진태 목사, 이승운 목사 등이 강사로, 최시원, 김장호, 현철우, 이철희, 노정선 등이 캠프 준비 위원으로 수고하였다.

1971-1973년의 수양회를 보면 그 형식이 내부 평신도 강사, 신학생들을 위주로 한 발제, 강의,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의 교회 분위기가 신학적이고 학술적인 면의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도전의식이 강한 지성적인 한인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정신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 신앙의 근거를 하나도 용서 없이 신랄하게 물어온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부모님에게, 교회에게 교부들에게 또는 초대교회에게만 우리의 신앙의 출처를 미룰 수는 없다. 바쁜 Schedule에 Highway를 정신없이 달리며 나날이 긴박한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자신의 자세를 돌이켜 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이번 캠프에서 우리들의 대화를 통해서 각자의 자세를 살펴보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권하고 싶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5-7장, 로마서 12-13장이다.

- 현대 기독교인의 자세 중에서(발제자 이진태 목사)



교회 뉴스레터 (1971)

■ 최초의 교회 뉴스레터 발간

최초의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는 1966년 4월에 1호가 발행되었는데, 편집위원으로는 안상영 목사, 고인호, 이상현, 김장환이 수고하였다. 이 소식지는 동년 8월 1권 4호까지 발간되었으나 안타깝게도 1부도 남아 있지 않다.

그 후, 권진태 목사 취임 바로 전인 1971년 10월 교육부(부장 노정선, 기자 민영숙)에서는 Boston Korean Christian Church 라는 교회 이름으로 뉴스레터를 다시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대상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인사회 전체에 교회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2년간 발간된 이 월보는 legal 사이트 한쪽 면에 손으로 쓰여졌으며 한철수, 김장호, 현철우로 출판위원장이 이어졌다.

■ 여신도회의 발족과 활동

1966년 4월 보스톤한인교회의 18세 이상의 자매들을 대상으로 여전도회를 발족하려는 첫 창립 총회 공고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회원 명단이나 임원단의 선출 여부 등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 후의 모든 기록에서도 여전도회의 이름이나 활동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전도회가 발족이 안 되었거나 활동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도회가 여신도회의 이름으로 다시 기록에 나타난 때는 권진태 목사 취임 다음주인 1971년 11월 28일이다. 여신도회 창립총회

에서는 교회 전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 발기인은 고준기, 정소영, 이양자, 조신자 등이며, 고문 김원경, 이정화, 회장 고준기, 부회장 신남옥, 총무 박영복, 회계 김명숙, 서기 조광희, 부서기 임나경, 전도부장 김성윤, 친선부장 이양자, 사업부장 임강옥, 구제부장 조신자, 그리고 영아부(유치부) 부장은 박남미였다. 1972년 2월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되면서 여신도회는 영아부를 함께 이끌어갔다.

여신도회의 첫 사업은 교회 건축을 위한 바자회였다(1971. 12. 12). 만두, 한국 수예품 등을 판매하여 얻은 \$161의 수입은 모두 건축기금으로 교회에 헌금되었다. 이후 바자회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교회 봉사과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1974년 2월 15-16일 양일에 걸쳐 여신도회 전도부 주최로 여성 신앙 좌담회(전도부장 김금하, 강사 이진태 목사 "생활 속의 신앙")가 진행됐고, 여신도회 사업부 주최로 조루미 여사의 요리 강습과 권순호 선생의 Tax에 관한 강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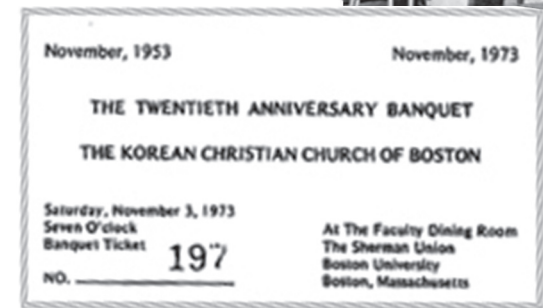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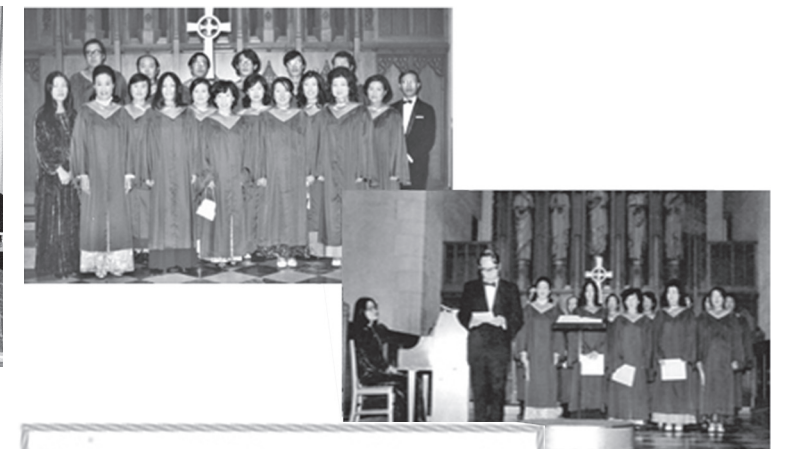
1973년 11월 3일과 4일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러 형태의 기념행사로 심포지엄, 기념음악회, 공식 연회(Banquet), 기념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11월 3일 정오에 가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보스톤대학교 Sherman Hall, 강사 이상철 목사, "재미 한인교회의 비전")을 시작으로, 그날 오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가 본 교회 창립예배 장소인 Marsh Chapel에서 있었다. 최시원 지휘와 변화경 반주로 본 교회 성가대는 Vivaldi의 Gloria 중 몇 곡을 연주하였다. 이어서 저녁 7시에는 보스톤 대학교 Sherman Union의 Faculty Dining Room에서 공식 연회가 있었다. 다음날인 11월 4일에는 강사 황재경 목사를 모시고 창립 20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는데,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박대선 창립목사가 20주년 기념 축사를 보내왔고, 뉴욕 총영사 관에서도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찬조금을 보내왔다.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인 이사장 김영호를 비롯하여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의 권진태 목사, 박준영, 김장환, 그외에 음악부, 재정부, 출판부, 여신도회가 모두 협력하여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20주년 당시 기념사진 전시회 및 역사 편찬을 계획했으나, 진행되지 못하고 역사자료만 수집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가 보스톤 지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마음의 오아시스가 되어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전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의 모범이 되어 "이것이 한인교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멀리서 빌고 있습니다.

- 박대선 목사 창립 20주년 축사 메시지 중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재미한인교회의 비전" (사회: 김희성, 발제자: 이상철 목사, 패널: 박원기 목사, 이형기 목사, 라영복 목사)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 (1973)

■ 교회 건물 사용의 제약과 청소 문제

1967년 9월부터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호의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교회 건물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건물 사용이 허가된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는 예배와 친교, 간단한 회의를 하기에 들 시간이 부족했고, 사무실 겸 회의실로 주어진 본당 앞쪽 조그마한 방송실만으로는 늘어난 교회 활동과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해를 거듭하면서 교회 건물 사용 문제로 제일장로교회와 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1971년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Saphar 목사²의 “청소 및 건물 내 정돈에 대한 강경발언”이 있어서, 권진태 목사를 비롯하여 김영호 이사장, 노정선 봉사부장이 함께 세이퍼 목사를 면담했고(1971. 9), 봉사부에서는 청소부를 신설하여 교육부와 여신도회의 협조를 얻어 교회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청소와 전기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당시 건물 대부분(본당, 친교실, 1, 2층 복도, 탁구실, 회의실, 영아실, 1, 2층 부엌, 1, 2층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2년에는 청소 전문인을 고용하여 교회 청소를 담당케 했는데,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에서 건물 대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교인들이 직접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성탄예배 (1973)
주일학교 학생들의 특별찬양과 교인들 모습

처음 교회를 빌려 쓸 때에는 렌트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일 년에 두 번 부활절과 감사절에 약 \$200씩의 헌금을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에 하였고, 헌금 액수는 시간이 가면서 \$350(1972), \$400(1973)로 증가되었다. 1976년 4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는 교회 유지 경비를 공동 부담하자는 의견과 함께 부담액 \$4,024.51을 제안했으나, 당시의 교회 재정으로는(일 년 예산 약 \$20,000)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회의를 통해 1976년 9월부터 월 \$200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보았고(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John Rouvel 목사와 김갑동 목사가 합의서에 사인), 1978년 4월부터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 달에 \$300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교인 결혼식 관계로 예배를 한 시간 늦춰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 1976년부터는 모든 교회 행사에 대해 서면으로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예배와 사역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다. 제일장로교회에 수차 건의도 하고, 여러 형태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별다른 태도의 변화가 없어 다른 교회 건물을

알아보자는 의견이 대두되곤 하였다. 이에 이사 임원 연석회의에서는 새로운 교회 장소를 물색해 보았으나, 번번이 현 장소보다 못하다는 보고로 자체 건물을 가지고자 하는 열의가 더해져 건축기금 마련에 힘을 쏟는 결과를 가져왔다. 홍근수 목사 취임 후인 1979년 5월에도 다시 한번 다른 교회 장소를 알아보기 위한 ‘교회 건물 물색 시찰보고’가 있었으나, 더 나은 장소가 없다는 결론만 재확인하였다.

2.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의 Edwin G. Saphar 목사는 1973년 3월 11일 자신의 취임 35주년 기념 예배시 보스턴한인 교회에서 간단한 선물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Saphar 목사는 1975년 11월에 은퇴하였다.

■ 미국교단, 교회,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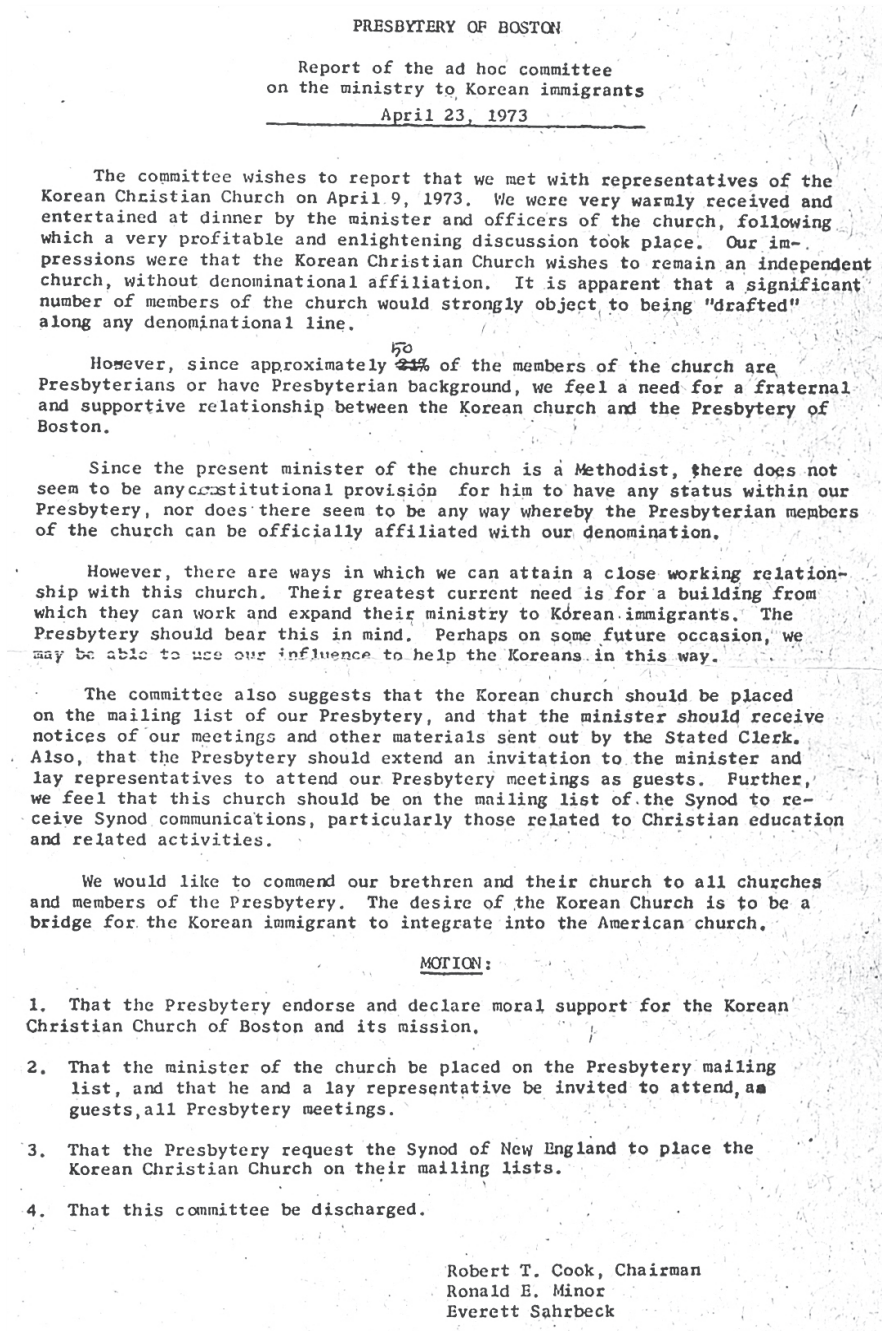
보스턴한인교회는 초교파 교회를 지향하고는 있었으나, 여러 미국 기독교 교단과 한국교회협의회 등과 같은 단체들과의 소통 내지는 가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외부 교단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본 교회의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NCCC) 가입문제를 협의했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1972. 2. 3). 당시 NCCC의 Associate Executive Director of the Commission on Regional and Local Ecumenism으로 일하던 Dr. C. Hoyer는 보스턴한인교회는 어느 교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CCC 가입은 불가능하며 Massachusetts Council of Churches(MCC)나 Association of Community Church(ACC)에는 가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미국 내의 많은 소수 인종 교회들이 지닌 한계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소수 인종 교회들이 자체 내 신앙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여 미국 내의 기독교 운동에 참여하지 못해 고립되어 있고, 결국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향이 다반사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적으로는 Americanization이 늦어짐에 따라 미국사회 속에서 고아로 밀려날 우려가 있음도 더불어 충고하였다.³ 1973년 보스턴한인교회는 MCC에 observer member로 받아들여져 권진태 목사와 김영호 이사장이 MCC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외부 교단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1972년 8월 목회방향설정 특별위원회는 Korean Caucus 확장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Waltham 장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Korean Sunday에 협조하기로 하고 이 일을 위해 여상권 이사를 전담임원으로 임명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한국을 알리고 한국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구상이 미국 교회와의 성가대 교환 봉사, 영어 newsletter 및 영어로 된 KCCB 안내서 발간, 한국 홍보물 보급, 한국전 참전용사와 한국에 우호적인 미국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단체 형성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되었는지에 관한 결과는 알 수 없다.

1973년 2월에는 중국인교회에서 주최하는 구정맞이 댄스파티에 김원경의 주선으로 참여했고, 4월에는 권진태 담임목사가 뉴욕지구 교역자회의에 참석했고 이어 Bronx 교회 주관 연식야구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보스턴한인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물론, 대한민국의 민간 사절단으로서 한국을 알리는 데 동분서주하기도 하였다.

1973년 4월에는 미국 교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Presbytery of Boston의 ad hoc Committee on the Ministry to Korean Immigrants를 대표하는 Robert T. Cook외 2명의 위원들과 보스턴한인교회를 대표하는 권진태 목사, 김영호, 김장환, 노정선이 회합을 갖고 앞으로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에 동의하여 상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를 통해 보스턴 노회는 보스턴한인교회 구성원의 약 50%가 장로교인임을 인지하고 한인교회 사역을 돕는 데 동의했으며, 보스턴한인교회의 목사와 평신도 대표가 노회의 모든 회의에 guest로서 참석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3. Boston Korean Christian Church 뉴스레터, “Dr. Hoyer와 본교회 문제 협의,” 1972년 3월호.



미국 장로교단과의 상호합의서 (1973)

■ 교회 조직의 체계화, 사역의 확장 및 헌장 수정

보스톤한인교회는 처음으로 전임목회자를 모시게 되어, 이때까지 예배와 교인간의 친교에만 국한되어 있던 사역을 체계적인 교회 조직과 함께 예배, 교육, 친교, 봉사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넓히면서, 자립교회로서의 기반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

권진태 신임목사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사 임원 연석회의에서는 권진태 목사를 비롯하여 김영호, 김경세, 이진태, 노정선, 길희성, 박원기로 이루어진 '헌장수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72. 1. 9), 4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지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교회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그후, 반년에 걸쳐 교회헌장이 수정되고 완성되었다. 어느 특정 교파의 구조를 따르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6명의 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원회의 부서는 서기, 회계, 재정부, 교육부, 봉사부, 교우부, 음악부, 여신도회로 체계화하였다. 임원들은 교역자의 천거로 임명되게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제한했고, 제직회는 이사회와 임원회로 구성하되, 임원회와 공동회의 의장은 교역자로 정하였다. 또한 교회 전체 제반 행정을 논의하는 공동회(교역자가 진행)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 18년 된 교회에서 이사제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감독/장로/집사제도로 만드는 것이 나올 것인가?
 - 임원회를 제직회로, 이사회를 장로제로 발전시키려는 견해.
 - 이사회에서 재산관리 등 이외에 교회 의사 결정, 목회자 선정 등에 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
 - 주정부에 등록된 KCCB헌장을 권진태 목사가 조사/요청하여 준비위원들에게 배부, 연구 기간을 갖자.
- 헌장수정 준비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1972)

교역자의 임기는 2년마다 제직회에서 갱신하도록 했는데, 세 번 연임한 후에는 종신임직할 수 있는 Tenure 조항을 첨가하였다. 당시 목사의 위임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서 쓰는 Tenure제도를 변형시켜 적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이사항이다. 교역자의 선임은 제직회가 위임한 5명의 임시 천거위원의 천거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의 인준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다. 이전 1969년 헌장에서는 목사의 임기를 '자발적 사임 혹은 사임요구를 받을 때까지'로 성문화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헌장에서는 2년마다 공동회에서 갱신하는 제도로 수정되었다.

1972년 기록에 등록교인의 수가 약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동안 교인 등록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식 교인의 명단이 완성되지 못한 까닭이었다. 한 예로, 어떤 공동회에서는 교회에 세 번 이상 출석한 모든 교인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회의 재적인원을 채운 적도 있었다.⁴

■ 권진태 목사 사임

권진태 목사는 1972년 6월 헌장 개정에 의해서 2년 임기 후에는 임기 갱신을 해야 하였다. 1972년 이사회에서는 권진태 목사의 임기가 1972년부터 다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2년 후인 1974년 공동회 때까지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1974년 1월 이사회와 2월 제직회에서는 권진태 목사의 임기 갱신이 부결되었고, 김영호 이사장이 이 결정을 3월 임시공동회에 보고하면서 신임목사 천거위원 5명(김장환, 이철희, 현철우, 길희성, 이정화)을 선출하게 되었다. 공동회에서는 임기 갱신이 부결된 이유의 설명 요구와, 구성인원의 반 이상을 담임목사가 임명하는 제직회에서 목사 유임을 결정하는 헌장의 규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김영호 이사장의 답변과 함께 길희성, 정경조가 보충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⁵ 권진태 목사는 이에 곧 사임하고 1974년 3월 17일 신학교 동문 송길섭 목사, 권진태 목사의 가족, 그리고 소수의 보스톤한인교회 교인들과 찰스강 북쪽 Watertown에 성

4. 1974년 9월 공동회 때 보스톤한인교회 재적인원은 96명이었다.
 5. 이날 있었던 김영호 이사장의 답변과 길희성, 정경조의 보충발언 등은 공식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권진태 목사의 임기 갱신 부결에 관한 공식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요한교회를 창립하고, St. John's United Methodist Church 건물을 빌려 새로이 목회를 시작하였다.

권진태 목사는 사임과 함께 “교포 그리고 교우들께 드림”이라는 서한에서 자신이 떠나게 되는 근본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3년 3개월 목회과정에서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하였던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교파 배경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정한 것인가를 날이 가면 갈수록 절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략>
독립교회로서 상하의 부재 및 기구상의 약점이라고 보며 보스턴한인교회 20년 교회사를 비추어 볼때 2-3년 만에 한 번씩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 년 전부터 독립교회의 불안정을 느껴 목사 만이라도 미국 교단에 소속하여야겠다는 결론하에 미 감리교단에 정회원 목사로 소속하던 중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권진태 목사의 이임사 편지 중에서 (1974)

결과적으로 권진태 목사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두 번째 한인교회이자, 처음으로 특정교파에 속한 한인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20년 넘게 하나의 한인교회만을 생각했던 보스턴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으나, 이를 계기로 뉴잉글랜드 지역에 교파나 지역을 따라 새로운 한인교회가 왕성히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 출석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나, 실제 당시의 주보 기록에 의하면 보스턴한인교회의 평균 출석교인은 권진태 목사 이임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74년 권진태 목사가 떠난 후의 평균 출석은 60여 명 정도로 그 전과 비슷했고, 많이 모였을 때는 130명까지 예배에 참석하였다.

권진태 목사의 약력

권진태 목사는 김광원 목사의 천거로 보스턴한인교회의 부목사로서 1971년 2월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첫 전임목사로 1971년 11월부터 1974년 3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시무하였다. 권진태 목사는 1960년대 한국의 감리교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하였다. 1969년에 미국 유학을 올 때 초교과 신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그 학교가 보스턴의 고든콘웰

신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 병합되면서 보스턴으로 오게 되었고, 같은 학교에서 1970년 7월에 석사과정을 마쳤다.

권진태 목사는 그의 회고에서 일찍이 한국 교계의 복음주의 신학과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학에 접했고, 후에 스스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사상이 공존하는 목회관을 정립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권진태 목사는 보수적인 성서 중심의 복음적인 설교와 신앙생활로 목회를 하고자 하였다.

1974년 3월 성요한교회를 창립한 후 권진태 목사는 자신이 창립한 성요한감리교회에서 31년의 사역을 마치고, 2005년에 은퇴하였다. 그의 주요저서 중에는 성요한교회 30년사와 11년간에 걸쳐 완성한 《미주한인감리교회 백년사》 등이 있다.

김갑동 목사의 취임과 사역 1974-1977

권진태 목사의 사임에 따라 1974년 3월 천거위원회의 천거와 제직회의 결의로 김갑동 목사를 5월 임시공동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 전임목사로 선출했으며 6월 16일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김갑동 목사는 첫 2년 임기를 끝내고 1976년 공동회에서 유임이 결정되어 계속 사역을 하던 중, 1977년 12월 교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임하였다. 김갑동 목사는 보스턴한인교회 제12대 목사로 3년 7개월간 사역하였다.



김갑동 목사

김갑동 목사는 취임과 함께 1974-1975년도 보스턴한인교회 목회방침 및 연중계획을 제시하였다. 교회의 사명을 본 교회 현장 3조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단체로 기독교 복음전파, 교우들의 신앙향상, 기독교 교육 및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보스턴 지방에 유하는 한인들의 복리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Kerygma(고린도전서 1:23-24)
- 봉사하는 교회: Diakonia(사도행전 2:44-45)
-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Didache(사도행전2: 42)
- 경축하는 교회: Doxology(로마서 15:6;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치료하는 교회: Iasis(사도행전 5:16)
- 성도의 교제의 구현으로서의 교회: Koinonia(사도행전 2:42)

6페이지에 달하는 연중사역계획에, 위의 6가지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기 정착 시기의 이민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의 사역도 함께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시된 교회 내 사역들을 살펴보면, 영적 성장(Spiritual Enrichment)을 위한 신앙집회(부흥회)/수양회(retreat) 및 여름 캠핑 등과 함께 성경공부, Koinonia 그룹, 가정예배 등을 장려하였다. 이외에도 주일학교와 한글학교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여러 가지 사역 구상안을 내놓았고, 은퇴 및 고령의 교포들을 위한 사역, 대 보스턴 지역의 대학 캠퍼스 목사들 및 국제학생기관들과의 공적인 유대관계 수립(협동목회), 국제결혼자/입양자/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공헌적인 교회 사역을 구상 발전시키는 기획안 등도 거론하였다. 또한 전도사업에 대한 계획(Evangelism: 개인전도 및 특별 전도집회, 선교, 전도를 위한 조직, 운동 및 친목수단 적용)과 교회 재정에 관한 기획안(Finance Campaign: 교회 연차 경성비의 증가, 교회 건축기금 적립, 건축기금 위원회 강화, 실태 조사 및 모금 운동원들의 조직화, 십일조운동)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년 후인 1976년 김갑동 목사는 취임 초의 사업계획을 다시 재정비하였다. 그것은 교인들간의 소통 강화, 지역/구역예배 강화, 심방과 전도, 사회봉사, 청소문제, 예배 진행에 대한 사항들이었다. 1976-1977

년 교회사업 목표는 “전도의 해”였고, 1976년 전교인을 상대로 교회 내 어린이 및 장년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1973년 9월 교적부에 이름을 올린 재적교인의 수는 77명이었다. 2년 뒤인 1975년 교회 주소록에는 190여 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로부터 또 2년 뒤인 1977년 교회주소록에는 240여 명(어른 아이 총계)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교인 수는 등록 교인이 120여 명으로 매 주일 출석교인은 약 90여 명(어른 70명, 아이 20명 정도)에 달했고, 그 중 청년부가 약 20여 명 정도 모였다.

김갑동 목사 재임시절 시작된 청년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성가대, 여신도회 등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수양회, 봄철 야외예배, 회지 발간 등 폭넓은 사역이 진행되었다. 성도의 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탁구대회는 1974년부터 매주일 예배 후에 정기적으로 열렸고, 1976년에는 한인들을 위한 자동차 정비에 대한 강좌(강사: 박병길 교우, 주관: 봉사부), 1977년에는 각종 보험(강사: 홍석원) 및 세금에 관한 강좌(강사: 박영복)를 열기도 하였다.

교회예산은 3년 만에 \$14,420(1974)에서 \$21,352(1977)로 늘어났다. 실제 1977년 지출 \$19,459을 부분별로 보면 목사 사례비가 \$7,200, 지휘자 사례비 \$1,200, 반주자 사례비 \$840, 그 외 목회 인건비 \$3,040, 건물 유지비 \$2,200, 그리고 나머지 \$4,640이 각 부서 활동 비용으로 쓰여졌다.

한편 구역별 모임과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1974년 1월에는 전교인을 4구역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여름 합동 성경공부(1976. 9)를 계기로 지역별 성경공부를 재개하게 되고, 1977년에 와서는 다시 다섯 구역으로 전교인을 재편성하였다:

- 동남 구역 김우진 Braintree, Brockton
- 강북 구역 권순호 Somerville, Cambridge
- 강남 구역 정광현 Boston, Brookline
- 북부 구역 김장호 Rt. 128 북부
- 대학생부 김인수 MIT Baker House



1977년 주보 앞면 (디자인 한장희)



교회 앞에서 교인 일동 (1975)

성가대의 발전과 지휘자 최시원

1973년 창립 20주년 행사 때부터 지휘를 맡아 오던 최시원이 1974년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쉬는 동안 음악부장 한승희가 성가대 지휘를 맡은 적이 있으나, 최시원은 76년부터 다시 보스톤한인교회 성가대의 지휘를 맡아 1981년 8월 귀국 전까지 봉사하였다. 성악을 전공했던 그는 오늘날의 수준 높은 보스톤한인교회 성가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변화경 장로(반주자, 1971-1982; 지휘자, 1982-2014)와 함께 가장 눈에 띄게 공헌한 인물이다.



부활절 예배 후 (1974)

예배의식(Liturgy)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강좌 때 주제발표도 했던 최시원 지휘자는 ‘가장 모범적인 예배란 곧 음악예배여야 한다’는 신념과 교회음악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지휘자였다. 그의 신념 덕분에 교인들은 주옥 같은 정통 교회음악 합창들을 접할 수 있었다.⁶ 변화경 장로는 회고 기록에서 ‘최시원 지휘자가 지휘를 맡은 뒤 찬양대원도 늘었고, 부인 정소영 교수가 직접 번역한 좋은 곡들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회상하면서, 보스톤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온갖 열과 성을 다해 성가대를 이끌었던 최시원 지휘자가 있었기에 그가 심어 놓은 씨앗들을 지금의 찬양대가 꽃으로 피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⁷

최시원 지휘자는 박사학위를 끝내고 연세대 교회음악과 교수를 역임하며 교회 및 합창음악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나, 1990년 53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받았다. 부인 정소영 교수도 보스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정년 퇴임 후 Atlanta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음악회(성가곡 봉헌음악회, 2012)를 가지면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가대원의 숫자는 적었으나, 1968년부터 시작된 부활절 메시아 연주는 매년 교인들에게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었고, 1975년까지 메시아 연주는 계속되었다. 또한 예배 후에는 늘 여신도회 주최의 부활절 만찬이 있었다.

보스톤한인교회 성가대는 대외적으로 초청공연이나 방문공연이 잦았는데, Riverdale Congregational Church 의 초대로 방문연주(1976. 12)를 했고, Weymouth Methodist Church의 Ethnic Churches Union Service에 초대되어 찬양도 했으며(1977. 1. 30), 같은 해 3월에는 Faith United Parish(Fitchburg, MA, 1977. 3. 13)에 초대되어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하기도 하였다.

1977년 고난주간에 열린 ‘고난 음악회’는 본 교회 성가대가 주최한 제2회 대외 음악회로 Everett Titcomb의 갈보리 언덕(To Calvary) 그리고 Theodore Dubois의 십자가상의 칠언(The seven last words of Christ) 등과 같은 대곡들을 연주하였다. 그 다음주인 부활절엔 Charles 강변에서 함께한 첫 합동 부

6. 정소영, “그 있음에,” 필그림, 보스톤한인교회 첫 회년 기념호, 2003.

7. 변화경, “하나님께 붙들려,” 필그림, 보스톤한인교회 첫 회년 기념호, 2003.



성탄절 예배 후 (1977)

활절 새벽 예배의 음악을 담당하는 한편, Providence, RI에 있는 First Presbyterian Church의 Korean Sunday에 초대받아 예배를 돕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여러 음악활동을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질적으로 향상시켰는데, 그 일례로 성탄절 칸타타 연주 시 김갑동 목사를 내레이터로 세우기도 했고(소프라노 김경애, 테너 한승희, 베이스 최시원), 크리스마스이브 예배를 촛불예배와 함께 성가연주를 드리기도 했으며, 성가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수련회(Schola Cantorum)를 가지기도 하였다(Methodist Conference Center, Rolling Ridge, Andover, MA. 주관: 음악부장 최시원). 제일장로교회의 organ 수리비도 공동 부담함(1975)으로써 예배와 찬양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는 노력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주일학교 (교사 윤석희, 1974)

▣ **활발해지는 교육부서**

대부분의 부모가 1세대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자녀교육은 모든 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개체로 미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모두에게 힘들지만 헤쳐나가야만 하는 숙제였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학부모의 마음과 신앙교육 차원에서의 2세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민생활과 신앙 면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자녀를 길러내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에 힘을 쏟았다.

학부모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학부모-교사모임(Parent Teacher Association, PTA)을 갖기도 하고, “앞으로의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과 이동을 위한 한글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1974). 이러한 교육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1976년에 이르러서는 교육부 산하에 유년부(4학년), 청년부, 장년부를 만들게 되고, 유년부 교육에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축복이 허락되었다. 교육부에서는 때때로 수양회 및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 한 예로 1976년 9월에는 Methodist Conference Center에서 교사 수련회를 유년부장 정소영 주관으로 함성국 목사, 이규원, 최시원, 김인수, 김장호 등을 강사로 3일간(9/10-9/12)에 걸쳐 진행하였다.

교육부장 김장호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1976-1977년 유년부에서는 어린이를 대 예배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예배의 깊은 의미를 심어 주려 노력하였으며, 매주일 성경을 배우고 함께 찬양드리며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정소영 유년부장을 중심으로 11명의 교사진이 약 30여 명의 학생들을 1년간 교육하고 보살폈다. 오세경 및 김용택을 중심으로 한 교사진들의 노력으로 중등반과 고등반이 편성되었고, 새로이 18세 이상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청년부 결성을 하였고, 장년부는 김갑동 목사와 길희성의 헌신적인 봉사로 강남과 강북의 성경공부반이 계속 모일 수 있었다.

교육부 및 교사 명단 (1974-1977)	
1974-1975 교육부 교육부장: 정광현 총무: 이금주	교사진 유치부1-박순금 유치부2-명정옥, 박남미 유년부1-김명숙 유년부2-이경섭
1976-1977 교육부 교육부장: 김장호 교회학교 유년부 담당: 정소영 청년부 담당: 김인수 장년부 담당: 김장호	유년부 교사진 백합반(4-5세): 주근애, 전명옥, 윤은선 사랑반(1-2학년): 민혜순, 변숙연 희망반(3-4학년): Elizabeth Kim, 박수자 믿음반(5-6학년): 김수지, 이경섭 음악: 최영방 대기교사: 명정옥

부모들의 큰 관심사였던 한국어 교육에 관한 강좌도 교육부에서 주관하였는데, 1977년 3월 5일 봉사부와 교육부 주관으로 예배 후 열린 Panel Discussion이 그 한 예이다.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김인수(경영학 박사, 사회자), 전해성(주제발표자, 사회학박사), 강홍렬(화학박사), 송기중(언어학 전공), 이규원(소아정신과 의사), 최영방(한글학교 교사 겸 High School Teacher), 정재향 (MIT 학생) 등이 주제 발표자와 패널로 참여하였다.



교육부 수양회 (1974)



부활절 주일학교 행사 (지도교사 정소영, 1977)

당시 유년부장을 지낸 정소영의 회고담은 그 시기의 교육 분위기와 한인 2세 교육, 정체성 등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김갑동 담임목사 시절에 김장호 교우가 교육부장을 맡아 처음으로 교육위원회가 조직되고 주일학교장을 임명하였으며(정소영 교우), 교육부가 주관한 교사수련회(1976. 9. 10)에서는 이규원 교수의 '아동심리(이중 언어 교육 중심)', 함성국 목사의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의의', 최시원 교우의 '예능을 통한 기독교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다소 결점이 있더라도 본인은 양 국어를 가르치겠다는 이규원 교사의 말을 그때 마음에 새겼다. 당시 5살이 채 안 된 우리 유진이가 1박 2일의 수련회를 끝내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자못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엄마, 집에 가면 나 김치하고 밥 줄래?" 하는 것이었다. 수련회를 전후하여 지금은 작고하신 김인수 박사와 김수지 교우 부부가 교회교육에 동참하였으며 역시 작고하신 윤석희 교수가 교회교육이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였지만 두 교회가 개척돼 나간 후, 1978년에 홍근수 담임목사님이 오셔서 비로소 조직교회의 기능을 갖추게 됐으니 6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입을 보스톤한인교회의 "발전적 격동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미국에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로서 또 한인교회 교사의 입장에서 2세교육은 나의 주요 관심사요 기도 제목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인에게 'Korea'는 아직도 전흔(戰痕)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변방국이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확실한 마이너리티였기 때문이다. 한인 2세들이 이 땅에서 가족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1979년에 "예수님 안녕하셔요"라는 노랫말을 썼고, 당시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던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곡해 주셨다. 피부색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각인(imprint)시키고 싶었다. 김치 맛을 잊지 못하는 우리 후손들이 주류사회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독교적 정체성(identity)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정소영의 회고담 중에서

여름캠프 프로그램 (1975)

전교인 여름캠프

1975. 7. 18-19.	강사: 김갑동 목사, 주제: 신앙의 재발견
1976. 7. 15-18.	주제: '크리스천의 참길'(부제: 성령과 현대 기독교인) 강사: 김갑동 목사
1977. 7. 2-4.	수양회보다는 가족 캠핑 형태로 가짐

신앙강좌와 수양회

1976. 3. 12-13.	신앙강좌 강사: 함성국 목사, 주제: '고통의 종' '구원의 역사'
1977. 4.	평신도 수양회 강사: 유철옥 목사, 김갑동 목사, 주관: 교육부장 김장호

청년회 발족

1976년 8월 교육부 산하의 부서로 결성된 청년회는 1977년 말 한성철 교우의 제안으로 몇몇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하였고 1978년 초에 공식적으로 교회의 승인을 받아 청년부 활동을 시작하였다. 노정선 목사의 지도하에 20여 명이 자치적인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교회 내에 한글학교도 조직해 청년부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조준호 장로와 부인 김한나 권사는 초기 청년회 발족시의 회원으로서 현재까지도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청년회 단풍놀이 야외회 (NH, 1978)

전교인 여름수양회, 여름캠프 및 신앙강좌

1971년 주말수양회로 시작된 전교인 여름수양회는 여러 문제로 교회가 어려웠던 1973년을 제외하고 1977년까지 매년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수양회를 가졌던 장소는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120마일 떨어진 New Hampshire에 위치한 Camp Calumet Lutheran Family Camping Area, Ossipee Lake였다. 봄철에는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강좌를 열기도 했고, 때때로 여신도회에서 따로 신앙강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75년 전교인 여름캠프의 경우 어른 44명, 학생 10명, 어린이 26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10개의 캠프사이트를 빌려 자취하며 수양회를 가지는 형태였다. 참가비는 어른 \$21, 학생 \$18, 어린이 \$10로, 총예산은 \$1,150이었다. 1977년에는 여름캠프 성격을 가족 캠핑 형식으로 전환하여 folk dance, sing-along 및 각종 게임도 함께 즐겼다(어른 33명, 어린이 17명 참석).



전교인 여름수양회 Ossipee Lake, NH (1975. 9)

■ 여신도회 활동



여신도회 주최 바자회 (1977)

김갑동 목사 시무 시에도 여신도회는 교회 살림살이와 신앙 강좌, 가족찬송가대회, 새 교우 환영, 친교, 기금모금바자, 부활절 및 추수감사절 만찬 등 교회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1974년 5월 여신도회는 어머니주일 오후에 바자회를 개최한 후, 그날 저녁 만찬도 여신도회 사업부(부장 이숙자) 주관으로 진행하였다. 바자회를 개최하는 것은 연례행사 중 가장 활발한 활동 중의 하나였는데, 1976년 연례 바자회에서는 총 이익금 \$356.89을 남겼고, 그 해 건축기금 모금 바자회에서는 ‘냉면’ 판매로 수입 \$100.76(기부금 포함)을 모았

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여신도회 바자회로 수익금 \$1,040을 남겼다. 여러 행사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도 매년 여신도회 담당이었다. 부활절 예배시 성가대의 메시아 연주 후의 만찬을 비롯하여 새신자 환영만찬 및 추수감사주일 만찬 준비는 여신도회의 주요활동의 하나였다. 1975년 추수감사주일 만찬 참석인원이 180여 명에 이르렀는데, 당시 교인 숫자를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한 큰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여신도회 총회 모습 (1974)

1974년 10월부터 신설된 교회 내 상담소는 사업부 주관으로 운영하였는데, 네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1974~1976년 운영). 상담자로는 김원경(가정문제 상담), 이미나(소아과의사), 정광현(치과의사), 임나경(Social worker, 청소년문제 상담) 등이 수고하였다. 또한 친선부(부장 김금하) 주관으로 여성 건강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김원경 지도하에 매달 마지막 주일 예배 후 영아부실에서 가졌다. 후에 이 활동은 매달 둘째 넷째 주일 예배 후 정기적으로 모여 요가 및 간단한 포크댄스를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1976).



추수감사주일 만찬 준비중인 여신도회원들 (1975)

여신도회는 또한 여러 형태의 신앙강좌 및 교양강좌를 주최하여, 1975년에는 이틀에 걸쳐 신앙강좌를 열었다(강사 최양선 목사, 주제: “신앙과 현실”, 1975. 3). 옛 교우를 초청하여 교양강좌를 열었고(1976. 5. 16. 주제: ‘미국에서의 자녀교육’ 강사: 고희림 교수, 전해성 박사) 가끔 열린 성경토론회도 주목할 만한 여신도회의 활동이었다.

여신도회는 교회와 예배에 관련된 활동 이외에 한국과 관련된 여러 대외활동도 벌였다. 1975년 3월 9일에, 김재준 목사(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및 한국신학대학 이사장 역임)의 특별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듣

는 역사 증언의 시간을 가졌다(강사 김원경 여사, 애국부인회 대표 및 임시정부 국무원 참사 역임).

1977년 7월 31일에는 최초로 여신도회 회칙을 만들어 통과시켰으나, 아쉽게 회칙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 어머니주일 구역별 찬송가 경연대회의 시작

1976년 2월 여신도회 사업부 주관(회장 박영복, 사업부장 신명숙)으로 시작된 전교인 가족찬송가경연대회는 그 해 5월 9일 어머니주일 가족찬송가대회로 발전되어 1977년부터는 여신도회(회장 김인실) 서기 정소영의 의견을 받아들여 어머니주일 구역별 찬송가경연대회⁸로 그 성격이 바뀌어 개최되었다. 60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보스톤한인교회의 전교인 참여행사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인 어머니주일 구역별 찬송가대회는 그 후 구역은 물론 각 기관을 아우르는 전 교회적 프로그램으로 거듭나 매년 치열한 경연대회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오던 중, 구역과 교인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연대회보다는 찬양축제로 그 성격이 한번 더 바뀌게 되었다(2004).



어머니주일 구역별 찬송가경연대회 (1977)

1978년 어머니주일 찬송가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은 김인실, 변화경, 최시원이었고, 그 후 심사위원은 담임목사 외 두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변화경 장로는 1978년 이후 2013년 60주년 기념 어머니주일 찬양제까지 고정 심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왔다. 특히 특유의 유머를 곁들인 예리한 심사평은 지난 35년간 구역간에 희비도 일으키며 어머니주일 찬양제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해 왔다. 1970년대부터 어머니주일 만찬은 남자 교인들이 준비하여 요리하고 대접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전통이다.



어머니주일 찬송경연대회 (1978)



심사위원 김인실, 변화경, 최시원 (1978)

8. 당시에는 성경퀴즈대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 ‘보스톤한인교회’ 회보 발간



김갑동 목사 시무 시절 “보스톤한인교회”라는 한글 제목으로 다시 탄생한 교회 회보는 legal 사이즈 6·8장 정도의 분량으로, 직접 손으로 써서 작성되던 이전 회보와는 달리 미메오 프린트와 타자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소식지로 바뀌어 발행되었다. 1974년 11월 제1권 10호가 발행된 후(발행인 김갑동, 편집인 현철우) 1976년까지 교회 회보는 교회 안팎의 소식들을 모든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6년 4월부터 보스톤한인교회 회지는 레터 사이즈의 보고서 형식으로 바뀌면서 1976년에 여섯 번, 1977년에 세 번 매 호 400-500부가 발간되었으며(출판위원장 신재인), 매년 마지막 호는 각부 활동 연례보고를 함께 게재하는 특집호로 편집되어 본 교회 연례보고서의 효시를 이루었다.

■ 당시의 보스톤한인교회 회고



김장환 박사(가운데 안경 쓴 이) 귀국 환송 (1974. 8)

보스톤한인교회 초창기 역사에는 김장환 박사(연세대 명예교수)와 부인 이양자 교수(연세대 명예교수)의 헌신적 봉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부부는 1964년부터 1974년 김갑동 목사 시무 때까지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봉성한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1974년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항상 본 교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보스톤한인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방문했고, 50년 역사 자료 수집 때와 60년 역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료 사진과 함께 보스톤한인교회 옛 교우들과의 연락을 맡아 주었다. 여기 김장환/이양자 교수가 함께 쓴 회고담의 일부를 게재한다.

‘보스톤한인교회- 우리를 성장시킨 보금자리’

빛바랜 그러나 따뜻하고 정겨운 초창기 사진들은 오랜 역사의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의 친근한 뿌리로 가깝게 다가왔고, 우리와 동시대(60년대와 70년대 초반)의 사진들은 진한 추억들을 되살리며 그 때의 얼굴들이 너무나 보고 싶게 떠올라 재상봉 event라도 가졌으면 하는 상상을 하게 하며, 황급히 귀국하여, 한국의 역동적 발전기에 동참하여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신 없이 살아오는 동안, 보스톤한인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청년이 되고,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인들이 하나 되어 혁혁한 발전을 이룬 모습들을 접할 때 기분이 왜 이다지도 감동적인지 알 수 없다. 특히 대대적 모금운동을 펼쳐 교육관을 신축한 것은, 믿음직한 미래의 국민을 양성할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교회의 밝은 비전이 강하게 표출된 일이라 생각된다.

보스톤한인교회는, 우리 한평생에 있어서, 성장하고 공부하며 한 인간으로 사회인이 되는 데 정신적 지주요 밑거름이 된 물론, 수많은 지성인들과 독목한 신앙인들을 가깝게 만나며 분에 겨운 청년기를 보냈던 곳이다. 보스톤대학교 Marsh Chapel에서 함성국 담임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고, 각각 석, 박사 학위(Harvard 대학교-화학, MIT-영양과학)를 취득한 후, 교수(Suffolk대학교)로 연구원(Harvard 대학교)으로 종사하며 사회 진출의 첫 훈련을 받은 곳도 보스톤이다. 가까운 곳에서 오빠네(이상현 / 이인숙 교수)의 따뜻한 보살핌이 큰 위안과 힘이 되었음도 사실이다. 월남전이 막 끝났을 때 친지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연세대 모교의 부름에 가까이 응하여 귀국(74년과 75년)하였으며, 젊은이들의 기를 받으며 수십 년 학문의 길을 대과 없이 견고 정년 퇴임하여 명예교수로 남게 되니, 이 모든 여정이 감사할 뿐이며, 보스톤에서 갈고 닦은 학문과 신앙의 힘이 삶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보스톤에 한인교회가 하나뿐이었으므로 초교파적 성격을 가졌고,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이 그리워셔도 누구나 교회를 찾던 시기였다. 일찍이 친동생 같은 변화경 장로와 한승희 장로의 만남을 감사하며, 변화경 장로가 성가대 반주자로 지휘자로 오랜 기간 동안 핵심교우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데 우리가 처음 연결고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다고 확신한다.

주일이면 blue Volkswagen bug 차로 성가대원들과 처음 나오는 분들을 위해 한두 번씩 ride를 주던 일, 수년간 집에서 등사기로 주보 만들던 일(한 번은 summer-time 변경을 몰라서 늦는 바람에 주보 없이 예배가 일부 진행된 적이 있었음), 예배 후면 여럿이 함께 집에 와서 음식 해먹던 일, 정소영 씨(Mrs. 최시원)와 조신자 씨(Mrs. 김경세)와 함께 젊은이들(양호승/김명숙 부부, 노정선/김성은 부부 등)의 결혼식 피로연을 열심히 준비를 하던 일, 연중행사로 탁구시합을 하며 친교를 나누던 일, 김중기 목사, 구경희 씨 부부와 앞뒷집 아파트(우리 집에서 김중기 목사님의 설교 연습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음)에 살며 bug 차를 타고 교회에 함께 다니고 여행 다니던 일, 여선교회 회장 때(컴퓨터가 상용되기 이전의 시대) 아나바다 행사를 열기 위해 홍보물을 손으로 그려서 Harvard Sq.에 가서 노란 종이에 복사해서 나누고 행사 끝난 후 입양아와 부모들과 함께 식사 나누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MIT에 들어가 신체검사 시 X-ray상에 scar가 발견되어 멀쩡한 사람이 Worcester 요양원(김창신 장로님이 당시 부원장)에 보내어져 8개월 동안 영양식을 먹으며 무료로 최고의 진료와 수술을 받던 일은, 지나고 보니, 앞으로의 큰 책임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휴식시키며 단련시키신 섭리였다고 생각된다.

김장환 / 이양자

■ 노정선 목사와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이민교회 현황보고서

보스턴한인교회에 출석하던 노정선은 당시 Harvard Divinity School에 재학 중이었는데, Boston Presbytery, 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UPC USA, 지금의 PC(USA) 전신)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1972년 당시의 뉴잉글랜드 지역과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인 및 교회 자료를 수집하여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Survey for the Ministry to the Korean Immigrants in New England”를 노회에 제출하였다.⁹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 73개의 한인 이민교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Independent Church (n=49, 73%)였고, 그 다음이 장로교회(n=11, 15%), 감리교회 (n=6, 8%)의 순이었다. 약 95%에 달하는 많은 교회가 미국 내 Christian community와의 정식 communication channel이 결여되어 미국사회의 ‘wandering orphan’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당시 보스턴 지역에는 8명의 신학생, 1명의 목사, 2명의 교수가 있어서 팀 목회를 한다고 보고하면서, 보스턴한인교회의 사역상의 어려운 점들을 예로 들었고, 미국교단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기술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소수민족의 유대감에 기반을 두고 한인 공동체를 포용하고자 했던 한인교회는 미국 지역사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보여줬다고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한인사회가 성장하여 여러 한인교회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미국 교단에 가입하는 한인교회들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내 Christian community와의 communication channel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을 볼 때, 이 보고서가 지적한 과제는 한인사회와 한인교회의 성장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50년 후에는 한인교회가 2세, 3세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영어로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현재 한인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며 여전히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볼 때, 한국의 경제적 부흥과 국력의 신장을 통한 한인 이민사회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힘든 일이었다고 이해된다.

1974년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에서 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를 통해 목사 안수를 받은 노정선 목사는 평신도 성경공부반 지도(1977-1978) 및 두 달간 임시목사 직(1978)을 맡는 등 여러 방면으로 본 교회를 도왔다. 노정선 목사는 Harvard Divinity School에서 1974년 M.Div. 를 끝내고, 프로비덴스 장로교회 부목사를 거쳐 뉴헤이븐장로교회와 뉴욕영광교회를 담임한 바 있으며, 1984년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Yale Divinity School에서 교편을 잡다가, 귀국하여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봉직하다가, 현재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다. 사모 김성은 교수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사회교육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2년 은퇴하였다.

■ 보스턴 지역에 새로 세워지는 한인교회들

1971년 일부 교인들이 라영복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운 뉴잉글랜드한인감리교회는 상호 협의하여 다시 본 교회와 통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스턴한인교회는 1974년까지 뉴잉글랜드 지역의 유일한 한인 교회였다. 그러나 1974년 3월 권진태 목사가 사임하고 일부 교인들과 함께 Watertown에 새로운 한인 교회(성요한감리교회)를 세움으로써 뉴잉글랜드 지역에도 여러 한인교회들이 교파와 지역을 따라 세

워지게 되었다.

1976년 3월 본 교회를 출석하던 장로교 목사인 최양선 목사가 한국에서 장로교회를 출석하던 교인들을 주축으로 Waltham에 보스턴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 세 번째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보스턴 북쪽 Lawrence와 Andover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역시 본 교회에 출석하던 라영복 목사를 중심으로 북부보스턴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네 번째로 세워졌고, 이어 보스턴한인교회의 임시 목회자였던 유철욱 목사를 중심으로 한 회중교회 성격의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다섯 번째로 세워지게 되었다(1978.10. First Church in Cambridge 건물사용). 그 후, 1979년 순복음한인교회(김권찬 목사)가 세워짐으로써 70년대에 도합 6개의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다.



노정선 목사 안수예배 후 (1974)
어린이들 뒤 노정선 목사와 김성은 사모(왼쪽 한복 입은 이)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새로이 세워진 4개의 한인교회는 교파도 다르고 지역도 달랐지만 본 교회를 출석하던 목사들을 중심으로 개척되었다는 점이 한동안 보스턴한인교회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오랜 기간 많은 역경 속에서도 초교파교회를 견지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해왔던 보스턴한인교회였기에 그 실망과 충격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교회 내의 일꾼들이 떠날 때마다 실제로 교회는 일시적으로 구조적 마비를 겪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발전과 함께 한인들이 증가하면서 각 교파가 가진 특징에 따라 교회를 선호하게 되었고, 또 거주지역에 가까운 교회를 원하는 한인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지역에 다양한 교파의 한인교회 설립은 예고된 추세이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던 여러 한인교회 설립은 시간이 흐른 후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돌아보면 이를 통해 여러 지역의 더 많은 한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기에 보스턴한인교회는 산고를 치러낸 어머니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셈이었다. 다양한 성격의 여러 교파교회들이 보스턴 지역에 새로 세워짐에 따라,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초교파교회를 고집해왔던 보스턴한인교회는 더 이상 한 교회에서 다양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동시에 특정 교단 소속을 강하게 주장하는 교인들이 떠남에 따라, 보스턴한인교회의 특성에 맞는 교단 가입에 대해 신축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맞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오랜 기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미국 장로교 교단 PC(USA)에 가입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 김갑동 목사 사임

김갑동 목사는 첫 2년의 임기를 끝내고 1976년 공동회의에서 유임이 결정되어 계속 사역하던 중, 1977년 12월 사임함으로써 보스턴한인교회 제12대 목사로서 3년 7개월간의 사역을 끝맺었다. 김갑동 목사는 사의서에서 보스턴한인교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목회자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교회가 가진 가능성과 역량은 참으로 훌륭한 것을 저는 잘 알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 장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새로운 목회자의 봉사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오랜 기간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이런 기회가 하루속히 와야 되겠다고 믿어집니다.”

9. Jong-Sun Noh, Ministry for Asians in the U.S.— Survey for the Ministry to the Korean Immigrants in New England, September 1972, a report funded by the Presbytery of Boston,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mbridge, MA.

김갑동 목사의 송별 예배는 12월에 가졌고, 1978년 1월부터 약 10개월간 임시목사로 노정선 목사, 유철옥 목사, 함성국 목사가 함께 돌아가면서 시무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는 1978년 3월에 새로운 교역자를 찾는 청빙서를 공고하였다.

김갑동 목사 약력

김갑동 목사는 대를 이은 감리교 신자 집안의 모태신앙인으로 1929년 충남 홍성에서 8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감리교 신자 집안이었으나 열 살 되던 해 새 동네로 이사한 후 그는 성결교회를 나가게 된다. 1945년 하늘에서 태극이 나타나는 영적 체험(해방과 관련된 환상이라는 본인의 증언)을 하고, 1950년 서울대학교 입시준비 중 건강을 잃어 시골에서 수양하며 농사도 돕고 새벽기도에 나가 매일 새벽 4시부터 하루 3-4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때 하나님께 헌신하여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였다. 1951년 서울신학교에 입학하여 1955년에 졸업한 후, 곧 육군 군목으로 1960년까지 근무하면서 1956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1958년에 뉴욕 인근에서 6개월간 미국 육군 군목학교에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던 그는 도미하여 1960년부터 애즈베리 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3년간의 B.D. 프로그램을 마치고, 1963년부터 Brandeis University MA/Ph.D.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보스턴한인교회 재직시인 1975년 5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주제는 히브리 지혜문학, 아람어 등의 언어학이었고, 역서로는 예일대 교수의 저서를 번역한 구약개론이 있다.

김갑동 목사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감리교 목회를 했고, 1974년 5월에 보스턴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1977년 12월에 사임하기까지 3년 7개월간 목회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를 사임한 후에도 협동목사로 사역을 도왔던 그는 한동안 보스턴 지역 미국 교회에 출석하며 사역을 도왔고(1978-1981), 그후 한국으로 돌아가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장 및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다(1981-1988). 1989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잠시 California International Seminary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1989-1991). 1992년 은퇴한 그는 현재 보스턴 근교에 거주하며 여전히 본 교회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 사역자 및 봉사자 명단 1971. 11-1977. 12

목회자	1971-1974 권진태 목사 1974-1977 김갑동 목사
임원회	1971-1972 서기 김삼영, 회계 김장환, 교육부 노정선, 교우부 한승희, 음악부 김석두, 출판부 현철우 1972-1973 서기 정경조, 회계 맹주선, 재정부 최시원, 교우부 길희성, 교육/봉사부 노정선, 교우부 김영일, 음악부 한승희, 출판위원장 한철수(1973) 1973-1974 회장 김갑동 목사, 서기 양호승, 회계 현영우, 재정부 조성호, 교우부 정근삼, 봉사부 김경길 1974-1975 서기 양호승, 회계 현영우, 재정부 조성호, 교육부 정광현, 음악부 한승희, 봉사부 김경길, 교우부 정근삼 1976-1977 서기 및 출판위원장 신재인, 회계 박용규, 교육부 김장호, 교우부 이의호, 재정부 한승희, 봉사부 이강현, 음악부 및 지휘 최시원
제직회	1972-1973 제직회장 김갑동 목사
이사회	1974-1975 이사장 김영호, 위원 고광숙 설영조 이덕희 조요한 현철우 1976 김원경 추가선임
성가대	1971-1973 지휘 김석두 1973. 7-1974 지휘 최시원 1974 지휘 한승희 1976-1981 지휘 최시원 성가대장 정경조, 악보 담당: 주회홍 소프라노: 김경애 김영애 정소영 차진선 알토: 김금하 박남미 박영복 전순애, 김한나, 노명화 테너: 이강현 정동수 하성준 한성철 한승희 David Park(박대위) 베이스: 길희성 김원명 김장호 백영기 변관연 정경조 주회홍, 조준호
반주자	1971-1979 변화경
독창자	1973 차진선
주일학교/교육위원회	1974 영아부: 박영숙 이경희, 유치부: 김성은 이금주, 유년부: 이경석 선우덕수 김명숙 1974-1975 교육부장 정광현, 총무 이금주, 유치부1: 박순금, 유치부2: 명정옥 박남미, 유년부1: 김명숙, 유년부2: 이경섭 1976-1977 교육위원회 교육부장 김장호, 유년부장 정소영, 청년부장 김인수, 장년부장 김장호, 유년부 교사 백합반(4-5세): 주근애 전명옥 윤은선, 사랑반(1-2학년): 민혜순 변숙연, 희망반(3-4학년): Elizabeth Kim 박수자, 믿음반(5-6학년): 김수지 이경섭, 음악 최영방, 대기교사 명정옥
구역	1974 Boston 구역장 김우진, 지도 김갑동 목사 Cambridge 구역장 권순호, 지도 라영복 목사 Lexington 구역장 이종원, 지도 송길섭 목사 Lowell 구역장 현철우, 지도 길희성 이형기 1977 강남구역장 한혜선 강북구역장 박용규 남부구역장 김현 북부구역장-미정

현장수정위원회	1975 위원장 조요한, 서기 한승희, 위원 김갑동 목사, 김영호, 이덕희, 최양선
여신도회	1971-1972 고문 김원경 이정화, 회장 고준기, 부회장 신남옥, 총무 박영복, 회계 김명숙, 서기 조광희, 부서기 임나경, 전도 김성은, 친선 이양자, 사업 임강옥, 구제 조신자, 영아 박남미 1972-1973 회장 임강옥 1973-1974 회장 정소영 1974-1975 회장 이양자, 부회장 박영복, 총무 이인순, 서기 정소영, 부서기 김경애, 회계 이금주, 부회계 김명숙, 전도 박순금, 영아 유명희, 봉사 노혜숙, 사업 박남미, 친선 김금하 1975-1976 회장 박영복, 부회장 이금주, 총무 이인순, 서기 김경애, 부서기 김명숙, 회계 노혜숙, 부회계 명정옥, 친선 박순금, 봉사 윤은선, 사업 심명숙, 영아 Edith Sul, 전도 장명자 1976-1977 회장 주근애, 부회장 김인실, 총무 윤은선, 서기 박남미, 부서기 김영복, 친선 계순희, 회계 김경애, 부회계 김은희, 사업 심명숙, 봉사 민혜순, 영아 한혜선, 전도 정소영 1977-1978 회장 김인실, 부회장 한혜선, 고문 김원경, 총무 민혜순, 서기 정소영, 회계 주근애, 부회계 윤은선, 재무 김경애, 선교 심명숙, 봉사 이명희, 친선 서숙자, 영아 송미자 공병례 이상은



제 4 장

미국장로교 교단 가입과 선지자적 이민교회

1978. 01 - 1986. 11

Joined the Presbyterian Church(U.S.A)
and a Prophetic Immigrant Church

남과 북으로 갈린 조국을 위한 기도마저도 형식적이었으며,
 세계 정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전통 속에 묶인 오류를 떨쳐 버리고,
 이 땅에서 자라나는 영어세대와 더불어
 희년의 자유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새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읽는 첫 희년 신앙고백서 중에서

간추린 시대 개관 1978. 01 - 1986. 11

미국장로교 교단 가입과 선지자적 이민교회

40대의 젊은 홍근수 목사가 1978년 취임하여 시작된 사역은 침체되어 있던 보스톤한인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괄목할 성장과 발전, 부흥을 가져왔다. 보스톤한인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청빙 절차를 통해 선임된 홍근수 목사는 그의 목회 경력과 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지자적인 이민교회 이미지를 창출하고 다지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확고한 목회 신념으로 행동하는 실천사역을 펼쳤던 홍근수 목사의 부단한 노력과 제직들의 믿고 따르는 순종함이 더해진 보스톤한인교회는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하고 다각도로 변화를 겪으며 눈에 띄게 부흥하였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시무 2년 후에 도입한 장로, 집사, 권사제도(1980)와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교단 가입(1985)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것이었다. 장로, 집사, 권사제도의 도입은 교회 조직을 재정비시켜 좀더 체계화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하였고, 20년 넘게 보스톤한인교회 최대의 논의 쟁점이었던 교단 가입을 전교인의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며 은혜롭게 성사시킴으로 보스톤한인교회에 새로운 정체성과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새로 가입한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USA))의 체계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전반적인 구조에 변화를 가져와서, 선교, 교육, 봉사 등 사역에 큰 변화와 확대가 이루어졌다. 선교사 지원은 물론 선원선교, 학원선교, 문서선교로도 선교활동을 강화했고, 교육 전임목사를 두어 청년부와 대학부를 육성시키는 한편, 중고등부 창립 등의 젊은 기독교인 육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체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제직수양회, 평신도 교육, 성경공부, 구역공부 등을 통해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1983년 창립 30주년을 전후로 하여 보스톤한인교회는 대외적인 선교를 펼쳐 나갈 준비를 하게 되고, 미국사회 및 미국장로교단 안에서도 선교활동을 펼쳐 나가게 되었다. 특히 민중신학 및 해방신학의 신념과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전개했던 홍근수 목사의 영향으로 목요기도회 지부가 설립되는 등 선지자적인 이민교회로서의 사역 활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홍근수 목사가 목회 8년 만인 1986년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귀국함에 따라, 보스톤한인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목회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홍근수 목사와 전교인이 함께 (1984)



A Brief Chronicle 1978. 01 – 1986. 11

Joined the Presbyterian Church(U.S.A). and a Prophetic Immigrant Church

In 1978, the Rev. Keun Soo Hong, a young minister in his 40s, was installed as the 13th Pastor of the KCB. His energetic ministry infused new energy into the KCB's significant growth, development and spiritual revival. For the first time in the KCB's history, a pastor was installed following a well-publicized, formal search process. Based on his solid academic background and previous ministry experiences, the Rev. Hong endeavored to create and develop a new, prophetic immigrant church in the KCB. Through the combined efforts of the fervent, new Pastor who had a firm belief in doing what he preached and the church officers who fully supported him, the KCB changed in various ways and rapidly grew spiritually and in size.

Under the ministry of the Rev. Hong, within two years of his installation as the Pastor, a couple of the most notable changes in the KCB church organization took place: 1) to adopt, in 1980, a system of church officers consisting of Elders, Deacons and Kwonas and 2) to join successfully, in 1985, a Christian church denomination, which had been a long-debated issue for the KCB. The adoption of a new polity of church officers led to a more systematically organized KCB, and a new denominational affiliation chosen by the fully-participating congregation, which for over 20 years had been a hotly-debated issue, provided the KCB with a new identity and an important historical milestone.

The new membership in the Presbyterian Church(USA) meant that the KCB's overall system of church organization had to be consistent with the polity of the PC(USA). It necessarily brought about many changes and expanded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s, Christian education and benevolent services. The expanded KCB's mission programs ranged from financial support for the overseas missionaries to the ministry for sailors, campus ministry and the Bible ministry. To expand the Christian education program, the KCB retained a full-time Associate Pastor to minister to the Young

Adults group and the College group. A newly-created Youth group added to the strength of the KCB's Christian education program for the younger generations of Korean Christians. In addition, the KCB's other Christian education programs included systematic and well-organized church officers' retreats, church education programs for non-officers, Adult Bible studies and the district Bible studies. Helped by the KCB's various Christian education programs, a firmer foundation has been laid for the KCB's congregation to exercise its spiritual and socially-responsible stewardships.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in 1983, the KCB made preparations for its outreach and overseas missions programs and activities within and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also in partnership with PC(USA). The influence of the Pastor Keun Soo Hong, who had strong personal interests in the Minjung Theology and the Liberation Theology, helped establish "Thursday Prayer Group" in the Boston area, a good example of the KCB's ministry as a prophetic Korean immigrant church.

In 1986, after eight years of faithful pastoral service guiding an accelerated growth in the KCB, the Rev. Keun Soo Hong returned to Korea to answer a new pastoral call from a major Presbyterian Church in Seoul, Korea. Thus, the KCB, once again, entered a period of praying and waiting for its new pastor.

■ 당시의 국제정세와 한국사회

1970년대 말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중심으로 나뉜 동서간의 갈등, 긴장, 경쟁 상태가 또 다시 극으로 대립함으로써 제2의 냉전시대가 시작된 시기였다. 소비에트 연방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반발하여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 64개국(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했고, 이에 반발하여 4년 뒤 미국 LA에서 개최된 올림픽에는 소비에트 연방을 포함한 14개 동구권 국가들이 불참함으로써 동서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소련 전투기의 비무장 민간여객기 격추사건¹(1983. 9. 1)은 대한민국 및 서방 국가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같은 시기 한국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1978년 12월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이때, 유신헌법으로 선출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고(1979. 10. 26), 같은 해 12월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다시 군사정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 무력으로 시작된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여러 크고 작은 민중시위가 이어졌는데, 그중 1980년 5월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은 많은 희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 당시의 보스톤 한인사회

보스톤에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1975년 이후 대거 시민권을 받아 안주하게 되면서 한인사회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사회에 정착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2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높아졌고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한인회의 사업방향과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인 2세들에 대한 한글 및 역사 교육을 비롯하여 고국의 문화와 전통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5년 뉴턴에 첫 한국학교(뉴잉글랜드한국학교)가 설립되었고, 같은 시기에 처음으로 한인회장을 경선 방식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는 대한항공기 격추사건¹이 발생하였을 때 창설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규탄시위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세계가 이 사건에 귀 기울이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보스톤에 1979년 처음으로 개설된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폐쇄되었다가(1982. 3)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1989년 1월에 주 보스톤 총영사관으로 재개설되었다(1989. 1). 1981년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법이 공포됨에 따라 뉴잉글랜드 5개 주를 포함한 평화통일 자문회의가 보스톤에 설립되었다.

■ 홍근수 목사 청빙과정

1977년 8월 김갑동 목사가 사임의 뜻을 보이고 12월에 사임 발표를 하면서 1977년 10월 보스톤한인교회 제직회에서는 교역자 천거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으로 김영호 이사장 외 이덕희(제직회장), 김장호(임원회 대표), 정경조(평신도 대표), 정소영(여신도회 대표)을 선출하여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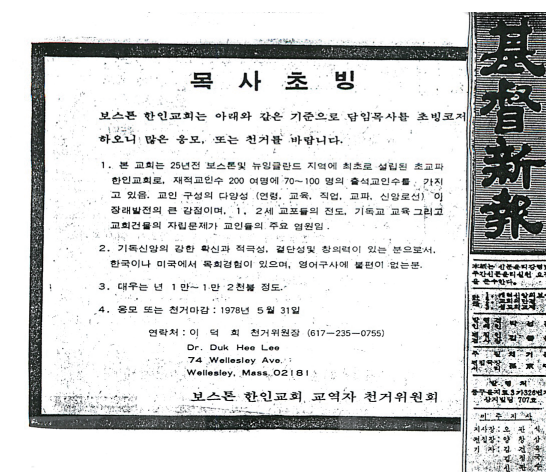
‘목회자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977. 11). 17가지 질문에 대한 87명의 응답을 정리한 결과, 연령은 40대,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한미 양국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목회 경력이 있는 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설교는 복음 중심이어야 함은 물론 예배 인도와 복음전도에 열성이 있어야 하고,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교회 장기 계획과 재정적인 자립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강한 확신과 추진력의 소유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설교에 대한 교인들의 설문 응답 결과를 보면, 첫째, 복음적인(Evangelical) 설교, 둘째, 영감 있는(Spiritual) 설교, 셋째, 신학적인(Theological)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Social) 설교를 원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78년 3월에 76명에 달하는 미국 및 캐나다에 거주하는 목회자 및 한인교회(동부 70%, 그 외 30%)로 이덕희 천거위원장의 이름으로 교인들의 설문결과 보고서를 함께 동봉한 청빙 안내 편지를 발송하였다. 그 해 5월에는 목사 초빙 광고를 한국복음신보, 기독교신보, 미주교계 소식 등지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목사 청빙을 추진하였다.

이력서와 추천서를 제출한 12명의 후보들 중 과반수 이상이 40대였고(7명),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이 2명이며 나머지 10명은 미국 각 주에서 신청하였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두 목사는 7월에 초청설교, 성경공부 인도 및 교인들과 목회방침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고, 환영만찬회를 가졌는데 약 30명 내외 5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하였다. 그 해 9월 13명이 모인 제직회에서 홍근수 목사를 신임 교역자로 천거하고 임시공동회를 통해 인준하였다. 목사 청빙 과정 동안 노정선/유철욱/함성국 목사가 10개월간 임시목회자로 보스톤한인교회 사역을 맡았으며, 1978년 제직회에서는 김갑동 목사가 협동목사로 사역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 홍근수 목사 취임예배 1978

홍근수 목사가 취임했던 해는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였다. 이에 제직회에서는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축하와 더불어 홍근수 담임목사의 취임식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여 창립 축하 겸 취임예배를 드렸다(1978. 12. 17). 함성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교회를 창립한 박대선 목사의 설교(“교회를 교회답게”)와, 김성하 박사의 25주년 축하 및 광노순 신학박사의 권면 등으로 이어졌으며 성가대와 현악합주단(최시원 지휘, 변화경 반주)의 축하 연주도 있었다. 취임식 후보에는 순서 참석인사들의 소개를 비롯하여 홍근수 담임목사 소개 및 당시 보스톤한인교회 제직명단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홍근수 목사는 보스톤한인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청빙 절차를 거친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위임목사이기도 하였다(1981. 2. 위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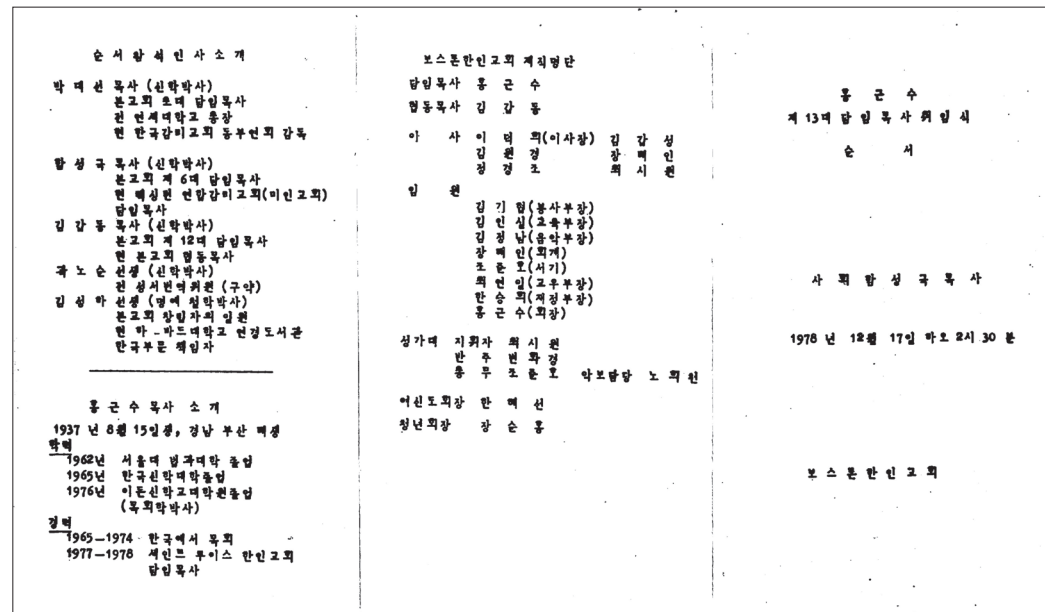


기독교신보에 게재된 보스톤한인교회 담임목사초빙 광고 (1978)



홍근수 목사와 사모 김영 목사

1. 1983년 9월 뉴욕 발 서울 행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사할린 서쪽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 사망 사건.



홍근수 담임목사 취임예배 주보 (1978. 12. 17)

홍근수 목사의 신앙 배경과 목회 방향

보스톤한인교회의 13대 교역자인 홍근수 목사의 취임은 보스톤한인교회에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1978년 11월 시무 초기 제직회에서 제시한 그의 목회방향과 비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성숙한 교회로의 지향: 평신도 중심 목회, 교회 부서의 효과적 조직과 충분한 활용, 교회 및 예배생활의 충실화, 주일예배 의식 강조, 심방 역점, 다방면에 걸친 설교
- 교회교육 강화: 유년주일학교 조직 및 운영, 청년회, 장년부 성경공부, 교회 봉사활동 강화
- 선교활동 치중: 학원선교, 세계선교, 선교장학사업, 선원선교

홍근수 목사는 또한 이민교회의 정체성(Identity)의 확립, 개인 신앙 성장 및 교회 부흥, 그리고 마음 자세의 갱신(renewal)의 일환으로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강화 및 한인회와의 좋은 유대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었다.

홍근수 목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1962) 한국신학대학에 편입하여 신학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미국으로 유학 길에 오른 그는 Colgate Rochester Divinity School을 거쳐 Eden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학위를 끝내고(1977) 이듬해 보스톤한인교회로 취임하기 전까지 일년여 간 세인트루이스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 청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홍근수 목사는 강한 “social concern”을 가진 외향적인 인물로 매우 활동적이며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조직적인 사고와 우수한 설교자로서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었다. 기독교윤리를 전공했던 그는 특히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사역방향을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등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한국 산업전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기도 한 그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목요기도회 지부를 창설(1985)하기도 하였다.

홍근수 목사는 목회기간 동안 보스톤한인교회를 안정되고 활기찬 이민교회로 변모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오랜 기간 준비하여 은혜롭게 또 모든 교인들의 중의를 모아 이룬 미국장로교단 가입(1985)은 그 하나의 예이다. 교단 가입과 함께 재정비된 장로교회로서의 교회 조직은 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교육을 비롯한 선교, 출판, 봉사 분야를 대외적으로 확장시키며 사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열과 성으로 홍근수 목사를 따르며 교회사역에 봉사한 모든 제직들과 교인들의 신앙은 더불어 성장했고, 그에 따라 선지자적 이민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었다.

홍근수 목사의 연례 표어를 보면 1979-선교의 해, 1980-선교하는 해, 1981-교육의 해, 1982-선교와 구제의 해, 1983-창립 30주년의 해, 1984-선교와 교육, 1985-미래지향적 교회 등으로 선교와 교육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목회 방향이나 교회 발전 방향과 성장 등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 창립 30주년을 지나면서 새롭고 더 나은 교회로 성장 발전시키려는 목회방침을 볼 수 있다.

이민교회로서의 안정과 성장

1978년 목사 청빙서에 기재된 보스톤한인교회의 간략한 소개는 당시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다.

현 본교회 재적 교인수는 200명(그 중 세례교인 70명)으로 매 주일 평균 출석은 장년 80명, 어린이 20명 내외이며 교인들의 구성요소로 보면 연령적으로 갓난아기에서부터 80 고령에 이른 노인까지 다양하며, 그들의 재미연한수도 이제 갓 이민 혹은 유학 온 분이 있는가 하면 10년 혹은 20여 년을 보스톤에 거주하면서 계속 본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교인들의 직종도 다양해서 공업, 의류업, 교직, 상업, 사무직, 보험업, 학생 등등 각 직종의 사람들이 총망라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교회 산하 기관으로는 교회학교에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생부가 있으며 격주로 모이는 구역별 장년 성경공부반이 넷, 그 외 담임목사, 서기, 회계, 재정부장, 교육부장, 음악부장, 교우부장, 봉사부장, 여신도 회장으로 구성된 임원회와 6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그리고 임원, 이사 합동회의인 제직회가 있습니다. 금년으로 창립 6주년을 맞은 여신도회는(현 재적회원 33명)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 회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로 작년 부터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연 2회 교회 대만찬 등 그 외 중요한 행사의 일부를 전담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지닌 본교회 성가대는 훌륭한 음악으로 독자적인 명성을 지켜왔고 저희 교회의 큰 힘ियो 자랑입니다. 그 외 예배, 목회, 출판, 교육, 건축위원들이 있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좌하며 교회 뉴스레터가 평균 월 1회 씩 발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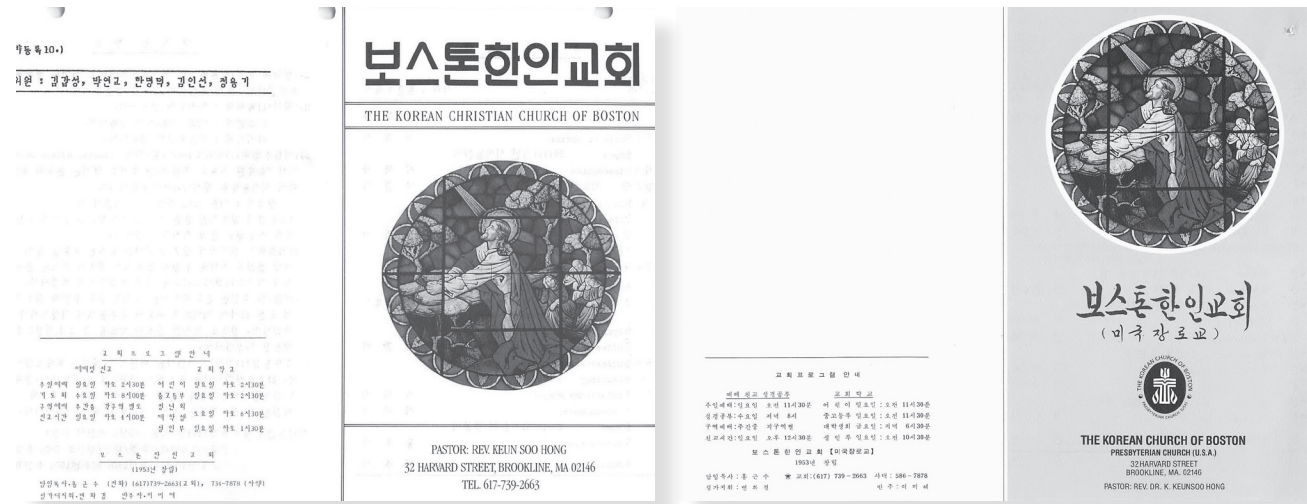
- 목사 청빙서에 기재된 보스톤한인교회의 간략한 소개 중에서(1978)

1979년 11월 홍근수 목사는 처음으로 보스톤한인교회 정기공동회를 위해 연례보고서를 내면서 시무 첫 해를 되돌아 보았다. 교회가 성장하여 등록 교인수는 176명, 주일 평균출석이 어른 109명, 어린이 30명, 합계 139명으로 일 년 동안에 40명 정도(40%) 증가했으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는 220명 이상의 많은 교인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주일 평균 헌금이 \$575로서 전년도의 \$348에 비해 65%가 늘어났고, 연례예산 수입 \$25,600은 10월에 이미 도달하였다. 1980년도 예산은 총 \$40,000로 전년대비 64%

가 증가되었다. 홍근수 목사 취임 후 첫 일 년은 보스톤한인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모든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연례보고서는 보여주고 있고, 교인 수나 헌금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8년 후인 1986년 12월, 홍근수 목사는 보스톤한인교회를 떠나 서울 향린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다. 1986년 보스톤한인교회 연례보고서에는 홍근수 목사 시무 첫 해인 1978년과 8년 후인 1986년을 비교한 자료를 실었다. 주일 출석교인이 평균 98명에서 20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주일헌금도 평균 \$362에서 \$1,808로 5배 가량 증가했으며, 연간예산은 \$22,000에서 \$99,000로 늘어났다. 교회 건물 사용비 부담도 월 \$150에서 \$2,000로 늘어 났고, 실질적인 full time 전임목사의 사역과 함께, 성장하며 재정적으로도 자립하는 이민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초교파 교회를 벗어나, 미국장로교 소속 한인교회로 변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4년부터 주보에는 교회 본당 정면에 위치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도하는 예수님 형상을 넣어 표지 디자인을 하였다. 1985년 주보에는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이었던 영어 교회 명칭이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resbyterian Church(U.S.A.)로 공식적으로 바뀌어 실리기 시작하였다. 담임목사가 사회자로 예배순서를 인도하였고, 예배초대, 찬송, 개회기도, 신앙고백, 교독문, 성경봉독, 설교의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후 헌금과 광고시간이 맨 마지막 차례에 있었다. 1985년 4월부터 공동번역성서와 표준찬송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986년 9월부터 주일 본 예배 및 교회학교 시작 시간을 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하였다.



교회 주보 (1984-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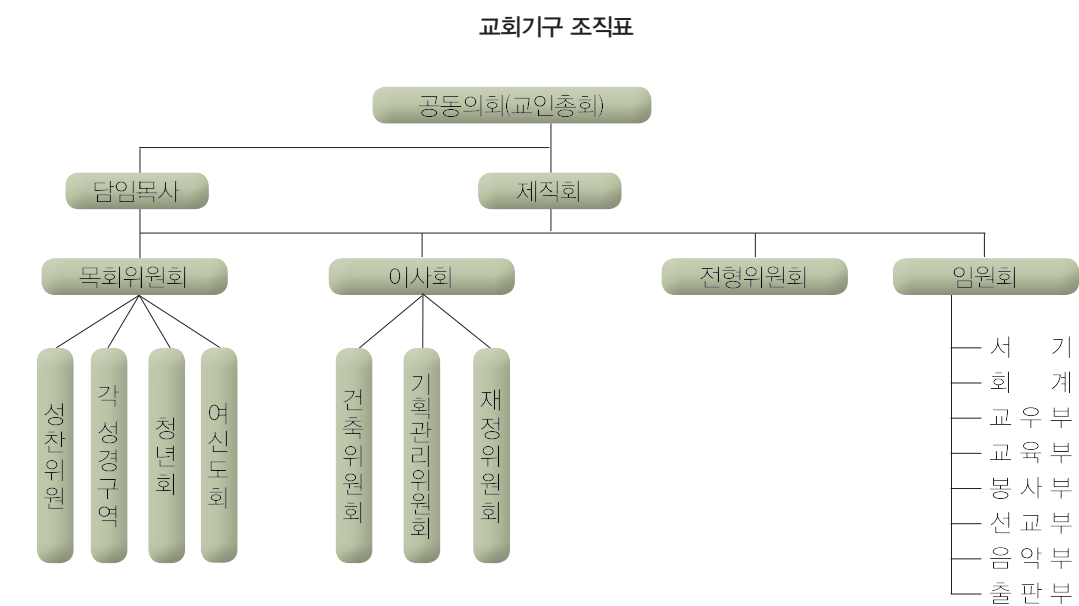
홍근수 목사 재임 시에는 김한나 교우가 교회 사무직원으로 일했고(1979. 1-1980. 6), 후임으로 김정호 전도사, 또 변혜경 교우가 1983-1984년 교회일을 돕다가 1985년 보스톤을 떠나게 되면서 후임으로 조윤영 교우가 인계받아 채워 담임목사 때까지 사무 직원으로 함께 사역하였다.

■ 교회 조직 개편과 장로, 권사, 집사 제도의 도입

홍근수 목사가 시무를 시작한 후 효과적인 사역과 확대 및 교회의 부흥 성장을 돕기 위한 조직체계를 위해 새 헌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사회는 헌장개정위원으로 홍근수 담임목사, 정경조 이사, 손원호 교우(서기)를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1979. 7. 29). 헌장 개정작업은 여러 번의 토의와 연구발표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7월 30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헌장개정위원회는 이사회와 공동으로 여러 번의 연석회의를 거듭하여 공청회에서 기구 조직에 관한 개편 골자를 발표하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논의 끝에 종합 수정을 거친 새 헌장이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였다(1979. 11. 27). 12월 초 새 헌장은 다시 한번 심의 과정(제직회와 교우 연석 심의)을 거쳐 임시공동회 인준(1979. 12. 16)을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를 일단락 짓고 완성되어 공포되었다.

총 8장 33조(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개정 교회 헌장은 초교파 교회로서의 신조(신앙고백)를 더욱 명백히 하는 동시에 교회 조직체계에 대한 변경사항이 많이 더해졌다. 부목사, 전도사, 협동목사, 원로 목사 제도를 만들었고, 장로, 권사, 집사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던 공동의회, 제직회, 목회위원회, 이사회 및 임원회가 개정 헌장에 명시되었다. 담임목사의 2년 임기제는 2년 후 재인준을 하는 조건으로 없어졌다.

‘공동의회’는 교인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며 담임목사 인준, 신임 제직원 선출, 예산안 및 결산보고의 통과, 헌장수정 등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최고의결기구로 명시되어 있다. 공동의회에 앞선 의결기구인 ‘제직회’는 교역자, 제직원(장로, 권사, 집사) 및 각 교회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예산안의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각종 인사에 관한 의결을 행하며, 주요보고의 청취 및 토의와 기타 중요안건을 처리하도록 명시하였다. 신설된 ‘목회위원회’는 교역자, 시무장로 및 구역장으로 구성원을 제한했고, “교인들의 영적 복리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담임목사의 제반 목회활동에 참여하고 예배, 성례, 성경공부구



교회요람에 실린 교회기구 조직표 (1981-1982)

역, 심방, 신앙생활의 규율, 강단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형위원회'는 담임목사, 이사장, 제직회장, 임원회장 및 신임제직회에서 선출한 장로 1명과 집사 1명으로 구성되며, 교회에 봉사할 일꾼들을 선출하고 교적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이사회'는 시무장으로 전원과 신임 제직회에서 선출된 4명의 집사로 구성되어 본 교회를 대표하는 법적 기관인 동시에 교회의 재정, 재산관리, 교역자의 복지, 교회 각 조직의 지도 감독 및 기타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사회 산하 부서로 기획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이 있었다. '임원회'는 임원회장, 담임목사, 서기, 회계 및 각 부서장(교육부, 선교부, 교우부, 봉사부, 음악부, 재정부, 출판부, 여신도회, 청년회)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담임목사를 도와 일반 예산을 집행하고 각 부서의 계획된 사업과 관련사업을 토의/진행하며, 각 부서간의 협조를 돕는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개정된 교회헌장에 의하면 보스톤한인교회는 외적으로는 아직도 초교파 교회의 모습이 강했지만, 장로, 권사, 집사 제도의 도입과 당회에 준하는 목회위원회를 신설함으로 내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 장로교단의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첫 제직원(장로, 권사, 집사) 선출과 임직

1980년 1월 13일 공동의회에서는 새 헌장에 의거하여 창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 4명(공병례, 김갑성, 이덕희, 장태인)과 집사 15명(공병선, 김경애, 김금하, 김기협, 김문소, 김영태, 변화경, 이일영, 이장규, 장순홍, 정경조, 정소영, 조준호, 최시원, 한승희)이 선출되었다. 2달 후인 3월 16일에 장로 및 집사 임직 예배가 있었고, 전교인 축하 만찬이 이어졌다. 이날 임직예배에는 홍근수 목사를 비롯하여 총 7명이 예배순서에 참여했는데, 참여자 대부분은 예전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시무를 했던 전임목사들이었다: 김갑동 목사, 박원기 목사(미연합감리교회 담임), 이상호 목사(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담임), 함성국 목사(렉싱턴 미감리교회 담임), 조남철 장로(서울 성광교회 시무), Mr. John Rouvel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장로/집사/권사 후보자 선임을 담당했던 전형위원회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6인(여신도회장 김경애, 음악부장 김정남, 청년회장 임용순, 교우부장 최연일, 이사 김원경, 홍근수 담임목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1979년 12월에 심의 절차를 거쳐 후보자 선정을 완료한 후, 1980년 1월 28일 각 조직의 위원장과 조직의 기능 및 구성을 확정하였다. 1980년 3월 목회위원회에서는 김갑동 목사를 협동목사로 임명하는 한편 조남철 장로와 공병근 장로(충남 삼교교회 시무) 역시 협동장로로 임명하였다.



첫 장로 임직식 (1980. 3. 16)
왼쪽부터 공병례, 김갑성, 이덕희, 장태인



첫 제직원(장로 4명, 집사 15명) 임직예배 후 (1980. 3. 16)

1981년 2월 제직 임직식에서는 신임 장로 1명(김문소)과 권사 1명(성덕춘), 그리고 집사 13명(김계숙, 김인실, 김희준, 박노희, 박연교, 윤석희, 이경희, 이상구, 임나경, 조요성, 진용득, 최연일, 한명덕)의 임직이 함께 있었다 (1981. 2). 그후 1982년까지 장로, 권사의 숫자는 변동이 없었으나, 집사의 수는 꾸준히 늘어 28명이 되었다.

1983년 1월에는 이일영, 한승희 집사를 장로로 임직시킴으로 보스톤한인교회에서 1985년 미국장로교 가입 전에 안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직된 장로는 공병례, 김갑성, 김문소, 이덕희, 이일영, 장태인, 한승희 모두 7명이었다.



집사 임직예배 후 (1982)

1980년 1월 교회 조직 및 부서 담당

담임목사: 홍근수 목사
협동목사: 김갑동 목사
제직회장: 이덕희 장로
목회위원장: 홍근수 목사
전형위원장: 김갑성 장로

이사회: 이사장 김갑성 장로
부이사장 장태인 장로
이사 공병례 장로
기획관리위원장 이덕희 장로
건축위원장 정경조 집사
재정위원장 김문소 집사

임원회: 회장 김문소 집사
서기 김기협 집사
회계 장순홍 집사
교우부장 김영태 집사
교육부장 이장규 집사
봉사부장 장태인 장로
선교부장 조준호 집사
음악부장 이일영 집사
출판부장 정경조 집사

성가대: 지휘 최시원 집사
반주 추승욱

유년주일학교장 윤석희

여신도회장 김경애 집사

청년회장 임용순

구역장: 가나안반 김갑성 장로
갈릴리반 김문소 집사
벤엘반 이일영 집사
로고스반 김기협 집사
아가페반 한승희 집사
기드온반 조준호 집사

1981년도 부서 담당자 명단	
제직회: 제직회장 이덕희 서기 한승희 부서기 김기협 목회위원회: 위원장 홍근수 목사, 공병례, 김갑동(목사), 김갑성, 김문소, 김정호(목사), 박노희, 이덕희, 정경조, 조준호, 최연일, 한승희, 이사회: 김갑성(이사장), 공병례, 김문소, 이덕희, 이일영, 정경조, 최연일, 한승희 재정위원회(위원장 김문소) 기획관리회(위원장 이덕희) 건축위원회(위원장 정경조)	전형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임원회: 회장 이일영, 서기 임나경, 회계 조준호, 교우부장 김기협, 교육부장 이종희(대리), 봉사부장 한명덕, 선교부장 조요성, 음악부장 한승희, 출판부장 김희준 여신도회: 회장 김계숙 청년회: 회장 원덕수
1981년도 제직 명단	
교역자: 담임목사 홍근수 협동목사 김갑동 교육목사 김정호 장 로: 시무장로: 공병례, 김갑성, 김문소, 이덕희 협동장로: 공병근 권 사: 성덕춘	집 사: 공병선, 김경애, 김계숙, 김금하, 김기협, 김영태, 김인실, 김희준, 박노희, 박연교, 변화경, 윤석희, 이경희, 이상구, 이일영, 이장규, 임나경, 정경조, 조준호, 최연일, 한명덕, 한승희 (22명) 전출한 제직: 장순흥, 조요성, 진용득, 최시원 (4명)
1982년도 부서 담당자 명단	
제직회: 제직회장 이덕희 장로, 서기 이종희 집사 이사회: 이사장 김갑성 장로, 부이사장 김문소 장로 건축위원장: 공석 기획관리위원장 이덕희 장로 재정위원장 김문소 장로 서기 최연일 집사 임원회: 임원회장 한승희 집사 서기 임나경 집사, 회계 조준호 집사, 교우부장 김기협 집사, 선교부장 박노희 집사, 교육부장 이일영 집사, 출판부장 이종무 집사, 음악부장 조준호 집사, 봉사부장 천병오 집사	여신도회: 회장 오경자 집사, 부회장 전유배 집사, 총무 이경희 집사 청년회: 회장 안성국, 부회장 강경희, 총무 김세영 82년도 신규집사 명단 김기일, 오경자, 이종희, 전유배, 최송자, 천병오 (이상 6명)

■ 제직수양회를 통한 청지기 훈련

새 교회현장에 따른 첫 제직원 임직을 앞둔 1980년 3월 7-8 일 양일에 걸쳐 홍근수 목사는 제1회 제직수양회를 단행하였다.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주제 강연자로 나선 함성국 목사(렉싱턴 미 연합감리교회 담임)는 “목회서신과 현대교회 목회”에 관한 강연을 했고, 홍근수 목사도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두 설교에서 청지기직의 정의와 실천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협동목사로 수고하던 김갑동 목사는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이후 제직수양회는 교회의 중요한 연례행사가 되어 매년 이틀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다.



제직수양회 (1983)

수양회 날짜	장 소	강 사	주 제
1980. 3. (제1회)	Edwards Church, UCC 수양관 Framingham, MA	함성국 목사 (렉싱턴 미 연합감리교회) 홍근수 목사 김갑동 목사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1981. 2. (제2회)	St. Steven's 수양관 Dover, MA	노정선 목사 (뉴헤이븐 한인연합장로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제직의 목회자적 사명
1982. 2. (제3회)	Ashland 4H 센터 Ashland, MA	신성국 목사 홍근수 목사	평신도의 목회자적 사명
1983. 2. (제4회)	Andover Newton 신학교 Newton, MA	이상철 목사 (토론토한인연합교회)	Team Ministry
1984. 3. (제5회)	Andover Newton 신학교 Newton, MA	홍근수 목사	제자의 도리
1985. 1. (제6회)	Andover Newton 신학교 Newton, MA	정용섭 목사	교회와 청지기 직 부제: 교회의 본질과 기능 교회의 선교사명과 하나님의 설교 청지기직의 실제 문제: 장로와 집사
1986. 2. (제7회)	Andover Newton 신학교 Newton, MA	홍근수 목사	비둘기, 책, 강대상, 불꽃, 십자가

■ 교회 창립 32년 만에 미국장로교단 가입

특정한 교단으로의 가입 여부는 1960년대 말부터 10여 년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홍근수 목사가 시무한 지 일 년 만에 장로/집사제도를 통해 교회 조직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교단 가입 여부가 또다시 교인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와 체계적인 연구 및 발표,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 홍근수 목사 취임 7년 만인 1985년 보스톤 한인교회는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USA)에 가입하게 되었다.

1978년 4월, 당시 임시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던 노정선/유철옥/함성국 목사 주도하에 교단 가입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있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정선 목사의 교단 가입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발표가 주를 이루었다. 노정선 목사가 제시한 세 가지 교단 가입 방법은: 단일 교단에 가입하는 방법, 2개 이상의 교단에 가입하는 방법(예, 보스톤의 중국인교회), 혹은 독립교회로 남는 방법 등이었다. 교단 가입 문제는 늘 논의되는 주제였으나 특정 교단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년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교회 상황과 교인들의 의견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홍근수 목사는 취임 후인 1979년 11월 대대적인 전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의 설문조사에서는 총 78명이 참가하여 교단 가입 찬성 37명(47%), 반대 30명(38%), 상관없음 7명(13%), 그리고 의견 없음 1명 등의 결과를 보여줬다. 힘있는 중론이 모아지지 못하자 교단가입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교단 가입을 찬성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여성이며, 세례를 받은 교인, 나이 든 계층, 장로교 소속 교인들이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82년, 임시제직회에서는 교단 가입 문제에 대한 8인의 연구위원을 위촉하였다(홍근수 목사, 김정호 부목사, 교우 대표 김동운, 백린, 장로 대표 김문소, 이덕희, 집사 대표 임나경, 한승희). 위원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 초교파에 대한 역사, 교리, 기구/조직, 보스톤한인교회와의 관계, 장단점 등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여 11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전교인들에게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교단 가입에 관한 비교 분석만 있을 뿐 어떤 특정 교파를 추천하지는 않았다.



홍근수 담임목사와 전교인 (교회건물 앞, 1984)

1982년 9월 김문소 장로는 교단 가입과 특별히 미국장로교 가입을 10가지 이유를 들어 추천했는데,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교단에 동참하여 교단을 통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교역자 및 기독교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미주 한인의 약 70%가 장로교인이라는 점, 대부분의 보스톤 지역 한인교회는 다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아직도 미국장로교회에 가입된 한인교회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홍근수 목사도 미국장로교단의 소속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루클라인제일장로교회도 장로교단에 속해 있음 등을 강조하였다.

1982년 11-12월에 걸쳐 다시 교단 가입 문제에 관한 전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12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85명(70%)이 교단 가입에 찬성, 73명(60%)은 6개월 이내에 가입하는데 찬성을 보였다. 응답자 중 58명(48%)은 장로교인이었다. 대다수의 찬성표를 얻은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혜롭게' 추진하기 위해 보스톤한인교회는 교단 가입 결정을 2년여 더 보류하게 되었다.

교단 가입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1985년 3월 이사회에서는 “본 교회는 미국장로교 PC(USA)에 회원교회로 가입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임시제직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4월 임시공동의회에서도 대다수의 찬성(76명 중 63명 찬성, 83%)을 이끌어내며 결의안을 인준하였다. 이에 따라 PC(USA) 4월 보스톤노회 정기 모임에서는 “Special resolution to form a commission to welcome the Korean Church”가 채택되었고, 홍근수 목사와 노회 총무 K. Grant 목사가 함께 제반 절차사항을 준비하게 되었다. 노회와 보스톤한인교회의 여러 준비 모임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해 여름 보스톤노회의 후원으로 “장로교회의 구조와 기능”이란 주제로 장로교회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가졌다(강사 강요섭 워싱턴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1985. 8. 3). 8월에는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교 체제에 맞는 교회 규칙을 개정, 통과시켰으며, 공천위원회에서는 장로교회 규칙에 따라 장로, 집사, 권사를 추천하고, 9월 임시공동의회를 통해 제직 선출을 마무리하였다.

8개월 만에 모든 교단 가입 준비를 완료한 보스톤한인교회는 1985년 11월 미국장로교 PC(USA) Boston Presbytery의 23번째 교회로 가입하여 1985년 11월 11일 미국장로교단 가입 축하예배와 창립 32주년 기념예배를 함께 가지면서 신임 장로 및 집사, 권사에 대한 안수/임직식도 같이 거행하였다. 교단 가입에 대한 뉴스는 5월에 이미 신문에 게재되었고, 기념예배는 보스톤 한인사회 및 보스톤 지역 교회들을 모두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보스톤 지역 축하행사처럼 치러졌다. 케임브리지한인교회, 셀렘 반석교회, 브롱스한인교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등에서는 축하화환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이로써 당시 보스톤 지역의 19개 한인교회²중 유일하게 초교파로 남아 있던 보스톤한인교회는 32년간



1985년 5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

2 연합감리교회 소속(8교회), 회중교회(2), 카톨릭교회(2), 순복음교회(1), 남침례교회(1), 성결교회(2), 장로교회(2) 그리고 교단에 속하지 않은 보스톤한인교회(1).

의 초교파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미국장로교에 속한 새로운 한인교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교회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국장로교”라는 교단 표시가 끝에 붙게 되어 공식 한국어 명칭은 보스턴한인교회(미국장로교), 영어 명칭은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resbyterian Church (USA)로 명명하게 되었다. 1985년 연례보고서에는 홍근수 목사의 당시 소감이 다음과 같이 생생히 표현되어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홍근수 목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어려운 교단 가입을 은혜롭게 이루었지만, 정작 그는 이듬해에 새로운 사역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장로교회로서 해나갈 수 있었던 그의 사역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보스턴한인교회(미국장로교)” 이것은 본 교회의 새 이름으로서, 지난 1985년 한 해 동안의 본 교회의 삶과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란 괄호 속의 ‘미국장로교’란 것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실은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 교회가 초교파의 신분으로 지난 32년간 존립해 왔지만 이제는 세계 장로교의 일원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만 존재하는 외톨박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이슈 중의 한 가지였던 교단 가입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체 장로교회를 ‘우리 교회’로 생각하고 이들과 일체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 미국장로교 규례에 따른 교회체제의 정비: 안수장로 및 안수집사, 당회 구성



미국장로교 교단 가입 기념예배 (1985. 11)

1985년 11월 17일 교단 가입 기념예배에서는 9명의 장로와 24명의 집사를 안수, 임직시키고, 1명의 권사를 임직시켰다. 9인의 장로 중 4명(김갑성, 김문소, 이일영, 한승희)은 이미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로이 가입한 장로교단의 규례에 따라 장로로서 안수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새로 안수를 받는 장로였다. 이에 따라 홍근수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당회가 9인의 안수장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당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그간 목회위원회, 이사회, 임원회, 제직회에서 관리해오던 교회 전반의 살림과 각 부서의 운영이 당회와 집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1985년 크리스마스에는 당시 미국장로교 보스턴 노회장 Rev. Dr. Lynn L. Illingworth가 담임목사직을 맡고 있던 니담장로교회에서 홍근수 목사와 보스턴한인교회 교인들을 초청하여 교단 가입 축하파티를 열어 주었다. 이후, 두 목사가 상호 강단 교환 설교를 하기로 하여 Rev. Illingworth가 본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1986. 2). 또한 홍근수 목사의 추천으로 4명의 장로들은 노회 소위원회에서 노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김성빈 장로 - Stewardship Committee, 한승희 장로 - Church Development Committee), 이일영 장로 - Education Committee, 조준호 장로 - Social Outreach Committee)

교단 가입에 따라 재정비된 교회체제	
장로: 김갑성, 김문소, 김성빈, 김창신, 변화경, 이일영, 조준호, 최연일, 한승희	
집사: 강성유, 김경애, 김계숙, 김내도, 김삼영, 김영경, 김 현, 박연교, 박병덕, 박춘지, 변성구, 백린, 백은숙, 송미자, 안성국, 이경희, 이상구, 이일성, 정귀영, 조요운, 최선경, 최송자, 한기훈, 한명덕	
권 사: 성덕춘	집사회: 회장 조요운
당 회: 당회장 홍근수 목사	총무 김영경
서기 한승희	회계 김 현
노회 대표 한승희, 이일영	구제부 이일성
기독교교육위원회 이일영	봉사부 안성국
교인위원회 최연일	출판부 이경희
선교위원회 조준호	친교부 변성구
예배예술위원회 김문소	
청지기위원회 김성빈	
집사회고문 김갑성	
공천위원 당회대표 최연일, 김창신	



미국장로교 교단 가입 후 첫 장로 임직식 (1985. 11. 17)
(왼쪽부터 이일영, 조준호, 변화경, 최연일, 김창신, 김문소, 김갑성, 김성빈, 한승희)



기념예배 후 제직 일동 (1985. 11)

■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선교활동

시무 초부터 홍근수 목사는 선교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로 여겼다. 교회의 규모나 재정을 볼 때 본격적인 선교사업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지만, 교인들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선교의 중요성을 알렸다. 1979년부터 계속적으로 선교를 교회 목표로 삼았으며, 본 교회가 발행하는 교회지 필그림에 “이민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특집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였다(필그림 4호, 1980). 198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교에 뜻을 가지고 선교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 등을 가지면서 이듬해 1982년에는 선교위원회(고문 김정호 목사, 부장 박노희, 위원 김경애, 김문소, 이일영, 정용기, 조준호, 한



선교위원회 양로원 방문 (1979)

승희)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선교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³

당시의 선교활동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그중 주목받았던 활동들은 해외선교사 지원, 신학생 장학금 지급, 학원선교, 문서선교, 선교세미나, 세계 난민 구제헌금 등이었다.



선교위원회 찬조찬양 (1985)

Pearl Street United Methodist Church, Brockton, MA
김영 목사(홍근수 담임목사 사모)가 시무하던 교회

연도별 간추린 선교활동

선교 연도	선교활동 내역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난민을 위한 헌금 기독교 세계 봉사회에 전달 • 레바논 난민들을 위한 구제헌금 실시 • 이탈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 구제금 전달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부 주관 선교세미나 주최 주제 "하나님의 선교" 선교와 전도 및 성서적 기초 - 홍근수 목사 • 선교의 사명과 오늘의 선교 - 조요성 집사 • 제자를 삼는 선교 - 김금하 집사 • 선교 방법 - 이영경 교우(여신교회) • 선교와 전도 - 안성국 교우(청년회)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길 화백(오사카 대 교수/ 하버드) 초청(한국성화 전시회): 그림을 통한 선교 활동 • 한완상 박사 선교세미나 - 재미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 저 낮은 곳을 향하여 • 보스턴지역 4개 교회 합동 선교세미나(80여 명 참여) 강사 김찬국 교수, 주제 기독교인의 사명, 장소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 UNICEF에 Lebanese Children's Relief Fund를 보냄

3. 당시 선교위원회가 추구했던 3가지 선교정책: 1. 부흥회, 사경회, 선교세미나; 2. Billy Graham Crusade 지원, 보스턴지역 평신도협의회 지원, 한국학교 보조, 보스턴대학교 장학금 설치, 지역구제; 3. 한국 및 세계선교.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끼금식헌금" 세계식량 구제기금에 전달 • 김난원 전도사(뉴욕 맨하탄제일교회) 선교세미나 주제: 오늘의 선교적 사명과 개체 교회의 역할 • 추수감사절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통조림 음식 등의 수집 물품을 Kingston House에 전달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순절 매 금요일 금식 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 • 에티오피아 기아자들을 위해 보스턴 지역 6개 한인교회가 연합으로 기금 \$800을 모아 Church World Service에 전달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스더선교회 지원 • Tewksbury State Hospital 방문 • Brockton Foster House 방문 • 멕시코 지진 희생자 구호 지원 • 한국척추장애자 복지회 지원 • Brookline Food Pantry- Kingston House 에 canned/dry food 지원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지원

1. 케냐의 김명숙 선교사 지원

1985년 4월 선교위원회는 약 2년 반 동안 Africa Inland Mission International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에 파견되는 김명숙 선교사에 대한 협력지원을 시작하였다. 재정적으로 당회에서는 매년 \$1,200의 선교비를 지원했고(1985. 9~1987. 6), 이와 더불어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서신 지원이 더해졌다. 1985년 부활절 기간 동안 모아진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의 케냐를 위한 구제헌금이 구제부의 기금과 함께 김명숙 선교사에게 전달되었는데, 이 기금은 선교사들을 위한 자전거 3대와 성경사전 그리고 케냐인 신학생 두 명의 4년 장학금으로 사용되었다. 김명숙 선교사는 1992년 9월 보스턴한인교회를 방문하여 그 동안의 케냐 선교보고를 하였다.

여러 가지 열악한 아프리카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원주민들에게 전하면서 1986년에 홍근수 목사에게 보내온 서신을 보면 김명숙 선교사의 헌신적인 주님의 사역의 일부를 느낄 수 있다.



Mr. Luo(오른쪽 끝) 가족(4명의 부인과 그 가족의 일부)과 함께 선 김명숙 선교사(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김명숙 선교사와 동료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또 늘 저의 기도제목인 것과 같이 오늘도 “철저하게 종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의 자세와 배우는 자의 자세 잃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중략) 과거 서구 선교사들이 범했던 그 실수들을 밟지 않기 위하여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하며 이 Africa 사람들과 같이 하나로 bonding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중략) 성경공부 4팀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신앙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주님께 돌립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처음 사역의 목적지였던 Got Onger 지역을 걸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략) 왕복 10km 걸어서 가정마다 방문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 선원선교 지원 및 보스턴 지부 설립

1984년에 시작된 선원선교는 외항선을 타고 오랜 기간 바다에 있기에 복음을 접할 기회나 예배드릴 기회가 없었던 한인선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스턴 항에 정박하는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하며 선교자료 등을 나누는 선교부(부장 조준호 집사)의 사역이었다. 선원선교를 시작한 첫 해 선원들이 총 3회에 걸쳐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스턴 강단, 달력, 설교 테이프(tape) 등의 선교자료가 전달되기도 하였다. 교인들이 직접 보스턴 항으로 찾아가기도 했는데, 1986년 자료에 의하면 보스턴 항에 도착한 많은 한인 선원들에게 찬송가와 성경책 및 여러 선교문서들을 전달하였다. 1985년부터는 선원선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선원선교회의 요청에 따라 홍근수 목사를 지부장으로 하는 한국선원선교회 보스턴 지부를 설립하였다. 선원선교 프로그램은 꾸준히 보스턴한인교회 선교사업의 하나로 정착되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 보스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원선교

홍근수 목사가 1982년 9월 가을학기부터 보스턴대학교 내의 아세아 학원목회실(Asian Campus Ministry) 교목으로 임명되면서 사모인 김영 목사는 그를 도와 학생 상담을 맡게 되었다. 주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홍근수 목사와 김영 목사는 대학생 영어 성경공부반도 개설하였다. 같은 해에 본 교회 부목사였던 김정호 목사는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반을 인도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학원선교를 위하여 16인승 van(1975년형)을 구입하여 운행했는데, 잦은 고장과 수리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1984년부터는 보스턴대학교의 아세아학원 목회실장인 최종식 목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대학 내 학원선교를 계속하였다. 1985년에는 백승호 교우가 매주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학원목회를 도왔다. 주로 보스턴대학교, 버클리음악대학, 그리고 노스이스턴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원목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성경공부와 친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이는 홍근수 목사의 목회방향에 따라 오래 전부터 계획해 왔던 학원선교 활동이었으며, 학교 층에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다수의 교수와 많은 학생교인들을 염두에 둔 사역이었다.

4. 한국 개척교회 지원 및 선교 지원 활동

해외선교사 지원 및 보스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사업 외에도 보스턴한인교회는 모국인 한국의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선교비 지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교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1980년 한국 부산에 위치한 신망양로원을 시작으로 한국 나환자촌 및 한국의료선교부를 지원했고, 1982년에는 한국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도산교회(전도사 강정출)를 두 번에 걸쳐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인 도산교회는 교회가 전혀 없는 오지에 세워진 농촌마을교회로 교회 건물도 없이 마을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1983년 선교부(부장 조요성 집사)가 지원한 또 하나의 개척교

회는 개척 2년째였던 전라북도 둔산제일교회(장로교회, 시무전도사 조은연)였다. 한옥석 교우의 소개로 선교비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둔산제일교회는 교회당 건축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에게도 선교 지원을 했는데, 그 중 마산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던 Ms. Rebecca Dodge 선교사에게 지원 선교금을 전달하였다(1985).



경상남도 통영 도산교회(1982)

김정호 부목사 사역 1982-1983

김정호 목사는 1981년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 재학시 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같은해 6월에 미연합감리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듬해 2월부터 본 교회 전임 부목사로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던 그는 청년/대학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중고등부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보스턴신학대학교 M.Div. 학위를 마치고 시카고 지역 학원 목회 실장으로 옮겨갈 때까지 잠시 임시목사로 사역하기도 하였다(1983). 김정호 목사는 현재 아틀란타한인교회(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김정호 부목사 (1981-1983 시무)

교육부 개요

1981년 보스턴한인교회는 청년과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역자로 김정호 부목사를 임명하면서 교육부장인 이일영 집사의 노력과 함께 교육부는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교회 내에서는 연례 교사수양회, 강습회,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부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보스턴노회의 총회 대표와 동북대회의 목회 및 교육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외부적 위상을 강화시켰다. 교사 자격 심사도 강화시켜 주일학교 교사는 아동 및 청소년 종교교육에 자격이 있는 세례교인 중에서 교회 출석 3개월 이상 된 자로 제한하는 안을 목회위원회를 통해 인준시켰다(1982. 10. 교육부 실무자회의 - 김정호 목사, 오경자, 이일영). 중고등부와 성인성경공부반도 새로이 시작되었다.

청년회 발족과 대학생회 분리와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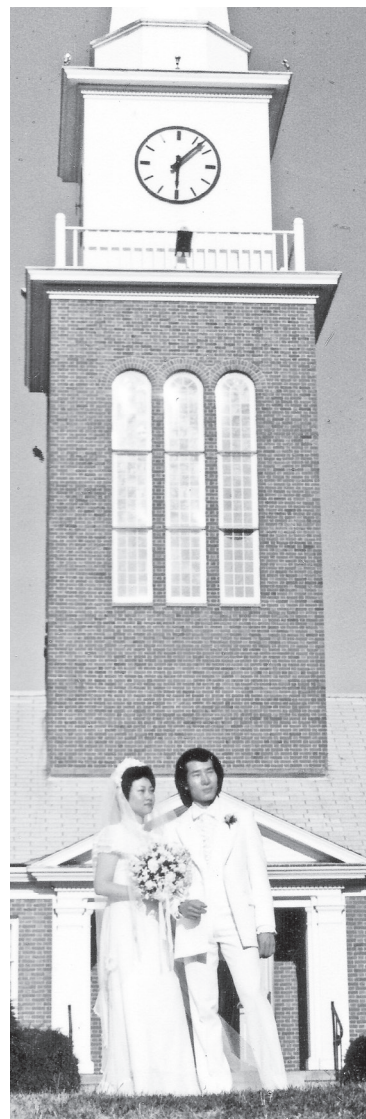
1976년 8월 교육부 소속으로 출범한 청년부는 부원이 많지 않아 뚜렷한 발전이 없다가 1978년 2월에 이르러 30여 명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청년회가 회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1979년에 들어서면서 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청년회 회원은 50명이 넘었고, 이들 청년들은 성가대원으로, 유년부 교사로 또 한글학교 교사 등으로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였다. 또한 신앙강좌, 신앙간증, 여름캠프, 헌신예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였다. 청년회 회장으로 장순홍, 조준호, 노희천, 원덕수 등이 수고했고, 출판물 'Bible Study'와 청년회 회지 '젊은이'도 발행하였다.



성탄절 청년회 모임 (1978)



청년회 1호 결혼식 (나상천/이경섭 부부, 1979)



청년회 2대 회장 조준호와 부회장 김한나 결혼 (1980)

1980년 6월에는 청년회 회칙이 만들어졌고, 부부 팀과 미혼 팀으로 나뉘서 청년부 모임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금요 성경공부반이 시작되었고, 주기적으로 철야기도회 및 부흥회, 수양회, 간중회, 신앙강좌 등을 가졌다. 또한 뉴욕 대부흥회가 있던 해에는 청년회 회원 15명이 참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청년회 활동을 펼쳐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친교 공연으로도 청년부 활동을 늘려나갔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보스톤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젊은이의 밤”(1980. 12), 연극 “우물가의 여인”, 미국교회와 합동으로 진행된 “Gospels” 공연(1981. 12. 3) 등이 있다.

청년회 회원들간의 새 가정을 이루는 일도 많았는데, 1979년 나상천/이경섭 부부의 청년회 1호 결혼을 시작으로 조준호/김한나 부부(1980. 결혼)를 비롯한 여러 커플이 탄생하였다. 청년회 2대 회장과 부회장 역임 후 결혼한 조준호/김한나 부부는 현재까지도 장로와 권사로 본 교회에 출석 중이며 많은 봉사와 사역을 돕고 있다.

청년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1982년, 청년회 임시총회에서는 청년회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하여 청년회와 대학생회를 분리하기로 합의하였다(1982. 9. 26). 청년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대학생회는 1982년 10월 22일에 창립총회를 가지고 김정호 부목사의 지도 아래 새로운 임원단(회장 강혜원, 총무 석동훈, 서기 김혜숙, 회계 최주원)을 선출하고, 이에 따라 대학생회의 독자적 회칙도 만들었다. 대학생회는 청년회와 마찬가지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가졌는데, 성경공부 후 친교 및 교양순서를 두어 청년회와 차이를 두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말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일성경공부반을 개설하여 홍근수 목사와 사모 김영 목사가 이종언어로 인도하였다(1982. 10). 한편 청년회와 대학생회가 합동으로 노래하고 토의하는 Coffee Hous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교제에도 많은 부분을 함께 하였다(1983. 2). 1982년 ‘믿음 소망 사랑’ 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간된 대학생회 회지는 1983년부터 대학/청년회지 ‘빛과 소금’으로 이름이 바뀌어 매년 발간되었다. 대학생회는 청년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지 일년여 만인 1983년 11월 다시 청년회와 합병하게 되었다.

1983년 대학생회/청년회를 맡아 오던 교육목사 김정호 부목사가 시카고로 떠나게 되어 지도교사로 이일영 장로, 한승희 장로, 안성국 집사, 백승호 등이 한동안 수고하였다. 2년 후인 1985년 부임한 Bob Klein 교육목사가 중고등부 사역과 함께 대학/청년회를 이끌어가게 되었고, 이듬해 박성진 목사가 사역에 동참하면서 성경공부를 포함한 청년회 활동을 순탄하게 이끌어 나갔다.

■ 중고등부 창립과 활동

중고등부를 창립할 당시(1979. 7)에는 7학년에서 11학년의 학생수는 47명으로 교사(김희준 교우) 1명이 주일 성경공부를 지도하는 형식이였다. 많지 않은 학생수의 장점을 살린 중고등부 활동이 주가 되었는데, 여름성경학교의 일환으로 중고등부 학생 전원이 하버드대학교 박물관을 관람한 것이 한 예이다(1981. 8. 15).

비록 적은 수의 학생들이었지만 더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위하여 중등부와 고등부의 분리를 검토하기 시작하던 1982년, 교회 성장과 더불어 증가된 중고등학생들을 4개반으로 재편성하고 김정호 지도목사를 임명하는 한편 교사의 수도 늘려 편성하였다(교사진 - 강경희 김기협 김동운 박상근 조성민). 또 중고등부의 성장 및 신앙 교육을 위해 중고등부 하기수양회 및 교사 워크샵 등을 실시하였다. 첫 중고등부 하기 수양회는 많은 인원(학생 13명, 교사 7명, 방문자 8명)이 참가한 가운데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Discovering Christian Growth”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1982. 7. 29-8. 1. 장소 - Ogunquit, Maine).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한 워크샵에서는 김정호 목사를 비롯한 지도교사들이 “Youth Ministry”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1982. 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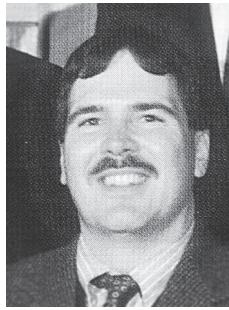
활발하게 성장하던 중고등부는 1982년 9월 자체조직을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단(회장 백혜선, 부회장 홍정화 그레이스김, 서기 헬레나김, 회계 강영태)을 선출하였다. 이듬해에 김정호 목사가 시카고로 사역지를 옮김에 따라 1984년 1월부터 김만풍 목사(part-time 교육담당 부목사)가 중고등부를 담당하였다. 김만풍 목사는 기존의 교사수양회, 워크샵 및 세미나 등을 중고등부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반면 중고등부 학생들의 행동하는 신앙교육을 위한 Day School, 하기수양회, 여름 설교 시리즈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갔다. 1986년 12월에 실시한 7학년 학생들의 Bake Sale과 음식수집은 불우한 이웃과 고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성탄절 청년회 모임 (최연일/최송자 교우 맥, 1979)



중고등부 모임 (1981)



Robert Klein 교육목사

Robert Klein 교육목사의 중고등부 사역

김만풍 목사의 임기가 끝나고 1985년 12월 Robert Klein(한국명 길명수) 목사가 교육목사로 사역을 맡게 되면서 청년회와 중고등부를 함께 지도해 나갔다. 부인이 한국인인 Klein 목사는 Atlanta 출신 독일인 이민 3세로 이민자로서 미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한국인 2세 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전하며 교육목사의 사역을 잘 담당하였다. Yale Divinity School 에서 Master 학위를 받고(1974), Columbia Theology Seminary에서 M.Div.를 끝낸 후(1985)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에서 Ed.D.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보스톤한인교회의 교육목사로 부임한 그는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학생들과 교인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Bob 목사님으로 불리던 그는 1989년 5월까지 시무하였다.



정소영 교우와 교회학교 학생들 (1979)

유년주일학교 활성화

1979년 4월 교육위원장 김인실 집사의 보고에 의하면, 한동안 운영되지 않던 유년주일학교가 다시 시작되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교사진 확보와 학년별 반편성을 새로이 했음을 알 수 있다.유치반 오경자(Mrs. 김기협), 1학년 윤석희, 2-3학년 한페니, 4-6학년 이장규, 임용순. 주일 2:30-3:30까지 전반부는 JOY라는 교재를 이용한 분반공부를 하고 후반부는 전체 예배를 보는 형식이였다. 분반공부 전 매 주일 1시간씩 교사회의를 가짐으로 어린이 영성 교육에 관한 실제문제 및 이론에 관한 공부와 연구회를 가졌다. 또한 매월 둘째 주일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경건한 예배의 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어린이 성가대도 조직하여 예배 순서에 참여하게 하였다.



유년주일학교 성탄절 성극 공연 (1984)

윤석희 집사(1979-1982)를 시작으로 오경자 집사(1983)와 이경희 집사(1984)가 유년주일학교 교장으로 봉사했으며 10여 명의 교사가 함께 사역하였다. 부족한 공간과 교사진, 그리고 부족한 특별활동 가운데서도 주일학교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갔다. 1980년 분반을 각 학년별로 재편성함으로써 유년주일학교를 좀더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981년에는 2-3세 유치반을 신설했고, 그 해 8월에는 처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였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루 종일 진행된 첫 여름성경학교는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이후 5년간 계속되다가 1986년에는 교인 전체 수양회에서 진행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는 어린이 성극 "베들레헴의 어느 날 밤"을 발표하였다.



새해 모임 (홍근수 담임 목사 맥, 1986. 1)

교육부 현황 (1985)		
교사진		학생수
부장	이일영 장로	12명
영아부	변영희, 이금자	
유치부	변영순	
1-2학년	강크리스티나, 장재순	30-40여 명
3-4 학년	강영태, 홍정화	
5-6학년	김미미, 조요윤, 최주원	
중고등부	이경희, 백승호(부장), 조성민	7명
대학생부	백승호, 이일영(고문)	10명
성인부	이명숙, 이일영(부장)	4-5명
한글반	김난희, 김현	10여 명

한글반과 뉴잉글랜드한인학교

1977년에 열린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강좌 및 패널 발표는 한글교육을 시작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8년 4월부터 시작된 한글반은 매주 주일 오후에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간단한 한글을 익히는 수업이었다. 주로 청년회 회원들(이강현, 안일철, 윤혜성 등)이 교사진을 맡아 운영되었던 초기 한글반은 1980년 3월부터 4개반으로 확장되어 운영되었다(교장 광병섭, 고문 김영, 고학년 고급반 광병섭, 고학년 저급반 홍정화, 백혜선, 저학년 고급반 김난희, 저학년 저급반 김재희).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었지만 한국어 실력의 차이가 많아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사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그 해 11월 사실상 한글반 운영은 중단되었다. 1-2명의 교사와 10여 명의 학생으로 그 명맥만을 유지하던 1986년 가을 한글반을 한글학교로 개칭하고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생기면서 초급반, 중급반, 상급1, 2반의 4개 반으로 다시 재정비되어 운영되었다.

보스톤한인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한글학교 이외에 한인회가 설립한 뉴잉글랜드한인학교도 지원하였다(1975년 창립). 보스톤한인교회 멤버였던 김영호 이사장(초대 학교장, 1975)과 백린 교우(한국역사 강의, 3대 학교장, 1978)가 학교장으로 시무하기도 했던 뉴잉글랜드한인학교는 1980년 홍근수 담임목사가 학교 장소 이전 설비를 주선하는 등 여러 모로 보스톤한인교회와 깊은 인연을 가져온 학교이다.⁴ 후에 본 교회 선교위원회가 재정적인 지원도 하였다(1984-1985).

4. 당시 Newton에 있었던 뉴잉글랜드한인학교는 홍근수 담임목사의 주선으로 Newtonville의 Lutheran 교회로 옮겼다가, 뒤에 Lexington에 있는 성요한교회로 옮겼다. 뉴잉글랜드 미주한인 이민 백주년기념사업회, 뉴잉글랜드한인사, 선학사, 2004.

성인성경공부 강화

홍근수 목사 취임 전인 1978년 시작된 성인성경공부반은 노정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다가 1979년 3월부터 홍근수 목사가 직접 인도하기 시작하였다. 주기도문, 산상설교, 기독교의 교파 등의 여러 분야의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였는데, 출석인원은 평균 15명 정도였다. 문재린 목사를 비롯하여 김갑성, 김기협, 김인실, 권오승, 박노희, 손원호, 이덕희, 최선경, 최연일 등이 성경공부 연구 발표에 참여하였다.

1980년에 접어들면서 성인성경공부는 2개 반(1반, 2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체계화되어 갔고, 1983년부터는 성경공부반 구성을 나이별로 3개 반(청장년반, 장년반, 노년반)으로 나누어 각 반별로 다양하게 성경공부 교재나 내용 등을 다루었다. 이후 참여 인원 수에 따라 담당자와 성경공부 내용, 반편성 등에 변화는 있었지만 꾸준히 유지되었고, 1986년 박성진 목사가 성인성경공부 및 수요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었다. 특별히 English Bible Study Group(홍근수/김영/김정호 목사 담당)이 새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교인들의 필요와 요구를 다각적으로 충족시키려는 교회의 노력이었다.

수요기도회와 수요신앙강좌

수요기도회는 설교 및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고, 특별 기도 제목에 대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3월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임을 가졌던 수요기도회는, 평균 10여 명이 모였다. 목사, 제직, 평신도 및 외부 강사들이 돌아가며 간단히 말씀을 나누는 후 그날의 기도 제목(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 교회, 조국, 미국 등)에 따라 함께 중보기도를 하였다.

수요기도회 설교 및 인도자	
1981	공병례 공병선 김갑동 김갑성 김금하 김남수 김동윤 김문소 김수환 김영일 김정호 김현구 김형래 김희준 서중석 성덕춘 안미리 이경희 이덕희 이일영 이창규 임나경 정경조 조준호 주선조 최시원 한명덕 한승희 홍근수 홍성만
1983	공병선 김갑성 김계숙 김남수 김동윤 김문소 김수환 박상근 백린 이경희 이일영 이종희 이철용 이한준 정용기 조준호 한명덕 한승희

1983년에는 수요신앙강좌가 개설되었다. 평신도의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목회자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매주 수요기도회 이후 한 시간 동안 성서신학(구약 및 신약), 조직신학, 실천신학, 교회사, 사회윤리 등의 주제를 설정하고 김정호, 김수환 목사와 이기반 교우가 교대로 강좌를 인도하였다.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도회와 신학강좌는 저조한 참석률로 인하여 1984년 8월 중단되었다.

구역모임 활성화

1972년에 시작된 평신도 성경공부반은 1974년에 이르러 지역별로 모이는 구역성경공부반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 당시 본 교회에 출석하던 목사들의 지도하에 처음 5구역(Boston, Cambridge, Lexing-

ton, Lowell, Newton)이 구역별 성경공부를 시도하였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1977년에는 5구역을 Charles강을 분계로 두 구역(강북구역, 강남구역)으로 나누어 재구성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홍근수 목사 시무 이후 다시 재정비된 구역 성경공부는 처음에는 홍근수 목사가 직접 인도하면서 각 구역별로 격주 모임을 가졌으나, 점차 늘어나는 구역 인원과 구역 수, 거리와 모이는 장소 문제로 인하여 각 구역이 구역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성경공부 모임을 갖게 되었다. 홍근수 목사 시절 5년에 걸쳐 총 11개 구역(가나안, 가스펠, 갈릴리, 기드온, 다락방, 로고스, 린지, 베다니, 벨엘, 아가페, 여호수아)이 생겨났으며, 1998년 전면적인 구역 재편성 때까지 존속한 구역은 7개 구역(가나안, 갈릴리, 다락방, 로고스, 베다니, 벨엘, 아가페)이었다.



로고스 구역 (1984)



벨엘 구역 (1984)

구역 약사		
구역명	구역장	구역 소개
가나안	김갑성(1979-1997)	교회 근처 및 보스톤 시내 지역(Allston, Brighton, Brookline, Cambridge, Watertown, Newton)에 거주하는 장년층이 격주로 구역원 가정에 모여 마태복음을 한 장씩 공부함으로 시작되었다. 1979년 첫 구역원은 7가정(공병선/원동선, 권종탁/김성희, 김갑성/이상구, 노영석/이현숙, 박병덕/나시욱, 백린/최선경, 장태인/이상은)이었다.
갈릴리	정경조(1979) 김문소(1980-1993)	보스톤 북쪽(Andover, Lowell 등)에 사는 교우들 약 10가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도행전이 첫 성경공부의 시작이었다. 첫 구역원은 강길원/신동욱, 권오승/박숙자, 김기일/김계숙, 김문소/김계숙, 손원호/진용득, 이완보, 이종희/황일주, 정경조/김금하, 조요성/김승희, 한순길/노진순, 한명덕 등이었다.
로고스	김기협(1979-1980, 1983-1984) 박노희(1981-1982) 김성빈(1985-1986, 1988-1993)	보스톤 북쪽으로 Rt. 1280내에 사는 교우들 7가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하였다. 첫 구역원들은 김기협/오경자, 김범만/이영숙, 박노희/전유배, 안건혁/김애진, 이창규/윤석희, 정진하/이경순, 함경수/이영숙 등이었다.

구역명	구역장	구역 소개
아가페	한승희(1979-1982)	Newton 서쪽지역에 사는 교우들 7가정이 격주 토요일에 모여 요한복음을 공부함으로 시작되었다. 첫 구역원은 강성유/박연교, 김갑동/공병례, 김대식, 김삼영/이윤옥, 오원한/박수자, 한명덕, 한승희/김경애 등이었다.
벨렐	이일영(1979-1980) 최연일(1981-1990)	1979년 11월 10일에 추가로 더해진 구역으로 보스톤 남서쪽에 사는 교우 16명이 첫 모임을 시작하여 격주로 모여 사도행전을 공부하였다. 첫 구역원은 김재권, 박대위 가정, 박상근/한영혜, 박청 가정, 배계자, 백승민 가정, 이덕희/김인실, 이일영/이경희, 이재환/장현숙, 최연일/최송자 등이었다.
기드온	조준호(1980-1982) 김동윤(1983) 신현우(1984)	1980년 청년회 소속 MIT 출신의 젊은 부부팀이 시작한 기드온 구역은 첫 모임에서 사사기 속의 기드온을 공부하였다. Stuart Brisco 목사의 설교 및 종교서적 등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역모임을 가졌다. 첫 구역원은 11가정(김동윤/신영화, 김영민/도상미, 김희준/이영경, 노희천/김재희, 심명섭, 이보욱/유혜숙, 임용순/김명경, 임지순, 장순홍/김경미, 장평훈/이민자, 조준호/김한나)이었다.
베다니	정경조(1981)	1981년 4월2일 첫 모임을 가진 베다니 구역은 주로 Cambridge, Arlington, Winchester, Waltham 지역의 교우들로 첫 해 마태복음을 공부하였다. 10여 명의 구역원(김경희, 김영태/김은실, 배일순, 오진욱, 이경이, 정경조/김금하, 최경진, 최국선, 한경란, 한명덕, 한옥석, 현공주)이 한동안 모였으나, 1982년 가나안 구역으로 합병되었다.
린지	한승희(1983)	1983년에 생겨난 구역으로 Cambridge의 Rindge Apt. 에 살고 있던 교우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였다. 구역이 생기고 얼마 후 강성호/서지윤, 남주홍/엄미숙, 임종부/이영희 3가정이 귀국/이주했고, 김영태/김은실, 김찬의/방지향, 신현우/변혜경, 이대실/추숙자, 정용기/김인숙, 한승희/김경애 등 6가정이 1년간 그 모임을 지속하다가 후에 여호수아 구역과 합쳐졌다.
가스펠	조준호(1983)	1983년 신설된 구역으로 Cambridge와 Boston 지역에 사는 6가정(민병진, 양웅, 원우현, 이명호, 이평팔, 조준호 가정)이 모여 마가복음을 공부하였다. 일년여 간 모이다가 여호수아 구역으로 합쳐졌다.
여호수아	조준호(1984)	1984년 린지와 가스펠 구역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구역 이름 하에 모인 구역으로 일 년 후 구역원들이 각기 다른 구역으로 분산되었다.
다락방	김동윤(1984) 한기훈(1985) 이일영(1986-1989)	1984년 첫 모임을 가진 구역으로 젊은 유학생들이 주 구역원이었다. 독신을 포함하여 16가정이 모이고 있었으며, 크리스천의 기본교리와 마가복음을 첫 해 공부하였다. 구역원들이 대부분 젊은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구역원 전출입이 가장 많은 구역이었다.

■ 목요기도회와 선지자적인 이민교회

홍근수 목사는 인권과 자유, 한국의 통일, 민주화 운동, 산업선교, 민중신학, 해방신학 등에 열정을 가지고 조국을 위한 선지자적인 이민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다. 문익환 목사의 수제자이기도 했던 그는 미국장로교 아시아 지역 총무 이승만 목사와 당시 미국 망명 중이었던 한완상 교수 등과 함께 미주지역 한국통일운동권 대표로 활동하였다. 홍근수 목사의 이러한 활동은 선지자적 이민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그의 목회 신념과도 상통하였다. 홍근수 목사의 민주사역에 적극 동참하며 목요기도회에도 깊이 관여했던 이일영 장로는 인터뷰에서 “홍근수 목사는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국의 진정한 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였다.

1985년부터 시작된 뉴잉글랜드 목요기도회(홍근수 목사, 김영경, 이일영, 조준호)는 그의 대표적인 활동의 하나였다. 1970년대 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목요기도회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중단되었으나, 1975년 뉴욕한인교회에서 이를 부활시켜 뉴욕지역의 한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하는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성이 강한 모임이었다. 목요기도회에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보 교환은 물론 투옥된 민주인사나 학생들을 위한 현금 및 외부 인사 초청강연(강연자- 함석헌, 김재준, 문동환 등) 등의 활동을 하였다. 후에 부정부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수적인 교인들은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⁵



뉴잉글랜드 목요기도회 활동 (1985. 4)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반대하는 뉴욕 시가지 시위행진 (오른쪽 조준호 집사)

뉴잉글랜드 목요기도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책임 있는 삶의 길을 추구한다는 큰 목표 아래 조국과 동포의 생존과 번영, 민주사회, 조국통일, 인권의 자유, 사회정의, 세계평화 등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공동체로서 그 첫 발을 내디뎠다(1985. 01). 목요기도회는 한 달에 한번 주로 하버드 엔칭도서관에서 30-40명의 회원들이 모임을 가졌고, 1985년 4월에는 조준호 집사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목요기도회 회원들이 뉴욕으로 가서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출범하던 해부터 발간되었던 격월간 회지 ‘목요기도’(발행인 최종식, 편집인 유종일)는 혼란한 한국사회를 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글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홍근수 목사 사임 후에도 한동안 계속 발간되었다(최종식 목사의 ‘갈릴리 전라도 광주에 오신 예수’, 김영경 장로의 ‘통일의 기원’, 채위 목사의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김흥기 목사의 ‘통일 신학에의 접근’ 등).

홍근수 목사가 떠난 후에도 목요기도회 활동은 꾸준히 계속되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들은 일부 관심 있는 교인들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많은 교인들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 통일문제에 관심은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크게 관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다른 한인교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목요기도회는 1986년에 접어들면서 민주화운동보다 통일운동에 더 큰 관심이 더해지면서 그 활동 방향에도 변화가 있었다. 후에 ‘한마당’으로 명칭이 변경된 목요기도회는 정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보스톤한인교회와의 연결고리는 점차 단절되어 갔다.

5. 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 뉴욕한인교회 70년사, 뉴욕한인교회, 깊은샘, 1992.

보스턴한인교회의 선지자적 이민교회로서의 활동은 목요기도회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및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한국통일세미나, 광주민주화운동 추모회, 한국 인권수난자를 위한 기도회, 산업선교 세미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선교, 시국 및 통일에 관련된 활동	
1979년 2월	홍근수 목사의 해방 신학의 성서적 근거에 대한 발표(Brookline Clergy Association)
1980년 6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예배
1982년 10월	한국의 수난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 ⁶
1983년 9월	KAL기 격추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회
1985년 1월	선교의 날 기념행사 - 한국의 산업선교를 소개하는 슬라이드 상영
1985년 5월	선교 세미나 강사 Mrs. Dorothy Ogle ⁷ , 주제 '한반도에 있어서 화해와 통일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S Policy' 강사 Dr. Edward Schroeder, 주제 '기독교신앙과 사회생활간의 교량 Relating Faith to Jobs'
1986년 5월	통일 문제 심포지엄 ⁸ (주최 선교위원회) 강사 이승만 목사(미국장로교 아시아지역 총무), 주제 '신학적 관점에서 본 민족화해와 통일' 강사 김동수 교수(Norfolk State University), 주제 '사회과학자 관점에서 보는 한반도 통일과 이데올로기 문제' 강사 홍근수 목사, 주제 '통일과 기독교'
1986년 11월	통일 문제 심포지엄 강사 최요섭 목사, 주제 '부르심을 받은 생활'
1987년	임진택의 '동 바다' 공연(뉴잉글랜드 한국청년연합회와 공동주최) 유홍준의 민중미술 슬라이드 강연
1988년 8월	초청강연 강사 윤삼열 목사, 주제 '해방과 통일의 원리' 강사 김흥기 목사, 주제 '기독교 사회주의와 통일' 강사 유종일 총무, 주제 '세계 경제동향과 한국경제'
1988년 10월	목요기도회 주최 전국연합회 조직 및 민주와 통일 시국 대 토론회

6. 한국의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요청에 따라 미연합장로교회 산하의 전교회회가 실시한 것으로 조국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신앙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를 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로 보냈다.
7. Mrs. Dorothy Ogle 선교사는 감리교 소속으로 15년 이상 한국에서 봉사하고, 미국친우봉사회 평화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국통일 문제에 관심이 깊은 선교사였다. 보스턴한인교회(미국장로교), 설교집 보스턴강단(제2집), 홍근수 엮음, 파나출판인쇄사, NY, NY, 1986.
8. 낮 집회에는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저녁집회에는 60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 순례자들을 위한 부흥사경회

1980년부터 매년 2회(봄과 가을)에 걸쳐 실시된 부흥사경회는 보스턴한인교회의 창립목사인 박대선 목사를 비롯하여 창립 초창기 목회에 참여했던 이상현, 이계준, 노정선 목사 등의 외부 강사가 초빙되었다.



부흥회 후 모임 (1984, 한승희 장로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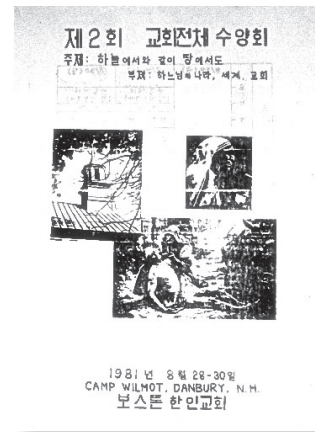
부흥회			
	날 짜	강 사	주 제
1회	1980. 6. 5-7.	김병로 목사 (NJ 허드슨 한인미국장로교회)	이 땅에서 새 삶을 부제: 기독교의 본질, 지옥의 음성, 빛의 나라, 유일한 구원자, 참된 양식, 참된 평안, 사랑의 운동
2회	1981. 5. 28-31.	박대선 창립목사	신앙과 생활,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 실천과 생활이 따르는 크리스천의 삶
3회	1982. 6. 11-13.	여운세 목사 (워싱턴한인침례교회)	주님을 열망하는 성도 부제: 성령의 충만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제자로서의 삶
4회	1983. 5. 26-29.	정용철 목사 (워싱턴연합장로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로 갱신하자
5회	1984. 6. 29-30.	이상근 목사	주여 새롭게 하소서

사경회			
	날 짜	강 사	주 제
1회	1980. 11. 20-22.	황재경 목사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2회	1981. 11. 20-21.	이상현 목사 (프린스턴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이민교회와 기독교신앙 부제: 순례자의 신앙, 광야의 길, 현대인과 신앙, 기독교인의 자유
3회	1982. 11. 12-14.	곽노순 목사 (시카고 사론감리교회)	구약성서-예수의 뿌리 부제: 구약과 기독교,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와 계시
4회	1983. 11. 11-13.	임택권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나를 보내소서

5회	1984. 11. 16-18.	이계준 목사 (6대 담임목사)	하나님의 마음, 현대인과 신앙, 책임적 존재
6회	1985. 11. 15-17.	노정선 목사 (뉴욕 영광장로교회)	민족, 민중, 그리고 교회

전교인 여름수양회

1970년대 시작된 전교인 여름수양회는 홍근수 목사 취임 후에도 매해 계속되었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수양회는 다양한 주제 선정과 폭넓은 내부/외부강사 초청 강연으로 교인들의 신앙 훈련 및 교육은 물론 성도간의 교제와 나눔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전교인 여름수양회는 현재까지도 매년 갖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주요 연례행사이다.



전교인 수양회 프로그램 책자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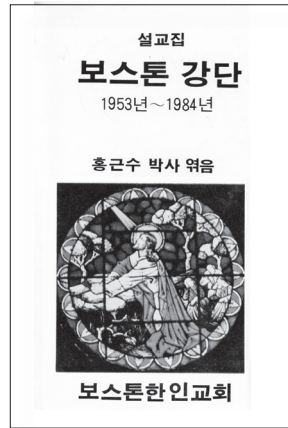
전교인 여름수양회
(Camp Wilmot, Danbury, NH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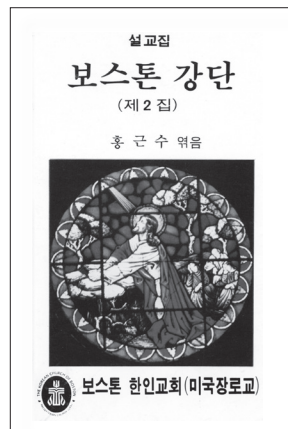
전교인 수양회 교제시간 (1985)

날 짜	강 사	주 제	장 소
1980. 8. 30-31.	홍근수 담임목사 (주제 발표자: 김승희 교우, 김기협 집사, 김갑동 목사, 이덕희 장로)	사랑의 공동체를 부제: 교회와 가정, 선교하는 공동체 교회권위와 기율 교회성장의 비결	Rolling Ridge Conference Center, Andover, MA
1981. 8. 28-30.	홍근수 목사 김정호 부목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부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나라의 지상건설운동	Camp Wilmot Danbury, NH
1982. 9. 5-6.	유태영 목사 (뉴욕 브롱스한인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Craigville Conference Center, Craigville, MA
1983. 9. 3-4.	김수환 목사 (본 교회 임시 담임목사)	기도의 생활을 익히자 부제: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Rolling Ridge Conference Center, Andover, MA
1984. 9. 1-3.	문동환 목사 (워싱턴 디시 수도장로교회, 한국신학대학 교수)와 사모	축복된 기독교 가정 부제: 하나님의 섭리와 가정 현대사회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역동적 관계 기독교 가정의 육성	Craigville Conference Center, Craigville, MA
1985. 8. 31-9. 2.	김영 목사(사모), 김홍기 목사 (케임브리지제일한인교회) 홍근수 목사	균형된 기독교인의 삶 부제: 경건의 삶 말씀과 생활 사도적 사회 활동	Craigville Conference Center, Craigville, MA
1986. 8. 30-9. 1.	안중식 목사 (브루클린 한인장로교회) 이우정 장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민 교회의 어제와 오늘 부제: 교회의 바른 이해와 사명 여성운동	Craigville Conference Center, Craigville, MA

■ “보스톤 강단” 간행과 보스톤한인교회 강단



보스톤한인교회 강단에서는 기독교계의 수많은 지도자적인 목사와 석학들이 말씀을 전하였다. 홍근수 목사는 이러한 설교들을 간추려 1984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 “보스톤 강단”이라는 설교집을 간행하였다. 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며 발행된 첫번째 보스톤 강단은 보스톤한인교회를 담임했던 전임 목사들의 설교문 외에도 31년간에 걸친 외부 초청 강사들의 설교를 8개의 주제(민중목회,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본질과 크리스천의 삶의 의미, 성숙한 신앙, 성만찬의 의미, 영적 삶과 내적 경건, 이민의 삶의 의미와 이민교회의 사명)로 나누어 45명의 설교문을 275페이지에 달하는 책으로 엮어 간행하였다. 소속 국적과 교파 배경, 신학적 입장 등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졌던 설교자들은 그 직업도 목사, 교수, 신학생, 기관목사 등으로 다양하였다.



두 번째 보스톤 강단도 같은 맥락으로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면서 간행되었는데, 48편의 설교를(영문설교 10편 포함) 6부로 나누어 실었다(현대인의 신앙, 민중과 해방의 복음, 민족 화해와 민족애, 기독교의 세계적 유대, 경건과 영성, 이민자들과 이민교회의 사명). 보스톤 강단은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다양성을 띤 공동설교집으로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결여되었다는 평이 있었으나, 가장 보수적인 미국장로교 소속이면서도 에큐메니컬하고 개방적인 신앙노선도 가지고 있었던 보스톤한인교회의 양면성을 보여주기에 더없이 좋은 자료였다. 또한 두 설교집의 내용은 상당 부분 민중신학, 해방신학, 민족적 교회, 이민자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어 홍근수 목사의 신앙노선과 목회방향에 무게를 실어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근수 목사 시무 시에 보스톤한인교회 강단에 초대되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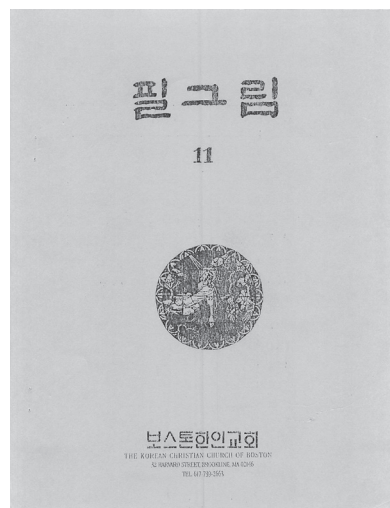
■ 홍근수 담임목사 시무 시 초청 설교자

연도	초대 설교자	설교 제목	소속
1978	박대선 목사	교회를 교회답게(창립 25주년 기념 및 홍근수 담임목사 취임예배)	전 연세대 총장
1979	박대선 목사	이상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 연세대 총장
	김재준 박사	그리스도인의 자유	전 한국신학대학장
	고범서 박사	변천하는 사회 속의 신앙	송전대학교 총장
	성갑식 목사	교회와 출애굽	한국 예수교장로회 총무
	C. Harper 목사	세계 성찬주일	UCC Metropolitan 지역 총무 목사

연도	초대 설교자	설교 제목	소속
1980	P. Shih 목사	세계 성찬의 경이	브루클라인 중국인 교회 창립 / 원로목사
	박영희 목사	십자가의 위력-중공 한인 교포들의 신앙실태에 관한 slideshow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1981	함성국 목사	오늘의 선교적 사명	미 감리교회 담임목사(Lexington, MA)
	김승혜 수녀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버드대 철학박사, 서강대 교수
	김영 목사	오늘날 이브는 어디에?	여신도회 고문
1982	최홍석 목사	청년회 신앙 강좌	북부 보스톤한인감리교회
1984	이관영 목사	제직 헌신예배	Eliot 감리교회, Maine
	주선조 목사	제5회 부활절 한인교회 연합 새벽 예배	순복음교회
	유철옥 목사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교회	프로비던스한인제일교회
1985	James Lindgren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됨	뉴잉글랜드 선원선교사
	홍성철 목사	예수가 제시하는 새 인간상	성결교회/ BU 신학박사 과정
	Schroeder 목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	The Crossings 학장 (평신도 신학교)
	한완상 박사	선교와 성령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서 개척 교회
	김형석 교수	현대인과 신앙	연세대학교 교수
	함석헌 선생	참 자유의 길	역사가, 한국 웨이커 지도자
	Lynn Illingworth 목사	기독교의 연대성	니담장로교회
1986	Koyama 목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Prof. Union Theological Seminary NY
	전덕영 목사	예복의 믿음	보스톤장로교회
	이승만 목사	교회의 선교적 사명	미국장로교총회 아시아지역 선교총무
	김영 목사	성숙한 경지를 위하여	Pearl Street Church
	고호균 목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뉴 런던한인교회
	이장식 목사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라져 가고 있다	한신대학 대학원장
	지명관 교수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본동경여자대학
	안중식 목사	한겨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워싱턴 영락교회
	배현찬 목사	궁극적 판단 자	우스터한인교회
	Max B. Stackhouse 목사	피는 물보다 더 진한가?	앤도버 뉴턴신학교
유시욱 목사	섬기러 오신 예수님	프린스턴한인장로교회	

연도	초대 설교자	설교 제목	소속
	최효섭 목사	요셉의 뼈, 전원 교향악, 예루살렘 직행	뉴욕 한인교회
	박성진 목사	어디로 가나	보스턴대학교 신학박사 과정
	Kenneth Grant 목사	해방의 예배의식	보스턴노회 총무
1987	전중현 목사	우리 민족의 고난	프로비던스 한인교회
	박명수 목사	아브라함의 아들 - 이삭	보스턴대학교

■ 교회 회지 “필그림” 창간



필그림 11호 (1979)

“필그림”은 보스톤한인교회의 출판물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꾸준히 발행이 된 교회 회지이다. 1966년 처음 교회 소식지가 발행된 이후 명칭은 달라졌지만 교회 회지는 간간히 계속 간행되어 왔다. 잠시 발행이 중단되었던 교회 회지가 1979년 4월 부활절에 다시 빛을 보게 되어(출판위원장 김문소 집사), 동년 7월에 발간된 교회 회지 2호부터 ‘필그림’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해 11월 3호에 사용된 윤내현 교수(하버드 대학원)가 쓴 ‘필그림’이란 제호가 한동안 ‘필그림’지의 표지 제호로 사용되었다. ‘필그림’ 지는 교회 회지로서 특집주제를 가지고 교인들의 다양한 논문, 간증, 시, 수필 등을 30-50페이지로 엮어 간행되었다. 1984년 6월에 간행된 필그림 10호(편집 백린 집사)는 특별히 이민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삼았는데, 이 특집호에 실렸던 백린 집사의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한국 이민 80년’은 이 후에 뉴욕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발행하는 잡지 ‘행동하는 크리스천’(6호)에 다시 게재되기도 하였다.

출판부 김문소 위원장은 연례보고서에 “필그림” 출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성육신의 예수님,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또 말씀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 선포하기 위하여 필그림 회지를 엮어 보았습니다. 신앙의 자유의 대명사로서 또한 성경에 아브라함의 신앙으로부터 온 이민신학을 대표하는

말이라 생각하여 이 제목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필그림’이란 이름은 교포 교회로서의 ‘이민신학’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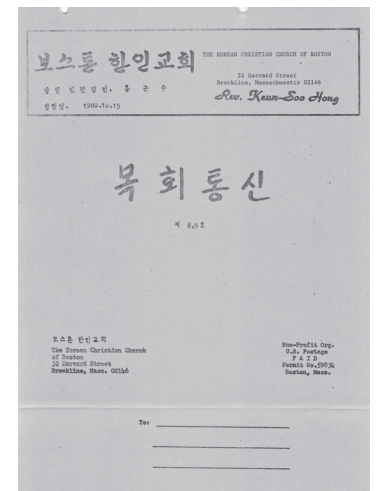
이때부터 ‘필그림’이라는 제명은 보스톤한인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친밀한 단어가 되었고, 보스톤한인교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졌으며, 2003년 50주년 기념 회년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방향과 주제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60주년 기념 역사 편찬 과정에서도 필그림은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의 상징이 되어 순례자들의 교회 역사를 엮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한반도의 배달 민족으로
미국 땅 보스톤에 옮겨 심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순례자들의 교회입니다.

- 보스톤한인교회 첫 회년신앙고백서 첫줄

■ 문서선교를 위한 “목회통신” 발간

1980년 선교에 중점을 두고 교인들을 통해 문서선교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된 “목회통신”은 발행인이자 실무편집자인 홍근수 목사에 의해 3년여 간 발간되었다. 처음에는 매월 발간되다가 뒤에 가서는 일 년에 3-4번 발간되었다. “필그림”은 평신도에 의해 발간된 교회회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목회통신”은 홍근수 목사의 설교를 비롯하여 성서이야기, 성경퀴즈, 기도문 등의 기독교적 같은 내용과 함께 교회 부서 및 교인 소식까지 실어 교회 소식지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대외적으로 교포사회에 우송되기도 하였던 “목회통신”은 많은 호평과 격려를 받았으며 문서를 통한 선교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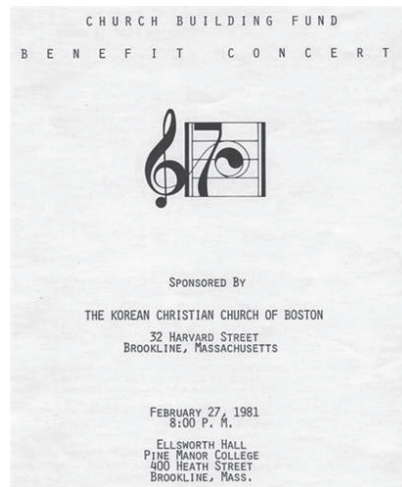
목회통신 (1980. 10)

■ 건축기금 모금 5개년 계획

등록교인의 수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보스톤한인교회는 교회활동이나 관계부서 등이 늘어나게 되어 그에 따른 공간 확보 문제가 시급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건물 사용의 제약은 계속되었고,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Justus Fennel목사로부터 시설물 사용에 대한 경고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담임목사를 위한 사무실은 물론 교회 사무실조차 없이 주일예배를 위해 본당만을 빌려 쓰고 있던 중,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배려로 목사를 위한 Pastor’s Study Room(본당 앞 오른쪽 방송실 방)이 마련되었다(1980). 1982년에는 아래층 방 하나를 목사 사무실 겸 교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어 방 하나를 둘로 나눠 Pastor’s Study Room과 교회 사무실 겸 회의실로 쓰게 되었다.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건물은 1967년에 옮겨와서 처음에는 거의 무료로 빌려 썼으나, 1976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월세를 내기 시작했고, 월세는 계속 증액되었다. 1980년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건물 임대료는 \$8,600로 교회 전체 지출(\$54,963)의 약 16%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재정 사정이 악화되던 1981년에는 연 \$18,000의 교회관리비를 요구받은 적도 있다. 지금까지 내던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에 두 교회는 몇 차례의 협의 끝에 3년간 교회 빌딩을 빌려 쓰는 조건으로 매년 관리비를 올려서(\$9,000, \$12,000, \$15,000) 지불하는 절충안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 이후, 보스톤한인교회는 자체 건물 소유에 대한 소망이 이전보다 강해졌고, 건축기금 마련에 열심을 더하게 되었다.

보스톤한인교회 자체 건물을 구입하려는 노력은 1966년 김광원 목사의 건축기금 모금 때부터 있었으나, 한인사회 및 교인들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쉽지 않았다. 재정 여건상 충분하진 않았지만, 자체 소유 건물을 구입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보스톤한인교회가 10여 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였다. 1978년에도 설영조 교우가 교회건물 조사위원회(최시원, 한승희, 이덕희)의 요청으로 Harvard 및 Cambridge 지역의 11개 교회에 대한 구입 가능성을 보고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1980년 재발족된 건축위원회(위원장 정경조)는 ‘건축기금 모금 5개년계획 (1980-1984)’을 수립하고, 당시 가지고 있던 \$20,000 정도의 건축기금을 근간으로 \$20,000을 더 모금하고자 전 교회적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41가정이 참여하여 같은 해 9월까지 \$8,000 이상을 모금하였다. 특히 변화경 집사의 제안으로 열게 된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 (1981. 2. 27. Church Building Fund Benefit Concert)를 통해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었다.



Church Building Fund Benefit Concert (1981.2.27.) 순서지 표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재정난과 적은 교인 수로 인해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건물 매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고,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 또한 가지게 하였다. 실제로 뉴튼 지역의 두 교회 건물을 후보 대상으로 정하고 매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1982). 이 시기 장기해결책연구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건축위원장 김문소 장로)에 따르면 당시 일반 재정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건축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1982. 2). 1983년 건축기금 현황보고(관리자 이덕희, 한승희 장로)에서도 5개년 계획 목표액이었던 \$40,000을 5년이 되기 전에 달성한 것을 볼 수 있다(총액 \$97,000). 이 금액은 1983년 교회 일 년 총 결산액 \$65,176을 상회하는 액수였다.

1985년에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가 연간 건물유지비를 \$26,000로 인상하고자 함에 따라 그 동안 예치된 건축현금 \$100,000로 다시 한 번 교회 건물 구입을 시도하게 되어, Auburndale 소재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로 당회에서 결정까지 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1986). 교회 건물 구입에는 거둬 실패했으나, 보스톤한인교회는 자체 소유 교회 건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증보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렸다. 1997년이 되어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은 보스톤한인교회에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전을 인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

■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와 원만한 협동관계 유지

보스톤한인교회의 발전에 따른 교회 건물 사용에 고충은 있었으나,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와는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특히 Saphar 목사의 은퇴와 함께 후임으로 취임한 Fennel 목사와 홍근수 목사는 서로간의 목회 협조가 잘 이루어졌고, 일 년에 수차례 두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공동으로 행사를 가졌으며, Clergy Association of Brookline에서도 두 목사가 같이 여러 활동을 하였다. 홍근수 목사의 시무 4년 후인 1982년에는 Brookline News에 두 교회와 목사에 관한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A Religious Fellowship- Brookline church bridges the ethnic gap- by Alan Roth).

In front of the Frist Presbyterian Church of Brookline's brick, colonial-style building on Harvard Street in Brookline Village stands not one, but two signs announcing different services and sermons. The message boards of equal size symbolize the rar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okline Presbyterian and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 What began 15 years ago as a brotherly offer of a gathering place from one of the town's oldest churches to a small, young congregation has blossomed into a growing fellowship....

Fennel explains, "One of the reasons why our people were eager to do this was that the largest Protestant denomination in Korea, at least until recently, was Presbyterian, and some of the key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went there. We were able to use this arrangement with the Koreans as a mission project of the Presbytery of Boston. At that time there were no direct financial remuneration asked of them for use of the facilities."...

In the four years since Hong took the pulpit here, he and Fennel have led efforts to share more than the church building itself. Despite problems with the language barrier, there have been joint services on holy days such as Maundy Thursday and Christmas Eve, and a unified choir. Worshipers have combined efforts on maintenance and redecorating projects.

A Religious Fellowship- Brookline church bridges the ethnic gap - by Alan Roth 기사 중에서

■ 홍근수 목사의 학업 휴무와 김수환 임시목사 시무

홍근수 목사는 1983년 1년간 휴무를 신청했고 곧 승인되었다. 이는 Lutheran School of Theology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위한 논문을 끝마무리하기 위함이었다. 홍근수 목사의 휴무 기간 동안 김정호 부목사가 사역을 대신했는데 같은 해 6월 김정호 부목사도 시카고의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되어 김수환 목사(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1983. 6 - 1984. 2)가 남은 기간 동안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되었다.

1983년은 보스톤한인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였다. 홍근수 목사의 학업 휴무로 인하여 계획했던 30주년 창립 기념행사는 1년이 미루어져서 이듬해에 31주년 행사로 거행되었다. 1984년 2월 홍근수 목사가 학업을 마치고 복귀함에 따라 환영 만찬 및 담임목사 교체식이 있었으며, 김수환 목사는 새로 설립된 보스톤성결교회의 임시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금년은 본 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역사에 중요한 해입니다. 1953년 소수의 한인들이 모여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최초의 한인교회로 창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본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분들은 그동안 길게, 또 짧게 본 교회를 목회하신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의 선배 교우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선배 교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기도가 없었던들 오늘의 우리 교회는 이만큼도 못 자랐을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금년 창립 30주년 기념일을 예년보다 성대히 가질 것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의 사정으로 명년으로 미루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착실히 준비하여 명년에 의미 있는 창립 기념 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1983년 연례보고서 중 홍근수 목사의 목회방향 서두에서

■ 창립 31주년 기념행사

1984년 추수감사주일에 보스톤한인교회는 창립 3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이사진이 준비위원이 되어(준비위원장 한승희 장로) 다채로운 행사들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5일간 계속된 행사들은 기념사경회, 기념음악회, 창립기념예배, 기념식 및 만찬 등으로 전교인이 외부 하객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은혜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다(1984. 11. 14-18).

날 짜	행 사	행사 내용
1984. 11. 14-16.	기념사경회	강사 이계준 목사(6대 담임목사,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역임) 주제 '하나님의 마음', '현대인과 신앙', '책임적 존재'
1984. 11. 17.	기념음악회	지휘 변화경 집사, 반주 이미혜 본 교회 성가대가 중심이 되어 특별 찬조 출연자들과 함께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곡을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성곡을 합창, 독창, 이중창, 이중주 등의 형태로 연주하였다. 약 200여 명의 청중이 함께하였다.
1984. 11. 18.	창립기념예배	설교 박대선 목사 '내가 나 된 것은'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 곡의 특별음악이 연주되었다.
1984. 11. 18.	기념식 및 만찬	기념사 Thornburg 목사(보스턴대학교 교목실장) 'The Role of Being an Immigrant Church' 공로 치하: 역대 담임목사(13명), 외부 공로자(3명), 본 교회 10년 이상 근속교인(13명) 창립 31주년 기념예배에 이어 참석한 모든 하객들과 교인 총 250여 명이 함께 만찬에 참여하였다.

창립기념일에 맞춰 홍근수 목사가 엮은 공동설교집 “보스톤 강단 1953년~1984년” 1000부를 발간하여 모든 행사 참가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창립 30주년이 된 당시 보스톤한인교회는 홍근수 목사 시무 이후 교회 조직이나 모든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성경공부반, 기도회, 교육, 선교 등의 전반적인 교회 활동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교회 결산액은 \$84,000 정도였다. 교회명부에는 약 170가구(250여 명)가 정식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평균 예배 출석인원은 140명 안팎이었다.

■ 변화경 집사 성가대 지휘 시작

보스톤한인교회 성가대는 규모는 작았으나 늘 최고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스톤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홍근수 목사 시무 후 첫 부활절 음악 예배에서는 적은 수의 성가대원으로 Easter Cantata를 훌륭히 연주했고(지휘 최시원, 낭독 김갑동 前 담임목사, 독창자 김경애, 박대위, 김문소, 1979. 4), 같은 해 성탄 전야 촛불예배에서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성가대와 연합으로 찬양을 드리기도 하였다. 변화경 집사의 권의로 추진된 건축기금마련음악회(1981. 2. 27. Pine Manor College)에서도 성가대는 여러 성곡들을 훌륭히 연주했고, 피아니스트 변화경, 한영혜를 비롯한 최승룡, 이희신, 한경순, 황보엽, 이창우 등의 음악인들도 협연하며 성공리에 음악회를 마쳤다. 창립 31주년 기념 음악회에서도 타주에서 초청된 4명의 독창자와 함께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곡 등의 대곡을 훌륭히 연주했고(1984. 11. 18. 지휘 변화경 집사, 반주 이미혜), 1985년 12월에는 이재숙 집사 지휘로 Providence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 성가대의 기반을 세운 최시원 지휘자가 1981년 8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성가대는 지휘자가 자주 바뀌어 안정되지 못하였다. 최시원 지휘자 후임으로 잠시 지휘봉을 잡았던 최승룡(시

립교향악단, 국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주자)이 10개월만에 귀국했고, 그 공백을 변화경 집사와 한승희 집사가 잠시 맡았으며, 이후 전순천이 새 지휘자로 봉사했으나 3개월 후 귀국함에 따라 성가대 지휘자는 다시 공석이 되었다.

이같은 잦은 교체로 혼역을 치르던 성가대는 홍근수 목사의 제안으로 당시 음악부장이며 반주를 해오던 변화경 집사를 새 지휘자로 맞게 되었다(반주 한영혜). 변화경 집사는 이미 1971년부터 10년 이상 보스톤한인교회의 반주자로 봉사해왔기에 성가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아니스트이자 교수로서 명성을 굳힌 음악인으로서 성가대의 가장 적임의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로써 최시원 지휘자 이후 자주 교체되던 지휘자의 자리를 변화경 집사가 맡게 되어 성가대는 그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나가는 변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임 지휘자들이 모두 남성이었던 점과 달리 여성 지휘자를 임명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었다. 이후 세계적 레벨의 우수한 제자 피아니스트들(백혜선, 주희성, 손민수 등)을 성가대 반주자로 영입함으로써 더욱더 성숙한 음악을 선보이며 보스톤한인교회 성가대 발전에 여러 모로 공헌해왔다. 변화경 집사는 1985년 보스톤한인교회가 PC(USA) 가입과 함께 임직된 첫 아홉 장로 중 유일한 여성장로로 안수 받았고, 2014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성가대 지휘자로 찬양사역을 40년 이상 담당하며 보스톤한인교회 성가대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다(1971-2014).

■ 여신도회의 봉사활동과 사역

1970년 후반기부터 보스톤한인교회의 여신도회는 다양한 교회봉사와 특수 사역으로 교회활동에 생동력을 더하고 있었다. 봉사 활동과 사역 내용이 다양한 만큼 여신도회는 늘 바쁜 일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매년 뉴잉글랜드 지역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주관하는가 하면 연례 바자회를 통해 여신도회 자체 경비를 충당함은 물론 건축기금 마련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교회 절기에 따른 만찬 준비도 여신도회가 도맡았고, 적은 수의 인원으로 200-3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솔선수범 봉사했던 여신도회의 노력과 정성이 더해져 보스톤한인교회는 번성하는 시기에 더 힘찬 전진을 할 수 있었으며, 힘든 고비와 시련의 시기에도 단합하여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많은 봉사와 사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회 조직상 소속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여신도회는 1985년에 이르러서야 정기당회를 통해 선교부에 소속된 부서가 되었다. 1986년 정식 명칭을 ‘보스톤한인교회 여선교회’로 바꾸고, 1987년부터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성가대원 (1982)



성탄절 새벽송, 이재숙 집사 인도 (1985)



여신도회 수양회 (1981)



International Food Festival에 참가한 여신도회 회원들 (1985)

연도별로 간추린 여신도회의 봉사활동 내용

연 도	활동 내용
1978. 3.	부활절 만찬 주관
4.	뉴잉글랜드지구 경로회 주관(60세 이상 노인 초청, 노래자랑 및 게임 등)
5.	어머니주일 찬송가경연대회 주관
10.	여신도회 주최 야외예배, 가을 바자회(약 250명 참여)
11.	추수감사주일 및 창립기념예배 만찬
12.	홍근수 목사 취임예배 만찬 주관
1979. 3.	여신도회/선교부 주최 성경읽기 및 성경 배부, 시루떡 강습(서구자 지도)
9.	강단용 십자가 교회에 헌증
10.	바자회(위원장 공병례)
1980. 4.	여신도회 주최 경로회
6.	불우여성을 위한 기부금을 한국여성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로 보냄
11.	건축기금 마련 바자회(회장 김금하)
1981. 5.	여신도회 제1회 신앙수련회(1박 2일), 주제 '교회와 여성', 강사 김태열 여사, 장소 성 스테반 수양관, Dover, MA
6.	여신도회 헌신예배[강사 김영 목사(여신도회 고문)], 설교 '오늘날 이브는 어디에?'
7.	정소영(여신도회 회장 역임), 명정옥(여신도회 부회장 역임) 회원의 귀국 송별회
10.	건축기금 마련 여신도회 주최 바자회 모금
1982. 2.	김정호 목사의 부목사 취임 및 신임제직/임직 축하 만찬 주관
4.	부활절 만찬
6.	제2회 여신도회 수양회, 주제 여성과 선교, 강사 구상례 집사(올바니한인교회), 캠퍼온 리뉴얼 센터, Weston, MA
10.	성전건축기금을 위한 바자회(바자위원장: 이경희), 동원 인원 약 300명, 감사헌금
1983. 6.	제3회 여신도회 수양회,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강사 임춘복 전도사
8.	선교부 주최 송죽원 고아 후원 시작(총 7명 신청하여 정기 보조금 우송 시작)
10.	정기바자회(총수입을 교회헌금과 건축기금으로 헌금)

1984. 2.	홍근수 목사의 재시무로 김수환 임시목사와의 교체를 기념하는 만찬 준비
3.	청년회/대학생회 수양회 식사대접
4.	부활절 아침과 저녁 특별만찬 주관
10.	정기바자회(순이익금 헌금 - 십일조, 건축헌금, 창립 31주년 기금으로 헌금) 미국장로교 지역총회(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특별예배) 특별다과 및 만찬 주관
1985. 5.	어머니주일 찬송가 경연대회 주관
6.	경로잔치
7.	여신도회 1일 수양회, 주제 '여성과 성령', 강사 김형 전도사(브루클린 장로교회)/한완상 박사 (김형 전도사의 부군, 서울 현대교회 담임목사 및 서울대 교수), 장소 홍근수/김영 목사 사택, Brockton, MA
1986. 2.	여신도회 임시총회(여신도회의 명칭을 '보스톤한인교회 여성교회'로 개명)

홍근수 목사 사임

홍근수 목사는 1986년 8월 서울 을지로에 있는 향린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담임목사 청빙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위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해 12월 새로운 사역지로 옮겼다. 향린교회는 보스톤한인교회와 같은 해에 창립되어 홍근수 목사가 미국 유학을 오기 전까지 섬겼고 또 그가 안수받은 교회이기도 하다.

홍근수 목사는 보스톤한인교회를 떠나 새로운 사역지로 향하는 그의 심정을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임사로 교인들에게 전하였다.

이 청빙을 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 끝에 본인은 이를 수락하기로 본인과 가족들이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지난 12년간 미국에 살았고, 또 8년 동안 본 교회를 섬겨온 저와 저의 가족들에게는 그리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청빙이 저를 새로운 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앞길에 어떤 길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하겠다는 일편단심에서 비장한 각오로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부름이 이 종과 본 교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왔다고 믿어 걱정 없이 떠날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학업을 위해 도미하였던 것인데, 학업을 모두 마쳤기 때문이고, 본 교회로서는 지금 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성장과 성숙을 누리고, 지금과 같이 사명감에 철저한 시기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 홍근수 담임목사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께' 이임사 중(1986. 9.)에서

이임사를 통해 목회기간 중 담임목사로서 가장 노력했던 점을 1)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에큐메니컬한 교회 2) 사회참여(선교)하는 교회 3) 침단을 걷는 교회라고 하였다. 또한 목회하는 동안 홍근수 목사 자신이 인격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많이 성장했음을 고백하며, 특히 1983년 학업을 위해 휴직을 허락받아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 보스톤한인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무척 감사

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뜻은 있었으나 실행하지 못한 본인의 꿈은 1) 동시통역 예배실 설치 2) 2세들을 위한 '영어로 말하는 한인교회' 시작 3) 평신도 신학원 설립, 새로운 한인교회 개척 등이었다고 하였다.

새로운 사역지인 서울 향린교회로 부임한 후 그는 통일선교운동, 민중선교, 민주화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선지자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홍근수 목사의 약력과 향린교회 사역

홍근수 목사(Rev. KeunSoo Kenneth Hong)는 1937년 부산에서 출생하였다. 부산 동래고등학교(1956)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62)을 거쳐 한국신학대학(1965)을 졸업한 그는 경기도 백석교회에서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였다. 서울 향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경기도 내곡교회 담임목사, 경북 대구 영신중고등학교 교목, 경북 대구 영광교회 등의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1974년 미국 유학 길에 오른 그는 Colgate Rochester Divinity School을 거쳐 St. Louis 소재 Eden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를 받았다(1977). Missouri 콜럼비아한인교회를 설립했고(1976), 1977년부터 세인트루이스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목회하다가 1978년 보스턴한인교회에서 시무하게 되었다. 그의 끊임없는 학구열은 보스턴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던 중에도 계속되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박사학위과정을 밟던 그는 1984년에 조직신학(기독교윤리 전공)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학위논문 A Promethean Christology of Ernst Bloch). 이후 1993년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이든신학교, 1993. 5).



홍근수 목사 (1937-2013)

홍근수 목사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조직적인 사고를 갖춘 뛰어난 설교자로 평가된다. 강한 기독교윤리 배경에 의한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신념과 소명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전개해 나갔다. 뉴잉글랜드 목요기도회를 통해 겪었던 그의 사역의 한계는 새로 청빙받은 향린교회에서의 그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귀국 후 더욱 적극적이고 강한 '메시아적 목회'를 강행하며 특별히 한국의 통일문제, 인권문제, 노동자 투쟁문제, 민중선교 등 직접적인 행동과 연결되는 사역에 투신하였다. 홍근수 목사는 향린교회 재임 시 군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 공동대표로서 재야세력의 중심인물이 되어 뜻을 같이하는 많은 정치인, 종교인, 학생, 노동자들과 함께 그의 메시아적 목회를 전개해 나갔고 그로 인해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향린교회는 1953년 초 교파적 수도원적 신앙공동체로 시작되어 1959년 한국기독교장로회에 가입하였다. 1960년대 4월 혁명 때부터 불의한 정권에 맞선 대표적인 교회로서, 홍근수 목사가 2대 목사로 부임하면서 에큐메니컬운동과 민중선교로 방향을 잡아 민주운동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시무 초기 담임목사의 민중선교에 반대하는 교인들과 매끄럽지 않은 관계로 불화도 있었으나, '통일을 향하여 하나 되는 향린'을 목표로 계속 화해와 통일을 위해 사역하

였으며, 2003년 5월 은퇴할 때까지 향린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였다.⁹

홍근수 목사는 신학자로서 성공회 신학교, 한신대 신학대학원, 국제대학 등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 해방신학, 주체사상, 기독교개론 등을 강의했고, '법정일기' '통일의 길, 십자가의 길', '아침저녁 주님과 함께', '일용할 양식', '빈들에서 외치는 설교', '기독교는 민족의 희망인가', '예수와 민족' 등 수많은 저서가 있다.¹⁰

2003년부터 홍근수 목사는 진행성 핵상마비증이란 불치병으로 10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계속했으나, 2013년 보스턴한인교회 창립 60주년기념예배를 몇 주 앞둔 10월 7일 7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홍근수 목사의 장례예배는 서울 향린교회에서 드리고, 유족들과 지인들이 대한문까지 추모행진을 했으며,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하관식이 있었다.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에서 홍근수 목사의 추모예배가 열렸는데 이일영 장로의 사회로 딸 정화를 비롯한 가족들의 조사와 함성국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 목사와 2남1녀가 있다.

사모 김영 목사는 홍근수 목사가 보스턴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와 함께 팀 목회를 하였다. 충남 공주 출생인 김영 목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한 후, 신학에 뜻을 두어 한국신학대학으로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1983년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iv. 및 신학박사 학위를 끝내고 미국연합감리교회(UMC)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1984. 6) Brockton에 있는 Pearl Street 미국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사역하였다. 또한 성공회신학대학에서 설교학과 목회학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홍근수 목사와 함께 한국에 귀국한 후 여성교회를 창립했고(1990), 이야기 공동체(Storytelling House)를 설립했으며, 1983-2000년 사이에 영국(옥스퍼드), 스위스(융 연구소), 이스라엘(히브리 대학), 인도 등지에서 신학, 심리학, 여성학, 춤 명상수학 등을 공부했고, 미국 뉴욕에서는 싸이코 드라마, 치유연극, 치유춤, 영가 등의 표현예술분야를 수련하였다. 목회 은퇴 후에는 '이야기공동체'와 치유목회에 전념했으며, 2012년에는 '말씀과 문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등단하여 작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¹¹

9. 자료 및 사진 출처 : 향린교회 Website: www.hyonglin.org, 2013.

10. 향린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 40년, 1993년.

11. 한국기독교문학선교협회, 말씀과 문학, 도서출판 창조문학사, 2012 겨울 통권 22호.

■ 사역자 및 봉사자 명단 1978. 01-1986. 11

목회자	1978 노정선, 유철욱, 함성국(임시) 1978-1986 홍근수, 1982- 1983 김정호(부목사) 1983-1984 김수환(임시)
당 회	1985 당회서기 한승희, 노회대표 한승희 이일영, 교육위원회 이일영, 교인위원회 최연일, 선교위원회 조준호, 예배예술위원회 김문소, 재정(청지기)위원회 김성빈, 집사회 고문 김갑성, 당회대표 공천위원 최연일 김창신
장 로	1980 임직 공병례, 김갑성, 이덕희, 장태인 1981 임직 김문소 1983 임직 이일영, 한승희 1985 안수 김갑성, 김문소, 김성빈, 김창신, 변화경, 이일영, 조준호, 최연일, 한승희
권 사	1981 성덕춘
집 사	1980 임직 공병선, 김기현, 김경애, 김금하, 김문소, 김영태, 변화경, 이상규, 이일영, 장 순흥, 정경조, 조준호, 최시원, 한승희 1981 임직 김계숙, 김인실, 김희준, 박노희, 박연교, 윤석희, 이경희, 이상구, 임나경, 조요성, 진용득, 최연일, 한명덕 1983 임직 강성유, 김동운, 김성빈, 김창신, 김현, 박상근, 백린, 백승민, 백은숙, 정용기, 최혜복 1984 임직 김기영, 박병덕, 신현우, 안성국, 이대길, 정귀영 1985 안수 강성유, 김경애, 김계숙, 김내도, 김삼영, 김영경, 김현, 박병덕, 박연교, 박춘지, 변성구, 백린, 백은숙, 송미자, 안성국, 이경희, 이상구, 이일성, 정귀영, 조 요윤, 최선경, 최승자, 한기훈, 한명덕
집사회	1985 회장 조요윤, 총무 김영경, 회계 김현, 구제 이일성, 봉사 안성국, 출판 이경희, 친 교 변성구
임원회/제직회	1977-1978 서기 안길남, 회계 김현, 봉사 이강현, 음악 최시원/김정남, 교육 김장호, 재정 한승희, 교우 최연일 1978-1979 회장 이덕희, 음악 최시원, 회계 김현, 봉사 이강현, 교우 최연일, 재정 한승희, 교육 김장호, 여신도회장 김인실 1979-1980 회장 이덕희, 서기 조준호, 회계 장태인, 교육 김인실, 봉사 김기현, 재정 한승희, 음악 김정남, 출판편집 김문소 오석환 1980-1981 제직회장 이덕희, 임원회장 김문소, 선교 조준호 1981-1982 회장 이일영, 선교 조요성, 교우 김기현, 봉사 한명덕 1982-1983 회장 한승희, 선교 박노희, 음악 조준호 변화경 1983-1984 회장 이일영, 임원회장 한승희, 서기 박상근, 회계 조준호, 교우 최연일, 교육 이일영, 봉사 정용기, 선교 박노희, 음악 김계숙, 출판 이종희 1984 제직회장 김갑성, 임원회장 한승희, 서기 박상근, 회계 김성빈, 교육 김기현, 선교 조준호, 출판 백린, 음악 김계숙, 봉사 최연일, 교우 신현우 1985 제직회장 김갑성, 이사회장 김문소, 임원회장 한승희
예배/목회위원회	1978 예배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위원 장태인, 정경조, 최시원 1978 목회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위원 김장호, 이덕희, 이강현, 최연일, 최원경

이사회	1978 이사장 이덕희, 이사 고광숙 김갑성 장태인 정경조 최원경 1979 이사장 이덕희, 이사 김갑성 장태인 정경조 최시원 최원경 1984 이사장 김문소 1985 이사 (집사대표 추가) 변화경 조준호, 감사 백린 이경희	
성가대원	1979	성가대 총무 조준호, 악보 담당 노희천 소프라노: 강혜원, 김경애, 김레나, 김수연, 김애주, 박은숙, 윤은선, 윤혜성, 이명희, 임나경, 전순애, 정소영 엘토: 김계숙, 김금하, 김연숙, 김인숙, 김재희, 김한나, 남연희 테너: 김정남, 박대위, 원덕수, 이강현, 한승희 베이스: 김문소, 김현구, 노희천, 박호철, 백영기, 손동우, 이일영, 이희선, 정경조, 조준호
	1982	성가대 총무 임나경, 악보담당 김도환, 전해경 소프라노: 강혜원, 경인미, 김경애, 김수연, 박에스더, 임나경 엘토: 김계숙, 김한나, 김혜숙, 변혜경, 전해경, 최정선 테너: 박노희, 한승희 베이스: 김도환, 김문소, 정용기, 조준호
	1984-1985	성가대 대장 한승희, 총무 임나경 소프라노: 강경희, 강혜원, 계경미, 김경애, 김수연, 박순정, 박춘지, 박현주, 송미자, 이재숙, 이진남, 최정선, 최희숙 엘토: 김계숙, 김한나, 백혜선, 변혜경, 심선연, 오경자, 임영희, 장현숙, 조윤영 테너: 구분일, 구분한, 김문덕, 노효성, 유태우, 이일성, 이혁모, 한승희 베이스: 김문소, 김성훈, 변성구, 안성국, 우종수, 조성민, 조준호, 최정열, 최주원
지휘자	1976-1981. 7. 최시원 1981. 9- 1982. 6. 최승룡 1982. 7-1982. 9. 전순천 1982.10-2014. 1. 변화경	
반주자	1971-1979 변화경 1979. 9-1980. 5 추승욱 1980. 6-1982 한영혜 1982-1988 이미혜	
독창자	1982-1985 김수연 1985-1987 이재숙	
주일학교/교육부	1978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 B. J. Darr 추가 임명, 중고등부 김희준 1979 주일학교 교사: 담임교사 오경자, 오석환, 한레니, 보조교사: 김연, 나상천, 노명호, 임용순, 장순홍	
한글학교	1978 이강현/조준호 1979 오석환, 고문 김정남, 임나경	

청년회	<p>1978 회장 장순흥, 부회장 이경섭, 서기 김한나, 회계 장선화, 신앙 노희천, 친교 임용순, 봉사 김혜령, 전도 최병일, 한글학교장 오석환, 청년회 대표 제직회원 조준호, 고문 김정남 임나경</p> <p>1979 회장 조준호, 부회장 김한나, 총무 나상천, 서기 김현구, 회계 박은숙, 기획 장순흥, 봉사 장선화, 지육 김재희, 선교 이경섭, 신앙 노희천, 친교 임용순</p> <p>1980 회장 노희천, 부회장 김재희, 총무 임용순, 서기 김인숙, 회계 박은숙, 기획 조준호, 신앙 장순흥, 지육 김한나, 봉사 윤혜성, 체육 윤용상, 고문 김정남, 임나경</p> <p>1980 회장 원덕수, 부회장 안미리, 회계 강경희, 총무 안일진, 서기 김혜숙</p> <p>1981 회장 안성국, 부회장 강경희, 총무 김세영</p> <p>1984 대학청년회장 최주원</p>
헌법개정위원회	1979 위원장 홍근수 목사, 위원 정경조, 손원호
여신도회	<p>1977-1978 회장 김인실, 부회장 한혜선, 총무 민혜순, 서기 정소영, 회계 주근애, 부회계 윤은선, 재무 김경애, 선교 심명숙, 봉사 이명희, 친선 서숙자, 영아 송미자, 고문 최원경, 공병례, 이상은</p> <p>1978-1979 회장 한혜선, 부회장 정명옥, 총무 김경애, 서기 오경자, 회계 최송자, 부회계 김애진, 친선 한명덕, 봉사 이상은, 재무 서숙자, 영아 노승옥, 선교 김인실, 고문 공병례, 이상구, 최원경</p> <p>1979-1980 회장 김경애, 부회장 김계숙, 총무 김금하, 서기 윤은선, 회계 최송자, 부회계 장복기, 재무 공병례, 선교 명정옥, 봉사 이상구, 친선 진용득, 영아 김은실, 고문 김영, 김인실, 이상은 최원경, 한혜선</p> <p>1980-1981 회장 김계숙, 부회장 김승희, 총무 오경자, 서기 신동옥, 회계 노진순, 선교 이영경, 봉사 진용득, 친선 전유배, 영아 황일주</p> <p>1982-1983 회장 이경희, 부회장 한명덕, 총무 이상구</p> <p>1984-1985 회장 최송자, 부회장 한명덕, 총무 한영혜</p> <p>1985 회장 한명덕, 부회장 송미자, 총무 최희숙, 회계 박춘지, 서기 김한나, 선교 이경희, 봉사 나시옥, 친선 김영순, 영아 변영희, 이금자</p>
구역장	<p>갈릴리구역 정경조(1979), 김문소(1980-1993)</p> <p>벤엘구역 이일영 (1980), 최연일(1981-1994)</p> <p>아가페구역 한승희(1980-1990)</p> <p>로고스구역 김기협(1980, 1983-1984), 박노희(1981-1982), 김성빈(1985-1986)</p> <p>가나안구역 김갑성(1979-1986)</p> <p>다락방구역 김동윤(1984), 한기훈(1985), 이일영(1986)</p> <p>베다니구역 정경조(1981)</p> <p>기드온구역 조준호(1980-1981), 김희준/조준호(1982), 김동윤(1983), 신현우(1984) 조준호(1985)</p> <p>여호수아구역 조준호(1984-1985)</p> <p>가스펠구역 조준호(1983)</p> <p>린지구역 한승희(1983)</p>
보스톤노회	1986 조준호(Elder Commissioner at Large), 진동호(GA/Synod Youth Advisory Delegate)
교회건물관계협의회	1986 김창신, 김문소, 한승희
목사청빙위원회	1986 위원장 이일영, 위원 김갑성, 김문소, 김성빈, 김현, 백린, 변화경, 신동옥, 이금자, 정진욱, 조요윤, 조윤영, 조준호, 진동호, 최연일, 한승희
교회사무직원	1979-1980 김한나, 1983-1984 변혜경, 1985-1994 조윤영



제 5 장

이민교회의 시련과 극복

1986. 12-1995. 05

The Trial and Triumph of a Korean Immigrant Church

자녀는 예언을 하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온 교우가 함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읽는 첫 회년 신앙고백서 중에서

간추린 시대 개관 1986. 12 - 1995. 05

이민교회의 시련과 극복

보스톤한인교회가 미국장로교단에 가입한 지 일 년 후인 1986년 홍근수 목사는 서울의 향린교회 청빙을 받아 떠나게 되어 새 담임목사의 청빙 작업이 시작되었다. 미국장로교단의 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근 일 년이 지나 채위 목사가 시무하게 되었다. 채위 목사와 홍근수 목사는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같은 교단의 출신이었다. 홍근수 목사와 채위 목사가 시무한 약 16년간, 보스톤한인교회는 민중신학의 목회노선을 따랐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내 이민교회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채위 목사의 시무와 함께 여러 방면에서 성숙해진 이민교회로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교육, 선교, 봉사 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교육목사 및 교육전도사들이 각 교육기관의 책임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육위원회의 각 부서가 활기를 띠며 좀더 체계적인 이민 2세 신앙교육의 발전을 가져왔다. 보스톤한인교회 소속으로 보스톤한인학교가 개교되었고, 집사회, 여선교회, 구역모임 등이 교회의 중심부에서 주요 행사와 각종 사역들을 꾸준히 담당해 나갔다. 당회의 선교위원회와 함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영어예배부, 여선교회 등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선교사역을 펼쳐 나가기도 하였다. 영어회중을 위한 사역이 보스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989년 3월에 시작되어 연단의 기간을 거친 후 헌신적인 목회자와 젊은 신학생들의 노력으로 10년 만에 독립된 PC(USA) 개체교회가 되어 모교회인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분립되어 나갔다.

여러 방면의 사역과 헌신, 봉사활동의 전개는 대외적으로 선지자적 이민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한인교회들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16년의 민중신학/해방신학의 복음과 사역을 강조하며 달려온 보스톤한인교회는 이 시기 자유주의 신학노선의 영향을 받은 말씀선포로 인해 말씀과 신앙에 의존하는 영적/복음주의적인 메시지를 갈구하는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민중신학 성향이 강한 담임목사의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설교는 교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한 요소가 되었다. 한창 부흥하고 있던 선지자적 교회는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며, 새 목회자와 출발한 사역의 길은 부흥하던 이민교회에 신앙적으로 시련과 정체를 안겨주면서 교회공동체의 의미를 다

시 되짚어 보게 하였다. 성숙한 이민교회의 기반을 다지고, 아픈 만큼 더 성숙해졌던 이 시기는 선지자적 이민교회를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의 교회로 세움으로써 또 한 번 다가올 부흥의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였다.



채위 목사 임직예배를 마치고 제직 일동 (1987)



A Brief Chronicle 1986. 12 – 1995. 05

The Trial and Triumph of a Korean Immigrant Church

In 1986, one year after the KCB joined the Presbyterian Church(U.S.A.), Rev. Keun Soo Hong accepted a new pastoral Call from the Hyangrin Presbyterian Church in Seoul, Korea. The KCB began a search process for its new Pastor in accordance with the by-laws of the PC(USA). Nearly a year after the search started, the KCB called and installed a new Pastor, Rev. Wie Chai. Both Rev. Chai and Rev. Hong had been ordained in the same denomination in Korea,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d a long history of social justice actions. During the combined 16 years of pastoral ministry by Rev. Hong and Rev. Chai, the KCB followed a path of the “Minjung Theology.” This was a very rare and uncommon case for any immigrant church in America.

Under the guidance of Rev. Wie Chai, the KCB became a mature immigrant church in many areas of its ministry, especially in Christian education, mission outreach and benevolence and volunteer activities. A full-time associate Pastor and seminarians for Christian education took charge of various groups, and led to a more active and systematic Christian education for the 2nd generation of Korean immigrants. The new Boston Korean School was founded within the KCB, and the Deacons group, the Women’s group and the regional Bible study groups(GuYuck) became the backbone of the KCB’s important church events and activities. In partnership with the Session’s Missions committee, various groups, such as the Youth group, the College group, the Young Adults group, the English Worship group and the Women’s group, each started its own mission projects. The KCB’s English ministry which had its beginning in March 1989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Boston area. After 10 years of dedicated service by its Pastor and the young seminarians, the KCB’s English Ministry group became an independent member church of the Presbytery of Boston, PC(USA).

Outwardly, among the many Korean churches in the area, the KCB enjoyed the image of a model, prophetic immigrant church because of its various ministry programs and

dedication in benevolence, social justice and volunteer activities. Inwardly, however, the 16 years of the KCB ministry, skewed on the liberal theology, left many of its members longing for more spiritual/gospel-centered messages from the pulpit based on the Bible and Faith. The Pastor’s sermons often dealt with political and social justice issues in Korea because of his background and training in Minjung Theology of Korea. His sermons could not quench the growing thirst of the congregation for more spiritual messages, and became a point of conflict. As a result, the KCB suffered and stopped growing. The road to the ministry of the KCB that started with a new Pastor had come to an impasse of its identity as a community of faith. The trials and tribulations of this period helped set the KCB on a firmer foundation to become a more mature, prophetic immigrant church, and to prepare it for another upcoming spiritual revival.

■ 당시의 국제정세와 한국사회

1989년 11월 냉전과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결국 1990년 10월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였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도 개방과 개혁을 시도하며 1991년 결국 연방체제가 붕괴되어 동시에 연방 형태로 있던 15개 국가들이 차례로 독립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 8월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3시간 만에 수도를 함락시켰으나,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에 철수를 요구했고, 결국 미국 및 다국적군의 우세한 공격으로 한 달 반 만에 전쟁은 끝났다.

1988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하계 올림픽에는 전 세계 총 160개국이 참가하면서 명실공히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되었고, 이 대회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4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1990년대 들어 노동운동, 통일운동,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점점 심해져 갔고, 이에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한국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으며, 1993년에 김영삼이 문민정부의 대통령이 되면서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붕괴와 함께 북한에서는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고,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다음 후계자가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다.

■ 당시의 보스턴 한인사회

1979년 처음으로 보스턴에 개설된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2년 후 폐쇄되었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그 이듬해인 1989년 1월에 재개설되었다. 한편 1981년에 설립된 평화통일자문회의가 1993년에 보스턴 지회로 승격되었고, 1996년에는 협의회로 승격되었다. 1990년에는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 협회(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가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며 여러 활동들을 통해 미국 사회 안에서의 한인들의 정치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창립되어 현재까지도 시민권 취득 워크숍과 정치인턴모금만찬 등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다. 1992년에 Los Angeles 지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로dney 킹(Rodney King) 사건으로 시작된 인종 폭동, 특히 한인 및 한인상가에 대한 폭행 사건은 한인사회에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한인으로서 미국 내의 다른 인종 및 공동체와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뉴잉글랜드 지역의 거주 한인인구와 유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개신교 교회 수가 30여 개로 늘어나게 되었고, 교파를 초월하여 개신교 한인교회간의 친선과 연합사업 및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가 1988년에 기존의 평신도협의회를 해체하고 통합하여 새로이 발족되었다.

■ 채위 목사 청빙과 위임 1987

홍근수 목사가 새로운 사역을 위해 귀국을 확정하고 사임하게 됨에 따라 1986년 10월 보스턴한인교회는 공동의회에서 16명의 청빙위원(위원장 이일영, 김갑성, 김문소, 김성빈, 김현, 백린, 변화경, 신동욱, 이금자, 정진욱, 조요운, 조운영, 조준호, 진동호, 최연일, 한승희)을 선출하여 14대 담임목사 청빙을 시작하였다. 청빙위원회는 미국장로교 노회 절차에 따라 12월에 본 교회 정보안내서(Church Information Form)를 작성하여 총회 Vocational Agency에 제출하고 1987년 1월 미주한국일보 등 주요 한국 신문에 목사 청빙 광고를 내보냈다. 자격 조건을 ‘주요 교단의 안수목사로서 북미지역에서 4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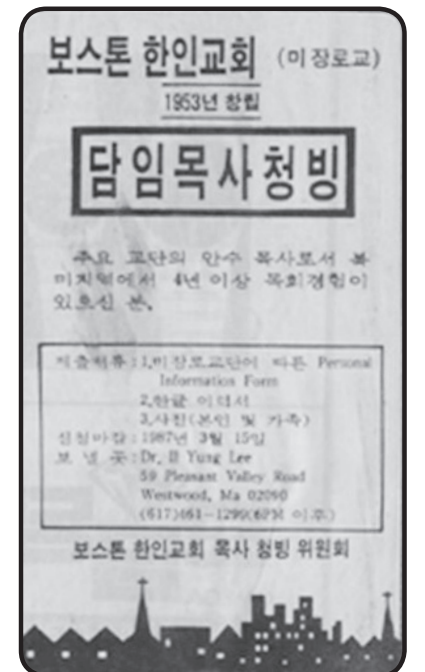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규정하여 대상자를 장로교단 이외의 목사들에게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3개월 동안 11명의 목사가 미국장로교 Personal Information Form과 이력서를 제출했고, 이에 청빙위원회는 총 20회의 모임을 가지며 신중하게 두 명의 최종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1987년 4월 두 목사를 각각 초청하여 설교를 듣고 면접하는 시간을 가진 후 청빙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채위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미국장로교 새 가브리엘노회)를 본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도록 추천하여 임시공동의회의 인준을 받았고(1987. 6. 7), 이에 따라 채위 목사는 8월 16일부터 시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보스턴노회 목회위원회(Committee On Ministry)는 채위 목사를 면접하고(1987. 9. 13), 보스턴노회 정기모임에서 채위 목사를 보스턴한인교회 당회장으로 인준하였다(1987. 10. 3). 보스턴한인교회는 보스턴노회에서 책정하는 사례금 수준(Terms of Pastoral Call)으로 채위 목사를 청빙했고, 채위 목사는 이를 수락한 후 California에서 옮겨와서 보스턴한인교회 14대 담임목사로 시무하게 되었다. 보스턴노회는 담임목사 공백기간 동안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Justus Fennel 목사를 Moderator로 임명하여 1986년 9월부터 당회와 공동의회는 Fennel 목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Fennel 목사 부재 시에는 당시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Bob Klein 목사가 대행하였다.

담임목사 청빙이 있기 전, 채위 목사는 홍근수 목사와 인연이 있었다. 1985년 당시 채위 목사가 목회하고 있던 오렌지한인연합장로교회(the Orange Korean United Church, Orange, CA)는 홍근수 목사를 특별집회 강사로 초청하였다. 이 만남을 계기로 두 목사간의 친분과 교류가 시작되었다. 홍근수 목사보다 9년 연장인 채위 목사는 여러 면에서 홍근수 목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바라보는 홍근수 목사와 마찬가지로 채위 목사도 신학자로서의 학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선지자적인 민족교회/민중교회를 지향하는 목회를 했으며, 홍근수 목사가 귀국하여 서울에 있는 향린교회의 제2대 목사로서 불의한 군사정권에 맞서 인권사역, 해방사역, 통일문제를 강단에서 선포할 때, 채위 목사도 보스턴한인교회에서 이에 걸맞은 ‘복음의 상황적인 선포’를 하였다. 1991년에는 보스턴한인교회의 이름으로 홍근수 목사 석방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를 위한 기도와 헌금에 동참하였다. 채위 목사는 시무를 시작한 1987년 10월에 목요기도회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문서를 통한 민중사역을 펼쳐 나갔다.

보스턴한인교회와 노회의 청빙절차를 다 끝낸 1987년 11월 첫째 주일에 채위 목사 위임예배가 있었는데 보스턴노회와 보스턴한인교회의 이름으로 뉴잉글랜드지역 교회와 교인들, 외부 인사들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채위 목사의 위임식에 즈음하여 한국에 있는 홍근수 목사가 축전을 보냈고, San Gabriel 노회의 Willette 목사, Los Ranchos 노회의 Chandler 목사, Downey 한인장로교회의 천방욱 목사, 은퇴한 류형기 감독 등이 축하편지를 보냈다.

보스턴 노회장 Doris Schuller 장로가 집례한 예배는 교단 헌법에 의한 문답 서약, 위임기도 및 선포, 채위 목사에게 선물 증정, 보스턴신학대학교수 Allen 목사의 설교 “성자와 죄인”, Grant 목사(보스턴



보스턴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광고 (한국일보 1987. 1. 22)



채위 담임목사

노회 목회위원회 위원장)의 채위 목사에게 대한 권면, Fennel 목사(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목사)의 전체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 그리고 보스턴한인교회의 찬양대의 찬양 등으로 어른 180여 명이 위임예배에 참여하였다.

보스턴 노회의 Grant 목사는 베드로전서 4장 10-11절의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평신도의 선교활동” 및 “평신도 목회활동”을 강조하는 권면의 말씀을 전했고, Allen 목사는 설교를 통해 칼 바르트가 지적한 세례 요한을 선교자 및 목회자의 표본으로 제시하면서 채위 목사의 위임을 축하하였다.

위임예배가 끝난 11월 5일 채위 목사는 그의 첫 목회서신을 통해 교인들에게 그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선포하고 있다.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자비로써 인도하신 주 하나님, 오늘 저희로 새출발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로 큰 꿈을 보고 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미래 지향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로 따뜻한 마음의 교회, 열린 마음의 교회, 모험 정신이 있는 교회, 서로 돌보아 주는 교회,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며,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노인들을 경애하며,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위의식을 가지며, 문화와 계급의 구별을 모르며, 질문하고 대답하는 교회,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교회, 열심히 모이고 배우며 또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교회, 민중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높은 이념을 갖되 겸손히 섬기는 교회, 예배하며 일하고, 진리를 바로 전하고 해석하며, 바로 이해하고 실현시켜 가는 교회, 성숙한 믿음으로 매사를 승리로 이끄는 교회, 궁극적으로 성3위의 높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채위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마치고 (1987. 11. 5)

■ 채위 목사의 신앙노선과 목회 방향

채위 목사의 신앙노선과 목회방향은 그의 두 권의 설교집에 잘 나타나 있다. 1994년에 발간된 채위 목사의 은퇴 기념 설교모음집의 제목은 《복음과 상황》(The Situational Proclamation)¹으로, 영문 제목대로 복음의 상황적인 선포를 강조하고 있다. 설교집의 부제 “가시덤불 속의 천성(天聲) The voice from the thornbush”이 제시하듯 그의 머리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속의 야훼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1953년 추수감사주일의 보스턴한인교회의 창립을 “미국 동쪽 보스턴에서 한국말로 외쳐진 복된 소리가 마치 광야의 가시덤불(thornbush= suffering grass-root people) 속의 하늘 음성처럼 맥맥히 40년을 울려 퍼진 것”으로 조명하고 있다. 보스턴한인교회가 교회 건물(공간)이나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집 없는 나그네로서 신앙의 순례자 길을 택한 것은 시간의 백성 곧 역사의 동력을 제공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채위 목사는 홍근수 목사 재임 시 발간된 두 권의 《보스턴 강단》의 공통점은 복음의 진수를 삶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스턴 강단 3집²을 계속 이 시대의 삶의 상황에 맞는 창조적 능력이 있는 복음의 씨앗을 계속 선포하는 것, 즉 상황적인 말씀의 선포(Situational Proclamation)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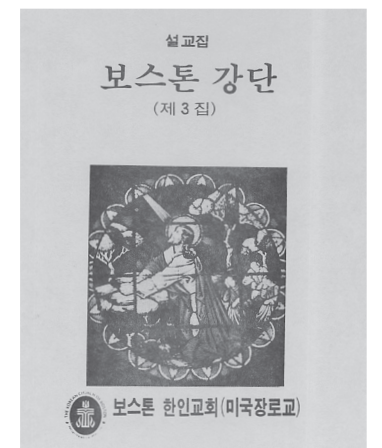
채위 목사는 현실의 삶과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며 학술적인 날카로운 비판을 더해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였다. 특히 우리 삶의 모순,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모순, 흑인과 한인사회와의 갈등,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등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 한편, 한국의 정치적 모순,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을 예리하게 비판했고, 이민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신국의 직책’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그의 첫 설교에서 그는 “한 손엔 성경, 다른 한 손엔 신문을 보아야만 성경의 진리를 더 잘 깨닫게 된다. 성경에는 언제나 양면을 보여주는 진리가 언급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 주최로 열렸던 선교 세미나의 주제를 보면 산업선교, 통일신학, 민중신학, 정치평론 등에 많이 치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채위 목사의 목회 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정명기 산업선교목사 — 사랑의 실천 (1988)
- 강명순 — 서울 달동네 빈민생활(1988)
- 홍동근 목사 — 통일신학(1989)
- 김용복 목사 — 민중신학(1989)
- 김영 목사 — 여성교회(1990)
- 유정애 — South Africa(1990)



채위 목사 은퇴 기념 설교모음집 '복음과 상황' (1994)



보스턴 강단 3집 (1988)

1. 채위, 복음과 상황: 가시덤불 속의 천성. 채위 목사 은퇴기념으로 발간되어 주로 채위 목사의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설교를 실었는데 부활신앙, 산자의 하나님, 인생고와 신앙 등의 메시지와 함께, 보스턴대학교의 Allen 교수,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Fennel 목사, 보스턴노회 총무 Grant 목사 등의 메시지가 실려 있다. 보스턴한인교회, Big Wood Press, Boston, 1994.
 2. 채위 편집, 부활절 특집으로 발간된 설교집, 보스턴한인교회, 1988. 교회에서 발간한 레터사이즈의 115면 설교집.

장로와 집사의 안수와 임직



당회원 (1989-1990)

보스턴한인교회는 미국장로교 가입 후 교단의 장로 선출 guideline에 근거한 교회규칙에 따라 매년 연초 공동의회에서 공천위원들을 임명하고(당회원 중 2명, 집사회에서 1명, 회중에서 선출된 4명과 당연직이나 투표권이 없는 담임 목사), 일 년 동안의 추천 과정을 통해 안수장로와 안수집사를 선출하게 되었다. 규칙에 의하면 장로의 수는 6명 이상이어야 하고, 동수로 된 3조로 구분되며, 이중 한 조는 매년 공동의회에서 3년 임기로 선임된다. 시무장로는 3년의 임기 후에 휴무할 수도 있고, 연속으로 한 임기 더 시무할 수도 있으며, 그 후에는 1년을 반드시 휴무한 후에 공천위원회의 재공천에 따라 시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당회원 숫자가 당회에서 논의되어 공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였다. 안수집사도 같은 맥락에서 전체 15명 이상이 되어야 했

고, 동수로 된 3개조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3년 임기 후에 휴무하거나 연임을 할 수 있었다. 연임 후에는 반드시 휴무 일 년을 거쳐 재공천이 되면 다시 같은 조건으로 시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공천위원회를 통하여 장로와 집사가 선출되어 안수를 받았다.

연도	안수/임직	이름
1988년	안수장로	김영경, 김현
1989년	시무장로로 임직	김정선 -1983년 낙스빌한인장로교회 PC(USA) 에서 안수, 1987 전입
1990년	안수장로	김내도, 백린
1991년	안수장로	조요운
1993년	안수장로	강길원, 김형범
1994년	안수장로	강성유

연도	안수	이름
1988년	안수집사	강길원, 김형범, 김현구, 노효성, 변웅구, 신동욱, 원덕수
1989년	안수집사	김문기, 나시욱, 문영도, 이우조, 이재환, 황광서
1990년	안수집사	강상철, 김영숙, 김한나, 손선배, 이강필, 장현숙, Julie Snyder
1991년	안수집사	강경희, 정진기, 정귀달, 미키베이커, 박기춘, 조윤영,
1992년	안수집사	김동환, 조순래, 최희숙
1993년	안수집사	신경자, 김유철, 정진수, 진동호, 정영선, 박영철
1994년	안수집사	김명철, 김영순, 심병희, 이점례
1995년	안수집사	김세철, 이계순, 장양술, 최석주, 한영희

권사 임직

홍근수 목사 시무 당시 1980년 교회 헌장 개정으로 새로이 장로, 집사와 함께 한국교회 전통에 따른 권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보스턴한인교회의 최초의 권사 임직을 받은(1981. 2) 성덕춘 권사는 1985년 미국장로교 가입 후에 처음으로 안수 임직된 장로, 집사와 함께 첫 권사로 재임직되었다(1985. 11). 1980년대 본 교회 규칙에 의하면 여집사로 교회 사역에 오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의 존경받는 교우 가운데 당회의 추천에 의해 권사에 선임될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전통을 일부 반영하여 권사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보스턴한인교회 상황과 맞지 않는 권사 선출 규칙으로 인해 성덕춘 권사 이후 한동안 권사직에 추천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당회에서는 권사의 임직 최저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어 교회 규칙을 개정하고(1989), 1990년에 4명의 권사(김남수-명예권사, 박연교, 백은숙, 이상구)를 추가로 임직시켰다. 이후, 나시욱, 최선경, 신좌경(1992, 이상 3명), 홍경자(1994) 권사가 새로 임직됨으로써 1994년까지 사역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던 권사는 총 8명이었다.



권사임직식 후 당회원 및 교역자 (1990)

연도	이름
1985년	성덕춘
1990년	김남수(명예권사), 박연교, 백은숙, 이상구
1992년	나시욱, 신좌경, 최선경
1994년	신경자

채위 목사 시무 초기 안수장로 9명, 권사 1명, 안수집사 16명 등 총 26명으로 시작되었던 제직수는 채위 목사가 은퇴하던 1994년에는 안수장로 18명, 권사 8명, 안수집사 37명으로 모두 63명으로 늘어났다.

활발한 미국장로교단에서의 활동

보스턴한인교회는 1985년 10월 미국장로교단 가입 후 일 년은 장로교 규례에 의한 교회 내부 조직 개편에 중점을 두었고, 1987년부터는 당회원들의 적극적인 보스턴노회 활동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채위 목사를 비롯한 6명의 당회원들은 노회 내의 각기 다른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당회원	보스톤노회 활동
채위 목사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New Church Development Subcommittee
이일영 장로	Committee on Education for Mission
한승희 장로	Committee on Ministry Congregational Development Committee(의장)
김창신 장로	Nominating Committee
김문소 장로	Bicentennial Fundraising Committee(부의장)
김현 장로	Bicentennial Celebration Committee
조준호 장로	노회원

미국장로교 총회 설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Bicentennial 선교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 그 일례이다. 한승희 장로의 적극적인 개의로 보스톤노회에 할당된 모금액이 100만 달러로 정해졌고, 보스톤한인교회는 이중 6만 달러(1989년 \$15,000, 1990년 \$20,000, 1991년 \$25,000)를 목표액으로 정하고 1988년 Bicentennial Celebration Committee를 구성하여 김현 장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모금을 시작하였다. 김문소 장로가 위원장직을 이어받아 계속 모금활동을 진행했으며, 한승희, 김현, 이일영, 김영경 장로 등이 Task Force로 모금활동을 도왔다. 또한 1990년 2월에는 보스톤노회에서 202차 총회 목사 총대로 채위 목사가 선출되었고, 동북대회 장로 총대로 김창신 장로가 선출되었다.

보스톤한인교회는 보스톤노회 활동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단 내의 한인교회 동북대회에서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채위 목사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미동북대회 한인장로교협의회 제 3구역 모임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주제설교를 하기도 했고(1990. 3. 뉴헤이븐 허드슨 강북한인교회), PC(USA) 번역위원회의 일원으로 한국어 번역판 '정치, 예배지침, 권징조례' (장로교 헌법, 1990)를 출판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때 출판된 장로교 헌법 한국어 번역판은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교육위원회 각 부서에 전담 교육목사와 교육전도사 임명

채위 목사가 시무하기 전 교육을 전담하던 Bob Klein 목사는 유일한 교육담당목사로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다. 채위 목사가 시무하기 시작한 1987년부터 교육위원회는 각부의 체제강화와 신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 내 각 부 전담 목회자를 새로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목사/협동목사 혹은 교육전도사로 임명된 교역자들이 각 부서를 지도함은 물론 각부 담당장로들의 긴밀한 협조와 교사/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등은 교회교육사역의 근간을 튼튼히 하였다. 열정적인 지도자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PC(USA) 프로그램 참여 및 체계적인 교회 내 교육활동과 미국장로교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교육 및 자질 향상 등이 더해져서 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사역자	사역부서	사역기간
최재건 협동목사	대학청년부 Resource Person	1987. 09-1988. 05
전희원 전도사	대학청년부	1987. 11-1990. 01
이일영 장로	대학청년부	1990. 02-1990. 09
이철 전도사	대학청년부/중고등부 임시	1990. 10-1996. 05
손병덕 전도사	대학청년 1부	1995. 11- 1998. 08
Bob Klein 목사	중고등부	1985. 12- 1989. 05
김종범 전도사	중고등부 Resource Person	1990. 03-1991. 07
김준식 전도사	중고등부	1991. 08-1992. 05
이은주 전도사	중고등부	1992. 08-1993. 12
김승호 전도사	중고등부	1994. 01-1998. 10
박전홍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1987. 08-1988. 01
김정선 장로	유년주일학교	1988. 04-1989. 12
전희원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1990. 01-1993. 02
정성욱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1993. 03-1995. 05
조미미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1995. 06-1998. 09
김정선 장로	보스톤한인학교	1988. 06-1997. 08
김종대 목사	영어예배부 및 중고등부	1989. 03-1991. 06
전희원 전도사	영어예배부	1991. 09-1992. 12
김종일 목사	영어예배부	1993. 01-1993. 12
이재원/신승희 부부 전도사	영어예배부	1994. 02-1995. 03
John Hwang 전도사	영어예배부	1995. 03-1996. 09
안재웅 전도사	성인성경공부	1989. 02-1990. 01
윤경문 전도사	행정전도사	1995. 02-2006. 03

1982년부터 8년간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이일영 장로는 그의 교회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교육의 쇄신, 미국장로교 및 소수민족운동에 여러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위상과 교회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이일영 장로는 Pacific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모임(1987.5)과 Synod Ethnic Ministry Convocation모임(1987. 7)에 참가했고, Siena College에서 있었던 Synod School에 장로교 새 교재를 위한 훈련(PREM Advocate Training)에도 참가하는 등 PC(USA) 총회, 대회, 노회의 여러 교육에 관계되는 회의에 교사진 및 학생들과 함께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 이일영 장로는 전교인 여름수양회에서 '이민 2세를 위한 교회' 설립에 대한 특별 워크숍을 갖고 당회원들과 함께 영어예배부 발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1년여 만인 1989년 3월 English Speaking Second Generation Church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1990년부터 김정선 장로가 교육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1991년에는 대학청년부와 영어예배부용으로 van을 구입하여 강상철 집사의 수고로 Bus Ministry를 시작할 수 있었다. 1992년부터 2년간은 김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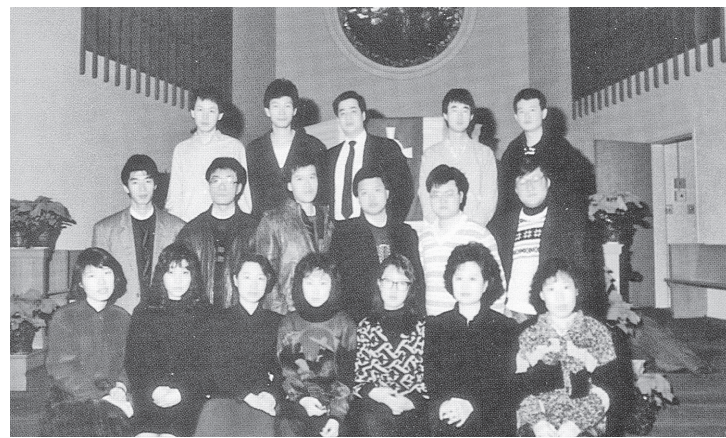


1988년 교역자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대 목사, 안재웅 전도사, 전희원 전도사, Bob Klein 교육목사, 채위 목사

장로가 교육위원장을 맡았고, 유년주일학교 및 한인학교,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영어예배부 등에 사역목사나 전도사와 함께 장로를 고문으로 임명하여 공동사역을 펼쳐 나갔다.

1992년 교육위원회 조직	담당자
위원장 유년주일학교	김문소 장로 정성욱 전도사, 고문 김정선 장로
중고등부	이은주 전도사, 고문 이일영 장로
대학, 청년부	이철 전도사, 고문 변화경 장로
영어예배부	김종일 목사, 고문 김문소 장로
한인학교	학교장 김정선 장로

■ 청년대학부의 성장과 지역사회 사역



청년대학부 (1988)

1987년 9월 청년대학부의 협동목사로 사역하던 박성진 목사가 California Berkeley의 한인장로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 떠나게 되면서 최재건 목사가 청년대학부 협동목사(Resource Person)로 잠시 사역하였다(1987. 9 - 1988. 5).

최재건 목사 이후 전희원 전도사가 청년대학부를 담당 사역하게 되었고, 학위를 끝내고 코넬대학의 교목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4년 넘게 보스톤한인교회의 여러 부서를 섬겼다(1988. 6 - 1992. 12).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던 전희원 전도사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가대 책임을 맡은 적도 있었다. 작곡 전공을 목표로 음악

대학에 진학을 원했으나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시험조차 치르지 못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숭실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했으나(198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공을 바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⁴ 목회활동을 하는데 전희원 전도사의 시각장애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컴퓨터 사용 능력과 그 외의 다재다능함은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전희원 전도사는 자신의 음악적 전문성을 살려 피아노나 트럼펫 연주 등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곤 하였다. 당회는 1987년 11월에 전희원 전도사를 Pastoral Under-Care Candidate으로 정하고 미국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도왔다. 그 결과, 전희원 전도사는 1993년 7월 본 교회에서 미국장로교단 소속의 목사 안수를 받았다.

사역자가 여러 번 바뀌는 중에도 청년대학부의 활발한 대외활동은 계속되었다. 보스



4. 전희원, "나의 신앙간증," 필그림 11호, 1990. 보스톤한인교회.

톤 지역 내의 다른 청년 그룹들을 초청하여 자체적으로 '젊은이의 밤' 행사를 가지기도 했고(1988. 4),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위로하는 지역 봉사활동도 계속했으며, 1988년 열린 Vision 88 행사에도 참여하였다(1988. 3. 24 -27, Singing Hills Retreat Center, NH). 매주 금요일 저녁 성경공부도 계속 가졌고, 1983년부터 발간한 청년부 회지 '빛과 소금'의 발행도 계속 이어나갔다. 회원수의 증가로 1989년 9월 청년대학부는 대학부와 청년부로 다시 한 번 분리되었으나 대부분의 교회 행사는 두 부서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담당전도사도 따로 임명되지 않았다.



청년대학부 행사 '젊은이의 밤' (1988)

간추린 청년대학부 활동내역

수양회	
1990. 3. 9-11	강사 이일영 장로, 주제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의미"
1990. 11. 31-12. 2	강사 이철 전도사, 주제 "지금 청년부는 몇 시인가" 장소 Oceanwood Camp, Maine
신앙수련회	
1991. 11. 22-24	주제 "만남", 장소 Grotonwood 캠프장
1992. 11. 13-15	주제 "하나님과 나"
청년대학부 헌신예배	
1991. 4	연극예배 "The Symbol of Cross"
지역봉사활동	
1990. 4. 28	한국 불우 아동/청소년을 돕는 자선음악회, 장소: Pine Manor College
1991. 12. 7	양로원 방문
1992. 4, 1992. 12	교도소 위문공연 (Bay State Correctional Center, Norfolk, MA)

1991년 9월 전희원 전도사가 유년주일학교를 담당하게 되어, 10월부터는 이철 전도사가 대학청년부를 지도하게 되었다. 이철 전도사 사역 후에도 30여 명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던 대학청년부(회장 손동우, 고문 조준호 장로, 변성구 집사)는 교도소/양로원 방문 등의 지역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으며, 불우 아동/청소년을 돕는 자선음악회(1990. 4. 28, Pine Manor College)를 열어 \$3,500의 장학금을 모아 고국의 한 지역사회학교에 기증하기도 하였다(서울 용산구 동자동 지역사회학교). 정기 수양회와 금요성경공부 및 주일 정기모임을 통하여 청년으로서의 신앙 성장과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91년 4월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는 "The Symbol of Cross" 라는 제목의 연극예배로 드렸는데, 회원 스스로가 대본 각색부터 배우, 무대장치, 음악, 의상, 연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40분 가량의 공연을 하는 열의를 보였다.

교도소 위문공연(Bay State Correctional Center 1992. 4. &1992. 12)에는 30여 명의 회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여성합창, 남성중창, 기악연주, 재즈연주 및 찬송가 연주로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봉사하였다. 대학청년부는 오랜 기간 동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 미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가 음악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소망을 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로 교도소 위문공연이 이루어졌다.



청년대학부 (1993), 담당 이철 전도사(오른쪽 맨 끝), 고문 최연일 장로(왼쪽 맨 끝)

청년대학부의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연령 차이가 크게 나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93년 9월에 대학청년부는 청년1부와 청년2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조직 개편 초기 청년1부는 이철 전도사가 담당했고, 청년2부는 이병무 전도사가 맡았다. 청년 1, 2부는 매주 예배 후의 모임, 금요성경공부, 찬양팀 사역, 주보, 주소록 등을 발행했고, 특별히 조별 리더를 뽑아 리더성경공부를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성경공부를 하였다. 또한 학원선교 및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 신앙사경회, 신입회원 환영회, 헌신예배, 경로잔치, 성가의 밤 등 여러 행사로 기독교청년으로서의 사역을 펼쳐 나갔다.

■ 중고등부 전임전도사의 사역과 학생들의 장로교단 활동 참여



중고등부 (1987)

1985년 12월에 시작된 Bob Klein 목사의 사역은 채워 목사 시무 시에도 계속되었다. 교육위원회가 당회의 소속 부서가 되어 중고등부는 위원장 이일영 장로와 훌륭한 교사진이 장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중고등부의 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총회, 대회 및 노회의 교육관계 컨퍼런스, 소수 민족관계 회의, 교사수련회 등을 통해서 교사진과 학생 모두 함께 선교의 장을 넓혀 나가게 되었다.

1989년 5월 Bob Klein 목사가 하버드에서 학위를 마치고 3년여 만에 떠나게 되어, 당시 영어예배 담당자로 임명된 김종대 목사가 책임을 인계받아 주일예배와 그룹별 성경공부를 진행하였다. 1990년 10월부터는 이철 전도사가 대학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맡아 했고, Director Julie Snyder가 전반적인 책임을 맡았다. 1991년 9월부터 김준식 전도사가 10개월간 사역하다가 NJ로 이주함으로써, 1992년 8월 이은주 전도사가 담당했으며, 1993년 12월 루이빌에 있는 총회본부의 Coordinator for Women's Advocacy 직책을 맡고 떠나게 될 때까지 중고등부를 지도하였다. 이은주 전도사는 14세에 브라질로 이민 갔다가 17세에 미국으로 온 1.5세로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어 보스톤의 Women's Theological Center와 성공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는 동안 보스톤한인교회의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하였다.



중고등부 스키캠프 (1987)

이때까지 중고등부는 잦은 전도사 교체로 인해 안정된 사역이 힘들었다. 김승호(Samuel Kim) 전도사는 1993년 12월부터 사역함과 동시에 여러 형태의 대내외적인 중고등부 수련회 및 이웃돕기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활력 있고 안정성 있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였다. 가장 감성이 예민한 시기의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민 2세대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어 개개인에 따른 눈높이 인성교육 등을

통해 중고등부 전체 그룹으로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개인별 심적 강건함을 더하는 사역을 하였다. 1998년 10월 사임하기까지 약 5년여 간 헌신적으로 이끌어 간 Sam Kim 전도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5년간의 신학공부(M.Div. Th.M.)를 끝낸 후, 의료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00년 Medical School에 진학하였다. 2007년 보스톤으로 다시 돌아와 본 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있으며, 현재 응급 의학 전공의로 Steward Norwood Hospital 응급의학과 Assistant Chief로 재직 중이다. 본 교회 역사편찬위원인 부인 이해승 집사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1980년대 말 당시의 이옥, Julie Snyder, 진동호(Don), 최주원(John), 강경희, 김순애, 오정은, 강상철, 최송자, 채미혜 등 열성 있는 교사들이 이일영 장로의 지도로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 나갔다. 1987년 8월에 Charlotte, North Carolina에서 있었던 Presbyterian Youth Ministry Regional Event에 중고등부의 최우석(Norman Choe) 군이 참석했고, 1988년 11월 NY Presbytery Center에서 열린 Racial-Ethnic Youth Conference에 Norman Choe, Irene Kim과 Angie Kim 등이 이일영 장로 인솔로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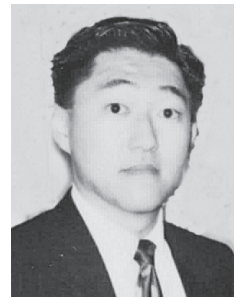
중고등부는 매년 하기 수양회를 통해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987년 7월에는 2박 3일 동안의 수양회에는 Faith Journey와 Peace and Justice in South Korea라는 주제를 가지고 Bob Klein 목사를 주강사로 하여 뉴햄프셔 최연일 장로 별장에서 교사 5명, 학생 22명이 참여하였고, 1989년 8월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수양회에는 18명의 학생과 3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1990년 8월에는 김종범 전도사의 인도로 중고등부 하기 수양회를 가졌다. 1992년 8월에는 중고등부 수양회가 이은주 전도사의 인도로 Singing Hills, New Hampshire에서 열렸다.

교회 밖에서의 활동도 활발하여졌다. 1989년 5월 7일 6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WCVB-TV Channel 5(ABC)가 후원한 Walk for Hunger에 참여하여 모인 \$800을 보스톤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였고, 이 일은 Boston Globe에도 기사화되었다. '냉면세일'로 모인 \$500을 필리핀에 있는 어린이를 돕는 데 보냈고, 부활절, 추수감사절에는 보스톤 지역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봉사의 일환으로 Roxbury에 있는 Boston Family Shelter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9가족에게 선물바구니를 전달하였고 성탄절에는 Christmas spoon을 만들어 모아진 \$1,070을 Project Bread에 보냈다. 당시 중고등부의 Director Julie Snyder가 집사회의 협조에 감사하여 보낸 보고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On Good Friday, twenty-three members of our church, composing of youth group students, teachers and friends, gathered together and spent the evening decorating eggs and putting together twenty-five Easter basket for the homeless children. (중략) For the past year, they have been collecting clothes, bringing special gifts during Christmas and Easter, walking for hunger, decorating spoons to help raise money for Santa's Kitchen (Project Bread) and at one point collecting non-perishable food. (중략) The youth group has adopted the Boston Family Shelter for many reasons. (중략) The youth group is helping other children find comfort and pleasure in their lives. (중략) The Deacon's Committee has helped finance our Easter basket project. We are trying to show our community the love of Christ. Thank you for your support. (중략) We ask you, more so, to continually pray for the faith of the children to grow and go on praising our Lord, Amen.



이은주 전도사 (1993)



김승호(Samuel Kim) 전도사 (1994-98)

김준식 전도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교와 봉사,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가치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1991년 중고등부 목표로 삼았다. 전 회원의 활발한 참여와 효율적 활동을 위해 6개 위원회(Worship, Mission, Reach-out, Fellowship, Stewardship, Publication Committee)가 조직되어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2년 6월에는 매3년마다 30여 개국으로부터 약 4천여 명이 모이는 제5차 Youth Triennium Conference 장로교 청소년 대회가 Indiana Purdue 대학교에서 열렸는데, Youth Group의 김송희, 김지향, 김지일, 한소라 등이 참석했고, 후에 김지향은 1993년 6월에 열린 제205차 총회에 YAD 보스톤노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1993년부터 시작된 중고등부 연례 Confirmation Class(건신례)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예식이 되었고, 많은 준비 끝에 전교인 앞에서 신앙고백을 하고 축하를 받는 중요 행사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 유년주일학교의 발전과 교사 훈련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교사진 (1988)

1987년 8월부터 유년주일학교 교장으로 사역했던 박전홍 전도사가 사임하면서(1988. 1) 1990년 1월 전회원 전도사가 부임할 때까지 약 2년여 간을 김정선 장로가 주일학교장이 되어 유년주일학교를 이끌어갔다. 연례행사로는 어머니주일 성경암송대회, 교사수양회, 졸업예배, 여름성경학교 등이 있었다.

전회원 전도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김정선 장로가 보강했던 교사진을 더 보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11시 30분에 고정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기틀이 만들어졌으며, 예배순서 또한 다듬어졌다(찬양시간, 개회기도, 설교, 헌금, 광고 및 생일축하시간, 주기도문, 30분간 분반공부). 1992년 12월 전회원 전도사의 사임으로 다시 김정선 장로가 교장직을, 그리고 강경희 집사가 교감직을 맡았으며 교사로서는 정진수 집사가, 학생 인턴으로는 Jullian Byun, Naki Chung, Becky Kim 등이 수고를 많이 하였다. 이때부터 어린이용 주보가 따로 만들어졌고, 어린이 Newsletter도 발간되었다. 또한, 여선교회의 협조로 Nursery 방을 만들어 babysitter를 채용하였고, 어린이 예배용 대형 스크린도 구입하였다.



주일학교 수업 (교사 김영순, 1988)

1993년 3월부터는 정성욱 전도사의 인도로 매주 평균 30-4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1994년에는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실 증축, 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특별예산을 책정하여 아래층에 있던 도서실을 개조하여 어린이 소예배실로 만들고, 중고등부 교실을 새로 꾸미고, 어린이 교실을 늘리기 위해 칸을 나눠 작은 교실을 몇 개 더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임시 개조밖에 할 수가 없었고, 건물 자체 수용

가능 면적이 제한되어 교육위원회는 2010년 새로운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가 지어지기까지 항상 교실이 좁고 부족하였다.

- 1987년부터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일일 교사수양회, 수련회, 세미나 참가 등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 1987년 3월 28일: 일일 교사수양회. 강사: Bob Klein 목사, 주제: Group Dynamics, 장소: 이일영 장로 맥.
- 1987년 11월 20-21일 총회 주관 Church School Leader/Teacher Training Seminar (Princeton, NJ), 3명의 교사(우성연, 채미혜, 황상민)와 이일영 장로 참여.
- 1988년 5월 7일: 일일 교사 수양회 및 교사학부형회 개최(학부형회장 한영희 교우, 이일영 장로 맥에서, Bob Klein 목사 특별 세미나)
- 1989년 5월 28-29일: 교육위원회 교사 수양회를 Laconia, NH(최연일 장로 별장)에서 가짐
- 1991년 8월 20-31일: 교육위원회 교사 수련회
- 1994년 3월 19일: 제1차 교사 수련회, 장소: 교회 사무실, 초청강사: Priscilla Keslo(기독교교육 전공)
- 1994년 5월 14일: 제 2차 교사 수련회, 장소: 교회 사무실, 초청 강사: Priscilla Keslo

■ 보스톤한인학교 개교와 한국어, 문화, 역사 교육

보스톤한인교회에 부속된 한국학교의 역사는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에는 미국생활과 한글교육에 대한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 1974년도 교육부 주관의 학부모회의에서 한글교육을 위한 토의가 있었고, 1월에 한글반을 개강하고, 한글교사들에게 교육참고서를 배부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한 학급 한글공부반의 형태로 김현, 이경희, 오경자, 김계숙, 이강필 등이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전에 한글을 가르쳐 왔다.

정식으로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작한 것은 김정선 장로가 1988년 6월 한글공부반을 새로 정비해서 ‘보스톤한인학교’라고 명명하고, 뉴욕 한국영사관에 정식으로 등록하면서 재미한인학교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School, NAKS)에도 가입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1988년 6월에 40여 명의 학생, 5명의 교사로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매주 주일 아침 1시간 동안 재미한인학교협의회에서 발간한 한국어 1, 2, 3 및 유치부용 교재를 사용하여 한글을 가르쳤고, 그 외 한국역사와 문화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다. 처음 시작할 때 교실이 부족하여, 당시 도서실로 쓰이고 있던 아래층 소예배실을 임시 칸막이로 막아 3개의 교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보스톤한인학교는 그 목적을 “미국서 자라나는 Korean-American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역사를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Korean-American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자부심을 갖고 미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언어, 문화, 역사 교육 이외에 전통무용, 요리, 놀이, 태권도, 서예, 미술 등을 가르치며, 한국의 명절 행사 등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한국문화도 소개하기도 하였다. 설립자인 김정선 장로가 초대교장을 맡았고, 보스톤 한인학교후원회를 구성하여



주일학교 성탄 축하 연주회 (1988)



주일학교 성탄 축하 연극 (1988)



보스턴한인교회 창립 당시 교사진 (1988)

회장으로 채위 목사를, 위원으로 김계숙, 김현, 백린, 이강필, 이일영 등을 위촉하였다.

같은 시기 뉴잉글랜드 지역에도 재미한인학교협의회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가 창립되면서 1988년 11월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가 성요한교회에서 개최되었다(강사 보스턴한인교회 백린 장로, 주제강연 '이민과 역사'). 김정선 장로가 지역협의회의 총무와 후에 이사장을 맡게 됨으로써 보스턴 및 인근 지역의 다른 한국학교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1989년 9월에는 후원회 조직을 이사회로 개편하였고,⁵ 학생 주소록과 보스턴한인교회 회지 '한걸음'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1990년 4월에는 공개수업, 학부모 회의 및 교육평가 Workshop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백린 이사장의 "우리는 왜 한글을 배워야 하나?"라는 제목의 강연과 외부 초빙강사 김지수 박사의 '가정에서 하는 한글교육' 강의 등이 있었다.

1990년 초의 교사로 강영숙, 김정미, 김동환, 김미선, 김영순, 문순주, 송향수, 신혜영, 안명혜, 이혜승, 장복, 장유정, 채미혜, 허미옥 등이 봉사했고, 김미선 교사는 당시 청년부를 맡고 있던 이철 전도사의 사모로 교감직도 맡았다. 보조교사로는 정성현, 박지혜, 김세진, 최운은 등이 봉사하였다. 학부모회의도 활발하여 김병국/박은희, 선우옥, 송미자, 장유정/정진수 등이 회장단으로 봉사하였다.

1991년 5월 5일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제1회 어린이 동화대회를 가졌고, 그 해 10월에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학교협의회 모임에서 김정선 교장이 동화대회의 운영과 그 효과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한편 수업의 질적 향상과 교사진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학부모 회의를 통해 한인학교의 문제점을 상황극으로 재현하며 한글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할 기회를 갖는가 하면(1991. 11), 미주한인학교협의회 총회 및 연수회에 교사들 및 이사진들이 참여하여 한국학교 학사 및 교과과정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며 한국학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1991. 8. 송재옥 교사 참석, Houston, TX; 1993. 8. 김정선 교장, 박기춘 이사, 박영철 이사, 장유정 교사 참석, New York, NY).

1992년 2월 구정잔치는 교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북돋우기 위해 하버드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공연을 하였다. 또한 학부모회가 친교실에서 장터를 열어 전통 음식 판매를 해서 수익은 학교기금으로 모았다.

보스턴한인교회 학생들은 대외적으로 한인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여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92년 6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학교협의회 주최 어린이 글짓기 및 사생대회에서는 변혜원 양이 미술부문 대상을, 이장훈 군이 동상을 받았으며, 이듬해 5월 같은 대회에서 이장훈 군이 미술부문 금상을 수상했고, 김니랑, 조미미 양이 글짓기에서 은상을 받았다. 1994년 11월에는 뉴잉글랜드지역 한인학교협의회가 주최한 학예발표회에서 탈춤을 공연하여 큰 인기를 모았다.

5. 이사장 백린 장로, 이사 김내도 장로, 김경애 집사, 이강필 집사, 이일영 장로, 김현 장로, 후에 강길원 장로, 김형범 장로, 김영순 집사, 박기춘 집사, 박영철 집사, 변성구 집사, 정명상 집사, 강영자 집사 추가.

1992년부터는 6개 반으로 재편성되어 주일 수업시간은 한 시간이 되었고, SAT반도 개설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저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국 고전무용과 태권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더해졌다. 2년 후인 1994년부터는 주일 수업시간은 2시간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태권도 수업(담당 Cheryl Fraser-Bacon, 김정선 교장)이 격주로 행해졌으며, 새로이 서예와 고전무용(담당 송향수 교사) 등의 수업을 추가하였다. 교사로는 강경희, 김미선, 박기춘, 이현정, 정인경, 조성일, 황주인 등이 봉사했고, 이사로는 김명철, 김문소, 김세철, 이우조, 정진수, 조준호, 최송자, 한기훈 등이 수고했으며, 학부모회 회장으로 조윤영, 부회장으로 최승주가 봉사하였다.

1990년 초에 보스턴,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한국학교들은 한인학교,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의 여러 이름을 놓고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보스턴한인학교'라는 명칭은 '보스턴한인교회'의 부속학교임을 강조하기 위해 개교 당시 '한인'을 학교명에 넣었으나, 이후 좀더 포용성 있고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 명칭을 '보스턴한국학교(The Boston Korean School)'로 변경하였다(1997).



보스턴한인교회 구정잔치 (1992)

■ 구역성경공부반의 성장

홍근수 목사 시무 때 활성화된 구역성경공부반은 11개 구역⁶으로 늘어났다가 6개 구역⁷으로 개편되었다. 대부분의 구역들이 격주로 모임을 가졌는데, 공부하고 싶은 성경을 각 구역에서 원하는 대로 결정하여 구역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참여 발표하는 형태의 공부방식을 택하였다. 성경공부 교재는 장로교에서 발간하는 책을 사용하기도 했고, 어떤 구역은 자기의 전공분야와 기독교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벨엘구역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14년간 256회의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친구약 성경 이외에 초대교회사, 성경 형성사, 바울의 기독교론, 선교보고 등의 다양한 주제로 성경공부를 하였다. 성경공부 외에도 구역별로 피크닉, 낚시, 스키 등의 친교모임이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구역별로 준비하여 경연을 벌이는 어머니날 찬송가경연대회는 매년 구역들간의 열띤 경쟁을 일으키곤 하였다. 많은 학생, 학자, 연수원 등이 다녀가면서 각 구역마다 구역원들의 변동이 많았으나, 제직들을 중심으로 각 구역들은 점차 안정된 모습으로 꾸준히 성경공부를 위해 모였고, 구역 성경공부 모임은 교회 전체적으로 신앙 성장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영어예배부 발족

보스턴한인교회에서 1.5세나 2세를 위한 영어성경공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를 위한 독자적인 영어예배는 드리지 못하였다. 채위 목사와 이일영 장로 등 몇몇 교인들이 미국장로교 소속 한인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2세 영어예배와 교회 설립 문제에 관한 주제토론에 참여한 것이

6. 가나안, 갈릴리, 로고스, 아가페, 벨엘, 기도온, 베다니, 린지, 가스펠, 여호수아, 다락방, 1984.

7. 가나안, 갈릴리, 다락방, 로고스, 벨엘, 아가페, 1987.

보스톤한인교회 영어예배부를 본격적으로 발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계기가 되었다(1988. 5. Princeton, NJ). 교육위원장 이일영 장로는 1988년 8월 전교인 여름수양회에 당시 Princeton 신학교 Program for Asian-American Theology and Ministry 간사였던 Ron Chu를 주제강사로 초빙하여 '이민 2세를 위한 교회 설립'에 대한 특별 Workshop을 가지고, 2세들을 위한 영어예배의 필요성, 교회구성 및 발전모델, 운영방법, 모 교회와의 관계 등을 전교인과 함께 의논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 결과 당회에서는 2세 영어예배부 조직위원회(Second Generation Korean Church Organization Committee)가 구성되었고, 이일영(Chair), 김성빈, 김정선, 한승희 등 4명의 장로에게 이 일을 위촉하게 되었다(1988. 9).



김종대(Joseph Kim) 목사 (1988)

2세 영어예배의 필요성과 교회 설립에 대한 열의가 무르익어 영어예배부의 발족을 위한 적극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애틀랜타에서 2세교회 목회 경험이 있는 김종대(Joseph Kim) 목사를 면담하게 되었고, 1989년 4월에 당회는 김종대 목사를 English Speaking Church & Youth Group 담당목사(파트타임)로 결정하게 되었다. 김종대 목사는 1977년 Korean Christian Seminary를 졸업하고, 1980년에 미국 Ozark Christian College를 졸업했고, 1984년 Louisville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와 1985년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Th.M.을 끝내고 보스톤 대학의 Th.D. 학위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1981년 Greater Atlanta Presbytery에서 안수를 받았다.

기다리고 바라던 영어예배부(English Speaking Second Generation Church)의 첫 예배는 1989년 3월 5일 오후 1시에 2세 영어예배 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김종대 목사와 함께 16명이 함께 드렸고, 이로써 뉴잉글랜드에서는 처음으로 2세 영어예배가 시작되었다. 그후 예배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어 아래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처음 2세 영어예배 운영은 김종대 목사를 중심으로 당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9명의 Consistory Core Group⁸을 만들어 매달 정기모임을 통해 운영하였고, 교회 van을 구입하여 매주 bus ministry도 시작하였으며 금요성경공부도 매주 시행하였다. 1989년 평균 14명이었던 예배 참석인원은 1992년에 이르러서는 50여 명으로 증가했고, 한인동포 2세 이외의 다른 인종들의 예배참여는 교회에 다양성을 더하게 되었다.

1989년 11월부터는 보스톤 노회의 Ken Grant 목사의 자문을 받아, 김종대 목사를 부목사로 임직시키기 위해 부목사 청빙위원회(PNC)⁹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 6월 부목사 청빙위원회는 청빙 과정 시작 전에 영어예배부 자체평가를 먼저 할 것을 당회에 제안하였고, 당회에서는 다시 2세교회 평가위원회¹⁰를 구성하여 영어예배부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촉하였다. 평가위원회는 2세영어예배부의 김종대 목사 및 consistory members와의 면담과 서면설문서를 통해 수렴한 교인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여 1990년 9월에 평가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였다(내용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부목사 청빙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복잡한 노회의 청빙과정과 연금관계 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1991년 2월 김종대 목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당회는 대표(한승희, 김정선 장로)를 통해 사직서를 반려하였으나, 6월에 결국 사임했고, 전회원 전도사가 1년 반 동안 임시설교를 맡아 1992년 12월까지 사역하였다.

8. 1989년 창립 당시 9명의 Consistory Core Group 멤버들: Steve Backer, Keith Joung, Julie Snyder, Don Jin, Ken Kim, Abraham Kim, Steve Suk, Jane Sunoo, Esther Cho.
9. 위원장 이강필 집사, 위원 김정선 장로, 이일영 장로, 정귀영 집사, 진동호 집사.
10. 위원장 김내도 장로, 위원 조준호 장로, 김현구 집사.

그후, 2세 영어예배부의 목회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재개되어 1992년 11월 부목사 청빙위원회¹¹가 구성되었다. 1993년 1월 정기 당회에서는 당시 보스톤대학교에 유학 중이던 김종일 목사를 영어예배부 임시 담당 사역자(Temporary Coordinator)로 결정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였다.

다시 미국장로교 절차에 따라 김종일 목사를 정식 담당목사로 모시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여러 가지 교회 사정¹²으로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 김종일 목사는 1993년 12월에 영어예배부를 사임하였다. 후에 김종일 목사는 채위 목사 은퇴 후 새 목사를 청빙하는 동안 거의 일 년간 임시목회자로 수교하였다(1994. 6 -1995. 5).

당회는 두 번의 청빙 실패를 통해 노회를 통한 영어예배부 사역자를 구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Part-Time 전도사를 찾는 것에 동의하여 김문소 장로에게 Task Force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의뢰하였다. 1994년 2월부터 영어예배부 사역을 시작한 이재원/신승희(John/Sara Lee) 부부 전도사는 당시 50-60명의 교인들을 헌신적으로 이끌었다(1994. 2 -1995. 3). 성장하는 영어예배부는 1994년 7월에 이르러 늘어나는 교인들로 인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1995년 여름에는 3명의 대학생이 하기 단기선교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주일 아침 성인 성경공부

매주일 아침 예배 전에 성인들을 위한 강의식 성경공부가 한 시간씩 목사나 전도사의 인도로 진행이 되었다. 초기에는 채위 목사가 성경공부반을 인도하다가, 이후 박성진 목사(1987)와 안재웅 전도사(1988-1989)가 인도하였다. 1990년 1월에 안재웅 전도사가 홍콩의 Urban Rural Mission을 위해 떠나게 되면서 전회원 전도사와 김종일 목사가 인도하였으나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대개 장년 및 노년층 교우들이 꾸준히 참석했으나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고 그 수도 늘지는 않았다.

전교인 여름수양회의 전통 계승

매년 8월에 있었던 보스톤한인교회의 전교인 여름수양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여하여 신앙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찬양 등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자리였다. 교회당 밖에서 교역자와 모든 제직 및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긴밀한 유대감과 친교를 나누었던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하면서 보스톤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중요 연례행사가 되어갔다. 보통 연인원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던 전교인 여름수양회 참가비는 대개 어른 1인당 \$30, 학생 \$20, 3-13세 \$10 이었고, Grotonwood 수양관, Gordon College, Endicott College 등에서 수양회를 가졌기 때문에 각자



영어예배부 (1993) 김종일 담당목사(앞줄 왼쪽)

11. 위원장 이일영 장로, 위원 장로대표 김문소, 변화경, 집사대표 강상철, 김경애, 조순래, 평신도 대표 Edward Im.
12. 1993년 10월 노회의 Rev. Bueschell을 통해 청빙 절차상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사례금을 미국장로교 기준에 맞게 조정할 것과 직책은 영어예배부 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사역에 동참할 부목사로 초빙해야 하는 것이었다.

sleeping bag을 가지고 가야만 하였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여름수양회는 사경회 또는 부흥회가 아닌 상당히 신학적이고 학구적인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 및 비교론, 한국 이민교회의 이해와 방향 설정, 신앙과 공동체 등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강사를 초청하여 1박 2일로 가지곤 하였다. 새로 시무를 시작한 채위 목사가 강사였던 1987년 전교인 여름수양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약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주제강의 이외에도 박성진 목사의 구약성서 이해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변화경 장로가 인도하는 ‘나는 불입니다’ 라는 Camp Fire도 있었다. 1988년 전교인 여름수양회에서는 Ron Chu 교수(프린스턴신학교)가 21세기를 향한 한국 이민교회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고, 황유복 교수(북경민족대학)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및 한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특히 1992년 LA 인종폭동이 일어난 후 가진 전교인 여름수양회에서는 ‘한국 이민교회의 역할과 인종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민교회의 자기확인고 더불어 시대적 요청에 따른 인종문제 화해의 역군이 되는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하며 모색하였다.



전교인 여름수양회 (1994)
Endicott College (Beverly, MA)

전교인 여름수양회(1987-1994)			
날 짜	강 사	주 제	장 소
제8회 1987. 8. 29-30.	채위 목사 박성진 목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화	Grotonwood 수양관
제9회 1988. 8. 20-21.	Ronald Chu 교수 황유복 교수 안재웅 전도사 전희원 전도사	21세기를 향한 한국 이민교회 부제: 이민2세를 위한 교회,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한국의 통일 문제	Grotonwood 수양관
제10회 1989. 8.	이종성 목사	그리스도교의 기본진리를 배우자	Grotonwood 수양관
제11회 1990. 8. 18-19.	김하태 목사 최종식 목사	교회생활의 활성화 부제: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다시 생각해 보 는 기독교, 각 종교간의 대화, 교회 활성화 Workshops	Grotonwood 수양관
제12회 1991. 8. 10-11.	정재식 교수 이철 전도사 김준식 전도사 전희원 전도사	한국문화 전통과 기독교 부제: 전통과 신앙, 전통과 현대사회, 성경형 성과 영감설, 한국 개신교 초기의 한국인의 기독교 이해	Gordon College
제13회 1992. 8. 8-9.	정인경 목사 이은주 전도사 정재식 교수 이철 전도사	한국 이민교회의 역할과 인종문제 부제: 한국 이민교회의 역사와 인종문제, 인 디언들의 관점에서 본 아메리카 500년사, 지 구촌의 삶을 생각하며, 다문화 사회에서 성경 을 보는 눈	Endicott College
제14회 1993. 8. 7-8.	임순만 목사 이은주 전도사 김종일 목사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부제: 천주교와 천민계층, 개신교와 소외계층, 한국의 여전도회 운동, 삶을 새롭게	Gordon College
제15회 1994. 8. 6-7.	박원호 목사 김종일 목사	신앙의 성숙과 교회공동체의 역할 부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어떻게 성 장하는가?, 신앙의 성장과 교회공동체의 역할	Endicott College

▣ 제직수련회를 통한 평신도 지도자 교육

매년 8월에 가지는 전교인 여름수양회와 함께 보스톤한인교회의 중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한 제직수련회는 매년 1월 토요일 하루를 모든 제직이 함께 모여 제직으로서의 자세, 임무와 책임, 알아야 할 보스톤한인교회 규칙과 장로교 조직과 역사, 장로교 규칙 등을 배우고 초청강사의 주제강의와 그룹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였다. 1980년 홍근수 담임목사 때부터 시작된 제직수련회는 보통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순서가 진행되었는데, 거의 모든 제직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제직수련회의 참가자들은 목회자, 당회원, 집사, 권사, 성경공부 구역장, 성가대 임원, 여선교회 임원, 공천위원, 교육부 지도자, 교회 사무직원들이었다. 원활한 수련회 진행을 위해 제직수련회가 있기 전에 제직들이 읽어야 할 ‘제직핸드북’이 준비되어 배포되었다. 주로 뉴턴에 소재한 앤도버 뉴턴신학교에서 제직수련회를 가졌었는데, 1994년부터는 본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제직수련회 (1994)

1988년 제직수련회는 채위 목사 시무 후 첫 번째 갖는 모임이었다. “목시문학 사상, 교회성장의 요소”란 주제로 열린 이날 수련회에는 대부분의 제직들이(제직55명 참여, 97%)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1995년에는 제직수련회가 특별사경회 때로 연기되어 특별사경회 마지막 날 순서로 함께 진행되었다. 채위 목사 은퇴 후 청빙과정 동안 사역했던 김종일 임시목사의 지도로 선교위원회, 청년부와 제직회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는데, 행사 준비를 위하여 4주간에 걸쳐 매 토요일 새벽기도를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장로 15명, 집사 40명, 권사 9명 등 총 64명의 제직들이 봉사하고 있었다.

제직수련회(1987-1995)			
연도	강사	주제	장소
1988	채위 목사	목시문학사상, 교회성장의 요소	Andover Newton Theological Seminary
1989	유효근 목사 전인재 선생 안재웅 전도사	배우고 위하는 교회 부제: 장로교의 구조와 정책, 장로교회의 사회적 관심, 한국의 민중신앙	Grotonwood 수양관
1990	유제선 목사	교회의 성장이란? 부제: 교직의 임무와 목회 실제, 교회를 성장케 하는 제직의 자세	Andover Newton Theological Seminary
1991	고인호 목사	나를 보내소서 부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직분(장로, 집사)이란 무엇인가? 교회 섬기는 제직의 자세	Andover Newton Theological Seminary
1992	조덕현 목사	신실한 제직 되게 하소서 부제: 교회에 대한 정의, 제직에 대한 정의, 제직 실무의 문제점들	Andover Newton Theological Seminary
1993	유태영 목사	정직한 신앙생활 부제: 정직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제직의 성실성, 정직한 제직의 실제 문제들	Andover Newton Theological Seminary
1994	천방욱 목사	올바르게 섬기는 제직 부제: 미국장로교 헌법	보스톤한인교회
1995	고영근 목사 김종일 목사	사랑으로 섬기는 제직 부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충성된 일꾼이 되자, 청지기의 자세와 책임	보스톤한인교회

■ 선교위원회와 각 부서의 선교 사역 활동

1985년부터 1995년 초까지의 보스톤한인교회의 선교사역은 직접적인 선교활동보다는 간접적인 선교 지원으로 노회 및 여러 선교기관 및 선교사들에게 활동선교비를 보조하는 협력선교의 형태였다. 선교위원회 예산 대부분이 총회에 보내는 선교헌금이었는데, 직접 선교에 사용되는 재정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봉사 형태의 선교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교회 각 부서들은 선교위원회의 예산에서 보조를 받는 형태가 아닌 독자적인 선교기금 모금활동과 규모에 따라 선교 및 사역 활동을 계속하였다. 중고등부는 이웃을 돕는 기금 모금을 위해 Walk for Hunger, Spoon Decoration에 참여하였고, 집사회의 협조를 받아 Easter Basket을 만들어 불우한 아동들에게 전달하였다. 여선교회, 대학생부, 청년부에서는 점심식사 판매, 바자회 등을 통한 선교모금으로 자체적인 선교사역 활동을 계속하였다.

1995년까지의 협력선교 활동으로 도운 기관들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Place of Promise (Dorchester, MA): Coffee House운영, Community nursing ministry, residential program과 local church bridge, community health care training, local church training 지원
- 두레방 사역 보조(경기도 의정부시): 미군기지촌 여성공동체를 위하여 상담, 공동식사, 영어, 한국어교실, 요리, 도자기, 뜨개질교실, 두레방 빵제조, 두레방 놀이방과 공부방 등을 운영.
- 한국 목민선교회(서울시 강서구): 국내선교, 문서선교, 민족교회운영, 의로운 일하는 단체성원, 고난 받는 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장학금 지급, 병원선교, 무기수에 성경 기증, 전국교역자 수련회 등을 운영.
- 세계선교회(대구 동신교회내)
- Italian Home(보스톤지역 불우아를 위한 단체)
- Bridgewater Christian Fellowship: Bridgewater 대학 교목인 손창희 목사 사역 지원
- Emmanuel Gospel Center: Boston 시내 Spanish, Taiwanese 등 외국인 대상 선교활동
- Native American Indian Mission Network
- Roxbury 교회 재건 보조
- Presbyterians Pro-Life: 장로교 내 낙태 반대 운동 기금 보조
- 한국 개척 교회를 위한 기금 보조

1984년에 시작된 선원선교(Korean Seaman's Ministry, 담당 최원중 목사)는 채위 목사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처음에는 홍근수 목사를 지부장으로 하는 보스톤 지부를 설립하였고, 후에 조준호 장로가 보스톤 지부장을 이어받고, 고문에 채위 목사가 참여하여 꾸준히 원양선원선교를 지원하였다.

그러던 중 1993년 당회에서는 교회 내 선교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범교회적으로 선교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전 부서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선원선교 사역자 최원중 목사 보스톤 방문 (1991) 왼쪽부터 채위 목사, 김영경 장로(선교위원장), 최원중 목사, 조준호 장로(보스톤 지부장)

■ 선교세미나와 아프리카 선교 지원

꾸준히 진행되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선교세미나는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인들 각자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와 본인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제공하였다.

1994년 5월에 가진 선교세미나는 구춘서 목사를 주제 강사로, '현대 기독교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 약 3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하였다. 변화하는 현대사회, 빈부차, 동성연애, 범죄와 마약, automation의 극대화, interracial marriage, 젊은 세대의 역할의 변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와 어떻게 그 역할들을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제시와 토의가 있었다. 그 해 10월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10여 년 간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김승중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아프리카 선교보고를 중심으로 '선교에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김승중 목사는 아프리카 선교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교를 수행할 때 얼마나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증거하

였다. 많은 교인들이 관심 있게 참여했고, 선교의 기본적인 정의, 준비 과정, 구체적인 활동과 방향 등에 대한 질문과 김승중 목사와의 직접적인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 해 11월 당회에서는 지난 전교인 여름수양회의 주제 강사였던 박원호 목사가 나이로비에서 직접 체험한 나이로비 신학대학의 어려운 형편을 소개받고, 이 신학교에 소액의 선교비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 평양 제3병원 설립을 돕는 선교사역

1990년대 초 디트로이트에 본부를 둔 기독교의료선교회(The Christian Association for Medical Mission, CAMM)는 평양 제3병원 설립 사업을 돕기 위해서 미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교회의 이일영 장로는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노력했는데, 1991년 1월에 디트로이트의 박세록 장로를 강사로 초빙하여 평양 제3병원 설립에 대한 보고 모임을 가졌고, 4월에는 보스턴 지역 대표로 이강필 집사, 박여호수아 목사(퀸시영생장로교회 창립목사)와 함께 전국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5월에는 지부 결성 모임(장소 Yen's Wok)에 교인 20여 명과 함께 참석하는 등 기독교의료선교회 보스턴 지회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해 6월 당회에서는 Medical Mission in North Korea에 협조하기로 결의하였고(1991. 6), 9월에는 CAMM 4차 평양 방문팀에 이일영 장로가 보스턴 지역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평양 제3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이 전개되었다(콘서트, 골프대회 등). 기금마련 특별 콘서트 'A Time for Healings'(1994. 4. 24. 장소: St. Paul Church, Brookline)로 모금된 \$13,000의 기금이 CAMM에 보내졌고, 골프대회 등을 통해 모금된 기금들이 CAMM으로 계속 보내졌다. 이 후에도 북한선교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1997년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남북한 돕기 현금주일로 정하여 조국헌금 및 북한선교헌금의 이름으로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여성교회의 교회 내 사역과 선교협력

여성교회는 교회 내 사역과 외부 사역을 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과 체제를 갖추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마르다와 같이 교회 내 살림을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해 나갔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고문, 활동부서는 봉사부, 친선부, 문화부, 선교부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선교부는 당회의 선교위원회와 연결되어 자체적으로 국내외 선교사역을 벌여 나갔다.

특히 5월 어머니주일에 열리는 구역별 찬송가 경연대회는 준비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가 여성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전 교회적인 큰 연례행사였다.



여성교회 주관 어머니주일 구역별 찬송가 경연대회 가나안 구역(1990)



어머니주일 구역별 찬송가 경연대회 심사위원(1990) 왼쪽부터 채위 목사, 변화경 장로, 전희원 전도사

여성교회 사역활동	
여성교회 수양회	강사: 김영 목사, 주제: '기도-추구'(1987)
교양강좌	강사: 이양자, 주제 '영양과 건강'(1987) 강사: 강길원 집사, 주제 '30대이후 여성건강관리'(1988)
선교세미나	강사: 김영 목사, 주제: '한국여성교회의 현황'(1990) 강사: 칠레 구스타브 허원구 목사 주제: '칠레에서의 의료선교사업'(1990)
국내외 선교사업	Kenya 신학생 보조사업(4년간) 맨하탄 '라함의 집' 선교센터 보조 Brookline Shelter 방문, 음식대접 및 봉사 Brookline Police Department 지원 송죽원(서울 서대문구 소재 보육원) 지원 KPW 동북대회 지역 불우여성 돕기
보스턴노회, 대회 및 총회 참석	한인교회 여성교회 동북지역 연합수련회(김경애 집사, 프린스턴신학교, 1988) 미국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 동북대회 여성교회 총회(김계숙 집사, 1989) Presbyterian Woman in the Synod of Northeast Triennial Gathering(김경애, 송미자 집사, Albany, NY 1992) Presbyterian Woman of Boston Presbytery(박기춘, 최희숙 집사, 1994)
그 외 선교사업	교회 기금마련 바자회 어머니주일 구역별 찬송가 경연대회 보스턴 지역 경로잔치 교회특별행사 다과 및 만찬준비 교역자 협의회 대접 병환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에게 위문카드 발송 영아부 관리, 비품, 간식, babysitting 관리 청년대학생 환영만찬

■ **집사회의 다양한 봉사 사역**

미국장로교단에 가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안수집사가 된 24명의 집사들이 1986년부터 집사회 활동을 전개했는데, 초대 집사회장인 조요운 집사는 총무, 회계, 봉사, 구제, 친교, 출판부장들과 함께 각 부서 별로 여러 사역을 펼쳐 나갔다. 집사회는 매년 새해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했고, 집사회 모임을 통해 교회 내외의 행사 진행을 점검하며 교회의 핵심부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집사회 활동	
부서	활동 내역
구제부	부스러기 한인 선교회 지원, 수재민 및 지진 재난자 구제헌금, 노숙자 보조,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활절 바구니 제작, 새로 이민 온 교우를 위해 살림 도구 수집, 추수감사절에 노숙자를 위해 중고등부와 같이 빵 만들기, 교우 중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baby shower, 한국의 불우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 교회' 지원, 신학생 장학금 지원, 중고등부 선교 프로그램 (부활절 바구니, 추수감사절 터키박스, 성탄절 산타 키친 등) 지원, Brookline Food Pantry에 캔 음식 기증
봉사부	어머니주일 특별 오찬 대접, 교회 대청소, babysitting
친교부	전교인 야외 예배 때 운동경기 진행, 바다낚시대회, 골프대회, 탁구대회, 구역대항 친선 테니스 대회, 한인연합운동회 참가, 송년회, 교인 위원회와 더불어 여름수양회를 진행.
출판부	교회달력, 뉴스레터 '소식', 필그림 발간

어머니주일에는 60세 이상의 어머니들께 특별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고, 특히 남자 집사들은 직접 요리하여 전교인에게 오찬을 대접했는데, 이 아름다운 전통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보스톤지역 한인사회 친목 도모를 위해 보스톤에 있는 4개 교회(본 교회, 보스톤장로교회, 북부보스톤한인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가 모여 진행된 탁구대회에 참가하였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매주 주보를 발송하는 일도 하였다.

1995년부터 집사회의 봉사부는 예배위원회와, 구제부는 선교위원회와, 친교부는 교인위원회와 그리고 출판부는 교육위원회와 연결이 되어 당회 위원회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다.

1986년 24명으로 시작된 집사회는 1994년에는 시무 37명, 휴무 4명으로 총 41명이 되었다.

■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와 교역자협의회 설립에 기여**

1970년대 후반기부터 뉴잉글랜드 지역(Connecticut,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Rhode Island, Vermont)의 교회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 봄, 처음으로 보스톤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가 함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뉴잉글랜드지역 '평신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평신도협의회는 교회간의 협조 및 합동행사를 수년간 주관했는데, 주로 부활절 연합예배, 체육대회 및 전도/부흥회, 회지 발간 등이었다. 본 교회의 김갑성 장로는 당회 대표로서, 협의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88년 8월 뉴잉글랜드 지역 내의 모든 개신교회가 유기적이고 능률적인 기관을 만들기 위해 각 교회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되는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를 만들기로 결정하자 평신도협의회는 자진 해산하여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에 협조하기로 결의하였다. 1988년 10월 뉴잉글랜드 지역의 18개 교회가 Lexington의 성요한연합감리교회에 모여 한인교회 간의 친선과 연합 사업 및 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어 회칙을 정했고, 회장단 및 실행위원을 선출하였다.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초기 회장단 및 실행위원(1988년)

회장: 이상호 목사(한빛연합감리교회)
 부회장: 전덕영 목사(보스톤장로교회), 김갑성 장로(보스톤한인교회)
 총무: 전중현 목사(프로비던스한인교회)
 서기: 김태환 목사(케임브리지한인교회)
 실행위원: 정경조 목사(침례교), 채위 목사(장로교), 김원업 장로(연합감리교), 이창주 목사(감리교)

채위 목사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실행위원으로, 창립위원이었던 김갑성 장로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994년부터는 김문소 장로가 대표로 참여하였다.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는 일 년 후 회원교회가 25개로 늘어났고, 여러 교파간의 협력, 회원 교역자와 평신도간의 소통, 회원교회 주소록 발간, 부활절 연합예배, 청소년 하기수련회, 연합전도집회, 찬송가 경연대회 등을 주관하는 등 현재까지 지역 한인 교회들의 연합 활동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1985년에는 뉴잉글랜드지역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모든 개신교회의 교역자와 사모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지도적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뉴잉글랜드교역자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 협의회는 현재까지도 지역교회와 한인사회를 위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서 채위 목사(1989), 이영길 현 담임목사(2003)가 교역자협의회 사역에 참여하였다.

■ **전교인 사진주소록 발간**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4월 처음으로 전교인 사진주소록이 교인위원회(위원장 최연일 장로) 주관으로 외부 전문사진사 및 출판사(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Church Directory Service)를 고용하여 28페이지 color판으로 출간이 되었다. 약 120여 가정의 가족사진과 함께 교역자, 성가대, 교육위원회, 성경공부 구역, 간단한 교회 역사와 주요행사 사진, 주소록을 실어 전교인에게 배부하였으며, 현재까지 교회역사에 중요한 사료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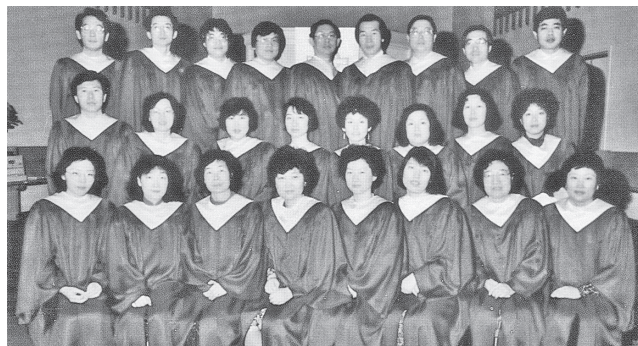
전교인 사진주소록 중에서 (1989)

■ 성가대 찬양사역과 다방면의 활동



한인회 주최 음악회 공연 후 성가대 (MIT, 198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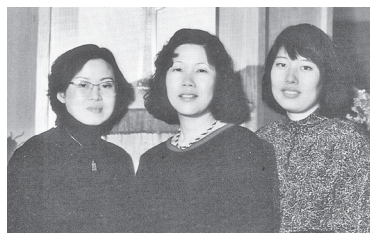
1982년부터 성가대 지휘를 맡은 변화경 장로의 예배음악 사역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휘자를 성심으로 돕는 여러 반주자들, 성가대원 및 임원들의 열성으로 성가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성숙한 찬양을 드렸다. 뛰어난 음악인들이 많이 유학을 오는 보스턴의 이점을 살려 성가대는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미 피아니스트로 최고의 수준에 있는 변화경 장로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고스란히 찬양사역에 나타났고, 신앙 간증이 더해진 음악은 보스턴한인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으로 승화되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자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도와 반주자로서 성가대에 봉사했으며, 국제무대에서 수상 경력을 가진 솔로리스트들이 팀을 이뤄 예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찬양을 올리며 예배의 품격을 높였다. 반주자 겸 오르가니스트로는 이미혜, 이성심, 백혜선 등이 있고, 독창자로는 이재숙, 이정일, 광현주, 조유미 등이 있다.



성가대원 (1988)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지휘자 변화경 장로의 제자로 1989년부터 5년간 반주를 맡았다.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차이코프스키 콩쿨에 입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1994). 만 29세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 임용되어 오랜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행을 택했고, 2005년 10여 년 간의 서울대 교수직을 마감하고 전문연주자의 길을 걷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현재는 뉴욕에 거주하며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음악원 교수로도 재직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찬양사역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성가대는 찬양사역 외에도 교회 외부의 한인교회 연합성가대, 한인회 주최 음악회 등 한인들을 위한 관련행사와 미국장로교 내의 타교회와의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왼쪽부터 이성심, 변화경, 백혜선

성가대 교회 외부활동(1987-1994)

- 보스턴 노회 행사 및 목사 위임예배에서 찬양
- Needham 장로교회와의 교환예배에서 찬양
- Roxbury교회 목사 위임예배에서 찬양
- 뉴잉글랜드 연합부흥회에서 찬양
- 미국장로교 보스턴노회에서 찬양
- 보스턴지역 연합성가대 참여
-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와의 성탄 전야 촛불예배 연합 찬양
- 한인회 주최 음악회 참여(MIT Kresge Hall)

■ 방송사역의 체계화 추진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방송사역원들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오래 전에 건축된 교회당에 방송실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본당 앞부분의 작은 대기실을 개조하여 방송사역원들이 음향기기, 스피커를 구입 설치하여 예배를 위한 음향관리를 하게 되었다. 방송실에서는 예배 상황을 보고 음향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초기 방송실 요원들의 고충이 컸다. 여러 교우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방송실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어 나갔다.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방송사역원으로 봉사한 이들로 김문기, 김의환, 김형준, 안공환, 우희중, 윤의준, 한기훈 등이 있다.

■ 교인 신앙문예지 필그림 발간

1987년부터 매년 간행된 '필그림'은 집사회 출판부에서 주관하여 발행하는 교인 신앙/문예지였다. 일년에 일회씩 발행되었으나, 1988년과 1990년에는 두 번씩 발행되었고 1992년에는 발행되지 않았다.

필그림 13호(1987. 12)	출판부장 한기훈 집사
필그림 14호(1988. 8)	출판부장 김현구 집사
필그림 15호(1988. 12)	출판부장 김현구 집사
필그림 16호(1989. 9)	출판부장 정귀영 집사 특집호 Youth Group을 위한 Young People's Section
필그림 17호 (1990. 6)	출판부장 김한나 집사, 주제: 가정
필그림 18호 (1990.12)	출판부장 김한나 집사
필그림 19호 (1991. 12)	출판부장 김현구 집사
필그림 20호 (1993. 11)	출판부장 박영철 집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호'

1993년 간행된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 '필그림'은 특별히 보스턴한인교회의 4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교회역사에 관계된 사진과 원고들을 엮어 발행되었다. 96페이지에 달하는 필그림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교회의 발자취' 부분은 백린 장로의 '뉴잉글랜드한인과 보스턴한인교회', 김정선 장로의 '보스턴한인학교 현황 및 역사', 김갑성/김성빈/최연일/김문소 장로의 '구역성경공부 역사' 등의 글들이 실리면서 교회 역사의 상당 부분을 되짚어 보고 있어 보스턴한인교회의 귀한 역사 자료로 남게 되었다.



필그림 (1987-1993)

■ 보스턴한인교회 역사 편찬을 위한 노력

보스턴한인교회의 역사를 책으로 남기려는 노력은 창립 20주년 때부터 있었다. 창립 25주년 때 최시원 교우가 5장 분량의 간략한 ‘보스턴한인교회 연혁’(1953-1979)을 정리하여 직접 손으로 쓴 기록을 남겼으나 출판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후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발간된 필그림 11호(1984)에 실린 “보스턴한인교회 초기 15년사”(백린 편집)와 간추린 30년 연혁이 처음 공식적인 교회역사로 남겨지게 되었다. 10년 후 창립 40주년 필그림 특집호에는 28페이지에 달하는 백린 장로의 ‘뉴잉글랜드 한인과 보스턴한인교회’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백린 장로는 보스턴한인교회의 40년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기술하였다. 초기 한미외교관계를 비롯하여 보스턴의 한인 인맥, 한인사회의 역사적 배경 등과 함께 비교적 자세히 기술한 보스턴한인교회의 창립 과정 및 간략한 교회역사가 흥근수 목사 시기까지 기술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무척 귀한 자료로 남아 있다. 부록으로는 ‘보스턴한인교회는 미주에서 7번째 교회인가’를 다루면서 미국 전체의 한인교회사에 비춰본 본 교회의 위치를 규명하고 있다. 역사학자 백린 장로가 쓴 보스턴한인교회의 간략한 역사는 초기 순례자들의 발자취에서부터 이민교회의 성장까지 가감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사료로 쓰여지고 있다.

1975년 보스턴한인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백린 장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1951년 1.4후퇴 때 이조실록 등 규장각 도서를 부산까지 피난시키고 보존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969년 도미하여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에서 한국학도서관 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고대 및 근대사에 대해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1991년과 1992년에 당회 소속 40주년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2004년 백린 장로는 뉴잉글랜드 미주한인이민 백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뉴잉글랜드 한인사’의 편집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뉴잉글랜드의 역사 및 한인이민사, 한인회 역사 부분을 기술했고, 현재까지도 보스턴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많은 글을 뉴잉글랜드 지역 신문에 게재하였다.

■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합병 제안

1990년대 초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는 미국 주요도시의 교회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교적 젊은층의 교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 교외에 터를 잡으면서 도심지에 위치한 교회의 연령층은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교회 일꾼의 부족과 교인수의 감소는 심각한 재정난까지 불러오는 상황이 되었다. 많은 도심지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의 수입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는 교회 건물 대여로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담임목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건물 관리 및 임대료에 치우치게 되면서, 목회 및 사역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교회 형편은 더 위축되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당시 주중에 사용하는 Pre-school을 포함, 30여 개의 단체에 교회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고, 주일날마저 오후 2시 이후에는 교회 내의 교실들을 외부에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보스턴한인교회는 예배 외의 건물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90년 은퇴를 앞두고 있던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페널 목사는 이러한 재정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스턴한인교회와의 합병을 제안하였다. 당회는 합병에 대한 연구를 소위원회(김문소, 김성빈, 김정선, 김창신, 한승희 장로)에 위촉하였고, 이후 재단이사회 대표(김창신 장로, 한승희 장로, 채위 목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페널 목사와 건물 사용 및 합병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였다. 그 결과 보

스턴한인교회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와의 합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1992. 3), 이를 통고하며 합병을 하지 않는 대신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재정난을 돕기 위해 월 \$1,000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신 주일날에는 교회당 건물을 외부에 대여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합병에 관련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위원회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건물의 실제 소유권은 미국장로교 노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교회 건물 관리보수를 위한 노력과 인수를 위한 준비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재정난이 계속되면서, 이를 돕기 위해 1986년 협동건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 대표로 김창신, 김성빈, 이일영 장로를 임명하고 물품들(피아노, 선풍기 등)을 기증하고 건물 보수에 재정적인 협조를 하였다. 1988년까지 모인 보스턴한인교회 건축헌금 총액은 \$151,744.49 이었고, 1989년에는 총액 \$167,758.18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1992년에는 교회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 장로)에 Building Facility Use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 조요윤, 김문소, 김현 장로를 임명하고 현 교회 건물을 인수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운영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1994년 3월에는 건물위원회(조요윤-위원장, 한승희, 김문소, 김현 장로)를 새로이 구성하여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건물위원회와 만나 보스턴한인교회의 영어예배부가 본당에서 7월부터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으며, 이를 노회 Board of Trustees의 자문을 받아 두 교회간에 건물 사용에 관한 Legal Agreement를 만들기로 하였다.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건물은 1961년 화재로 인해 본당예배 장소가 전소되어 재건축 되었다. 당시 개신교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라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교회 정면 가운데 높게 위치해 있었다. 1990년 11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와 합의하여 보스턴한인교회가 공사를 전담하여 강단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세웠다. 왼쪽은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Gospel pulpit)으로, 오른쪽은 말씀이 읽혀지는 강단(Lectern)으로 구분되었고, 성찬대를 중앙에 놓음으로써 현재와 같은 본당(Sanctuary)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1993년에는 교회 건물의 보수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에 장소 사용비 \$27,000 외에 보수 비용으로 \$30,000을 추가 지불하였다.

■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

창립 40주년 준비위원회¹³는 일 년간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시키면서 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였다. 40주년 기념세미나에 미국 NCCC 회장인 이승만 목사가 초청되어 ‘교회의 선교적 사명 및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으며(1993. 5. 15), 김록호 박사를 강사로 산업의료선교를 주제로 한 선교세미나도 개최하였다(1993. 10. 24). 추수감사주일 전날 있었던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에는 약 200여 명의 교인과 일반인들이 함께했는데, 변화경 장로의 지휘 아래 40여 명의 성가대원이 한 시간 반에 걸쳐 은혜로운 공연을 펼쳤다(1993. 11. 20).

13. 위원장 김문소, 부위원장 한승희, 위원 김갑성, 김성빈, 김영경, 김창신, 김형범, 백린, 변화경, 장현숙.



창립 40주년 기념예배 후 전교인 일동 (1993)

추수감사 주일에 가진 창립 40주년 기념예배에는 약 185명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축하했고, 예배 후 이어진 여선교회 주최 기념 오찬에는 전교인이 참석하여 축하오찬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창립 40주년 기념품으로 머그컵과 40주년 기념 필그림 특집호가 준비되어 참석한 전교인에게 선물로 주었다.

같은 해에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는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고(1993. 10. 16), 김종일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 교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였다.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 후 성가대 (1993. 11. 20.)

보스톤한인교회 간판 제작과 설치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와 보스톤한인교회는 Harvard Street 쪽에 한글로 된 교회 간판 설치에 합의를 보았으나(1988), 한 교회 건물에 두 개의 다른 교회 간판을 붙여 하는 브루클라인 타운의 방침에 따라 보스톤한인교회의 간판 설치 신청이 기각되어 그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1992년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브루클라인 타운의 청문회를 통과하였고(1992. 8. 6), 그 해 12월 김갑성 장로가 직접 글씨를 써서 각인하여 손수 제작한 교회 간판 제막식을 가질 수 있었다. 후에 김갑성 장로의 도움으로 보스톤한국학교 간판도 그 밑에 추가하여, 현재까지 교회 간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김갑성 장로가 손수 제작한 교회 간판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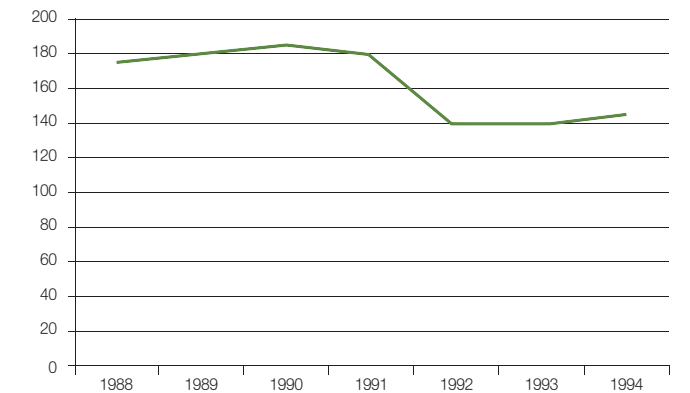
교회 성장의 둔화

보스톤한인교회는 보스톤노회로부터 Kneeland Awards 를 받은 바 있다(1991). 이는 정해진 기간 중 가장 교인 수가 많이 증가한 교회에 주어지는 상으로 소정의 상금도 함께 받는다. 1990년대 초기의 예배 참석 통계를 보면 교회 성장의 둔화 상태를 볼 수 있는데, 1990년에 180명을 넘어섰던 연간 평균 예배 참석자는 그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1992년에 이르러서는 연평균 140여 명이 예배에 참석했고, 이 추세는 채위 목사가 은퇴하는 1994년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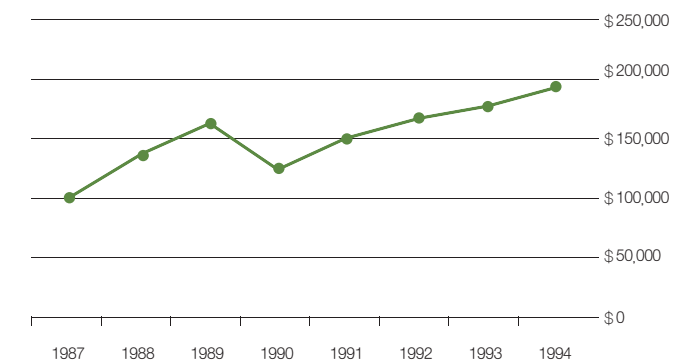
채위 목사 시절 교회 일반재정은 1987년 \$100,000 결산액에서 1994년 거의 두 배가 되는 \$200,000로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나, 실제 교회 운영자금에 부족할 때가 있어서, 1987년에는 \$6,000, 1989년에 \$20,000, 1990년에 \$40,000을 건축기금에서 빌려 쓰고 후에 갚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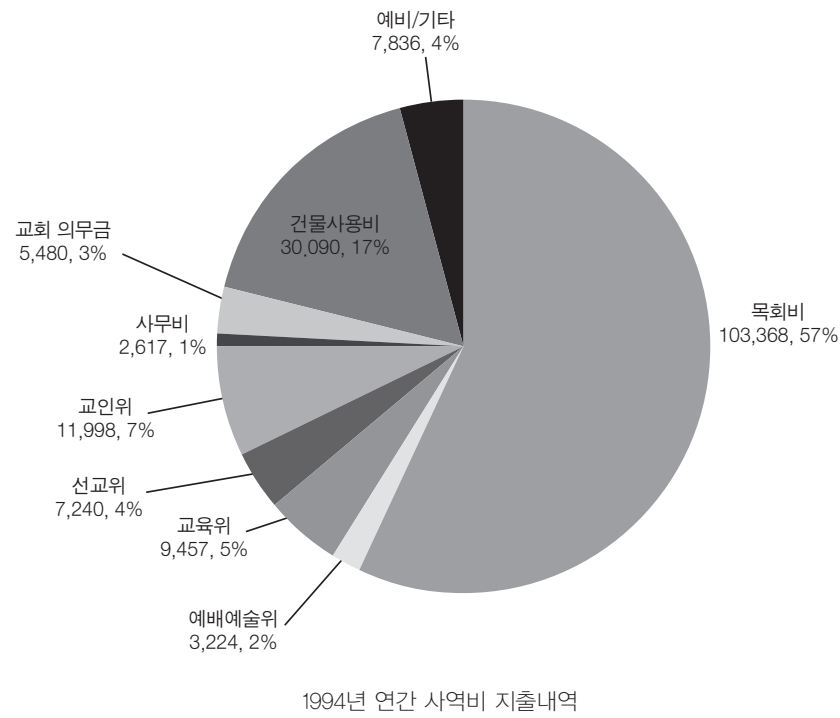
1994년의 연간 사역비 지출을 보면 목회비가 57%로서 가장 많고, 이는 1988년의 34%보다 약 23%가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건물 사용비는 17%로 1988년의 21%에 비해 감소되었다. 부서별로는 교인위원회가 7%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위원회와 선교위원회는 4~5%에 머물러 사역비 측면에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연평균 예배 참석



연간 결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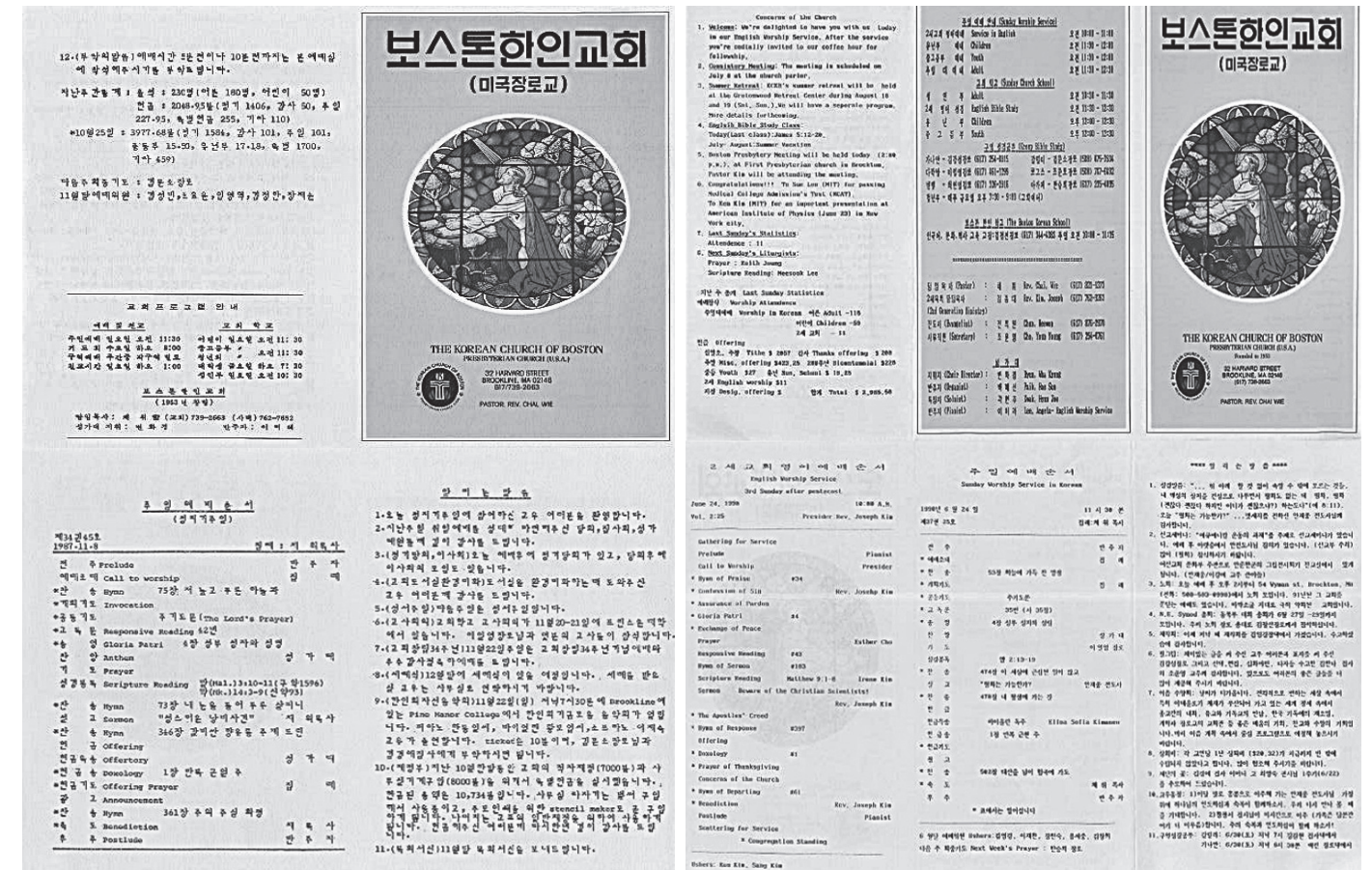




예배 순서의 변경과 새로운 주보 도안

1989년까지 한글타자기에 의존하여 완성되는 4면 주보가 사용되다가 1990년 1월부터 교회 모든 사무의 전산화가 시작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쇄물을 만들게 되어 새로운 주보가 등장하였다. 교회의 여러 사역에 편리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주보를 만들기 위해 당회는 주보 디자인 팀(채위 목사, 김종대 목사, 김정선 장로, 김문소 장로)에 위촉하여 1990년 초부터 Dot Matrix Printer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6면 주보를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새로 디자인된 주보는 영어회중 예배순서가 1면에 있었고, 주일예배 순서가 2면에 있었으며, 회중광고도 영어 회중과 한국어 회중을 위해 영어와 한글로 실려 있었다.

주일예배 순서는 현재의 순서와 몇 가지 달랐는데, 개회기도 다음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는 공동기도 순서가 들어가 있었다는 점과 설교 후에 헌금시간을 가졌던 점 등이다. 1991년 4월부터는 공동기도 순서에 주기도문 대신 '미국장로교의 간추린 신앙고백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4면 주보

1990년 6면 주보

채위 목사의 은퇴

여러 방면에서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교회의 활성화화를 위해 1993년 당회는 목회활성화 추진위원회(김성빈, 강길원, 한승희 장로, 1993. 7)를 구성하여 교회 활성화화를 모색할 것을 위촉하는 동시에 담임목사의 은퇴 준비를 함께 진행시켰다. 채위 목사는 본인의 은퇴 시기를 1995년 5월 31일로 할 것을 문서화하여 당회에 건의했고, 당회는 이를 보스톤노회 총무와 COM 회장에게 통보하면서 채위 목사의 은퇴를 확정 지었다. 목회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채위 목사의 은퇴 시기를 1994년 9월로 앞당기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여러 사항들을 채위 목사가 동의하는 합의를안을 통과시켰다(1993. 10).

합의안에 따르면 채위 목사는 은퇴 전 4개월간의 유급휴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은퇴 후에는 노회를 통한 보조비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채위 목사가 부동산을 처리할 시 그 손실은 교회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영문서류 Retirement Agreement에는 채위 목사, 당회서기 김성빈 장로, 노회 총무 B. Bueschell 목사가 서명하였다.





채위 목사 은퇴예배 및 축하연 (1994. 5. 29)

채위 목사는 1994년 5월 29일 은퇴 특별예배를 마지막으로 보스톤한인교회 담임목사 직에서 퇴임하였다. 담임목사의 은퇴예배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교회로서는 최초로 시행되었다.

채위 목사의 약력

채위 목사는 1928년생으로 한국신학대학(1953)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1955)을 거쳐 미국 유니온신학대학원에서 또 신학석사학위를 받았다(1960). 이듬해 귀국하여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1961) 한국에서 목회생활(서울효동장로교회 부목사, 성남장로교회 부목사)을 하며 대학강사(한국신학교, 수도사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등)와 신문 논설위원 등을 지내다가 1976년 16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여 데이튼한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목회에 전념하였다. 3년 후인 1979년 6월에 오하이오 저맨타운의 독일계 미국교회로 사역을 옮겼다가 1982년 11월부터 델라웨어 주 뉴캐슬노회의 전도목사로 New Hope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였다. 1984년 11월부터는 오렌지한인연합장로교회를 맡아 사역하다 1986년 8월부터는 미국장로교 산가브리엘노회에 속한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사역하였다. 1987년 8월에 홍근수 목사의 뒤를 이어 보스톤한인교회의 14대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1994년 9월까지 7년여를 사역하고 은퇴하였다.

채위 목사는 홍근수 목사와 마찬가지로 민중신학적 사고에서 사역을 한 것이 서로 비슷하다.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강조하여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추구하는 데 사역의 초점을 두었다. 설교 내용 또한 당시의 민감한 주요 이슈들(문익환 목사 방북, 한반도 통일문제, 한국의 청문회 관련 이슈, 한인들의 흑인과의 갈등요소 등)을 강단에서 거리낌없이 과감하게 표현했고,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해설을 많이 다루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전임강사 시절에 동 대학교 신과대학장 지동식 교수와 총장 백낙준 박사의 후원으로 20여 권의 신학서적과 성경주석(Interpreter's Bible) 번역에 참여했던 채위 목사는 저서 “복음과 상황” (보스톤 강단 4집)에서 “연세신과대학 전임강사 시절부터 시작된 성경주석, 강해, 신학서적 번역작업이 현재 자신의 신학적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채위 목사는 많은 신학서적과 주석을 번역하였고 현재 우리가 예

배 때 쓰고 있는 미국장로교 신앙고백 1, 2, 3도 그 중의 하나이다.

채위 목사의 저서 및 발표된 소논문 그리고 번역서적

- 누가복음서, 한국 개신교 선교 70주년 신약주석
- 요한계시록 주석, 감리교 총대원 발행
- 무의식과 계시(칼 융의 인간 심리구조를 중심으로)(논문), 기독교 사상
- 공관복음서 연구(6회 연재), 기독교 사상지
- 현대신학의 동향 누가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저서),
- 성서와 현대인, 행동하는 크리스찬 특집호 (논문)
- 그리스도와와의 시간, 오스카 쿨만 저 (번역서)
- 아가페와 에로스(1부), 니그렌 저 (번역서)
- 복음의 세속적 의미, 반 뷰렌저 저 (번역서)
- 역사적 예수의 미래, 레안더 켄 저 (번역서)
- 마태의 선교론, 한스 로이디 웨버 저 (번역서)
- 그리스도의 죽음, 존 낙스 저 (번역서)
- 역사와 해석학: 현대신학의 동향, 칼 부라텐 저 (번역서)
- 신학과 기독교 교육, 슈레이어 저 (번역서)

채위 목사는 은퇴 후 Manchester N.H.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동안 목회를 계속하다가 1999년 뇌출혈로 쓰러져 California로 이주하였다. 이주 후 줄곧 nursing home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4년 1월 7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채위 목사의 장례예배에는 이영길 담임목사가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설교말씀을 전하였다.

김종일 목사 임시목회자로 시무 1994-1995

1994년 5월에 채위 목사가 은퇴 결정을 한 후, 당회는 새 담임목사가 청빙될 때까지 파트타임 임시목회자(Interim Pastor)로 김종일 목사를 선출하고 보스톤노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종일 목사는 1993년 1월부터 영어예배부 사역을 맡았다가 1994년 1월 사임했었는데, 다시 임시목회자로서 6월부터 시작하여 1995년 6월 이영길 목사가 시무하기 전까지 목회를 하였다. 김종일 목사는 목회기간 동안 설교에 중점을 두어 교인들에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 것과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것, 자발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성경공부, 구역모임, 심방, 교회행사 참여 등을 강조하여 새로운 담임목사를 기다리는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 외에도 일 년 동안 교회 건물 관리 및 인수관계 토론을 당회원,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및 노회원들과 함께 진행해 나갔고, 전 교인 여름수양회,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환영만찬, 교사수련회, 선교세미나,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성가대초청음악회 등 교회 행사들이 잘 진행되도록 힘썼다. 1994년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는 특별히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및 브라질복음교회와 연합으로 드렸는데, 이러한 교회행사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기다리며 영적 갈증과 불안함을 호소하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였다.

김종일 임시목사는 1995년 이영길 담임목사 시무 이후 보스톤 여러 교회의 guest preaching을 하며 봉사하다 1997년 Sacramento 한빛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이후 미주 예수교한인장로회 서북노회장과 총회 기획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대외활동도 하였다. 2006년 남대구 효목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 현재 다채로운 사회봉사활동(무료급식, 노인대학, 문화교실 등)을 주관함은 물론 매주일 라디오 방송설교(기독교 방송)를 하고 있으며, '말씀과 함께'(미국장로교회 총회 성경교재) 집필위원을 맡아 활발하게 복음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아들 동광(Paul)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신학에 뜻을 두어 독일유학 후 본 교회의 undercare로 미국장로교단 목사과정을 밟고 있다.

■ 사역자 및 봉사자 명단 1986. 12-1995. 05

목회자	1987-1994 1989-1991 1985-1989 1994-1995	채위 목사 김종대 목사(2세영어예배부목사/영어성경공부) Rev. Robert Klein(교육목사) 김종일 목사(임시목회자)
당회	1990	당회서기 조준호, 교인위 최연일, 예배예술위 김문소, 교육위 이일영, 선교위 김영경, 재정위 김현, 성가대장 및 노회CDC 한승희, 성가대지휘 변화경, 교회협의회 대표 김갑성, 한인학교장 김정선
	1991	당회서기 조준호(노회 대표), 교인위 조요윤, 김내도(노회 대표), 예배예술위 김성빈, 교육위 김정선(한인학교장 겸임), 선교위 김영경, 재정위 김현, 성가대장 한승희, 성가대지휘 변화경, 교회협의회 대표 김갑성, 2세교회 담당 한승희, 창립4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사진주소록: 조요윤, 최연일, 조준호, 보스톤 강단: 김성빈, 김영경, 김형범, 역사편찬위: 백린(위원장), 김갑성, 김문소, 김창신, 이일영, 최연일), 한인학교 이사장 백린
	1992	당회서기 김성빈, 노회 대표 김성빈, 조요윤, 교육위 김문소, 교인위 최연일, 선교위 김영경, 이일영, 예배예술위 김갑성, 재정위 조요윤, 성가대장 한승희, 성가대 지휘 변화경, 영어예배부 김문소, 교회협의회 대표 김갑성, 재단이사장 김창신, 재산관리위 김현, 한인학교장 김정선, 보스톤 강단 출판위 김성빈, 김영경, 김형범, 창립40주년행사 준비위 김내도, 역사편찬위 백린
	1993	당회서기 김성빈, 노회 대표 김성빈, 김현, 김창신, 교인위 최연일, 예배예술위 김형범, 교육위 김문소, 선교위 이일영, 강길원, 재정감사 최연일, 재정위 조준호, 성가대장 한승희, 성가대 지휘 변화경, 영어예배부 김문소, 교회협의회 대표 김갑성, 재단이사장 김창신, 재산관리위 김현, 한인학교장 김정선, 창립40주년기념 행사 준비위 김문소, 노회 대표 김현, 출판자문위 백린, 김성빈, 김형범
	1994	당회서기 및 노회 대표 한승희, 교인위 최연일, 예배예술위 김형범, 교육위 김문소, 선교위 강길원, 재정위 조준호, 강성유(부), 성가대장 한승희, 성가대 지휘 변화경, 교회협의회 대표 김갑성, 재단이사장 조요윤

장로	1988 1989 1990 1991 1993 1994	안수 김영경, 김현 신임직 김정선 안수 김내도, 백린 안수 조요윤 안수 강길원, 김형범 안수 강성유
권사	1990 1992 1994	임직 김남수(명예권사), 백은숙, 박연교, 이상구 임직 나시옥, 신좌경, 최선경 임직 신경자
집사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안수 강길원, 김현구, 김형범, 노효성, 변용구, 신동욱, 원덕수 안수 김문기, 나시옥, 문영도, 이우조, 이재환, 황광서 안수 강상철, 김영숙, 김한나, Julie Snyder, 손선배, 이강필, 장현숙 안수 강경희, Micki Bacher, 박기춘, 정귀달, 정진기, 조윤영 안수 김동환, 조순래, 최희숙 안수 김유철, 박영철, 신경자, 정영선, 정진수, 진동호 안수 김명철, 김영순, 심병희, 이점례
집사회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회장 조요윤, 총무 김영경, 회계 김현, 봉사 안성국, 구제 이일성, 친교 변성구, 출판 이경희 회장 김현, 총무 김내도, 서기 박춘지, 회계 김경애, 봉사 박병덕, 구제 김계숙, 친교 강성유, 한기훈, 출판 백린, 한기훈 회장 김내도, 총무 정귀영, 서기 송미자, 회계 최송자, 봉사 강성유, 구제 박춘지, 친교 원덕수, 출판 김현구 회장 김경애, 총무 김현구, 서기 이경희, 회계 최송자, 봉사 강길원, 구제 송미자, 친교 이재환, 출판 정귀영 회장 강길원, 총무 김현구, 서기 김형범, 회계 최송자, 봉사 이우조, 구제 박춘지, 친교 이재환, 출판 김한나 회장 김현구, 총무 김형범, 서기 김계숙, 회계 최송자, 봉사 손선배, 구제 Julie Snyder, 친교 강상철, 출판 정진기 회장 김형범, 총무 박기춘, 서기 김한나, 회계 김계숙, 봉사 손선배, 구제 Julie Snyder, 친교 강상철, 출판 정진기 회장 이우조, 총무 이경희, 회계 김계숙, 봉사 진동호, 구제 정영선, 친교 강상철, 한기훈, 출판 박영철 회장 정귀영, 총무 김명철, 회계 한기훈, 봉사 손선배, 구제 최송자, 친교 정진수, 출판 박기춘
2세영어 예배부	1989-1991 1991 1991-1992 1993-1994 1994	담당 교역자 김종대 목사 담당 장로 한승희, 이일영 담당 교역자 전회원 전도사 담당 교역자 김종일 목사 담당 교역자 이재원/신승희(John/Sara Lee) 부부전도사
선교위원회	1988 1993	한승희, 조준호, 박춘지, 황광서, 한기훈, 강길원, 김남수, 신동욱, 손선배, 김영경, 이일영/강길원(당회원), 정영선(집사회), 강상철(영어예배부 및 중고등부), 김경애/홍경자(여선교회), 주희성/김석원(청년회)
예배예술위원회	1989	위원장 김문소, 성가대장 한승희, 성가대 지휘 변화경, 총무 변성구, 방송실 김문기, 안궁환, 한기훈, 예배위원 김내도, 김형범, 문영도, 박관희

성가대	1987-1988	지휘 변화경, 성가대장 한승희, 반주자 이미혜(1982-1988), 이성심(1988-1989) 소프라노: 곽현주(독창자 1990-1991, 7), 김경애, 김향숙, 박현주, 박춘지, 송미자, 이양자, 이재숙(독창자1985-1987), 차경희 알토: 김계숙, 김한나, 김혜숙, 이금자, 조순래, 조윤영, 최인주 테너: 김동환, 김익환, 김현구, 노효성, 원덕수, 한승희 베이스: 김내도, 김문소, 변성구, 변용구, 이일영, 이정일, 조준호
	1993-1994	지휘 변화경, 성가대장 한승희, 반주자 백혜선(1989-1994), 주희성 (1994-2002) 소프라노: 김경애, 박춘지, 이경희, 정영선, 조유미(독창자 1991.9 - 현재) 알토: 김하진, 김한나, 박현정, 조순래, 조윤영 테너: 유태우, 한승희 베이스: 박기남, 박원종, 백형준, 변성구, 변용구, 정진수, 조준호, 황대진
현악앙상블	1990	김수현, 김윤희, 배수희, 현대경
주일학교	1987	담당 교역자 박전홍 전도사, 교사 강경희, 강상철, 황상민, 김순미, 김혜숙, 오정은, 우성연, 김부소, James Kim, 채미혜, Albert Kang
	1988	교장 김정선, 교사 김영순, 김순미, 채미혜, Irene Kim, Angela Lee, 우성연, Norman Choe, 강경희, 강상철, 차주연
	1989	교장 김정선, 교사 강경희, 강상철, 김순미, 김영순, 이주원, 조미미, 채미혜
	1990-1991	담당 교역자 전희원 전도사, 교장 김정선, 교사 강경희, 강상철, 김순미, 김영순, 이주원, 조미미, 채미혜
	1992	교장 김정선, 교감 강경희, 총무 조윤영, 회계 이해승 교사 정진수, Jullian Byun, Naki Chung, Becky Kim, 학부형회 회장 김한나
1993-1994	담당 교역자 정성욱 전도사, 반주자 최인주	
중고등부	1988	담당 교역자 길명수 목사(Bob Klein) 교사 최재원, Julie Snyder, 이욱, 진동호
	1989	담당 교역자 김종대 목사 교사 김혁(Roy Kim), Julie Snyder, 선우 Mike, 진동호, 차주연, 최재원(James Choi),
	1990	담당 교역자 김종범 전도사
	1990	담당 제직 Julie Snyder, 임시담당교역자 이철 전도사
	1991	담당 교역자 김준식 전도사
	1992	담당 교역자 이은주 전도사 교사 강상철, 김계숙, Thomas Park, Eugene Bae
1994-1998	담당 교역자 김승호(Samuel Kim) 전도사	
보스톤한인 학교	1988	교장 김정선, 교사 김정선, 김현, 송재욱, 송현훈, 정귀영, 차주연, 채미혜 후원회 채위(이사장), 김계숙, 김현, 백린, 이강필, 이일영
	1989	교장 김정선, 교무 이강필, 교사 김영순, 김정선, 송재욱, 이봉래, 염명혜, 채미혜, 황광서, 이사장 백린, 이사 김내도, 김경애, 이강필, 이일영 간사 김현
	1990	교장 김정선, 교사 강영숙, 김영순, 김정선, 송재욱, 염명혜, 채미혜 이사장 백린, 이사 김경애, 김내도, 김현, 이강필, 이일영, 학부형회 선우욱, 송미자
	1992	교장 김정선, 교감 김미선

대학/청년부	1989	담당교역자 전희원 전도사, 회장 진동호, 부회장 백혜선, 회계 김혜숙, 서기 김순미	
	1990	담당교역자 이철 전도사, 회장 손동우, 부회장 전필립, 서기 송석철, 회계 이점례, 고문 변성구, 조준호	
	1992	담당교역자 이철 전도사, 회장 한상원, 부회장 김석원, 주희성, 총무 주재신, 회계 유지영, 서기 장윤희	
	1993	담당교역자 이철 전도사, 청년1부 회장 주재진, 부회장 송대진, 김유경, 총무 한진섭, 서기 나천주, 회계 옥주영 청년2부 회장 이점례, 부회장 설영숙, 고문 변화경, 변성구	
1994	담당교역자 이철 전도사, 고문 최연일		
성인성경 공부	1988-1989	안재웅 전도사	
	1990	전희원 전도사	
	1992	채위 목사	
	1994	김종일 목사	
여선교회	1987	회장 신동욱	
	1988	회장 김경애, 부회장 김계숙, 총무 최인주, 서기 조순래, 회계 전희, 친교 송미자, 봉사 오영환, 임규정, 영아 최재희, 선교 신동욱, 문화 이경희	
	1989	회장 김계숙, 부회장 이경희, 총무 선우욱, 서기 조순래, 회계 전희, 문화 김종희, 친교 조윤영 최인주 최재희, 봉사 최송자 한영희, 영아 김한나, 선교 박기춘 이점례,	
	1990	회장 이경희, 부회장 박춘지, 총무 Micki Bacher, 회계 전희, 서기 조순래, 친선 오영환, 장현숙, 봉사 신동욱, 이계순, 이은순, 최인주, 문화 최희숙, 선교 김한나, 영아 심경화, 고문 나시욱, 박기춘, 백은숙, 이상구, 이선덕	
	1991	회장 박춘지, 부회장 송미자, 총무 김영순, Micki Bacher, 서기 조순래, 회계 강경희, 친선 강영자, 봉사 이은순, 선교 김한나, 문화 김영숙, 영아 심경화, 전희	
	1992	회장 송미자, 부회장 장현숙, 총무 김영순, 서기 이해승, 봉사 홍경자, 유길준, 윤송희, 친선 김한나, 문화 염명혜, 선교 김경애	
	1993	회장 장현숙, 부회장 김한나, 총무 조윤영, 서기 이해승, 회계 김계숙, 봉사 심병희, 조순래, 친선 박춘지, 최승주, 문화 유길준, 한영희, 선교 김경애, 홍경자,	
	1994	고문 이경희, 김갑성, 이상구, 이일영 회장 박기춘	
	구역장	1988-1989	가나안 김갑성, 갈릴리 김문소, 다락방 이일영, 로고스 김성빈, 아가페 한승희, 벨엘 최연일
		1991	가나안 김갑성, 갈릴리 강성유, 다락방 조준호, 로고스 김성빈, 벨엘 이일영, 아가페 김영경
1992		가나안 김갑성, 갈릴리 김문소, 다락방 조준호, 로고스 김성빈, 베다니 한승희, 벨엘 이일영, 아가페 김영경	
보스톤노회/Synod	1990	Synod 노회 대표 김창신 노회 Elder Commissioner at Large 김내도 총회 노회 대표 채위 목사	
교회건물 관리위원회	1989	교회건물증축계획위 김창신, 김성빈, 이일영, 한승희	
	1991	건물관리위 김문소, 김성빈, 김정선, 김창신, 이일영, 한승희	

공천위원회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조준호, 강길원, 김현, 이일영, 이재숙, 원덕수 김성빈, 김내도, 문영도, 이우조, 임영혁, 최연일 김갑성, 김문소, 김경애, 선우옥, 손선배, 최희숙, 송현훈 김영경, 김현, 강길원, 안금환, 한영희, 최인주, 김동환 김창신, 백린, 백혜선, 심병희, 이우조, 장현숙, 한영희 최연일, 한승희, 김형범, 강영자, 김유철, 이혜승, 심경화 김창신, 백린, 백혜선, 심병희, 이우조, 장현숙, 김문소, 김형범, 오승현, 백형준, 이점례, 정귀영
청빙위원회	1992 1994	부목사 청빙위원장 이일영 위원 김문소, 변화경, 강상철, 김경애, 조순래, Edward Im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김성빈, 부위원장 최연일, 위원 강상철, 김경애, 김석원, 김원종, 백은숙, 변화경, 이점례,
재정감사	1992	김현, 이강필
교회사무 행정	1985-1994 1995-2007	조윤영 윤경문 전도사

■ 제직 명단 1987-1995

1987	당회원(9명): 김갑성, 김문소, 김성빈, 김창신, 변화경, 이일영, 조준호, 최연일, 한승희 권사: 성덕춘 집사(16명): 강성유, 김경애, 김계숙, 김삼영, 김현, 박병덕, 박연교, 백 린, 백은숙, 안성국, 이경희, 이상구, 정귀영, 최송자, 한기훈, 한명덕 총 제직인원 26명: 장로 9명, 권사 1명, 집사 16명
1988	당회원(11명): 김갑성, 김창신, 김문소, 김성빈, 최연일, 이일영, 한승희, 변화경, 조준호, 김 현, 김영경 권사(2명): 성덕춘, 김남수 집사 1991년조(10명): 김경애, 박병덕, 정귀영, 최송자, 한기훈, 김현구, 변용구, 신동옥, 원덕수, 김형범 1990년조(8명): 강길원, 강성유, 김계숙, 박연교, 백 린, 백은숙, 이경희, 이상구, 1989년조(7명): 김내도, 박춘지, 변성구, 송미자, 조요윤, 최선경, 노효성 총 제직인원 38명: 장로 11명, 권사 2명, 집사 25명
1989	당회원 1992년조(4명): 변화경, 이일영, 조준호, 김정선 1991년조(4명): 김문소, 김창신, 최연일, 김 현 1990년조(4명): 김갑성, 김성빈, 한승희, 김영경 권사 성덕춘, 김남수 집사 1992년조(11명): 김내도, 박춘지, 변성구, 송미자, 조요윤, 최선경, 김문기, 나시옥, 이우조, 이재환, 황광서 1991년조(10명): 김경애, 박병덕, 정귀영, 최송자, 한기훈, 문영도, 김형범, 원덕수, 김현구, 신동옥 1990년조(8명): 강성유, 김계숙, 박연교, 백 린, 백은숙, 이경희, 이상구, 강길원 총 제직인원 43명: 장로 12명, 권사 2명, 집사 29명

1990	당회원 1993년조(3명): 김내도, 김영경, 백린 1992년조(4명): 김정선, 변화경, 이일영, 조준호 1991년조(4명): 김문소, 김창신, 김 현, 최연일 1990년 휴무(3명): 김갑성, 김성빈, 한승희 권사: 김남수, 박연교, 백은숙, 성덕춘, 이상구 집사 1993년조(8명): 강길원, 강상철, 김영숙, 김하나, 손선배, 이강필, 장현숙, Julie Snyder 1992년조(9명): 나시옥, 박춘지, 변성구, 송미자, 이우조, 이재환, 조요윤, 최선경, 황광서 1991년조(10명): 김경애, 김현구, 김형범, 문영도, 박병덕, 신동옥, 원덕수, 정귀영, 최송자, 한기훈 1990년 휴무(3명): 이경희, 강성유, 김계숙 총 제직인원 49명: 장로 14명(휴무장로 3명 포함), 권사 5명, 집사 30명
1991	당회원 1994년조(4명): 김갑성, 김성빈, 김 현, 한승희 1993년조(4명): 김내도, 김영경, 백린, 조요윤 1992년조(3명): 김정선, 변화경, 조준호 1991년 휴무(4명): 김문소, 김창신, 이일영, 최연일 권사 (7명): 나시옥, 박연교, 백은숙, 성덕춘, 신좌경, 이상구, 최선경 집사 1994년조(11명): 김현구, 김형범, 문영도, 신동옥, 이경희, 강성유, 김계숙, 원덕수, Micki Bacher, 박기춘, 조윤영 1993년조(8명): 강길원, 강상철, 김영숙, 김하나, 손선배, 이강필, 장현숙, Julie Snyder 1992년조(8명): 강경희, 박춘지, 변성구, 송미자, 이우조, 이재환, 정진기, 정귀달 1991년 휴무(5명): 김경애, 박병덕, 정귀영, 최송자, 한기훈 총 제직인원 54명: 장로 15명(휴무장로 4명 포함), 권사 7명, 집사 32명
1992	당회원 1995년조(5명): 김문소, 김정선, 김창신, 이일영, 최연일 1994년조(4명): 김갑성, 김성빈, 김 현, 한승희 1993년조(4명): 김내도, 김영경, 백 린, 조요윤 1992년 휴무(2명): 변화경, 조준호 권사(7명): 나시옥, 박연교, 백은숙, 성덕춘, 신좌경, 이상구, 최선경 집사 1995년조(13명): 강경희, 김경애, 김동환, 박병덕, 이우조, 이재환, 정귀달, 정귀영, 정진기, 조순래, 최송자, 최희숙, 한기훈 1994년조(11명): 강성유, 김계숙, 김현구, 김형범, 문영도, 박기춘, Micki Bacher, 신동옥, 원덕수, 이경희, 조윤영 1993년조(8명): 강길원, 강상철, 김영숙, 김하나, 손선배, 이강필, 장현숙, Julie Snyder 1992년 휴무(3명): 박춘지, 변성구, 송미자 총 제직인원 57명: 장로 15명(휴무장로 4명 포함), 권사 7명, 집사 35명
1993	당회원 1996년조(5명): 강길원, 김형범, 백 린, 변화경, 조준호 1995년조(5명): 김문소, 김정선, 김창신, 이일영, 최연일 1994년조(4명): 김갑성, 김성빈, 김 현, 한승희 1993년 휴무(3명): 김내도, 김영경, 조요윤 권사(7명): 나시옥, 박연교, 백은숙, 성덕춘, 신좌경, 이상구, 최선경 집사 1996년조(13명): 강상철, 김영숙, 김유철, 김하나, 박춘지, 변성구, 손선배, 송미자, 신경자, 이강필, 장현숙, 정진수, 진동호 1995년조(13명): 강경희, 김경애, 김동환, 박병덕, 이우조, 이재환, 정귀달, 정귀영, 정진기, 조순래, 최송자, 최희숙, 한기훈 1994년조(10명): 강성유, 김계숙, 문영도, 박영철, 신동옥, 이경희, 정영선, 원덕수, 박기춘, 조윤영 총 제직인원 60명: 장로 17명 (휴무장로 3명 포함), 권사 7명, 집사 36명

1994	<p>당회원 1997년조(5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조요윤, 한승희 1996년조(5명): 강길원, 김형범, 백 린, 변화경, 조준호 1995년도(3명): 김문소, 이일영, 최연일 1994년 휴무(5명): 김내도, 김성빈, 김정선, 김창신, 김현</p> <p>권사(8명): 나시옥, 박연교, 백은숙, 성덕춘, 신경자, 신좌경, 이상구, 최선경</p> <p>집사 1997년조(9명): 김명철, 김영순, 박기춘, 벽영철, 심병희, 이경희, 이점례, 정영선, 조윤영 1996년조(12명): 강상철, 김영숙, 김유철, 김한나, 박춘지, 변성구, 손선배, 송미자, 이강필, 장현숙, 정진수, 진동호 1995년조(12명): 강경희, 김경애, 박병덕, 변용구, 이우조, 이재환, 정귀달, 정귀영, 조순래, 최송자, 최희숙, 한기훈 1994년 휴무(4명): 김계숙, 문영도, 신동욱, 원덕수</p> <p>총 제직인원 63명: 장로 18명(휴무장로 5명 포함), 권사 8명, 집사 37명(휴무집사 4명 포함)</p>
------	---